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21-02

연구보고 07-R12-1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책임연구원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김은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손승영(동덕여자대학교 · 교수)
함인희(이화여자대학교 · 교수)
최연혁(남스톡홀름대학교 · 교수)
Bahira Sherif(텔라웨어대학교 · 교수)
Gudrun Quenzel(Institut für Soziologie
Universität Duisburg-Essen · 교수)
Yasuaki Aota(Keio University)

연구보조원 : 신정민(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안혜원(숙명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이소화(숙명여자대학교 석사과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7-21-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부모자녀 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7-21-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동덕 여대, 이화여대, 델라웨어대 학, 뒤스브르크에센대학, 게 이오대학, 남스톡홀름대학
07-21-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델라 웨어대학, 뒤스브르크에센대 학, 게이오대학, 남스톡홀름 대학
07-21-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델라 웨어대학, 뒤스브르크에센대 학, 게이오대학, 남스톡홀름 대학
07-21-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슬 로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은정 연구위원	민경석(세종대학교, 전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게이오 대학교 (일본)	Hideki Watanabe 교수	Shigeki Matsuda (다이이치세메 경제연구소) 배지혜 (게이오 대학) Yasuaki Aota(게이오 대학) Masayuki Ozawa(게이오대학)
	델라웨어 대학교(미국)	Bahira Sherif Trask 교수	Melina McConatha Rosle (델라웨어대학) Bethany Willis Hepp (델라웨어대학)
	뒤스브르크에센대학교 (독일)	Gudrun Quenzel 박사	Michaela Janotta (뒤스브르크에센대학) Janina Herrmann (뒤스브르크에센대학)
	남스톡홀름대학교 (스웨덴)	최연혁 교수	Peter Strandbrink (남스톡홀름 대학)
	오슬로 대학교 (노르웨이)	박노자(Tikonov) 교수	고미숙(연구공간 수유+너머) 나임윤경(연세대학교) 권인숙(명지대학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2007년에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등 5개국에 대한 면접조사를 기초로 이루어짐. 각국 조사는 공통의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기초로 각국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변형한 된 질문지와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음. 조사내용은 크게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및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됨.
- 5개국 면접조사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각국 청소년들의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의 특징을 밝히고, 사회화과정 상 한국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연구결과

- 한국의 청소년들은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성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친구관계 형성에 성적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나라에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은 친구관계에서 중요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도구로 쓰이지만, 온라인 관계는 오프라인의 관계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음. 다양한 형태의 유저가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하여 의미있는 타자와의 관계와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간다는 공통점이 발견됨.

-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해 특히 부정적인데 이점에서 다른 나라의 부모들과 차이가 있음. 한국의 부모들은 그밖에도 자녀의 많은 부분에 간섭하고 관리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은 자녀들을 의존적으로 만듦. 이러한 경향도 다른 나라와 큰 차이를 보임.
- 한국의 부모들은 초등학교에서는 생활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점점 학업성취를 중요시하게 되고, 경쟁논리를 내면화시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부모들의 기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함. 반면, 미국, 독일, 스웨덴의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친밀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교사와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나 친구관계보다 덜 밀접한 것은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는 현상이고, 일본의 교사들도 학생들과의 관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한국의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관계는 물론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은 청소년들의 학교내 사회화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 마디로 한국의 교사는 사회화 주체로서 주변인의 입장에 놓여 있음. 그러나 몇 가지 사례들은 교사의 개입의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의 경우, 학교별로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을 지지하는 사회자본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학교부적응, 따돌림의 경험자와 학교밖 청소년들의 경우 도움 받을 지원 체계가 부족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개인적인 개입노력이 문제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부터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이 확인됨.

목 차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3
- 2. 연구방법 4

II. 한국청소년들의 학교사회화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 2. 조사개관 10
 - 1) 면접대상자의 특징 10
 - 2) 면접조사의 절차 12
 - 3) 자료의 분석 13
- 3. 분석결과 13
 - 1) 친구관계 : 일상생활 관련 13
 - 2) 친구관계 : 진로와 관련하여 27
- 4. 논의 30
 - 1) 학업·진로 관련 30
 - 2)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류 31
 - 3) 친구로부터의 영향 32
 - 4)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자녀 간 견해 차이 33

III. 한국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사회화

- 1. 선행연구 검토 38
- 2. 연구 방법 40
- 3. 연구 결과 44
 - 1)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치 및 평가 44
 - 2) 부모-자녀 관계 57

3)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개입	71
4) 부모의 사회적 자본 및 연결망	74
4. 결론	78

IV. 사회화의 주체(Agent)로서 교사의 역할과 의미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85
2. 이론적 논의	86
1) “사회화 연구”의 위상과 한계: 개념의 모호성과 주변성	86
2) 교사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된 배경적 논의	90
3) 생애주기 관점에서 본 청소년기 이해와 사회화	98
3. 연구내용 및 방법	102
1) 연구내용	102
2) 연구방법	103
3) 질적 연구방법에 관한 논의: 사회 세계(social worlds)의 탐구 과정	104
4. 사회화의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과 의미 해석	107
1) 교사의 정체성	109
2) 사회화의 주체자로서 교사의 의미	112
3) 교사 역할의 한계: 학(부)모 관계로 인한 긴장과 갈등	120
4) 폐쇄적 조직문화와 교사 간 관계	126
5) 공교육 위기론에 대한 교사의 생각	134
5. 결론	138

V.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학교별 격차 · 부적응 · 집단따돌림

1. 연구의 목적	147
2. 연구내용 및 방법	148
3.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 : 문화자본의 풍요	149
4. 지방학교 학생들 : 문화자본의 빈곤	153

1) 특성화 고등학교 사례	153
2) 읍면지역 소인수 중학교 사례	154
5.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들 : 닫힌 경로	156
6. 학교부적응, 따돌림 : 수도권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과 한 중학생의 사례	157
7. 결론	160

VI. 미국 청소년의 가족, 또래 관계, 및 통신기술에 대한 인식

1. 서론	165
2. 연구문제와 이론적 지향	166
1) 연구문제	166
2) 이론적 지향	167
3. 연구 방법론	168
4. 선행연구	169
5. 연구 결과	192
1) 가족 관계의 중요성	193
2) 또래 관계의 진행	193
3) 청소년 사이에서 기술의 사용	194
4)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구성	194
5) 가족 영역	196
6) 또래 관계의 진행	210
7) 청소년 사이에서 기술의 사용	221
8) 연구결과의 함의	227
9) 결론	233

VII. 일본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사회화 - 수도권 면접조사 결과

1. 문제의 설정	239
2. 조사 방법과 대상	239
3. 청소년 「인터뷰 내용」	241

1) 친구·친한 친구의 정의	241
2) 친구와 학력	243
3) 친구 관계에 대해서	245
4) 집단따돌림의 경험	247
5) 부모의 존재	248
6) 교사의 존재	249
7) 인터넷·휴대전화	250
8) 사회적 모델	252
4. 부모의 「인터뷰 내용」	253
1) 친구·친한 친구의 정의	253
2) 아이들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255
3) 교사의 존재	258
4) 인터넷·휴대전화	259
5. 교사의 「인터뷰 내용」	260
1) 친구·친한 친구의 정의	260
2) 아이의 친구관계에 대해서	262
3) 인터넷·휴대전화	264
6. 정리	265

VIII. 독일 청소년들의 또래, 교사, 부모와의 관계 : 상호작용의 규칙과 협상의 과정

1. 연구의 목적	271
2. 방법론 : 근거 이론(Grounded theory)과 네트워크 분석	272
1) 질문지	272
2) 근거이론에 기초한 자료분석	273
3) 질적 네트워크 분석	274
4) 표본	277
3. 청소년의 또래, 교사, 부모와의 관계	277
1) 독일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것들	277

2) 장래에 대한 꿈과 계획	278
3) 부모와 가족	279
4) 교사와 학교	282
5) 또래와 친구	286
4.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수단	289
1) 미디어와 여가생활	289
2) 미디어와 사회	291
3) 잠재적 역할 모델로서의 유명인	292
5. 사회접촉의 의미와 구조 - 네트워크 분석	293
1) 접촉의 양과 사회그룹의 중요성	293
2) 접촉의 구조	294
3) 가족, 친구 그리고 학교에 대한 이미지	297
6. 결론	299
※ 부 록	
부록 1: 질문지 가이드라인	302
부록 2: 면접대상자 일람	305
부록 3: 네트워크 분석(선택된 가치 일람)	305

IX. 스웨덴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사회화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09
2. 조사개관	309
1) 조사과정	309
2) 면접대상자의 특징	312
3. 자료의 분석	313
1) 친구관계: 일상생활 관련	313
2) 친구관계: 진로와 관련하여	331
4. 논의	333
1) 학업 및 진로관련	333
2)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류	334

3) 친구로부터의 영향	334
4) 이성교제에 있어서의 특징	335
5) 친구 교제 관계의 형성과 의미	336

X. 요약 및 결론

1. 요약	341
2. 결론	343

XI. 부 록

면접조사를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	351
--------------------------	-----

표 목 차

<표 I-1> 각국 면접조사의 개요	5
<표 II-1> 면담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한국: 청소년)	10
<표 II-2> 면접대상자의 개별 인적 사항(한국: 청소년)	11
<표 III-1> 면접대상자의 개별 인적 사항(한국: 학부모)	42
<표 IV-1> 명문대 출신의 사회 요직 점유율(한국)	94
<표 IV-2> 생애주기별 사회화의 내용 및 주체	99
<표 IV-3> 사춘기 발달 과업 상의 특징 및 내용	101
<표 IV-4> 심층면접 대상자 개인적 배경(한국: 교사)	108
<표 IV-5>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 개인적 배경(한국: 교사)	109
<표 VI-1> 면접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미국)	194
<표 VII-1> 조사대상자 인적사항(일본)	240
<표 IX-1> 면담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인터뷰 장소구분(스웨덴)	311
<표 IX-2> 면담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312

그림 목 차

[그림 VIII-1] 네트워크 차트	275
[그림 VIII-2] Alexandra(16세)의 네트워크 차트	276
[그림 IX-1] 스톡홀름의 지역 구분	310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는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중 2년차인 2007년도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첫 해인 2006년에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6년 설문조사는 가족내 사회화과정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으며 2007년 설문조사는 친구관계와 학교생활을 포함한 교사와의 관계 등 학교 내 사회화과정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2007년에는 설문조사와 함께 5개국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2007년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이다.

면접조사는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단,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부모와 교사도 면접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각국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밝히고 외국의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사회화과정의 주요 기관(agents)인 부모, 교사, 친구 등 3자간의 관계성은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의 특징을 밝혀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관계성의 특징을 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의 결과는 2007년도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I」의 총괄보고서에서 2007년도 설문조사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 제시되었다.

2. 연구방법

면접조사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5개국에 대해 실시하였다. 각국의 조사와 한국의 학생, 부모, 교사 대상 면접조사 결과는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논문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조사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서울 지역거주 부모 36명, 교사 8명과 수도권(서울중심)거주 학생 56명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는 20명의 학생과 4명의 교사, 그리고 1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한국조사는 총 76명의 학생과 37명의 부모, 12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조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12명의 중고생과 5명의 부모, 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조사는 텔라웨어 지역 26명의 중등학생, 독일조사는 전국 16명의 중등학생, 스웨덴조사는 수도인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총 19명의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총 73명의 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면접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각국의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나 각국의 연구자들이 연구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한 내용들도 있다. 이는 2007년도 연구결과를 통해서 각국 연구로부터 나타나는 의미 있고 상이한 결과들을 분석하여 2008년도 면접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조사할 항목들을 생산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과 스웨덴 조사는 완전히 동일 질문지를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미국조사는 미디어 활용에 관한 내용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다. 일본과 독일 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되,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두 나라에서 사용한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각국의 보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각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표 I -1〉 각국 면접조사의 개요

국가명		표본수	표집범위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시기
한국 (1차)	부모	36	서울중심	면접조사	초중고학부모	5월~8월
	교사	11(+학생 3)	서울	면접조사	중등학교교사	5월~8월
	학생	56	전국(서울중심)	면접조사	중고생	5월~8월
한국 (2차)	부모	1	전국	면접조사	중학생부모	9월~10월
	교사	4	전국	면접조사	중고등학교교사	9월~10월
	학생	20	전국	면접조사	중고생	9월~10월
일본	부모	5	수도권	면접조사	중고등학생부모	8~10월
	교사	3	수도권	면접조사	중고등학교교사	8~10월
	학생	12	수도권	면접조사	중고생	8~10월
미국(학생)		26	텔라웨어	면접조사	중고생	6월~8월
스웨덴(학생)		19	스톡홀름	면접조사	중고생	9월~11월
독일(학생)		16	전국	면접조사	중고생	8월~10월

II. 한국청소년들의 학교사회화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조사개관
3. 분석결과
4. 논의

II. 한국청소년들의 학교사회화*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기에는 가족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또래 및 친구관계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친구 및 또래집단의 영향이 아동기에 비해 더욱 커지게 된다. 이 같은 또래와의 관계는 인터넷이나 지역사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학교’라는 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일반적이다. 즉 아동기에는 가족사회화 과정에 방점이 두어진다면, 청소년기에는 학교 사회화 과정이 보다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가족 내 부모에의 의존성에서 벗어나게 되고, 학교라는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에게 더 밀착·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즉 또래를 통한 사회화가 매우 큰 중요성을 띠게 된다.

친구 및 또래와의 관계에서 청소년들은 사회적인 관계를 배워 나가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가치를 느끼며, 대인관계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익히게 된다(조성남 외, 2002). 이러한 또래와의 교류와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인지·심리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사회화되어가고 있는지를 청소년들과의 면접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는 친구/또래관계를 맺어주는 사회관계의 장인 동시에, 학업성취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목적집단이다(이경아·정현희, 1999). 따라서 ‘학교’라는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맺는 관계 중에서 또래관계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전달하고 지도자와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사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된 반면, 상대적으로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

* 집필자 : 김은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가 ‘학업성취’라는 목적을 가지고 형성되는 사회집단인 만큼 그 안에서 청소년(학생)들의 성적과 인성을 평가하는 교사의 역할은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사회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교사와의 관계도 중요한 한 축으로 삼아 청소년들의 발달에 미치는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2. 조사개관

1) 면접대상자의 특징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자는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 56명이다. 면접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II-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1> 면담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배경변수	사례수	백분율 (유효 백분율임)
성별	남	22	39.3%
	여	34	60.1%
어머니의 교육수준	대학원졸	2	3.7%
	대졸	31	57.4%
	고졸	18	33.3%
	고졸미만	3	5.6%
학교급	중학교	36	64.3%
	고등학교	20	35.7%
학업성취	상	18	33.3%
	중	23	42.6%
	하	13	24.1%
지역	강남	10	17.8%
	강북	21	37.5%
	기타	25	44.7%

인터뷰 참여 청소년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은 학교급별로 중 1에서 고 3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따라서 학교 내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표집되어 면접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급 별로는 중학생 36명, 고등학생 20명(이중 실업계 6명)으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수가 표집 되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22명 여학생이 34명으로 여학생의 수가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한정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편의상 강남과 강북지역으로 나누어 표집하였다.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강동)은 13명, 강북지역은 21명이며 이 외 기타 지역(강서/강동/양천/구로구 등)도 포함하였다. 어머니 학력 별로는 무학 1명, 고등학교 졸 18명, 대학교 졸 31명, 대학원 졸 2명으로 대졸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가계의 소득수준도 질문하였으나, 이에 대해 무응답이 경우가 많아서 소득에 대한 빈도수를 따로 산출하지는 않았다.

다음의 <표 II-2>은 각 면접대상자의 인적 사항으로, 성별, 지역, 학교급, 어머니의 학력, 성적과 가구의 소득수준이 제시되어 있다.

<표 II-2> 면접대상자의 개별 인적 사항(한국: 청소년)

구분	이름	성별	지역	학교급	모학력	성적	소득
사례1	김성제	남	강북(동대문)	중교	대졸	상	중
사례2	김진웅	남	양천구(목동)	고교	대졸	상	중
사례3	전혜원	여	강남(압구정)	중교	대졸	중	
사례4	김정림	여	강북(아현동)	고교	고졸	중	중상
사례5	정재하	여	강북(아현동)	중교	고졸	하	
사례6	임진아	여	강북(아현동)	중교	고졸	상	
사례7	양현정	여	강북(도봉구)	고교	대졸	중	
사례8	김빛나	여	강북(동대문구)	중교	대졸	중	
사례9	김효빈	남	관악구	중교	대졸	중	
사례10	이상신	여	관악구	고교	대졸	하	
사례11	이찬희	남	강북(혜화동)	고교	대졸	하	

〈표 II-2〉 계속

구분	이름	성별	지역	학교급	모학력	성적	소득
사례12	임준목	남	강남(압구정)	중교	대졸	하	
사례13	최은호	남	구로구	고교	대졸	중	
사례14	황자영	여	강북(정릉)	고교(실업)	대졸	하	
사례15	고근영	여	강북(정릉)	고교(실업)	대졸	상	중하
사례16	김성민	남	구로구	중교	고졸	상	중
사례17	나승언	남	강북(혜화동)	고교	고졸	중	
사례18	방경언	여	강북(동대문구)	중교	고졸	중	
사례19	조석제	남	강남(압구정)	중교	대졸	상	
사례20	최한희	여	관악구	중교	대졸	상	
사례21	김동철	남	강남	중교		중	중
사례22	윤지민	여	신도시(평촌)	고교	고졸	중	중
사례23	김민수	남	강남	중교	대졸	상	중
사례24	강윤구	남	강남	중교	대졸	상	중
사례25	권주현	여	강남	중교	대졸	상	중
사례27	이수형	남	충남서산	고교	대졸	하	중

2) 면접조사의 절차

심층 면담은 2007년 7월에서 8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회 면담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진행되었다. 면접대상자의 섭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감독과 지도 하에서 면접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섭외할 때는 면접대상자의 인적사항, 즉 성별, 지역, 학교급, 어머니의 학력, 성적과 가구의 소득수준 등이 면접원이 섭외한 사례 내에서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한 명의 면접원 당 3-7명의 청소년들을 면접 하였다. 면접방식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또래관계와 교사관계에 대한 반구조화된 설문지 내용을 기초로 세부내용을 심화시키는 방법을 택하였다. 주요 질문으로는 면담대상자의 개인적 배경(성별, 지역, 학교급, 어머니의 학력, 성적과 가구의 소득수준), 일상생활과 관련한 친구관계에 대한 질문(친구를 사귀게 되는 곳, 친구를 사귄 때의 요건,

교우관계 장소/시간, 핸드폰/인터넷의 역할, 이성교제, 학교생활과 친구관계), 진로와 관련한 친구관계에 대한 질문(상급학교 진학과 친구관계, 친구로부터 받은 영향, 친구의 학력수준과 친구관계, 부모의 간섭 등), 교사와의 관계(존경하는 선생님, 싫어하는 선생님, 교사의 간섭, 교사와의 관계와 학교생활) 등에 관한 것이다.

면접의 내용은 면접대상자의 동의 하에 녹음을 하였다. 사정 상 녹음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면접자와 헤어진 후 곧바로 면접자의 기억에 의지하여 현장노트를 작성하여 대체하였다. 한편 녹취된 자료들은 본격적인 자료 분석에 앞서 모두 전사되었으며 면접 당시의 분위기나 피면접자들이 면접에 응하는 태도 및 비언어적 의사표현 방식, 기타 특기할만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장노트를 따로 작성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이 연구자료 분석의 목적은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또래관계와 교사관계가 청소년들을 사회화 시키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학교생활이나 학교적응 그리고 이러한 요인이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연구는 많이 나와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념적 틀을 기초로 하되, 이에 얽매이지 않고 대상자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전달하는 질적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학교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3. 분석결과

1) 친구관계 : 일상생활 관련

① 친구를 사귀게 되는 장소

먼저, 친구를 사귀게 되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청소년들

의 대답은 학교를 통해서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학교 다음에는 학원을 통해서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사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은 하루 중 상당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 따라서 장시간 머무르는 학교를 통해 친구를 만나고 사귀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바꾸어 생각해보면, 청소년들의 생활이 학교와 학업연마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구관계를 맺는 것도 공부를 하는 장소인 학교 또는 학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교회 등의 종교 단체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게 된다는 답변도 상당수 있었다.

② 친구의 요건

친구가 되는데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가, 즉 친구를 사귄 때 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맞추어 사귀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성격’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았다.

사례 5 : 친구니까 성격 뭐 성격이 안 맞으면 좀 그렇잖아요.

질문자 : 성격이란 어떤 걸 얘기해?

사례 5 : 이기적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만 알고 남은 모르고, 음. 그 정도만 아니면 괜찮은데.

사례 6 : 성격 이런 거요.

질문자 : 성격이란 뭘 얘기하는 거야?

사례 6 : 그니까 뭐 같이 놀면은 소심하거나 나기 주장이 강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하고 놀다보면 아무래도 자주 싸우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는 아이.

사례 7 : 성격이요.

질문자 : 성격이라면?

사례 7 : 저랑 가치관이나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여러 명이 비슷한 친구들하고 몰려서 다녀요.

사례11 : 성격이요.

질문자 : 성격이 뭔데?

사례11 : 활발하고.. 말 잘하고.

위에서 언급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마다 친구들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례 5, 6의 경우 성격이란 남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례 7의 경우에는 가치관이 유사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례 11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격 중에서 외향적인 경향을 지적하여 이야기 하였다. 이처럼 ‘성격’에 대한 의미를 각기 다르게 받아들이지만 청소년들은 친구들의 가정형편이나 외모보다는 인간성을 중심으로 교우관계를 맺어 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격 이외에 친구를 사귀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것은 ‘성적’이었다. 주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일수록 이러한 성향은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성적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것은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공부 잘 하는 애들 이랑 다니면 아무래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지 않겠나.” 등등으로 학업성취와 관련한 경쟁심을 드러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소년들의 생활범위에 이미 학업 관련 활동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친구를 선택하는 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교우관계를 맺는 시간/장소

교우 관계를 맺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주로 어디서/언제 만나고 노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서 ‘시험 끝나고 또는 공휴일이나 방학 때 주로 만나고 논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과하고 논다는 비율이 많은 것은 시험이 끝나고 난 후의 해방감과 관련이 있다. 또한 공휴일이나 방학 때는 따로 연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 만나야 하지만, 시험이 끝난 후에는 학교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어

디서 만나고 노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 시내 나가서 여기저기 쏘다니거나 쇼핑을 한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 친구들과 옷을 사러 간다든지 하는 쇼핑 관련 응답이 많았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공원이나 운동장에 가서 함께 운동을 한다는 답변이 많은 반면 친구들과 같이 쇼핑을 한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금지/제재되어 있는 장소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험 끝나고 아니면 공휴일에 같이 만나고.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운동장에 가서 놀거나 그래요. 친구들이 운동 좋아하는 애들이 몇 명 있으니까 개네들 따라서 농구도 하면서 놀고. 가끔 술집도 가고(고 1, 남).

이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친구들과 어울려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가는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는 자신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성인과 다름없이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끝나고 주말에... 카페 가서 놀죠. 그리고 남자애들이랑 노래방가구 밖에서 그냥 얘기하고 딱히 갈 데는 없는 거 같아요.

위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PC방, 노래방, 술집 등은 모두 성인들과 함께 공유해야 하는 공간이며, 청소년들끼리 활동을 해 나가면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다음의 인터뷰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야간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문자 : 방과 후나 휴일에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시간은 언제야?

사례15 : 학교 끝나고 계속. 집에 늦게 가더라도 계속 어울리는 편이구요.

질문자 : 대개 몇 시간 정도 느는 것 같애?

사례15 : 주말에는 대충 11시에서 12시쯤 나와서, 그 때부터 알바 끝
나고까지 놀면 9시에서 10시 정도니까 거의 12시간 가까이
노는 것..

질문자 : 방과 후에는?

사례15 : 방과 후에는 학교 끝나면 5시쯤? 5시쯤부터 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놀아요. 9시, 10시 쯤 들어 가구. 심할 경우에는
10시 넘어서 11시, 12시 되도록.

질문자 : 그럼 주로 뭐 하고 놀아?

사례15 : 저희요? 그냥 돌아다니거나 노래방가거나 아니면 막 그런
카페 같은데 가서 앉아 있거 나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많은 청소년들이 방과 후 시간에 적절한 지도 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부족을 해소
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청소년 놀이문화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
하며,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 정책입안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④ 핸드폰/인터넷의 역할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청소년들이 또래들과 상호 교류하는 방식이 달라
졌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핸드폰/인터넷은 어떠한 역할
을 하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우선 청소년들은 ‘빈번한 문자 사용’에 대해
서 언급하였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인터뷰 결과를 제시하였다.

질문자 :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데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어떤
역할을 해?

사례17 : 대화할 수 있는. 집안에서도 대화할 수 있는.

질문자 : 그럼 말을 더 많이 사용해? 문자를 더 많이 사용해?

사례17 : 문자

질문자 : 왜 문자를 더 많이 사용해?

사례17 : 그게 편한데. 통화하면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또

말로 하기 어려운 것도 있구. 닭살 돋는 얘기 같은 거-워,
 ‘우정 변치 말자’이런 거. 말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글로 쓰니까 말하는 것보다는 더 정리되고. 또 말로 하면
 나중에 말을 바꿀 수도 있는데, 문자는 증거가 딱 남으니까.
 문자로 하면 기록도 남고 문자가 증거라고 해야 하나?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말보다는 문자를 더 자주 사용하였고, 문자를 보다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친구들과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시간에 대면하고 있지 않아도 서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전화로 대화하는 것은 두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신을 표현하고 시간을 두어 답신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청소년이나 20대 초반 대학생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이어서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전화보다도 비용이 저렴하다는 사실도 청소년들의 문자사용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빈도도 높았으나 문자 사용 빈도에 비해서는 그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서 미니홈피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교우범위를 넓히는 작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 보았다.

질문자 : 사이를 통해서 애들이랑 연락하는데 그것이 학교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과도 교우관계를 넓힌다, 라고 생각해?

사례15 : 예, 엄청난데. 모르는 애들. 얼굴 한 번도 안 본 애들이랑도
 사이 같은 데서 서로 얘기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친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은 교우관계를 넓히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는 교회에서 직접 만나는 친구들 이외에 취미와 취향이 같은 또래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인터넷 상에서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교우관계의 질을 살펴보면 인터넷

넷을 통한 교류가 더 깊은 차원으로 발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질문자 : 채팅으로 어떤 내용을 주로 주고 받아?

사례17 : 쓸데 없는 이야기들...

질문자 :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들과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아? 메일이나 인터넷이랑 문자를 써서..

사례18 : 메일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 하고. 온라인은 그 쪽을, 그 점을 공통점으로 만나 갖고 얘기하는 거니가 할 얘기가 그거 밖에 없죠.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애에 대해서 모르니까 연예인 이야기만 하고. off line 친구는 있었던 일, 고민 거리 좀 이야기 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on line 친구와 off line 친구를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다. on line 친구는 취미와 취향이 맞아서 인터넷 상에서 이야기하는 상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자신의 고민거리라든지 내면의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상대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교류하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넓어진 교류관계가 반드시 심층적인 교우관계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청소년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on line 친구와 off line 친구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off line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은 흥미롭다.

질문자 : 그럼 혹시 미니홈피 이런 거 사용하는 편이야?

사례20 : 예. 싸이월드해요.

질문자 : 학교 친구들 싸이월드도 보고?

사례20 : 학교 친구들은 애가 어떤 앤지 대충 알잖아요. 그치만, 미니홈피에 그거 보면서 더 많이 알 수 있고, 몰랐던 거 더

알 수 있고 뭐 그러죠.

질문자 : 싸이월드를 하면서 새 친구를 사귀게 된 적 있어요?

사례39 : 그런 적은 없어요.

질문자 : 그런 적은 없고, 기존에 알던 친구데 평소에 잘 못 만나는
친구들하고 하는 거예요?

사례39 : 네.

위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기존의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서 인터넷을 수용하고 있었다. 정보화 세대인 그들은 그 이전 세대들이 물리적 공간 내에서 친구들과 교류했던 방식을 뛰어넘어 사이버 공간에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만의 교우관계는 심층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우므로, off line 친구들과의 교류에 사이버 공간을 접목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교우관계에서의 역할

교우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친구 관계 내에서 본인의 역할은? 리더 역/분위기 메이커 역/추종자 역 등 어느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은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만나는 친구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이 달라진다고 하는 집단이다.

사례 2 : 제가요? 이런 것도 아니구 저런 것도 아니에요. 가끔은 리더도 하고 가끔은 분위기 메이커도 하고 친구에 따라서 달라요.

질문자 : 왜 그렇게 되었어? 역할에 따라서 불만이 있지는 않니?

사례 2 : 진짜 하고 싶은 건 분위기 메이커가 하고 싶어요. 추종자일 때 불만족이에요. 가끔 하는데, 애들이 친구들이 잘난척한다든가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가끔 비위를 맞춰주잖아요. 그럴 때 기분이 상해요.

질문자 : 왜 맞춰주려고 하는 거야? 안 맞춰주면 어떻게 돼?

사례 2 : 안 맞춰주면 약간 멀어지잖아요, 거리가. 기껏 사귀었는데 멀어지고 싶지도 않고.

이들은 자신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 자신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타입의 청소년들이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불만족스럽기도 하지만, 친구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어느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고수하는 집단이 있다.

<추종자 역할>

저는 주로 추종자 역할을 해요. 그게 편하고요. (질문자 : 그치만 추종자 역할만 하는 것이 불만족스럽지 않아?). 아뇨.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리더 역할>

질문자 : 특별히 (리더 역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

사례10 : 애들이 말 안해서요. 그냥 제가 니네가 말 안하니까 내가 말할게. 어디 갈래? 이런 식으로.

질문자 : 그런 자기의 역할이 만족스러워? 아니면 다른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어?

사례10 : 친구들도 아예 말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친구들이 더 그냥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저만 뭐 먹을래? 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다른 친구들도 말해 줬으면... 아니라고 할 때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뭐할건데? 하면 계속 말을 안 하고. 그럼 제가 또 계속 말을 해야 되고.

질문자 : 그러면 맡고 싶은 역할이 있어? 누가 이끌어 줬으면 나는 좀 조용히 따라갔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왜 잘 노는 애

들이 있잖아. 잘 놀았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고
싶은 다른 역할은 없어?

사례10 : 아니요.

질문자 : 없어?

사례10 : 네.

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행동하는 청소년들로서 앞의 유형 1과 구분된다고 하겠다. 이들은 자기 역할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나 불만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행동양식과 관계 맺는 방식은 청소년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성인이 되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타인과 접촉할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형성시켜 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또래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맞는 행동을 찾아 나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다.

⑥ 이성교제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성을 만나고 교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귀기가 그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성 친구의 유무와 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성교제를 해 보았거나 지금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이성교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 6 : 사귀 적은 있었죠. 오래 사귀었던 친구가요. 한 1년 정도...
개 친구랑 제 친구랑 다 같은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하는 거 없구요. 아무래도 오래가니까 개네 부모님도 다 알고. 우리 부모님도 다 아서 가지구 한번 개 보자구.

질문자 : 반응이 다 편하네. 주로 함께 있을 때 뭐 했어?

사례 6 : 그냥요. 영화보거나 카페 같은데 가고.

질문자 :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었어?

사례 6 : 근데요. 남자친구 사귀면 성적이 안 오른다는 말 있는데요.

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험기간에는 서로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이성교제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이성을 사귄 때, 생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이성교제 자체가 성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은 부모가 괜히 걱정을 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사귀를 방해할까봐 우려해서라고 이야기 하였다. 동성친구들과의 사귀과는 달리 이성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신경을 쓰고 있으며, 청소년들도 부모들의 이러한 걱정과 간섭을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은 성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사례를 보도록 하자.

사례 8 : 사귀지 150일 정도...

질문자 : 150일? 부모님이 아셔?

사례 8 : 아뇨.

질문자 : 부모님이 혹시 알게 되시면... 이성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셔?

사례 8 : 성적만 좋다면 다 좋아요.

질문자 : 어. 성적만 좋다면?

사례 8 : 네.

동성과의 사귀과는 달리 이성교제에 부모들이 신경을 쓰는 것은 청소년들이 이성교제에 빠져 학업을 소홀히 할까 염려해서 그러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가 청소년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며, (“괜히 놀리는 것 같으면서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에 통제

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청소년들은 이성애에 대한 정보가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부모들이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를 보는 시각은 이전 세대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성교제 전반의 행동들에게 대해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교사와 부모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⑦ 친구로부터의 받은 영향

청소년들은 친구들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청소년들은 친구들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은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성격이 황당하게 바뀌었다거나 친구들과 함께 공유되는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분야에서 실력이 늘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사례39 : 친구들과 사귀면서 성격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질문자 : 성격이 어떤 식으로?

사례39 : 조금 조용한 편이었는데, 이제는 막 시끄럽고... (웃음)

질문자 : 좀 활동적으로 변한 것 같아?

사례39 : 네. 좀 자신감도 생기고.

사례55 : 친구들과하고 이야기하면서 게임 실력이 좀 느는 것 같고, 같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경쟁심도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추구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이처럼 청소년들은 친구들을 통해서 또래 학습(peer learning) 경험을 하게 된다. 부모들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을 자신의 또래들의 행동이나 가치관을 관찰하면서 모방하고 이를 통해 학습해나가는 것으로 이

는 또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많은 청소년들이 또래관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공부와 학업에 관련된 것이었다.

질문자 : 친구한테 영향 받은 게 있는 것 같아?

사례36 : 음. 친구끼리 모이면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공부
가. 떠들고만 싶고.

사례52 : 공부하면서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공부가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하면서도 대학, 아니... 친구랑 놀면서도
대학을 가려면 그건 솔직히 무리라고 생각해요. 시험기간
에는 시험공부만 하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날 거면 친구
들만 만나는 게 더 낫다고 느껴요.

질문자 : 그러면 네가 공부하는 데 친구관계가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사례52 : 예. 그래서 저는 시험기간에는 요. 친구한테 미리 얘기를
해요. 나 시험기간이니까 연락 못해도 이해해 달라고 그러
면 친구가 그걸 또 이해해주고, 자기 심심해도 저한테 연락
안하고 가끔 문자 한 개씩 와요.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면
서 문자 하나씩 하면서 시험 끝나고 만나자고 그러면서 서
로 그렇게 이해해 주면서 조금씩 그러면서 공부하자고 해
서, 다른 학교 가 있거든요. 지금 제일 친한 친구가 다른 학
교에 있어요. 그 친구가 제일 많이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러면
서 공부하는 거니까 서로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어요.

위의 사례 52는 친구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만,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친구관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사례가 된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친구들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뿐 아니라 자신도 관계

내에 있는 능동적인 역할 담당자로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또래 사회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⑧ 친구의 의미

청소년들에게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째로는 “생활을 공부, 취미활동, 가족관계, 친구관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어느 영역이 가장 중요한가?”, 그리고 둘째로는 “학교생활이 재미있는지, 재미있다면 무엇 때문에 재미있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공부’, ‘가족관계’, 그리고 ‘친구관계’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 중에서 ‘공부’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두고 있다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많았다.

질문자 : 생활을 공부나 공부외의 취미,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사례 8 : 공부.

질문자 :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

사례 8 : 엄마가요. 매일 하는 말이 친구 맨날 사귀어 봤자 커서요, 공부 못 하면은 다 모른 척 할 수 있다고요. 공부만 잘하라고.

질문자 :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

사례 8 : 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부’, ‘학업’이 청소년들의 생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자신의 장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친구관계’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도 중요하지만요.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건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머리 식힐 필요가 있고. 정말 고민이 있거나 엄마나 누구에게 말 못할 때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친구관계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과 행복은 공부로 인한 압력을 견뎌내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 친구를 통한 사회화과정은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심리발달을 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인 학교생활이 재미가 있는지, 재미 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친구들과의 교류’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질문자 : 학교생활은 어때? 전반적으로 행복해, 불행해?

사례 9 : (웃음) 시험기간에는 불행하구요. 그냥 전반적으로는 행복한 것 같아요.

질문자 :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행복하게 느끼는지?

사례 9 : 그냥 친구들과하고 어울리는게 좋은 것 같아요.

2) 친구관계 : 진로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생활에 있어서 학업 및 진로 관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청소년기 학업성취의 결과가 개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진로와 학업 관련 영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들의 진로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의미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으로 물론 가족을 들 수 있지만, 친구가 가지는 의미도 간과할 수 없다.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 및 친구관계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영역은 물론 전반적인 청소년기 발달과정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일상생활과 관련한 친구관계와는 별도로 진로와 관련한 친구관계를 알아보았다. 진로와 관련한 친구관계를 통해서 보고자 한 것은 ‘상급학교 진학과 친구관계’, ‘친구의 학력수준과 친구관계’등이며, 부모가 자녀들이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간섭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간섭’이라는 항목도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도록 하겠다.

① 상급학교 진학과 친구관계

상급학교 진학(또는 공부)과 친구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본인의 공부/진학 의욕이 친구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학년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한다거나 친구관계를 통해서 공부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는다고 답변한 경우가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은 중학교 2학년 학생과의 면접 결과이다.

사례 5 : 어떤 친구랑은 가고 싶은 데가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랑은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서로 도와주면서 공부하구 하면은 둘이 사이가 더 좋아지면서 잘 될 것 같아요. 공부도 잘 되고, 친구관계도 잘 되고.

질문자 : 혹시 대학가는 것에 대해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에 관해서 염려가 되는 건 없어?

사례 5 : 없는데.

질문자 : 혹시 시험보거나 그럴 때 애들이 놀자 그러거나 그래서 공부 못하고 그러는 건 없어?

사례 5 : 예, 오히려 도와줘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사례 5는 본인 자체가 공부에 대한 압력이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사례 5의 공부와 관련하여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청소년들의 학년이 높아질 수록 달라지게 된다. 다음은 고 1 학

생과의 면접 결과이다.

상급학교요? 저는 그게 친구관계에 따라서 상급학교에 진학할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만약에 너무 노는 애라든가 공부를 포기한 애라든가 그러면 개가 끌어 들이잖아요. 공부 안하게. 만약에 서울대 갈 실력인데, 지방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아예 안 사귀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상급학교(대학교)로 진학할 결심이 분명히 서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들 자신이 친구관계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구와의 사귀이 자신의 학업성취나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에서 누구를 친구에 포함시키고, 누구를 배제시키게 될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공부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다음의 사례를 보도록 하자.

진로에 관한 얘기는 어찌다 하는데요. 그런 건 서로한테 부담이 되고, 그런 거까지 잘 안하는데. 근데 또 공부하는 애들이랑 만나면은 하루 종일 얘기해요. 전 그런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질문자: 왜?) 애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주로 학원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영어를 같은 학원에서 시험 봐도 걔네들은 최고로 많이 나오고, 나는 좀 떨어지고 그러면 짜증나니까(중 3).

이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부를 잘 하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든 공부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하며, 이를 중요한 화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학업성적이 좀 뒤처지는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공부 잘 하는 친구들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업성적이 높고, 공부를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되며, 이는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 및 교류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친구의 학력수준과 친구관계

친구의 공부하는 수준이나 성적이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친구의 학업성취 수준에 의해 마음이 상하거나 걸린 적은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청소년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은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친구들 보다는 성적이 높은 친구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마음에 걸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자 : 친한 친구의 성적이 마음에 걸려본 적이 있어?

사례19 : 친한 친구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왔을 때는 제가 성적이 좀 상위권이니까 재도 상위권 반열에 오를 수도 있겠구나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아니면 공부 잘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계속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위로해주고 싶고, 충고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질문자 : 신경이 쓰이는 편이구나. 어떤 친구의 공부하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려?

사례18 : 공부 잘 하는 애요? 못하는 애요?

질문자 : 네가 마음에 걸려하는 친구, 어떤 친구야?

사례18 : 못 하는 애도 신경 쓰이는데, 전 잘 하는 애들 더 신경 쓰인다고 해야 하나? 질투라고 해야 되나? 뭔가 재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웃음). 이기고 싶다는...

4. 논의

1) 학업·진로 관련

면접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학업성취·공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들이 친구를 만나고 교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물어보았을 때, 학교와 학원이라는 대답의 빈도가 매우

높았다.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하루 중 상당 시간을 학업관련 장소인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게 되므로 학교를 통해 친구를 만나고 사귀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즉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와 학원에서 친구를 만나게 되므로, 또래관계의 교류에 있어서 학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고 하겠다.

또한 학업의 중요성은 청소년들이 누구와 친구가 되는가 하는 데에 있어서도 나타난다고 하겠다. 친구를 사귀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성적’이었는데, 주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일수록 이러한 성향은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성적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것은 학업성취와 관련한 경쟁심이라든지, 자신보다 공부를 잘 하는 친구를 통해서 공부 잘하는 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라든지 학업과 관련된 목적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소년들의 생활범위에 이미 학업 관련 활동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친구를 선택하는 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었는데, 자신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소년들 자신이 친구관계를 통제하고 있는 것도 관찰 할 수 있었다. 친구와의 사귀이 자신의 학업성취나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에서 누구를 친구에 포함시키고, 누구를 배제시키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공부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긍정적으로 이를 평가하면, 청소년들이 공부와 관련하여 자기 통제성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으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공부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매우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청소년들이 교우관계를 맺는데 학업성취 수준 등의 학업관련 사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2)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류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용은 교우관계를 넓히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는 교회에서 직접 만나는 친구들 이외에 취미와 취

향이 같은 또래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인터넷 상에서 마련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교우관계의 질을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더 깊은 차원으로 발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터넷을 통한 사립과 대화가 심층적이지 않고, 피상적이며, 감정을 토대로 한 것이기 보다는 정보교환 등 기능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은 교우관계를 넓히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의 비중이 off line 만큼 큰 것은 아니며, 단지 off line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조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on line 친구와 off line 친구를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on line 친구는 취미와 취향이 맞아서 인터넷 상에서 이야기하는 상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자신의 고민거리라든지 내면의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상대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교류하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넓어진 교류관계가 반드시 심층적인 교우관계를 보장해주지는 않았다.

인터넷의 제한된 성격과는 달리 핸드폰의 문자사용은 그 비중이 훨씬 크다고 하겠다. 청소년들은 전화를 통한 대화보다는 전화의 한 기능인 문자를 보다 자주 사용한다고 대답하였다. 직접적인 통화보다 문자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친구들과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시간에 대면/대기하고 있지 않아도 서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우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전화로 대화하는 것은 두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신을 표현하고 시간을 두어 답신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학업/학원 등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이기 때문에 이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전화에 비교해서 비용이 저렴하다는 사실도 청소년들의 문자사용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친구로부터의 영향

청소년들은 친구들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청소년들은 친구들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서 언급하였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은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성격이 황당하게 바뀌었다거나 친구들과 함께 공유되는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분야에서 실력이 늘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친구들을 통해서 또래 학습(peer learning) 경험을 하게 된다. 부모들이나 선생님께서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을 자신의 또래들의 행동이나 가치관을 관찰하면서 모방하고 이를 통해 학습해나가는 것으로 이는 또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자녀 간 견해 차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성을 만나고 교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귀이 그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성 친구의 유무와 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성교제를 해 보았거나 지금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이성교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성교제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이성을 사귄 때, 생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이성교제 자체가 성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은 부모가 괜히 걱정을 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사귀를 방해할까봐 우려해서라고 이야기 하였다. 동성친구들과의 사귀과는 달리 이성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신경을 쓰고 있으며, 청소년들도 부모들의 이러한 걱정과 간섭을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성과의 사귀과는 달리 이성교제에 부모들이 신경을 쓰는 것은 청소년들이 이성교제에 빠져 학업을 소홀히 할까 염려해서 그러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가 청소년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며,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에 통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청소년들은 이성애에 대한 정보가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부모들이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를 보는 시각은 이전 세대의 그것

과 다름이 없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성교제 전반의 행동들에게 대해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교사와 부모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Ⅲ. 한국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사회화

1. 선행연구 검토
2. 연구 방법
3. 연구 결과
4. 결론

Ⅲ. 한국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사회화*

한국 사회에서 부모-자녀관계는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 따라 자녀 사회화 과정이나 내용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모의 자녀 사회화나 부모-자녀 관계의 구체적 측면에 대해 실제로 자세히 조사된 내용은 별로 없다. 막연하게 한국 부모의 교육열이 높다는 점을 들어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물질적 및 정서적인 지원자로 규정되고 있는 정도이다(조성숙, 1995; 손승영, 2002). 하지만 교육열 외에 일상에서 행해지는 관계 속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치는 무엇이며, 어떠한 바람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있는지, 부모의 자녀 생활에 대한 개입정도는 어떠한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등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기대치나 양육 태도에 대해 수용하는 편인지 또는 거부하는 편인지 등 부모-자녀 관계가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청소년 자녀와 부모세대간 의식이나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크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편이며, 입시중심의 교육제도에 대해 청소년들은 저항하는 편으로 대체적으로 지적되고 있다(이한, 2000). 이제는 보다 자세하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들여다 볼 목적으로, 물질적, 정서적, 심리적, 노동 측면으로 나누어서 어떤 부분에서 부모-자녀간 교류가 가장 활발하며,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공부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요구를 하는 입장에 있는지, 아니면 자녀의 눈치를 보면서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저자세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사회구조적 맥락과 가족문화를 고려하여서 부모-자

* 집필자 : 손승영(동덕여자대학교)

녀간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중요한 특성을 찾아냄으로써, 한국 가족에서의 자녀 사회화 내용의 특수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부모나 자녀에게 있어서 젠더 차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아버지의 자녀 사회화 방향과 어머니의 사회화 방향이 조화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갈등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계획이다. 셋째,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기대치가 달라지고 있는지, 아니면 상당히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젠더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분하고자 한다. 넷째, 자녀가 비교적 어릴 때인 초등학교 때와 비교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사회화 과정이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편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선행연구 검토

잉글하트는 지난 40년간 경제적 변영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해 온 한국이 세대간 가치관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43개국의 문화, 경제, 정치 변동에 대해 비교연구를 한 결과,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상대적으로 빠른 가치변화와 세대 격차가 남한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Inglehart, 1997). 이와 같이 발생한 세대격차는 최근 들어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로 변모하면서 격차가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대나 30대 젊은 어머니들은 인터넷이나 전자 메일과 익숙하지만, 청소년 자녀를 둔 40대와 50대 어머니들은 여전히 컴맹 수준으로 컴퓨터와 무관한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도현심, 2003).

이러한 세대격차는 현대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정서적 만족이라는 기대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과거에는 농사일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또는 노후보험과 같은 존재로 자녀는 부모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자식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기대치는 약화된 반면 정서적인 애착의 대상으로서 양육의 기쁨이나 자녀로부터의 존

경과 영향력 발휘 등의 기대 중심으로 자녀 출산에 의미를 부여한다(DeWitt, 1992). 그러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로 인한 기쁨과 보람을 만끽하지만 자녀가 커갈수록 원하는 수준의 정서적 유대를 얻기가 힘들다. 오늘날과 같은 소자녀 사회에서 자녀 양육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점점 더 많이 취업하는 현실에서 여성의 자아실현이나 커리어 쌓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이가 커감에 따라 아이의 취미나 관심이 다양해지고 생활세계가 넓어짐에 따라,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또래집단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부모와의 활동 또한 줄어들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교육열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고 대학에 반드시 가야한다는 의식이 강함에 따라 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여유 있는 시간을 갖기도 힘들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는 자아가 강해지고 사춘기를 맞아서 정신적인 방황도 커짐에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Steinberg & Silverberg, 1997). 특히 9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확장된 사교육시장에서 교육관리자로서 어머니 역할이 강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다(Park, 2006). 이 과정에서 자녀교육을 둘러싼 모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어머니 역할의 상당 부분이 자녀교육과 관련되어서 행해지고 있다(심영희, 1999; 윤택림, 1996). 일반적으로 양부모 가족이면서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 자녀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이 한부모 가족이나 맞벌이 가족에서보다 풍부한 것으로 나타난다(안우환·김경식, 2005). 가족 간 사회적 자본의 차이는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인간자본, 교육에 대한 관심 및 기대,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개입방식 등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다.

한국의 부모는 자녀를 사회화하는 데 있어서, 자녀 공부에 치우치다보니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있는 실정이다. 어머니들은 매일 매일 자녀를 위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녀를 위한 서비스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자녀가 부모를 위해 조금이라도 베풀다면 서비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이선이·김현주

· 이여봉, 2006).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사회화에 대한 내용이 일상적 차원에서 자세히 조사되지 못한 부분을 질적 조사를 통해서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선행연구의 조사결과를 확대해서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및 개입, 자녀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살펴봄과 동시에 보다 포괄적인 맥락에서 자녀사회화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청소년 자녀 사회화에 있어서의 내용과 방향, 기대, 개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과 상호작용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질적 연구임에 착안하여, 질적 연구방법의 일환인 ‘심층면접법(in-depth interview methods)’을 활용하여 학부모를 직접 만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수집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부모-자녀관계의 전반적 성격과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두 번째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개입의 정도와 개입 요인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자녀 사회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 전반에 대해 피면접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주도하는 편인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편인지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바람과 기대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부모와 자녀간의 실질적 관계에 있어서 물질적, 정서적, 노동 측면에서 상호 어떠한 교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물질적 측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지, 자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마련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정서적 측면에서는 자녀의 시간 관리를 부모가 하는 편인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은 무엇이며, 의사소통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노동 측면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많은 서비스를 하는 편인지, 자녀 스스로 집안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편인지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자녀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얼마나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해 개입의 정도와 내용을 질문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일상에 개입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부모가 주로 개입하리라고 여겨지는 공부 태도 및 사교육, 친구관계/이성교제, 정보교환, 소비문화, 시간활용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와 관련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연구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히 연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자녀 사회화과정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이는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사례 선정방법은 연구에 필요한 사례들의 윤곽을 미리 정한 다음, 그 기준에 적합한 사례들을 선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사례 선정을 위해서는 학부 학생과 대학원 학생들 8명의 도움을 받았다. 각 유형에 적합한 사례로 어떤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지 미리 목록을 만들어오게 한 다음, 보다 적합한 사례들을 최종 선정하였다.

사례 선정 시에는 자녀의 학년급별, 연령, 계층, 자녀의 성별, 부모의 성별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자녀의 학년급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가지) 자녀의 계층은 상, 중, 하 (3가지), 부모의 성별은 아버지, 어머니 (2가지)로 구분되고 자녀의 성별은 아들, 딸 (2가지)로 구분되어서 총 $3 \times 3 \times 2 \times 2 = 36$ 개의 사례를 포함시켰다. 그 결과,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 12명, 중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 12명,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 12명이 사례로 선정되었다.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 경우 상류층에서 4명, 중류층에서 4명, 하류층에서 4명이 심층면접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상류층 부모 중에서 2명이 어머니이고 2명은 아버지를 선정하였다. 2명의 어머니 중 1명은 아들을 둔 어머니이고, 다른 1명은 딸을 초등학생으로 둔 어머니가 대상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중학생 자녀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도 계층과 부모의 성별 및 자녀의 성별을 고려하여

각각 12명씩 선정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는 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이나 직장을 방문해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사례별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2시간 정도이다. 또한 주어진 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나 이-메일로 추가로 질문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례를 선정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표 I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36명의 부모 중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8명씩이다. 부모의 연령층은 30대가 8명, 40대가 23명, 50대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10명, 전문대 중퇴가 1명, 전문대졸이 2명, 대졸이 19명, 대학원 졸업이 3명이고 대학원 재학 중이 1명으로 과반수가 대졸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결혼 상태는 31명이 유배우자이며, 나머지 5명은 이혼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자녀만 선정하여서 부모-자녀관계를 조사한 결과, 조사에 포함된 자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각각 12명씩이며, 이중 아들과 딸이 반반씩이다. 거주 지역은 강남이 12명, 강북이 14명이고 수도권이 10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한국 : 학부모)

사례 번호	조사 대상	연령	학력	계6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자녀 학년	자녀 성별	거주 지역
1	어머니	41	대졸	상	치과의사	주부	초등6	딸	강남
2	어머니	38	대졸	상	의사	주부	초등1	아들	강남
3	아버지	32	대졸	상	부동산업	주부	초등6	딸	강남
4	아버지	43	대졸	상	자영업	주부	초등2	아들	강남
5	어머니	37	대졸	중	연구원	주부	초등1	딸	강북
6	어머니	39	대졸	중	CF감독	상담교사	초등3	아들	강북
7	아버지	41	대졸	중	레스토랑	대학강사	초등5	딸	강북
8	아버지	37	대졸	중	만화제작	만화제작	초등1	아들	강북
9	어머니	32	대졸	하	요리사	주부	초등1	딸	강남
10	어머니	47	전문대 중퇴	하	해당없음	일용직	초등6	아들	수도권
11	아버지	42	고졸	하	꽃집	꽃집	초등4	딸	수도권
13	어머니	45	전문대졸	상	약국경영	주부	중2	딸	수도권
14	어머니	40	대졸	상	회사임원	주부	중 3	아들	강남

15	아버지	51	대졸	상	무역회사	주부	중 1	딸	강남
16	아버지	46	고졸	상	사업	사업	중 2	아들	강북
17	어머니	41	고졸	중	사업	주부	중 3	딸	수도권
18	어머니	42	대졸	중	해당없음	자영업	중 3	아들	수도권
19	아버지	43	대졸	중	회사원	주부	중 2	딸	강북
20	아버지	52	대학원 졸	중	교수	주부	중 3	아들	강남
21	어머니	41	고졸	하	택배일	공장취업	중 2	딸	강북
22	어머니	39	대졸	하	주부	목사	중 2	아들	수도권
23	아버지	48	고졸	하	운전	공장취업	중 2	딸	강북
24	아버지	51	대학원 졸	하	직장선교	해당없음	중 2	아들	수도권
25	어머니	54	전문대 졸	상	회사원	자영업	고 2	딸	강북
26	어머니	45	고졸	상	자영업	자영업	고 1	아들	강남
27	아버지	49	대졸	상	임대업	학원경영	고 2	딸	강북
28	아버지	46	대학원 졸	상	교수	교사	고 3	아들	수도권
29	어머니	49	고졸	중	약사	주부	고 2	딸	강남
30	어머니	48	대학원 재학	중	교사	교사	고 3	아들	수도권
31	아버지	52	대졸	중	회사원	주부	고 1	딸	수도권
32	아버지	45	대졸	중	회사원	대학강사	고 1	아들	강남
33	어머니	40	고졸	하	무직	공장 취업	고 2	딸	강북
34	어머니	45	고졸	하	하급 공무원	주부	고 3	아들	강북
35	아버지	45	고졸	하	건어물상	건어물상	고 2	딸	강남
36	아버지	42	대졸	하	노점상	해당없음	고 2	아들	강북

3. 연구 결과

1)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치 및 평가

(1) 부모의 기대치와 경쟁사회 논리의 내면화

학부모에게 자녀로부터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부모들은 대부분 공부에 대한 기대치가 컸다. 초등학생 때는 공부하는 습관이나 절도 있는 생활태도를 중시하고 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인 학습태도보다는 성적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입시에 대한 준비로 대학입시가 초두의 관심사로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커진 반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바람은 비교적 포괄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건강하고 성격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모로서 바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바라는 것은 건강하고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적이나 심성이 착하면 더욱 좋겠지요(사례 7, 아버지, 초등자녀, 딸).”

“지금 현재로서는 공부가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아직 어리니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공부 잘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데, 정말로 요즘 너무나 행복한 게 우리 아이가 5학년부터는 공부도 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라서 첫째처럼 안달복달도 안하고 기대도 안했는데 기대하는 것보다 너무나 잘해 주고 있어요(사례 1, 어머니, 초등자녀, 딸).”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부모가 생활습관을 키워주는 데에 노력하는 경향이 고학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애 생활습관을 잡아주려고 엄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아라든지 자기 목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생활습관을 잡아주려고 노력해요. 체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고 나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사례 3, 아버지, 초등자녀, 딸).”

“어렸을 때부터 정리정돈을 잘 하더니 지금도 정리 정돈하는 건 잘 해요. 어려서 아줌마한테 먹은 그릇 가져다 드리고, 휴지통에 휴지나 과자봉지 넣고 하는 거 가르치고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게 습관이 된 거 같아요. 몇 번 정리하는 거나 쓰레기는 휴지통에 넣는 거 알려 주었더니 딱히 시키지 않아도 잘 하고 있네요(사례 5, 어머니, 초등자녀, 딸).”

그러다가 학년이 높아지고 고등학생이 되면 눈앞에 다가온 입시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되고 대학입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다.

“정직하고 착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하죠. 건강은 뭐 기본적인 것이고 부모가 챙겨주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지금으로써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좀 열심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1이니까 우선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되죠.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해놓아야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공부 좀 할걸 해도 그때는 시기를 놓치게 되잖아요. 1학년인데 지금은 공부에 대해서 기초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사례 26, 어머니, 고등자녀, 아들).”

“지금은 고등학생이니까 공부가 제일 중요하지요. 성격이 밝고 긍정적인 아이고 자아도 세서 나쁜 길로 갈 아이는 아닌데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관심이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는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제일 잘 해야죠. 공부 잘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게 제일 큰 바람이지요(사례 27, 아버지, 고등자녀, 딸)”

또한 자녀가 공부를 잘 할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악바리 근성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약아서 자기 것을 잘 챙기기를 희망하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도 인성중심의 교육에 대한 강조나 자녀의 취미나 적성을 고려한 행복한 삶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었다. 일단 학교에서의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며 이는 성적에서뿐만 아니라 교우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대된다. 친구에게도 너무 잘해주는 자녀는 그러다가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부모들은 자녀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좋은 태도에 대해서도 마냥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다.

“일단 공부와 관련해서 좀 경쟁심을 가지고 악바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학원에서 숙제를 내주면 반만 해가는 정도예요. 대충대충. 좀 그런 면에서 열심히 해주었으면 좋겠고 생활에 대한 부분도 좀 절도 있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원에도 좀 일찍 다니고 숙제도 좀 빨리하고요. 애가 밝은 것은 좋은데 너무 악바리 근성이 없어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지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또 치이지 않을까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요(사례 1, 어머니, 초등자녀, 딸).”

“우리 진미는 물질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해주었거든요. 어떠한 요구사항도 다 들어주고. 첫째는 아들이라서 엄격히 하고 매도 많이 들었는데 진미는 둘째인데다가 딸이어서 무엇이든 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모든 것이 오케이고 행복한 세상이지요. 그러다보니 아이가 경쟁심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 진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순수하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지요. 친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내색을 못하고 오히려 그 친구가 기분상할 것을 걱정하는 아이예요. 자기가 이용당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그걸 고쳤으면 하는 거지요. 진미 학교 친구들이 가정형평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 편이죠. 좀 아이들이 드세고 약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상처받을까봐 걱정이지요

(사례 13, 어머니, 중등자녀, 딸).”

“중학교 일 학년인데도 남을 너무 배려하다보니까 자기 스스로 챙겨야 할 것, 누려야 할 것을 조금 소홀히 하는 거 같아요. 또 상대방을 너무 의식하고 남을 너무 배려하다보면 자기한테 너무 소홀해질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자기를 먼저 챙기고 자기가 좋은 것도 표시하고 해야 할 텐데요(사례 15, 아버지, 중등자녀, 딸).”

(2) 소수의 부모가 제기한 교육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

하지만 다수의 부모가 경쟁사회의 논리를 내면화한 가운데 자녀에 대한 기대치나 바람을 드러낸 반면, 소수의 학부모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혼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한 어머니는 아이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밝게 자라고 예의도 바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해요. 앞으로 커가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환경에 비해서 아이가 밝게 잘 자라고 적응도 잘하고 이해심도 많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아이가 도덕성도 있고 질서가 바르니 자랑스럽죠(사례10, 어머니, 초등자녀, 아들).”

또한 경쟁사회적인 속성이 강해서 점수에 매달리는 학교 교육을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 한 학부모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정한 다음에 교육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맞는 교육을 찾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자녀가 원하는 목표를 찾고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된다면 금상첨화라고 여기고 있다. 교육의 목표 자체가 획일적이어서 도구적이고 기능적인 학생 양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다원화되고 성찰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부모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므로 부모 또한 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학부모도 있었다.

“참.. 애들이 안타까운데.. 어떤 부분이나 하면, 내가 방향성을 갖고 주체성을 갖고 창의성을 갖고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기본적인 교육이 아니라 기능위주로만 되어 있고 그런 교육에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 돼버리니까.. 선과 후가 바뀐 거 같아요. 수단이 되는 게 목표가 되고 목표가 되는 게 흐지부지 되어버리니까.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참 그게 어떻게 별 필요 없다고 할 순 없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애들이 너무 많은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부모도 그렇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목표가 정해지면 도구잖아요. 어떤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이것저것 강요하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거를 평가해버리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3, 아버지, 초등자녀, 딸).”

“병수가 하고 싶은 것이 새로운 학문에 대해 공부를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를 해서 새로운 직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사회분위기가 아이로서는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연구에 몰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조건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환경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꿈같은 이야기지만,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해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나 조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사례 30, 어머니, 고등자녀, 아들).”

“애 키우면서 즐거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느끼는 거는 애가 뭐든 일을 행복하게 생각하게끔 부모들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공부를 못하더라도 나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지요. 예전에는 내가 못했으니 너는 꼭 하라고 요구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지만 지금은 내가 이런 부분은 못했으니까 너는 그런 쪽으로 잘 되서 너의 스타일대로 가꿔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사례 8, 아버지, 초등자녀, 아들).

대부분의 부모가 경쟁사회의 논리를 수용하고 자녀가 그 제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두각을 나타내기를 희망하는 한편, 경쟁적인 한국 사회의 모습이나 학교제도와 운영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첫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맘껏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이들을 줄을 세워서 그 속에서 우열만을 가리는 풍토가 아니라 아이 하나하나가 지닌 장점을 파악하고 그 아이의 개별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북돋아주는 교육 여건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가 학교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러나 조직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인성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그에 맞춰서 전문적인 것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아이가 대한민국 교육에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요. 애 세대에겐 진정한 지구촌 시대가 열려 어디 가서 살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애가 비보이 춤을 2년 정도 배웠는데, 이것을 공연할 장소를 마련해주고 숙제도 내주고 싶어요. 네가 프로필을 작성해보고 솜씨 자랑을 맘껏 해보라고요. 스스로 계획 세우고 목표도 만들고 잘 이끌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요. 애는 공부 학원에는 안 다니는데, 아이들이 그걸 알고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학원에 안 다니는 아이는 아주 희귀한 거죠. 공부 학원은 안다니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있으니까요(사례 18, 어머니, 중등자녀, 아들).”

둘째, 우리의 교육은 전 과목 위주로 되어 있어서 만능인을 양산하는 것

이 목표인 것 같고, 사실 불가능한 것을 교육제도나 부모가 요구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달달 외는 방식으로 학교 성적 올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힘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 과목을 잘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한 부모는 지적하였다. 자녀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 풍토에 대해 비판적인 그 어머니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지니고 있는 재능 중에 개발할 여지가 있는 특성을 잘 발굴해서 키워줄 수 있는 교육제도를 찾아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기로 했다는 한 부모의 의미 있는 항변도 들을 수 있었다.

“지금같이 고등학교 때까지 전 과목을 다 잘하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요리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얼마나 특별하게 인재가 나올 수 있는 걸 다 둔재를 만들어 놓잖아요? 부모들도 애들이 오직 공부를 해주길 원하죠. 지금 같은 교육제도는 문제가 많아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아이를 올해 내로 미국에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유학 보내고 싶지 않아요. 목돈이 들어야 하고 또 얼마 산다고 헤어져 살겠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해도 교육내용이 써먹을 수 없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유학을 보내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대학에 가는데, 그래봤자 막말로 졸업하면 쓸 데가 없어요. 지식이랑 기술이 없잖아요(사례 25, 어머니, 고등자녀, 딸).”

셋째, 학교 교과서의 내용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아이들 수준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의존해서 이를 해결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수준을 제대로 맞춰서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도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유기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인이 과외교사를 하기 때문에 중등과정의 교과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자녀를 가르치기도 하는 이 부모는 교과서의 내용이나 수준을 정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교과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기재들이 개발되어서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책임 있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요즘은 교과과정이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게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중학생도 초등학생도 교과과정의 수준을 좀 낮춰서 아이들이 이해할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더욱이 학교가 너무 아이들을 학원에만 맡기고 교과과정을 충실하게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과외나 학원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교과과정을 선생님들이 성실하게 알려주셨는데 지금은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사례 22, 어머니, 중등자녀, 아들).”

(3)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평가 또한 공부 중심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공부를 잘 하는 쪽에 대부분 맞춰져 있는 관계로 아이가 부모의 바람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막연한 질문에도 대부분 공부나 학교생활을 염두에 두고 자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매우 평가가 높았고 부모로서의 프라이드가 대화 도중에 곳곳에서 배어나오고 있었다. 한 아버지는 아이의 인성이 중요하다고 짚막하게 얘기는 시작했지만, 곧 이어서 딸이 공부 잘 하는 것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또한 자녀가 공부습관이 잘 되어있어서 알아서 열심히 하거나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학부모들도 만나볼 수 있었다.

“저는 공부 잘 하는 것보다도 사람답고 성실하고 인간미 있는 사람 냄새나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못하더라도 성실하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요. 그런데 사실 애가 공부도 우수하고 모두 칭찬일색이에요. 영어랑 한자를 특히 잘 하는데, 한자는 내가 특별히 가르쳤어요. 앞으로 유라가 어른이 되어서 10년, 20년 후에는 중국이 급부상할 테니까요. 한문을 많이 알아야 우리 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가르쳤더니 시험만 쳤다하면 100점이고 완전 톱이에요. 게다가 한번 이것만큼은 해야겠다 싶으면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하더라고요. 문제를 하나 풀다가 막혔다 싶으면 풀릴 때까지 밥도 안

먹어요. 그런 점은 뭔가 하면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들죠(사례 11, 아버지, 초등자녀, 딸).”

“승현이는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해라해라 스트레스를 안 주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쁜거죠. 아이에게 주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어느 정도 배워서 돈이 있어야지만 직장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고 남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남과 함께 살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요(사례 16, 아버지, 중등자녀, 아들).”

“조금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춘기니까 헤이해지거나 방황하지 말고 엄마가 바라는 만큼 잘 했으면 좋겠네요(사례 21, 어머니, 중등자녀, 딸).”

반면, 열심히 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자녀의 생활습관이나 공부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또 학교생활에서 소극적이거나 아이가 자신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부모들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가 요구하는 많은 것을 잘 하는 방향으로 수용하지 않고 편식을 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하겠다는 자녀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다.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싫고 좋은 게 확실해서 조절하는 게 힘들어요. 싫어하는 거는 굉장히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을 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든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초등학생은 저학년 때에 시간이 있는 편이니까 예체능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싫어하는 거를 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트러블이 생기네요(사례 6, 어머니, 초등자녀, 아들).”

(4) 성별로 달리 나타나는 평가와 기대

이 조사에서는 성별을 사례선정 기준으로만 포함시켰을 뿐 질문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별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대화 내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들과 딸을 비교하거나 구분하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와서 남녀 차이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이나 평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여자 아이들이 더 악바리같이 공부를 잘한다는 의견들과 함께, 남자 아이들에 비해 자기가 할 일을 일찍부터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들을 들을 수 있었다.

“지금은 정말 여자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악바리 같이. 민영이 오빠가 중3인데, 중3에서 전교 10등 이내가 다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남학생들 학부모는 불만이 많아요. 원래 여자애들이 악바리고 학교에서도 평가가 여학생들한테 유리하니까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체육 같은 것도 여학생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예체능 합쳐서 전 과목을 평가하면 여학생들이 훨씬 이익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남학생 학부모는 남녀공학에 아들을 안 보내려고 해요. 지금 민영이 오빠네 반 여학생이 전교 일등인데 그 아이는 시험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구토까지 하면서 공부를 한 대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여학생들한테는 허용적이라는 거야. 시험 1점 전체 등수가 크게 좌우되는데... 만일 여자아이가 1점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면 선생님들이 그 녀석 참 야무지다고 하다가도 남학생이 그러면 귀사대기가 한 대 올라간다는 거야. 사내자식이 1점 가지고 그러냐고... 영미는 그렇게 악바리이지도 못하니 여자중학교보다는 남녀 공학에 보내는 것이 애한테도 나을 것 같아요(사례 1, 어머니, 초등자녀, 딸).”

“아직까진 딸 키우는 엄마하고 아들 키우는 엄마하고 좀 다른 게 딸들은 다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 정도면 사춘기를 끝내고 2학년이나 3학년부터는 자기 할 일을 정리해서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때 남자애들은 마냥 정리를 하거나 계획적으로 하는 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애들한테 간접하는 게 생기고 자꾸 개입하게 되더라고요. ‘이것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거 모자란다.’ 다 른 걸 하고 있으면 ‘그것보다 이것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등(사례 14, 어머니, 중등자녀, 아들).”

현실적으로 딸에 대한 능력 평가나 커리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여자아이들에 대해서는 전형적 성역할 중심의 상이한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딸은 얼굴이 예뻐야 하며 날씬해야 한다는 몇몇 부모의 의견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딸이 뚱뚱한 것에 대해 불만이어서 얼른 날씬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시한 부모들이 있었으며, 딸이 예쁜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사례나 사근사근하고 사교적인 성격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는 부모도 있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가족에서 아직도 남아선호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결과, 딸을 낳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그로 인해 딸과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사례도 있었다. 급속히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가부장적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사이에서 극명한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상이한 가족가치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딸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못해요. 서로가 좀 그래요. 왜냐 하면 우리 시대 쪽에서 너무 아들·아들 바라는 게 있었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좀 있었어요. 시댁 부모님이 아들 원하는 게 너무 크다 보니 내가 첫딸을 낳고 너무 실망한 기억이 있어요. 100% 사내아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어른들도 딸이 태어났다고 해도 믿지 않았어요. 아예 믿지 않으면서 장난치는 줄 알더라고요. 집이 기울면서 시댁에서 10개월을 함께 살았는데 최악이었어요.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도 있고. 아이가 두 둘 지나면서 급격히 나빠져서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애한테 그 영향이 많이 간 거 같아요. 사람이 안 그래야 하는데 딸한테 가더라고요. 풀 데가 없다보니까(사례 9, 어머니, 초등자녀, 딸).”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또한 성별로 약간 달리 나타났다. 다수의 부모들이 아들이나 딸에 상관없이 전문직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딸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안정성에 더 무게를 실고 있었으며, 한번 결정되면 무난하게 평생직을 가질 수 있는 교사나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흥미로운 것은 여자니까 집안일이나 하면서 가정주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전통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모는 단 한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딸의 세대에서는 여자도 평생직을 가져서 경제적으로도 자립함과 동시에 어떤 경우가 닥쳐도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 차이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여전히 ‘가문의 기대’라는 용어를 쓴다거나 아들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뛰어넘어서 보다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기를 바라는 등 딸과는 어느 정도 상이한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늦게 낳은 아들이라 가문의 기대가 있고,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신앙적인 기대가 있고 자라면서 누나들이 나름대로 잘 자라서 거기에 맞춰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목사님 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3이니까 그렇게 되려면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하죠. 공부가 중요해요. 요즘 아이들이 아쉬운 부분이 자기 인생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이 뭔가에 대한 현실인식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시장바닥에서 자란 악바리같이 눈치 빠르게 세상을 좀 빨리 알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하죠(사례20, 아버지, 중등자녀, 아들).”

“처음에는 요리사 쪽으로 생각하다가 요즘엔 이상한 거 이름도 못들어본 걸 하고 싶다고 그러던데……. 빠띠쉐? 그런데 내 생각은 선생님 쪽이에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편이지만 생활수준이 높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식만큼은 안정되고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으면 해요(사례 26, 어머니, 고등자녀, 아들).”

딸들에게도 전문직을 바라는 부모가 많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해서 전문직을 갖고 평생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안정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상당수였다. 아울러 딸은 너무 힘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들에 비해 안정성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 또한 파악된다. 그러면서도 딸이 자신이 선택한 직업 영역에서는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여성에 대한 기대치가 변화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뚝 부러지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서 전문직에서 뛰어나길 바라지요. 그러면서도 인간성도 좋고 인간관계를 잘 다져가면서 성공하기를 빌어요(사례 17, 어머니, 중등자녀, 딸).”

“자식이라고는 현아 하나니까, 나는 우리 현아가 엄마 곁을 떠나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전문직을 가진 커리어 우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현아가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개는 예체능에 뛰어난 것 같아서 정말로 힘들고 고난스러운 시간이 되겠지만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사례 21, 어머니, 중등자녀, 딸).”

“아들은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공부도 매우 잘하는 편이고 의사가 되기에는 좀 아까워요. 남자는 좀더 큰 세계와 교류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딸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빠처럼 치과 의사. 다른 의사는 힘들 것 같고. 지금같이 남성우월적인 세상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남성우월적인 세상이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세상에서는 여자들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예요. 치과의사가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지고도 일주일에 월급쟁이 한 달 월급정도 쉽게 버니까요. 여자는 너무 힘들게 살면 그렇잖아요? 자기 확실한 직업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은 되었으면 좋겠어요(사례 1, 어머니, 초등자녀, 딸)."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는 딸은 요리사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는 여경을 권하고 있는 사례이다. 과거에는 여성스러움이나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을 부모가 권장했다면, 지금은 변화하고 있는 여성의 역할을 반영하듯이 여경을 멋지게 평가함과 동시에 커리어 갖기의 필요성을 권장하고 있어서 여성 직업에 있어서의 선호도가 바뀌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딸이니까 좀 안정되게 나쁜 길로 가지 않게 커주었으면 좋겠고 공부는 중간 정도인데 조금 성적에 더 힘을 써서 나중에 여경이나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중학생이니까 좀 더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는 요리사가 되고 싶대요. 경미는 숫기가 없고 내성적인데 지 성격하고 똑같은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여경이 좋아요. 여경이 보기에든 좋고 직업적으로도 안정적이잖아요. 공무원이니까 평생 직업이고(사례 23, 아버지, 중등자녀, 딸).”

2) 부모-자녀 관계

학부모에게만 질문한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 큰 문제는 없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초등학교 부모들은 한명만 빼고 11명이 의사소통이 활발하며 자녀가 숨김없이 다 얘기하는 편이라고 대답한 반면, 중학교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소원해지고 있다거나 비밀이 많이 생겼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1) 학년이 올라갈수록 갈등이 늘어나는 부모-자녀관계

초등학생들의 부모는 대부분 자녀가 부모에게 속내를 다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단 한 사례만이 그렇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중에 딸이 태어났고 특히 시댁에서 남아를 선호했기 때문에 자신이 구박을 받았다고 한다. 남아선호로 인한 불만을 딸에게 다 풀다보니 서로 사이가 나빠진 것 같다는 설명이었다(사례 9).

또한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않고 숨기기도 하면서 서먹서먹해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다는 지적들도 있었다(사례 12). 특히 중학생이 되면서 과거에는 애교도 떨고 하던 딸이 이제는 애정표현을 안 하고 무뎡뎡해지는 것에 대해서 딸을 둔 아빠들이 서운해 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어렸을 때는 뽀뽀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애정표현이 있었는데,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니 아빠를 남자로 보며 애정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대화가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고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하고는 말을 잘 안 해도 자기 엄마하고는 시시콜콜한 얘기로 수다를 떠는 것 같아요. 나와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는데, 요새는 새벽 1-2시에 들어가도 공부를 할 때가 있어서 얼굴을 보는 편이지요(사례 19, 아버지, 중등자녀, 딸).”

“다른 집은 딸내미 있으면 아빠한테 애교도 많이 부리고 그런다는데, 우리 딸은 말이 너무 없어서 내가 말을 시키려고 해도 안 받아줘요. 뭘 물어보면 사춘기인지 짜증부터 낸다니까. 경미와 내가 관계는 나쁘지는 않은데, 요즘은 뭘 물어보면 짜증을 내니까. 짜증을 낸다는 것도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겠지만 나로서는 서운하죠. 그런 점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자꾸 더 말이 없고 부모랑 대화가 끊기면 안 좋으니까요(사례 23, 아버지, 중등자녀, 딸).”

사춘기의 딸들은 아버지를 향해 말수가 적어지고 친밀한 관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거리가 생겨서 의도적으로 대화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와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소곤거리는 등 대화가 지속됨으로써 아버지의 서운함을 가중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중·고등학생 딸의 아버지로부터의 거리두기’ 현상은 바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일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 또한 엿보인다.

“애가 아빠하고는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요. 아빠가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아파서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엄마랑은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중계역할을 하지요. 하나 얘기를 아빠한테 하고 아빠 얘기를 하나한테 하고 서로의 대변인 역할도 하고요. 서로 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잘 중재를 해야 되요(사례 33, 어머니, 고등자녀, 딸).”

“여자애다보니까 부모하고 대화가 많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친구들 만난답시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보니 가족 간에 많은 대화가 없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봐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안되더라고요. 긴요한 일이 생기면 주로 많은 이야기는 엄마하고 해요. 딸이다 보니까 아빠보다는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부부가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도 없어요. 영희가 만이인데 애들이 넷이다 보니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는 동생들도 챙겨야 하고 우리를 돕는 일은 잘 하고 있어요(사례 35, 아버지, 고등자녀, 딸).”

“나는 딸애와 잘 지낸다. 현미 말에 자기네 친구들 중에서는 이런 엄마가 없다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그 학년만큼 대우해준다는 것을 말하면 모두 다 부러워한대요. 자기 아빠하고는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아빠는 애기 적의 딸만 생각하는 데 이미 딸은 훌쩍 커버렸지요. 옛날에는 무조건 아빠를 따랐는데, 이제 크니까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같이 안 간다거나 반대의견을 내니까 아빠 생각에는 자기를 싫어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 벽이 생기고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서 나로서는 이것이 풀어줘야 할 숙제이고 고민이지요(사례 17, 어머니, 중등자녀, 딸).”

부모가 보기에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비밀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대들거나 저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부모들은 이에 대해 사춘기여서 아이들이 저항적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공부에 힘든 모습 때문에 대부분 참으면서 지켜본다고 한다. 공부에 시달리면서 정서적으로도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짜증도 늘고 대들기도 하고 저항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중학생이 되어서부터는 엄마에게 대드는 일이 생기고 부모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엿보이더라고요. 사춘기에 독립심이 커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참았지만 더러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지곤 했어요.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오히려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엄마에게 농담을 건네는 모습도 보게 되면서 약간은 안심이에요. 하지만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또 옛날 얘기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일 땐 막막한 세대차를 느끼곤 하죠.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편인데 제가 원하는 일을 말할 때는 버럭 소리를 지르게 될 정도로 여러 차례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기운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은 집안 분위기를 일정 부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지요(사례 32, 아버지, 고등자녀, 아들).”

“영훈이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편이고 성취감이 강해요. 하지만 자기주장이 강한편이고 이기주의라고 봐야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굽히지 않고 다 주장하는 편이에요. 거기서 나하고 트러블이 생겨요.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둘이 같이 서로 요구사항을 부대끼면서 풀어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 할 말 다하니까 상처를

입게 되죠. 엄마가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는 말로써 상처를 주죠. 살아가는 잣대나 인성교육에 대해 얘기를 하면 자기를 너무 억압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보수적이라면서 싫다고 해요. 우리는 실망감이 생겨요(사례 34, 어머니, 고등자녀, 아들).”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보습학원에 다니거나 과외수업을 받기 때문에 아이가 바빠지는데다가 주말에는 식구들보다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생기면서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다보니 자연 부모와의 대화시간도 줄어들고 밖에서 생긴 일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면서, 비밀이 늘고 부모가 친구나 학교에 대해 물으면 짜증을 내기도 한다. 또 부모들도 일에 바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은 것이 소원해지는 원인이라고도 설명하고 있다.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아이의 아빠보다 매일 더 늦게 들어간다는 엄마나 밤에 일을 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므로 아이와 함께 활동을 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한부모 아빠의 사례나 모두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아들을 둔 부모는 아들이어서 사근사근 얘기하지 않으므로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딸을 둔 부모는 딸이어서 비밀이 많다보니 잘 안 통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경우는 아들이거나 딸이어서 관계가 좋다는 식의 주석을 아무도 붙이지 않았다.

(2) 부모-자녀 간 마찰의 원인

초등학교 부모들은 아이의 생활습관 잡아주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중학교에 들어오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뚜렷해지고 시간을 보내는 패턴이 바뀌어서 그 부분에서 부모와의 마찰이나 갈등이 초래하기도 한다. 부모가 얘기한 자녀와의 구체적인 갈등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헤어스타일, 명품 밝히기, 스타에 대한 과도한 관심, 이성문제, 컴퓨터 게임 중독 등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가 학교에서 정해 둔 두발 규정에 대한 불만으로 머리를 기르

고자 할 때 부모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라고 강요하면서 자녀와 마찰이 생긴 경우이다. 중학생인 아들은 염색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머리 길이나 모양에 대해서도 규제를 두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투덜대곤 한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해서 머리를 짧게 자르는 자기 헤어스타일이 싫고 애들이 모두 같은 모양을 하고 나타나는 학교가 싫다고 불만이 많다고 한다. 결국 그 어머니는 아이에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편이어서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아이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나하고도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규칙이나 제도는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속에서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애가 고민이지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이런 갈등을 알면서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고민스럽지요(사례 18, 어머니, 중등자녀, 아들).”

둘째, 아이가 커 가면서 메이커 옷이나 가방과 신발 등을 명품으로 밝히기 시작하면서 가정 형편이 안 되는 어머니는 나무라거나 규제를 하는 경우이다. 디자인을 전공하는 고등학생 딸은 주위 친구들이 다 갖고 있는 거라고 투덜대면서 명품을 사줄 것을 요구할 때 어머니는 못 해주는 처지가 힘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야단을 치기 때문에 최근에 매일 부딪치는 갈등 현안이 되어서 자녀와의 관계도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해줄 수도 없거니와. 요즘 아이들이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왜 그렇게 비싼지. 엄마로서 해주고 싶기는 하지만 원하는 것을 다해줄 정도로 형편이 안돼요. 하나가 친구들 옷이나 가방 같은 거 보고 와서 그 가방은 얼마고 그 옷은 얼마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 데 일부러 못들은 척 할 때가 많아요. 커갈수록 요구는 늘어나고 형편은 안 되고 하니까요(사례 33, 어머니, 고등자녀, 딸).”

셋째, 중학생인 딸이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더니 스타에 폭 빠져서 팬클럽에 들고는 스타 얘기만 하고 온통 신경을 그쪽에 쓰고 있는 경우이다. 학교 공부도 소홀히 하더니 나중에는 친구관계도 나빠지고 집에 와서도 신경질이 늘었다고 한다. 온 식구가 힘들어져서 결국 이사를 하고 학교를 다른 곳으로 전학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수진이가 완벽했어요. 공부도, 생활도, 친구관계도 모두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가서 학교 분위기 때문인지 주로 화제가 연예인들의 신변잡담에 쏠려있었어요. 너무 깊게 빠지는 것 같아서 제재를 했어요. 심지어 여러 과가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동방신기와, 수퍼주니어와 하며 패거리로 갈라지기도 했어요. 연예인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친구관계가 틀어지고 상처를 받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가 집안 식구들에게로 왔어요. 중학생 관심사가 연예인 말고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러 일들에서 소홀해지고 공부도 안하고 집에 와서도 깔끔하고 성실했던 예전 모습과는 달리 흐트러져 있고, 나태하고 엄마에게 화도 자주 내어서 사춘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도가 심했어요. 결국 이사를 하고 학교를 전학시킬 수밖에 없었어요(사례19, 아버지, 중등자녀, 딸).”

넷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이성문제가 발생하면 커다란 고민거리가 되고 아이가 너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서 통제를 가하게 되면 저항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성교제를 하는 동안 자녀는 온통 신경이 이성 친구에게 가있어서 자연 공부에 소홀하게 되고 귀가 시간도 늦어지므로 부모와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아이에게 이성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주위 친구들이 경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녀에게 친구관계나 이성 관계에 대한 정보를 조심스럽게 구하려고 노력한다는 부모들도 있었다.

“재작년에 현미 친구가 임신이 되어서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 전에는 친구 얘기를 할 때 건성으로 듣는 편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친구 누구 얘기를 하면 열심히 듣게 되지요. 그러면서 현미가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나거나 남자친구를 사귀지나 않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사례17, 어머니, 중등자녀, 딸).”

“지훈이가 지금은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한창 그 아이 만나러 다녔을 때 힘들었어요. 전에 사귄 때는 학원 끝나면 늦은 시간에도 개를 꼭 집까지 바래다주고 데이트한다고 또 시간 뺏기고 하니 못마땅했어요. 안 좋은 일 있어서 지금은 헤어졌지만, 헤어지고 나서 공부 안하고 방황하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사례 26, 어머니, 고등자녀, 아들).”

다섯째, 자녀가 한번 컴퓨터 게임을 시작하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해서 부모는 잔소리를 하게 되고 집에서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니 부모를 속이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야단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모가 보기에는 게임을 적당히 조금만 하고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이가 시간 분배를 적절히 하지 못하니 야단을 치게 되고 매일 다투게 된다는 것이다.

“컴퓨터 게임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 제일 큰 불만이에요. 요즘은 패스워드를 걸어놓고 주말에만 쓸 수 있도록 열어주는 등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해요. 작년에 학원 마치고 꼭 한두 시간씩 늦게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 친구하고 축구했다 농구했다고 대답했는데 나중에 보니 PC방에서 게임을 했더라고요. 막 혼낸 다음 찬찬히 물어보니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면 어느 레벨에 있는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레벨이 너무 떨어져서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컴퓨터 게임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칼이나 소품을 사려면 또 돈이 많이 드나 봐요. 제 돈으로 충당이 안 되니까 아빠 호주머니에 손을 대기도 했어요(사례 14, 어머니, 중등자녀, 아들).”

(3) 자녀의 의존성을 당연시하는 부모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키더라도 최소한의 심부름 정도였다. 오히려 맞벌이 가족의 경우 아이가 집에 와서 스스로 자기 밥을 챙겨먹는 것을 대견해하고,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잘 일어나는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녀에게 시키는 심부름의 내용은 분리수거 하는 것을 돕기, 방학 동안에 설거지시키기 정도이며, 또 심부름을 시킬 때는 심부름 값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챙기고 자신이 먹는 것을 같이 준비하고 치우는 것을 항상 돕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들이 그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공부는 때가 정해져 있어서 그때 잘 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고 때를 놓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중학생 딸을 유치원 아이 수준으로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줄 정도로 자녀의 의존성을 당연시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모도 있었다.

“진미는 내가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등교 준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까요. 항상 내가 붙어있어요. 무슨 일이든 나와 상의해야 하니까 내가 다른 일을 못하지만 그것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가 학교에 갔다 오면 나는 전적으로 아이에게 매달려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을까봐 다녀오면 간식 주고 좀 쉬게 하면서 내가 눈치를 살피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논할 문제는 없는지... 전 항상 진미가 집에 오기 전까지 모든 용무를 다 마치고 들어와서 아이에게 집중해요. 밖에서 급하게 집에 들어오면 아이가 하는 말에 적절히 응답 못하고 때에 따라 짜증을 내게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려고 오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요(사례 13, 어머니, 중등자녀, 딸).”

아이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의존성은 나이가 들어도 지속된다. 본 연구에 포함된 자녀 중 초등학생

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는 단 한 사례도 없었다. 부모들은 공부가 중요하니까 아르바이트는 대학에 가서나 하면 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청소년 자녀에게 용돈을 대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아이 친구들 중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지만, 자신의 아이는 공부에 방해가 되니 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신이 어릴 적에 비해 아이들은 너무 풍요한 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자녀가 이에 대해 당연시하고 오히려 더 못해주는 것에 대해 불만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물질적으로 내가 풍족하게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의 행동을 보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듯해요. 집에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적은 없지만 성적 관리차원에서라든지 칭찬을 해줄 때 용돈을 더 주기도 해요. 하지만 아이가 저축하는 방법을 몰라요. 아마 돈의 경제성이라든지 희소성을 몰라서 일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요. 용돈을 주면 먹는 것만 사먹어요(사례 7, 아버지, 초등자녀, 딸).”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요샌 풍족하잖아요. 학용품.. 이런 것들 옛날에는 연필 하나도 많이 아껴 썼었는데 요즘 애들은 종이 한 장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외식부분에서도 옛날에는 자장면 하나 먹어도 행복해하고 그랬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빠인 내가 그 정도 해주면 말도 잘 듣고 해줘야 하는데 자꾸 사소하게 빗나가고 그러면 속이 상하죠. 제 얼마나 저나(사례4, 아버지, 초등자녀, 아들).”

이처럼 대부분의 가족에서 자녀에게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지원을 해주는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신이 자녀에게 제대로 못해준다고 느끼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느낌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처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자녀에

게는 그렇게 못해주는데 대해서 커다란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나는 자라면서 주변이나 집안 사정이 나빠 본적이 없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게 자랐었는데 내 아이한테 내 부모가 나한테 해줬던 것만큼 경제적으로 해주지 못해요. 내 어린 시적을 생각해보면 누렸던 것을 애한테는 못해주니 미안한 느낌이 들어요(사례 6, 어머니, 초등 자녀, 아들).”

“애한테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데 경제적인 거나 가게 여건상 못 해 준 게 많아요. 예체능 쪽도 좀 배우게 해주고 싶고 경험도 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도 잘 못해주고 그러니. 부부가 약간 게을러서 문화체험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해주는데 조금 안타깝죠.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 해주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사례 9, 어머니, 초등 자녀, 딸).”

(4) 사교육비 지출을 의무로 생각하는 부모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은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녀를 학원에 못 보내는 3명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33명은 모두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시키고 있었다. 한 달에 초등학생에게 20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부모도 “나는 과외비에 별로 안 쓰는데..”라고 토를 달 정도로 부모들의 사교육 열기는 대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영어, 국어, 철학, 한자 등을 배우면서 월 100만원을 투자하는 사례들이 있는가 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매월 2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사례도 3명이나 있었다. 모든 사례를 종합해 보면 3명 중 1명꼴로 매월 8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교육비에 돈을 투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층간 차이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남지역에서도 유명 학원가가 즐비한 곳에 사는 부모들은 사교육비가 당연한 지출로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액수를 투자하면서도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너도 나도 학원

에 가거나 그룹 과외를 하는 현실에도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친구 사귀기조차 힘든 현실에 있다. 따라서 그런 처지에 있는 부모들은 친구들과 사이에서 아이의 기를 살리지 못하는 것도 걱정이라고 한다.

“아이가 음악에 반응하는 걸 보면 음악성이 뛰어난 것 같은데, 악기를 가르칠 형편도 못되고 소질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다들 학원에 다니는 데 애한테는 못해주는 게 제일 아쉽죠. 어려서는 이것저것 해봐야 아이의 특성이 살아나고 재능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또 지도 학원가고 싶을 텐데 괜찮다고 그래요. 안 가고 싶대요. 더 마음이 아프죠. 다들 학원가니까 친구들과하고 놀 수가 없어요(사례 10, 어머니, 초등자녀, 아들).”

“사업을 하다가 내가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헤쳐 나가는 중이에요. 동훈이가 나이에 비해서 견뎌내는 힘이 강하니까 자랑스럽죠. 지금은 힘들다 보니 취미활동도 살려주지 못하고 학원도 못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 경제적 형편이 피면 부족한 부분들도 다 해주고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요즘 집에 오는 시간도 늦어서 애 얼굴보기도 힘들고 함께 하는 시간조차 전혀 가질 수가 없으니 힘들지요(사례24, 아버지, 중등자녀, 아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학연수를 시키기도 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너무 어릴 때는 자녀를 외국에 보내고 싶지 않으며 대학에 간 이후에나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도 특정 지역에서는 조기 어학연수가 필수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아직 보내지는 않고 있어요. 필리핀 같은 나라 애기는 듣고 있죠. 거기도 고급 영어를 쓰는 지역이 있대요. 엄마들끼리 2-3명이서 돈을 모아서 아파트 좋은 것 2-3억 정도면 사서 지낼 수 있으니까. 전업주부인 엄마들이 2-3달씩 돌아가면서 살

고, 직장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많은 정보가 있긴 해도 아직은 관심이 없어요. 3·4학년 쯤 됐을 때 방학에 한두 달 정도 보내면 몰라도, 요즘엔 방학하면서 7월 초에 떠나서 9월 초에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친구 중에 회계사 부부가 있는데 거기 모임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기숙학교로 보내면 돈은 많이 드는데 여기서보다 환경도 좋고, 일단 어울리는 거나 사고하는 게 다르다고 해요(사례 5, 어머니, 초등자녀, 딸).”

하지만 어린 자녀를 아주 안전한 조건으로 외국에 연수를 보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어학연수를 보내볼까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여자 아이들은 위험하니까 신변보호나 안전한 케어까지 해주는 건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년에 1억이 있어야 한 대요. 꼭 보내려 걱정하면 못 보낼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 싶어요. 지금은 괜히 휩쓸릴 필요 없고 나중에 공부 잘해서 대학가서 유학 가는 거는 어떻게든 끝까지 지원을 해주어야지요(사례 1, 어머니, 초등자녀, 딸).”

그러나 실제 연수를 보낸 경험이 있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자녀가 외국에서 연수한 경험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아래의 두 사례는 자녀가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경우이다.

“중 2때 호주 홈스테이로 2주일간 보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조기 유학은 반대예요. 본인은 외국에 가서 견문에 넓힐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생활방식이나 문화가 다른 곳에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예요. 아이가 대학에 가서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자신이 소화해낼 수 있을 때라면 좋다고 생각하죠(사례 31, 아버지,

고등자녀, 딸),”

“어학연수를 여름방학마다 보내고 있어요. 삼촌이 미국에 살아서 아직 연수라고 하긴 뭐하지만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갈 거예요. 하지만 조기유학은 아이가 오랫동안 부모를 떨어져서 있어야 하니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아이가 아직 어리다보니까요(사례 2, 어머니, 초등자녀, 아들).”

또한 어학연수 후에 기대했던 것만큼 공부나 어학 실력이 늘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별로 보지 못했거나 실패였다고 판단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었다.

“우리 딸은 조기유학을 다녀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뉴질랜드에서 1년간 공부한 다음, 그 다음 해인 6학년 때는 1년간 중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외국어도 배우고 자립심을 키우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 어릴 때 보내서 실패한 것 같아요. 원하는 걸 못 얻었으니….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자립심도 못 키우고 언어교육도 제대로 안되었어요(사례 25, 어머니, 고등자녀, 딸).”

“병수는 중3-고1 학년에 해당할 때 호주에 어학연수를 1년간 다녀왔어요.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에 갔던 것에 비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었어요. 또 동생은 주변에 돌보는 사람이 있었고 이 아이는 혼자 관리를 했기 때문에 병수는 그렇게 100%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가족이 돌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유도가 되어야 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개척해나가는 세상이 너무 험하고 넓었던 것 같아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나도 공부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호주에 가서 혼자 재정 관리를 한 경험 때문에 돈 씹씹이는 아주 좋아졌어요. 함부로 쓰면 나중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걸 터득한 것 같아요(사례

30, 어머니, 고등자녀, 아들).”

하지만 다수는 어학연수로 외국에 보내는 것이나 기러기가족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초등학생부터 연수를 보내야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풍토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외국에 가서도 잘 못할 수밖에 없는데 비싼 돈 들여서 보낸다는 거나 가족끼리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들리고 하였다. 특히 기러기가족의 경우 가족들이 치러야 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이유로 대부분 매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3)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개입

한국의 부모는 자녀의 일상에 개입하는 정도가 상당히 강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부모에 따라서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부모 중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개입하고 있는 정도가 아버지에 비해 훨씬 강하며, 일하는 어머니에 비해 가정주부가 훨씬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다. 또한 가정주부 중에서도 간식이나 챙겨주고 도시락 싸주는 정도라고 대답하는 어머니에서부터 전두 지휘하는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평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의 생활이나 의사결정 부분의 80% 이상을 엄마가 감당한다고 봐요. 저는 아내의 생각을 믿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터치하기도 하는데 아이 엄마 의견을 존중하죠. 아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애 엄마예요(사례4, 아버지, 초등자녀, 아들).”

부모의 개입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나타나서 학원 결정 문제, 스케줄 관리, 아이 운전해서 데려다 주기, 공부하는 습관 다져주기, 생활태도 고치기, 귀가 시간 관리하기, 친구관계 확인하기 등 여러 가지였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구하는 부분은 성격과 관한 부분과 학생으로서 학업에 대한 부분이지

요. 아이가 원하는 것도 큰 틀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되도록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사례 7, 아버지, 초등 자녀, 딸).

“내가 로드 매니저예요. 학교에서 오면 조금 쉬었다가 딸내미 학원 실어다 주고. 또 아들 학원 실어다 주고. 우리 같은 엄마를 로드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그런 활동들이 제일 많다보니 주로 아이들 공부와 관련된 것에 개입하게 되는 거고. 딸아이가 학원을 빼먹지는 않는데 30분씩 늦게 가려고 해서 한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패기도 했어요. 때리면 자국이 남잖아요? 그러면 아빠한테 이를 만도 한데 자기가 잘 못한 거니까 이르지도 않더라고요(사례 1, 어머니, 초등자녀, 딸).”

“아이에게 가장 많이 개입하는 부분은 생활태도에 관한 것이예요. 아이가 혼자여서 그런지,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던지, 자기 혼자 씻는다던지 하는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지적을 하죠. 외출하면 꼭 손을 씻어라. 옷을 갈아입어라 등등을요(사례 2, 어머니, 초등자녀, 아들).”

“아이에게 가장 많이 개입하는 것은 공부하는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서예요. 학교 갔다 왔을 때 숙제 같은 것도 그렇게 자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다했냐고요.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체크하기도 하고요(사례 6, 어머니, 초등자녀, 아들).”

특히 중학교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는 시험 때에 더 개입하게 된다고 했는데, 다른 때는 개입을 안 하다가도 시험기간에는 문자를 보내거나 컴퓨터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간섭을 하기도 하며, 아이에게 시험을 잘 보면 뭘 사준다고 거래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기도 한다는 사례들도 있었다.

“해달라는 것을 다는 안 해줘요. 요즘엔 MP3를 바꿔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죠. 조금만 더 하면 되는 데 1등 하면 사

주겠다고요.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건 학교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안 된다고 했고, 노트북을 사달라고 해서 그거는 사줬어요.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요(사례 20, 아버지, 중등자녀, 아들).”

또한 딸에게는 귀가 시간이나 집 밖에서 자는 것에 대해 여자에라는 이유로 더 제재를 내리거나 개입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남의 집에서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학원이 없는 날에는 여름에는 9시를 넘으면 안 되고 겨울에는 8시 넘어서 들어오는 것은 제재를 한다고 했다(사례 17). 또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도 딸에게는 제재를 가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방학한지 이틀쯤 지났을 때, 교회에서 캠프를 가서 수영장도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잠도 자고 한하는데 엄마는 자꾸 여자애가 나돌아 다니면 안 된다고 해서 못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내가 오히려 교회이고 여러 친구들이랑 간다는 점을 들어서 선 듯 가라고 했어요. 엄마는 자꾸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자유스럽게 키우고 싶어요(사례 11, 아버지, 초등자녀, 딸).”

이 외에도 친구관계에도 개입을 해서 아이가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선 친구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 보기도 하고, 더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권유를 하기도 한다. 결국 부모가 개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이에게 공부 습관을 잘 길러주고 매일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한다는 데 있었다. 따라서 아이의 공부에 방해가 되는 내용에는 즉각 개입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몸에 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공부라는 거나 피아노, 음악이라든가 이거는 천재가 없다고 생각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건데, 왜 안하느냐 그건 본인이 다른 놀이문화에 시간을 헛되이 쓰다보니까 그래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은 본인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

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줘요. 너는 똑똑한 아이야. 다른 사람들이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빠엄마가 볼 땐 단지 안하는 것뿐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곤 하죠(사례 31, 아버지, 고등 자녀, 딸),”

하지만 부모들이 마냥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식으로 개입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에 시달리는 아이를 보면서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도 아이가 안쓰러워서 눈치를 보기도 한다. 이는 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가족들은 고3 자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시험 때가 되면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다거나 잠이 들더라도 이내 새벽에 깨어나서 공부하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안쓰럽다는 경우도 있으며,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을 하기도 한다. 술마시고 들어와서도 아이가 공부하고 있으면 조용히 해서 말쭙한 척 한다는 아버지(사례 32), 시험 보고 온 날 성적에 대해 날카로운 편이어서 시험에 대해 궁금해도 묻지 못하고 다들 눈치만 보게 된다는 경우도 있었다(사례 34). 또한 아들이 고3이다 보니 예민해져서 편하게 해주고 기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부모가 말이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한다는 사례도 있었다(사례28).

4) 부모의 사회적 자본 및 연결망

사실 부모들이 자녀의 일상이나 학업에 개입을 하려고 해도 정보가 없으면 구체적으로 개입하기 힘들다. 부모들은 다른 학부모, 친구 모임, 학원 강좌들이나 아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해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예상과 달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중·고등학생의 부모들보다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정보 얻기에 더 적극성을 띠고 있다. 중학교 이상에서는 학원이나 과외팀이 필요한 그 순간에 긴박하게 정보를 구하는 반면, 일단 학원을 정하고 나면 부모가 개입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내용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어머니회에서 활동을 하는 부모들 중심으로 학교에서 모여서 부수적으로 정보를 나누는 경우가 가장 많았

다. 하지만 아이의 진로와 생활에 있어서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어머니들끼리의 친목이나 팀 구성은 초등학교에서 더 잘되어 있는 편이었다. 아래의 사례에 소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일박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정보전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정보는 주로 엄마들한테서 얻지요. 여기는 엄마들끼리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데 공부 팀을 짜거나 할 때 아이들 뒷조사를 다 해요. 그런 후에 그 팀 엄마들끼리 상의해서 아이를 들여보낼지 아닐지를 결정하지요. 철마다 이이들도 포함해서 일박으로 놀라가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엄마들끼리 정보를 얻기는 하는데 중요한건 아주 친한 엄마가 아니고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침묵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이 아는 정보는 나도 다 아는 정보이고. 겉도는 얘기가 오가는 거지요. 그래서 아주 잘 하는 아이 엄마랑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들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나오니까. 소위 말하는 좋다는 코스 있잖아요? 영재학교 출신에 어느 중학교가 특목고에 학생을 많이 보내는지, 어떤 특목고에 가야 서울대에 많이 가는지 등등. 학원은 어디가 좋고 선생은 어떤 선생이 최고고, 제일 최고의 팀에 끼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애쓰지요(사례 1, 어머니, 초등자녀, 딸).”

또한 자녀의 친구들로부터 정보를 구하고자 친구들을 집으로 자주 초대해서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경향도 있었다. 특히 학기 초에 반이 바뀔 때는 많은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매번 집으로 초대한다고 했다.

“저는 매 학기 초에 아이의 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성향을 파악하지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학교에 대해서나 반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지요. 사실 아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친구관계에 엄마

가 개입하는 게 안 좋기는 한데, 제 경우는 학기 초에 반 친구들을 포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11명을 초대해서 친구들이 어떤 애들인지를 파악했지요. 아주 머리가 노란 아이도 있고 중학생이 되니까 좀 무서운 아이들도 있고 요즘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면 학교 상황이나 애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되지요(사례 13, 어머니, 중등자녀, 딸).”

또한 아이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직접 특강을 들으러 다니는 적극적인 어머니도 한 사례 있었다.

“강의를 들으러 다녀요. 공부나 진로문제에 관한 것이죠. 그게 민성원공부방법도 있고, 과학카페도 있어요. 유명학원에서 하는 강의들이인데, 저기... 강사님들의 특별강의 있잖아요?(사례 25, 어머니, 고등자녀, 딸)”

하지만 엄마들이 매일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꼭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때로는 정보가 많아서 골치이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면 오히려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엄마들이 주대가 있어서 자기 자식한테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지원을 해야 할 텐데, 남이 좋다고 하는 데는 무턱대고 다 보내보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휩쓸리면 한도 끝도 없다는 의견이었다.

“홍은동에서 대치동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정보가 없다보니 사교육비를 많이 들였어요. 지금은 이쪽 사정을 잘 아니까 꼭 지원해야 할 부분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영재교육이고 뭐고 해서 돈을 많이 들였지요. 사실 이쪽 엄마들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휩쓸리는 측면이 있어요. 영재도 아닌 아이들을 영재교육 시키고 과학고라면 다 좋은 줄 알고 인문계 전공할 아이를 과학고 보내려고 하지요(사례 1, 어머니, 초등자녀, 딸).”

“엄마들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요. 정보가 너무 많아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에 휩쓸리게 된다니까요. 중요한 건 아이의 호흡에 맞추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외 선생님을 모시는 문제도 그런데 족집게나 유명강사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단점이나 스타일을 잘 알고 커버해주시는 선생님이 더 좋은 것처럼... 아마 다른 엄마들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벌써 몇 번씩이나 과외 선생님을 바꿨을 거예요(사례 13, 어머니, 중등자녀, 딸).”

또한 자신이 사는 동네에 비해 자신의 생활수준이 우위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정보를 구함으로써, 지역 효과보다는 계층 요인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생활수준이 높은 곳이 못 되어서 다른 학부모들과는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보니 애 학교의 학부모들과는 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람 엄마들과의 모임이 있어요. 아이 아빠와 잘 아는 치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원장부인들 모임이 있거든요. 아빠들이 골프 모임을 갖는 동안 엄마들은 가끔 만나서 아이들 과외 선생님 소개도 받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해요(사례 13, 어머니, 중등자녀, 딸).”

이와 같이 정보수집이나 정보 교환에 적극성을 띠는 어머니들이 상당수 있는 반면, 한부모 가족이나 맞벌이 가족에서 일하는 엄마들은 대부분 공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학부모를 만나지도 못하고 따로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아이에게 의존하게 된다. 학원에 대해서도 다른 친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어디가 좋다고 하는지 스스로 알아오게 한 다음, 그 제한된 정보에 준해서 아이와 함께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

사실상 어머니들 사이에서의 정보교류는 활발하지만, 아버지들은 학부모 간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가 다수였다. 심지어는 아이가 현재 중학생이지만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한번 애 학교에 방문한 이후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변명이나 하듯 인터뷰에 응한 아버지들은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아버지들을 배제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어머니들은 아이의 학교에서 임원활동을 하기도 하고 급식당번, 교통정리, 녹색 어머니회 등에서 활동을 하므로 학교 선생님을 만나거나 다른 학부모를 만날 기회가 더러는 있다. 하지만 일하는 어머니들은 다른 부모를 만나서 정보를 주고받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지 않고 무난하게 생활하고 있다면 담임선생님과 교류가 없어도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학생 정도 되면 딱히 문제가 있거나 극성인 엄마들 말고는 학교 선생님과 크게 관계를 가질 일이 없어요. 특별하게 전화 같은 것으로 연락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가 탈선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사례 21, 어머니, 중등자녀, 딸).”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부모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 가족에서 진행되는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사회화의 내용과 성격을 규명함과 동시에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에 대해 밝혀내고자 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부모의 바람과 청소년의 실천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의 학업과 공부에 치중하고 있거나 적어도 학교 성적을 중시 여김으로써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자녀들이 바라거나 희망하는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자녀들은 공부 외적 요인이나 관심이 많아서 학업에 열중하기를 바라는 부모와의 갈등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아이들 사이에서는 공부에 임하는 태도나

일탈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나, 부모가 아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대부분 일정하게 공부나 생활태도에 있다. 부모 중 일부는 다른 요인도 중요하다고 애길 하면서도 결국은 성적이나 학습태도에 귀착되므로 부모의 중요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와 아울러 아이들의 일상에 있어서의 생활양식이나 태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부모는 그 변화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바로 한국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간 세대격차를 증폭시키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모들은 경쟁사회의 속성이나 원칙을 내면화시키고 있으며, 자녀 사회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생활습관이나 공부습관을 잘 형성해 주기 위해서 때로는 제재를 가하고 때로는 동기부여를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자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과 사회적 지위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경쟁사회에서의 공부 논리는 결코 성공에 대한 환상에 의해서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더 뒤쳐질 수 있다는 미래의 실패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대한 심리적 기제 또한 동일선상에서 작동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은 최고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중간 정도 아이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이라도 가기 위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전문대학이라도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고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므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다수의 한국부모들은 자신의 지원과 노력이 자녀를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고 있다. 즉, 자녀의 성공 여부가 상당부분 부모의 노력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셋째, 자녀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의 경쟁사회 논리의 무조건적 수용과 내면화 현상은 부모-자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는 자녀의 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자녀가 예의바르고 남을 배려하기를 바

라면서도 그와 동시에 약삭빠르게 자기 것도 잘 챙기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자녀가 악바리처럼 노력해서 경쟁사회에서 지지 않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기를 원하고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이중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만큼,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인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자녀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만족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중학교 이후에는 자녀와 정서적으로 거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부모들도 상당수 있다.

자녀가 학업에 열중하기를 희망하는 한국의 부모들은 물질적 측면에서 자녀의 의존을 당연시 하고 있다.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고 싶다고 해도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양에 있어서는 계층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용돈을 지불하고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계층을 망라한 공통적인 현상이다. 부모들은 또한 아이가 공부에 몰두하는 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집안일이나 심부름도 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녀의 가사에의 참여는 가족 형편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 한부모 가정에서나 맞벌이 가족에서는 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식사 챙기거나 설거지 등에 자녀의 도움을 정기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반면, 대개는 고학력으로 올라갈수록 심부름조차 시키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존을 당연시하는 비대칭적 구조를 띠고 있음으로써 자녀의 독립심이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바람이나 희망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주입시키는 실정이다.

넷째,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치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교육열은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어머니의 능력 자체가 자녀교육을 위한 문화자본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부모의 사회적 자본이나 연결망에 있어서는 계층별로나 거주 지역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남 거주 중상류층 어머니들은 비슷한 계층이면서 열의를 지닌 어머니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계층 의

식을 확인하는 기제로 삼기도 한다. 유사한 계층의 어머니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들만의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보다 못한 계층 집단을 배제시킴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자본을 통한 존재의식을 확인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자녀교육과 정보 수집에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취업주부들은 자녀 교육을 등한시하는 사람들로 인식되기도 한다. 정보 수집을 위해 자주 모여서 자녀교육을 논의하는 학부모들은 가정주부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을 미화시킴과 동시에 교육열을 통한 모성의 발현을 미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맞벌이 어머니들은 자녀 학교 방문을 하기 힘든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정보 수집을 전적으로 자녀에게 맡기고 있었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정보수집 노력과 이에 대한 집착은 맞벌이 가족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여성의 커리어 쌓기 노력이 더 한층 가해지고 있는 변화된 현실과는 역행하는 현상이다.

다섯째, 부모의 교육열이 높은 것이 당연시되고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경쟁적인 분위기에 쫓아가지 못하거나 지원을 못하는 부모가 느끼는 소외감은 매우 크다. 자녀를 방치해두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가 친구 없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을 부모가 아쉬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학업과 관련되어서 과열된 경쟁분위기 속에서 가장 크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집단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과 저소득층 맞벌이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김소희(2004). 학부모 교육열의 내러티브적 접근. 교육학 연구. 제42권 2호. 한국교육학회.
- 도현심.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문화, 부모-자녀관계 및 사회·정서발달. 인간생활환경연구소 논집, 이화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인간생활환경연구소.
- 손승영(2002).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의식 차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1권 2호. 129-152쪽.
- 심영희(1999). 자식 바라기 어머니의 전통성과 성찰성 : 대입 수험생 어머니의 삶과 정체성. 심영희, 정진성, 윤정로 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 삶, 정체성. 서울. 나남. 361-388쪽.
- 안우환·김경식(2005).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열 탐구. 중등교육연구. 제53집 1호.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중등교육연구소.
- 윤택림(1996). 생활문화 속의 일상성의 의미 :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모성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12(2) : 79-117.
- 이선이·김현주·이여봉.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교환관계 분석. 한국인구학. 제29권 1호. 97-132쪽.
- 이한(2000). 탈학교의 상상력. 삼인.
- 조성숙(1995). 가족의 자녀교육.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 DeWitt(1992). "In Pursuit of Pregnancy." American Demographics. 15:48-53.
- Inglehart(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ark(2006). The Retreat From Formal Schooling : "Educational Manager Mothers" in the Private After-School Market of South Kore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Steinberg & Silverberg(199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03:429-460.

IV. 사회화의 주체(Agent)로서 교사의 역할과 의미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2. 이론적 논의
3. 연구내용 및 방법
4. 사회화의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과 의미
해석
5. 결론

IV. 사회화의 주체(Agent)로서 교사의 역할과 의미*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사회화의 주체(agency)를 구성하는 주요 축의 하나로서 교사의 위상에 주목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수행하는 사회화 주체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사회화 개념은 특별히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회학 영역에서 핵심적 위상을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사회화 과정이 작동하는 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희소한 상황이다.

“사회화”라 함은 “무력한 유아가 점차 자기 인식적이고, 지식을 갖춘 인간으로 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자신이 태어난 문화의 방식을 내면화 하는 과정이요 바로 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상이한 세대가 서로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기든스, 2004).

여기서 학교는 아동기 후반부터 성숙기에 이르기까지의 “이차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사회화(socialization)에 관한 한 사회적 정당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제도이다. 학교는 사회화 과정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기관인 만큼 학교가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교사의 영향력과 비중은 그 중요성과 강도에 있어 사회학적으로 충분한 함의를 보유하고 있으리라 추론된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의 교육제도는 사회화 주체로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위기론” 및 “교실 붕괴론” 등에서 함축적으로 표현되는 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김덕영, 2004, 2007; 김혜련, 2003). 곧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하에서 왜곡된 사회화 과정을 수행하고 있고,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괴리감 및 이질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교사의 권위 실추가 진행되고 있다는

* 집필자 : 함인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지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사회화의 주체로서의 교사의 역할 및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해보는 작업은 1) “사회화”란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작동 방식을 규명함으로써 개념의 경험적 검증 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2)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주목함으로써 사회화 과정에서 감지되는바 공교육 위기의 일단을 드러내는 동시에 3) 사회화의 주체로서 교사 역할의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고찰해보음으로써 향후 교사의 “제자리 찾기”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글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2절에서는 이론적 논의로서 사회화 개념의 모호성과 주변성을 다룬 논의를 정리해보고, 교사의 위상과 관련된 배경적 논의로서 1) 교육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를 다룬 논의 2) 학벌주의를 다룬 논의 3) 가족 공리주의와 관련된 논의 그리고 4) 생애주기 과정에서 사춘기 청소년의 특징 및 의미를 다룬 논의 등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3절에서는 연구내용 및 질적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4절에서는 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사회화의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과 의미를 해석할 것이다. 끝으로 5절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1) “사회화 연구”의 위상과 한계: 개념의 모호성과 주변성

사회화 관련 연구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개관해보면, 미국 사회학계에서는 1960, 70년대 사회화를 주제로 한 연구가 사회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회화 관련 연구의 출발은 “과잉 사회화된 인간”(oversocialized conception of man)(Wrong, 1961)관으로부터라 하겠다. 그러나 “사회화” 연구는 초기부터 개념적 명료함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학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주제가 되었음은 물론, 사회화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연구나 구체화시킨 연구의 희소성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generic meaning)를 갖는 사회화 개념의 모호성

은 사회학 영역 안에서 계속 확대되어 오는 가운데, 사회화 개념의 기본 준거는 사회적 학습 혹은 인성 발달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는 인상이 짙다. 실제로 Goslin(1969)의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¹⁾에 담긴 “사회화의 내용(주제)”을 예로 들어 보면, 언어 습득, 인지 발달, 성역할 발달, 성심리 발달, 그리고 인간관계 능력 발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주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다양하여 인간 발달의 사회적 역동성과 연계되지 않는 이슈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겠다.

사회화 개념은 본질적으로 다차원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사회학적 차원에서의 개념 정의를 보면, 사회화란 사회적 지위를 점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실행함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지식의 세대 간 전수라 규정되고 있다. 뒤를 이어 학자에 따라서는 생애주기별 사회화 유형으로 유아기 사회화, 사춘기 사회화, 중년기 사회화 등을 다루고 있고,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맥락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직업 사회화, 결혼 및 부모역할 사회화 등을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개념상의 복잡성 및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인간화”(humanization)-사회적 학습 및 발달보다 generic label-가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개념을 취하든, 과정상의 복잡다단한 본질을 규명하고 분석적 경험적 차원의 구성요소를 분리해내는 작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인간화”는 다음 4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본다(DiRenzo, 1977:266). 첫째는 성숙(maturation)으로 이는 생물학적 유기체의 발달을 토대로 생애주기를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행해가는 생래적 과정을 의미한다.

둘째는 문화화(culturation)로 이는 개인에게 사회적 학습을 통해 일련의 지식 및 정보가 전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다시 신생아의 문화화에 해당되는 “enculturation”이 있고, 생물학적 유기체인 인간이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으로서의 “acculturation”이 포함된다.

셋째는 사회화로 이는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구조 및 과정을 지칭하

1) 반면 [사회심리학 핸드북]에서는 사회화의 내용 속에서 구강 행위, 배변 행위, 성 행위, 공격성, 의존성, 그리고 성취 등을 다루고 있다.

는바, 이 과정을 통해 인간만의 독특한 속성이 발달되고 실현된다. 단, 이 과정은 인간 유기체와의 관련 하에서는 선택적이고 외생적이다.

넷째는 인성 발달로 인간 유기체의 내부적 심리적 발달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개별화된 속성 및 특성을 개발해간다.

전반적으로 생물학적 성숙은 자동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나 사회화 및 문화화는 선택적 과정이다. 단 사회화는 문화화의 과정 없이는 불가능하고, 사회화 및 문화화 모두 생물학적 성숙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사회화 개념을 명료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회화의 본질, 구조 그리고 기능을 설명해야 한다. Alex Inkeles(1968)는 이를 위해 사회화의 이슈, 사회화 단계, 사회화의 주체(agent) 그리고 사회화의 다양한 차원(dimension)을 구분하고 있다.

사회학자들의 “사회화”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문화화의 테크닉에 있다. 곧 사회적 역할의 내용을 개인에게 전수할 때의 기능적 요구 및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 때 개인은 머지않아 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지위나 자리(position)를 점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볼 때 “사회화란 인간 삶의 오래되고도 만연해있는 실질적 문제를 지칭한다. 곧 사회화는 어린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하여 그들이 속하게 될 사회의 적정한 구성원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에 천착해 있다”(Zigler and Child, 1969:450)는 정의가 가능해진다.

최근 들어 사회학 영역에서는 사회화 과정의 결과가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여부를 내부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사회학자들은 점차 사회 및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효과는 사회적 지위 및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획득된 인성(acquired personality)을 통해 나타나게 되리라 가정된다.

실제로 사회화 경험은 인성 형성 및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가족 형태, 직업 역할의 영향력, 학교 경험 등을 통해

개인은 특정 가치관을 발달시켜가며, 사회적 실재를 향한 심리적 지향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때 매개 과정으로서 동기, 통제 메커니즘, 인지-정서 발달 기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가치가 자녀에게 전수되는 방식은 부모의 직업적 특성 및 사회 계급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례로 중류계급 부모는 자녀에게 자율을 강조하나 노동자 계급 혹은 하류계급 부모는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직업 수행에 요구되는 자질은 곧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직결되고, 이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쉽게 전이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Perlin and Kohn, 1966). 부모의 직업 경험은 부모 자신의 가치관은 물론이고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상 자율-주도권 행사, 깊은 사고 능력 및 독립성 추구-을 행사할 기회를 갖느냐 여부는 계급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게 되고, 이 경우 가치관 및 세계관의 계급별 차이를 구성하는 요인이 된다(Kohn and Schooler, 1973).

한편 Kohn and Schooler는 직업과 교육 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에게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을 통해 가치관 형성 및 현실 인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은 지적 유연성(intellectual flexibility)과 폭넓은 관점(breadth of perspective)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기에, 계급 관계는 교육 훈련과 직업 경험의 축적을 통해 궁극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교육은 자율형성의 성패를 좌우하고 직업은 자율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자영업 부모의 자녀는 비자영업 부모의 자녀에 비해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가 월등히 높게 나타남은 이들 주장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결국 사회화는 가족과 직장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심리적 요소의 결과라 하겠다.

사회화 연구의 새로운 흐름으로서 학교의 역할에 대해 보다 확장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음을 들 수 있을 것이다(Greenberger and Sorenson, 1974). 학교 경험과 사회화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주로 학업 성취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학교 동료들의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개인적 성향

(personal disposition)에 대한 사회화의 영향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Lacey, 1970; Kandel and Lesser, 1972). 이들 연구는 학업 성취 이외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학생들의 성장 및 발달과정에 주목한다. 곧 사회적 성숙과 심리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사회화” 과정에서 교육(학교 및 친구)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화 과정과 인성 발달 간의 이론적 연계 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보다 광범위하게는 사회 시스템이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의 고리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기존 사회화 연구의 맹점 가운데 하나는 인성 형성이 어린이 시기에 결정된다는 가정 그리고 사회 환경, 상황 및 시스템(일터, 중년의 이행 등)이 일방적으로 개인의 인성 발달 및 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거꾸로 개인의 성인기 사회화 및 인성이 직업 역할(work role) 및 직업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2) 교사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된 배경적 논의

역할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자료 또한 극히 희소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사회화 개념의 모호성과 더불어 사회화의 주체로서 교사의 위상과 교사 자리에서는 교사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해서 일정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존의 관련 선행 연구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 사회학적 시각에서 교육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를 다룬 논의 2) 학벌주의를 다룬 논의 3) 가족 공리주의와 관련된 논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화의 주체로서 교사가 부딪치게 되는 사회제도적 맥락과 그로 인해 교사가 경험하게 되는 한계와 가능성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1) 교육과 불평등의 관계를 다룬 논의

교육 사회학 패러다임 안에서는 교육제도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수단인가, 아니면 불평등의 유지 및 재생산에 기여하는 수단인가를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인다. 실제로 산업화 초기에 이루어졌던 대중교육의 확산은 자유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주

요 도구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은 대중교육의 확산이 오히려 엘리트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현상은 과거 고등교육기관이 희소했던 시절에 비해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현대사회로 올수록 대학의 서열화가 공고해지고 명문대학 출신의 프리미엄이 강화되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구조기능론적 시각에 서는 학자들에 따르면 과거 신분사회에서는 개개인이 “귀속적 지위(ascribed status)”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기회를 통해 과거의 지위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업적 지위 혹은 성취 지위(achieved status)”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자본주의 사회의 역설 가운데 하나는 자본만이 세대에서 세대로 상속 가능한 유일한 자원인 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달할수록 계층 혹은 계급구조가 공고하게 제도화되며, 계층 간 상승 이동 및 하강 이동 기회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 빈번히 관찰된다. 여기서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의 핵심에는 교육이 자리하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설득력을 확보해가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제임스 콜만(Coleman, 1987)의 연구에 따르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족의 소득 수준이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마이클 러터(M. Rutter)의 연구 또한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유형, 교실에서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수업 준비가 얼마나 철저한가 등 학교 환경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사이에는 유기적 연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하류층 자녀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교육 제도 자체에 이미 학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별(tracking)하는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곤 베이실 번슈타인(Bernstein, 1975)에 따르면 계급 혹은 계층에 따라 언어 사용 방식에는 체계적 차이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중류계급의 언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교사 또한 중류계급 출신인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하류계급 어린이는 교실 환경 자체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제한된 약호(restricted code)”를 사용하는 하류층 자녀들은 중류층의 언어인 “구체적 약호(elaborated code)”를 충분히 숙지하여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학교에서 열등생이 되어 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교 규율 및 교사들의 언어는 일반화된 원리를 표방하거나 비정서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에 반해, 하류층 자녀들의 언어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상황을 진술하는데 적합하기에, 이들에게 학교란 자신들의 삶의 양식과 유리된 곳이요 교사들과의 의사소통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번슈타인의 주장이다.

여기서 번슈타인이 하류층 언어와 중류층 언어 사이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학교가 중류층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류층 자녀들에게는 적응 및 성취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하류층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사뮤엘 보울스와 허버트 진티스(Bowles & Gintis, 1976)가 주창하는 바 “현대사회 교육이란 산업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경제적 욕구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라는 주장도 많은 설득을 얻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학교는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사회적 자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곧 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권위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할 것과 규칙이나 규율에는 복종할 것을 가르치며, 어린 시절부터 규칙적 생활을 몸에 배도록 훈련시킴으로써 향후 조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예기 사회화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상벌제도는 직업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벌제도를 반복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곧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을 위해서는 강력한 미래의 성취동기를 제공하고 업적을 성취할 경우 그에 부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그러나 학업 지진이나 일탈 및 탈선을 하는 학생의 경우는 학교에서부터 장차 사회에 나갔을 경우 미숙련 저임금 단순반복직 노동시장에 편입되리라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부터 성적을 기준으로 일정한 트랙을 규정함으로써 평생에 걸친 삶의 기회가 어린 시절의 학업 성취도를 통해 미리 재단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들 논의를 수용한다면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견제하는 제도이기보다는 기존의 불평등을 재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하기도 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규정된다.

(2) 학벌주의 관련 논의

학벌(學閥)은 우리 사회만의 매우 독특한 현상을 포착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제이며, 그런 만큼 학벌을 주제로 한 연구의 대부분은 학벌주의의 폐해를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이를 한국사회 발전 및 시민사회 성숙의 주요한 장애물로 규정한다.

강준만(1996), 김동훈(2001), 이정규(2003), 김상봉(2004) 등의 연구가 이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연구의 기본적 기조는 한국의 학벌 속에는 신분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김동훈(2001)은 학벌은 하나의 권력이자 신분이며 사회적 관계라 단정한다. 한국사회에서 “좋은 학벌”은 기득권 사회로 편입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원천이라는 것이다. 반면 좋지 않은 학벌은 능력과 관계없이 과도한 불이익과 차별 그리고 소외를 경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개인을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젖도록 하는 심리적 장치라는 점을 들어 학벌주의의 다양한 폐해를 우려하고 있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소수의 명문고교 및 명문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권력과 재화, 명예를 독점하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게 된다는 주장에는 우리 모두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의 폭넓은 능력 개발과 참여가 제한됨으로써 사회발전의 총체적 에너지가 저하되고 무기력과 불만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벌이라는 증서 취득에 사회적 에너지가 집중됨으로써 소모적 경쟁이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됨은 진정 개인과 가족적 차원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양산해내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작업이 필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학벌사회란 학력사회(credential society)와는 구분되는바, 학력사회가 제도

권 교육의 이수 연한 정도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에 의해 사회적 차별이 이루어지는 사회라 한다면, 학벌사회는 사회적 불평등을 넘어 문화적 봉건성과 맞닿아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봉건성을 분해해보면 첫째, 학벌이란 외관상으로는 공정한 입시경쟁을 통해 획득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번 얻어진 성취 지위가 귀속지위화 됨으로써 준(準)신분화 되는 집단”이 된다는 것이다. 일단 얻어진 성취지위는 연고주의 문화와 맞물리면서 학벌과 무관한 취직, 일상사, 인간관계, 나아가 결혼 등에까지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의 사회적 행위를 구속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벌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문화자본의 영향 하에 대대로 세습되는 특성을 강화시켜가고 있고, 동문회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배타적 이해관계를 공고화함은 물론, 명문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국의 파워 엘리트 집단을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 IV-1>은 명문대 출신의 권력 독점 현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표 IV-1> 명문대 출신의 사회 요직 점유율(한국)

출신대학	16대 국회의원 당선자*	교수 배출	국내 100대 기업 CEO	국내 693개 상장회사 임원	1-3급 고위직 공무원
서울대	104	15,251	74	1,268	571
연세대	17	4,828	16	457	117
고려대	35	3,939	14	515	145
성균관대	13			233	108
한양대		2,838			
경북대	5	2,507	8	301	
부산대			5		
육사					128
경희대	9				

출처: 김동훈(2001), p.26에서 인용.

* 순수 학부 출신을 의미함.

학벌사회를 옹호하는 견해는 직·간접적으로 “경쟁”이란 단어와 연관성이 있다. 학벌사회는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 기능을 담당하며 경쟁사회에서는

불가피한 하나의 발현형태라는 것이 옹호론자들의 논리이다.

이른바 “경쟁동기론”의 골자를 보면 학벌사회가 경쟁의 동기(모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학벌이 그것의 보유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를 뜻한다. 여기서 보상은 각 개인이 학벌취득 또는 자기 성취를 위한 경쟁에 참여하도록 적극적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기회균등론으로서, 공정한 규칙에 의한 공개시험인 입시를 통해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자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재력이나 권력이 없는 소외계층도 노력만 한다면 좋은 학벌을 취득해 사회 상층부에 진입할 수 있고, 이것이 사회의 건강성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능력지표론으로 신분사회에서 능력사회(meritocracy)로 옮겨가는 근대사회에서 학벌은 가장 시뮬라한 능력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하나하나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경쟁동기론에 대해서는, 경쟁의 미덕 중 하나가 사회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학벌주의는 대학입학 후 전 생애에 걸쳐 경쟁의 모티브를 앗아감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체시키는 암적 요소라는 것이다.

기회균등론 또한 허구로서, 기회의 평등에만 집착하기보다,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능력지표론에 대해서도, 입시경쟁이 개개인의 능력을 강도 높게 계발하는지, 입시를 통해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선발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입시성적 고득점자=우수 학생=명문대생=엘리트=사회지도자’라는 상징조작에서 수능 성적은 능력의 지표라기보다는 차별의 이유라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다. 결국 소수자를 발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확률의 편견이 지배하는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갈등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을 갖출 때만이 학벌사회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적 연결망은 고교 평준화 이전 시기 까지 출신 고등학교임은(김선업, 1993) 검증된 바 있다. 이는 사회 일각에서 “명문고 마피아”가 형성되어 있다는 인식에도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겠다.

학벌에 따라 형성되는 연고주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발휘하는 양날의 칼과 같다. 실제로 우리식 연고주의는 유사 공동체 의식 및 유사 가족주의로 나타나면서 국가나 집단이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유교 자본주의의 성공 요인으로 확대 해석되기도 하여, 서구식 합리주의의 기준에 따르면 불가능한 목표를 유교 자본주의 하에서는 달성해냄으로써, 유교권 국가들로부터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음을 설명해내고 있다. 즉 연고주의가 발달된 유교권 국가의 경우, 공식적 통로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과업을 비공식 통로를 활용하여 가능한 과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고주의로 인한 역기능도 두드러져, 다원화, 분화, 전문화, 이질화되어 가는 환경에 대한 자생력, 적응력, 탄력성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 또한 연고주의라는 주장도 있다. 그리하여 변화, 발전, 성장, 성숙을 위한 내부적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3) 가족공리주의와 교육열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한국 국민 전체의 관심사요 그것도 항상 뜨거운 관심사이다. 이는 한국사회 특유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과도한 교육열이 낳은 결과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기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식 가족주의의 특성 해부를 시도해보기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주의가 강고하게 자리하고 있음은 한국사회의 변화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한국사회는 해방과 6.25를 위시한 극심한 사회혼

란기를 거치면서 가족 이외에는 자신을 보호해줄 어떠한 조직도 없음을 실감하는 동시에, 생존자체가 위협받는 한계상황에서 직계가족중심의 연줄망에 기초한 사회조직원리 및 가치규범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급격하고도 농축된 사회변화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개인적 불안이 확산됨으로써 집단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의 가족주의가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조혜정, 1985:81, 1988).

나아가 생존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단계에서는 “가족주의적 가치가 소시민적 가족지상주의 내지 단선적 출세주의를 그 특징적 내용으로 하며 활성화”(조혜정, 1985)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지위상승의 가능성이 급속히 확대된 사회에서 가치 재구성 작업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가족집단주의가 출세주의적 성향을 띠며 강화됨은 자연스러운 귀결로 해석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공리적 가족주의”의 주인공으로 여성이 부상한다는 점이다(조혜정, 1985; 김은희, 1995).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생계유지의 보루인 동시에 가족유지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지녀왔다. 이 때 가족의 유지는 엄격한 위계서열과 각 구성원의 분명한 역할인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기서 장남의 헌신과 여성들의 책임이 특히 강조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터와 가정의 분리가 엄격해지면서 가정은 비정한 사회의 안식처로 남게 되고, 가장인 남성의 수입이 상승함으로써 노동참여의 필연성이 감소된 중산층 여성은 일터와 학교에서 시달리는 가족성원을 정서적으로 뒷바라지하는 전문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가정중심성을 핵으로 한 부부중심 핵가족화가 확립되어간 서구의 경우, 바로 이들 중산층 주부들의 해방운동에 의해 주관적 가정주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이 폭로된 반면(조혜정, 1988; Faludi, 1991),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부 자신들이 가족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쟁에 활발히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족우선적 가치지향이 오히려 여성들에 의해 고수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가족집단이 가족 밖의 사회조직과 경쟁적이며 대립적으로 분리된 관계에 놓여있지 않다. 곧 가족에 충실하다고 해서 사회에서의 출세

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집안”이 잘되는 것과 사회에서 가족성원이 성공하는 것이 동일시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에서의 경쟁이 극심하다고 생각될수록 “집안”의 도구적 중요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사회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집안의 실질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김은희, 1995).

아내는 집안일을 떠맡으며 이웃, 아이들 친구의 학부모 또는 학교 동창들과 여자들만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한다. 부부사이의 유대는 서로 다른 역할 수행으로 인한 상호의존성에 의해 주로 유지되고 낭만적 사랑에 입각한 정서적 유대는 강조되지 않는다.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들의 사회적 성공과 출세를 중시하고 자식의 기를 살려 성공을 돕는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된다. 한마디로 한국 도시 중산층 가족은 가족 성원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기능적이고 영속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은 공적 영역에서도 집안의 성원으로 인식되며 가족이 곧 한국사회의 경쟁단위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감옥에서 인재를 기르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김덕영, 2007:15)는 혹독한 평가가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학교는 감시하고 처벌하는 감옥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감옥이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그와 더불어 가정과 학원을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즉 “어린 시절부터 전 사회적 차원의 감옥에 갇힌 채 감시와 처벌 속에서 인재로 양성되고 있다”(김덕영, 2007:16)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더욱 더 불행한 사실은 이 감옥이 매우 견고하여 아무도 이곳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3) 생애주기 관점에서 본 청소년기 이해와 사회화

대부분의 사회 속에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되고 구성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시간표(social time table)가 존재한다(Mortimer and Shanahan, 2003). 우리나라와 같이 관습의 영향이 강한 곳에서는 “적령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표적 사회적 시간표의 하나인 생애주기는 탄

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겪게 되는 주요한 경험을 중심으로 단계를 설정한 것이다.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괄목할만한 사건으로는 학교 입학과 졸업, 진학, (남서의 경우) 군입대, 취업 및 이직, 결혼 및 이혼, 자녀 출산 양육 교육, 탈(脫)양육기 및 노후, 배우자 사망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표 IV-2>는 생애주기별 사회화의 내용 및 주체를 요약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교사의 의미와 역할이 개인의 생애주기별 사회화 과정에서 어떤 자리를 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Pallas, 2003). 표에 따르면 사춘기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주요 주체는 이차집단과 학교, 그리고 대중매체이며, 사회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추상적 개념 학습, 자아개념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준거집단의 출현을 들 수 있다.

<표 IV-2> 생애주기별 사회화의 내용 및 주체

연령	생애주기 단계	사회화의 내용	사회화의 주요 주체
1세 이하	신생아 (전인간)	양육 담당자에게 절대 의존 학습된 반응(간단한 소리) 사람들 구별 시작	원초집단 (가족과 또래집단)
2세~7세	아동기	언어 습득 자아 개념의 시작 및 사회성의 발달 규범의 내면화와 역할 학습	원초집단 TV 및 대중매체의 영향권
8세~16세	청소년기 (사춘기)	추상적 개념 학습 자아개념의 변화 새로운 준거집단 출현	이차집단, 학교 대중매체의 영향 확대
17세~20세	청년기 (전성년기)	역할의 확대 및 혼란	사이버 공간
21세~65세	성년기	역할의 다양화 및 안정 중심적 역할 수행	직장(사회)
65세 이후	노년기	은퇴 및 역할 축소 삶의 정리	가족, 종교

교사들의 사회화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이해하는 작업 또한 교사의 사회화 주체로서의 의미 부여작업에는 필수적이다. 사춘기 혹은

은 청소년기로 불리우는 이 시기는 생애주기의 특성 상 매우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생애주기 학자들이 정리하고 있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첫째, 청소년기는 “모색의 시기”(time of seeking)이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내적으로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을 무수히 던지며, 외적으로는 ‘내 자리는 어디인가?’를 열심히 찾아 나선다. 더불어 자신의 공허함을 충족시켜 줄 누군가를 애타게 찾아 나서기도 한다.

둘째, 청소년기는 “혼돈의 시기”(time of turbulence)이다. 육체적 성숙은 빨라지고 있으나 사회적 성숙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며, 동시에 정서적 불안으로 인해 희망과 절망이 끊임없이 교차되는 일상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차오름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셋째, 청소년기는 “방임의 시기”(time of carefree wondering)이다. 한편으론 세속적인 것에 대한 환멸을 보이면서 동시에 실현 불가능한 환상을 꿈꾸며 극단적 미성숙함과 성숙함의 부자유스러운 공존 현상을 보인다.

사춘기 청소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개인의 자아 형성을 위한 “자기 탐색” 및 “자기 표현”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야말로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라는 사실이다. 이 시기 사회문화적 영향력의 한 축을 구성하는 교사의 역할을 정확히 자리매김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 청소년기 과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사춘기를 둘러싼 제도적 요건과 발달 과업상의 요구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음 <표 IV-3>은 사춘기 발달 과업 상의 특징 및 구체적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IV-3〉 사춘기 발달 과업 상의 특징 및 내용

발달 과업	구체적 내용
A. 호르몬 작용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	- 일차 및 이차 성징 발현 - 급격한 성장 발육 및 체중 증가
B. 신체적 변화로 인한 심리적 과업	- 외모의 변화 진행 - 성과 관련된 느낌의 발현 및 발달 - 호르몬 변화로 인한 정서적 불안 조절 - 동료와 성장 속도의 격차가 확대될 경우의 적응
C. 사회 변화 적응	- 사춘기 사회로 진입; ‘중학교 문화’ ‘고등학교 문화’ 습득 - 이성관계의 중요성 강화 - 성숙한 행동 및 책임감에 대한 요구 증가 -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확대; 운전면허, 음주, 투표권 등 - 진학, 취업, 결혼 등 생애주기별 전이 선택
D. 인성 발달과 사회적 성격	- 자아(self)를 탐색하는 과정과 정체성 구성 - 생애 목표 및 가치 설정 - 적성을 고려한 관심영역 및 skill 습득 - 사회적 역할을 위한 예기 사회화 - 자신과 타인의 상충하는 요구 조정 - 이성과 친밀성 교환 - 장래 직업과 결혼을 위한 준비

출처: Cohen, 1987:109. <Table 5-1> 요약.

사춘기의 청소년의 발달과업 가운데 학교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이 시기는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Kohlberg의 연구에 따르면 사춘기 초기의 도덕성은 처벌이나 불인정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하나, 사춘기 중기에 들어서면 권위를 향한 복종 및 보편적 선(善) 혹은 당위성에 대한 동조심이 발동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황금 법칙” 및 보편성에 대한 강한 신념이 형성되는 만큼, 지나치게 현실적이거나 다분히 냉소적 성향을 보이는 성인으로부터 상처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단 이 시기에는 도덕성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엔 일정한 괴리가 나타나 머리로는 보편적 원칙에 경의를 표하나 이를 실행에 옮기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이 시기는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단계로서, 학습 경험에 있어서도

일정한 깊이가 만들어진다. 아인슈타인이나 다윈과 같이 천재성을 인정받은 이들의 경우도 12살이 넘어서야 천재성의 징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춘기 인지 능력의 핵심은 배움을 향한 강력한 동기 유발에 있는 바, 동기를 유발하도록 자극하는 요인은 일정한 사회적 환경에서부터 파생된다.

그러나 사춘기 청소년의 집단적 문화에서는 지식을 추구하기보다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은 흥미롭다. 이들의 동년배 문화는 부모나 성인의 감시 통제로부터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한편으로, 자신의 취향에서부터 행동 기준에 이르기까지 만족도를 평가하고 저울질하는 기준으로 친구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이 시기는 성인의 생활세계로부터 격리가 진행되는 단계인 만큼, 동년배들 사이의 취향이나 이해관계에 더욱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이 시기는 정체성 형성과 관련해서 가장 괄목할만한 변화가 진행되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로부터 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의미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의 중요성이 증가한다. 결국 자신이 중요성을 부여하는 가치가 무엇이나,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참여하는 활동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스스로 가장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정체성이 형성된다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화의 주체로서 교사가 사회화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중심으로 교사의 사회화 역할 및 의미를 재단해볼 것이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 및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사로서의 정체성: 교사는 교사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 (2) 교사와 학생의 관계: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에서 사회화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 (3)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는 교사의 사회화 주체자 역할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 (4) 학교 조직에서의 경험: 교사는 사회화의 주체로서 자신이 속한 조직 문화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 (5) 현재 공교육 위기로 대변되는 문제에 대해 교사 자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교사의 사회화 역할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상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심층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2)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사회화의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을 이해함에 배경이 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로서는 교육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 학벌주의, 가족 공리주의, 그리고 생애주기 과정에서 사춘기 청소년의 특징 및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2) 질적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청소년 사회화를 주제로 한 실증 자료의 해석에 깊이를 더하고,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심층 면접”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병행하고자 한다.

심층면접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 선정 시엔 다음 범주들을 고려하였다.

- ① 지역: 서울의 강남 vs. 강북 vs. 수도권 신도시
- ② 평준화 여부: 평준화 지역 vs. 특목고
- ③ 교사의 성별: 남자 교사 vs. 여자 교사
- ④ 교사의 근속년수

이상 4개 변수²⁾를 고려하여 모두 8명의 교사와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포커스 그룹 면접은 2집단으로 나누어 모두 8명과 진행하였다.

3) 질적 연구방법에 관한 논의: 사회 세계(social worlds)의 탐구 과정

심층 면접의 진가는 사회 세계를 탐구함에 있다 하겠다. 여기서 사회 세계라 함은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 긴밀히 공유되고 있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 사회 세계의 실체는 사회통계상의 숫자나 관찰 가능한 현상보다 더욱 복잡하고 유동적인 것이 사실이다(Gubrium and Holstein, 2006).

사회 세계란 개념은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하나는 특정 집단을 구성하는 성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련의 경험이자 독특한 삶의 양식을 의미한다. 교사 집단이 그들만의 사회 세계를 지니고 있다 할 때, 그 의미는 그들만의 독특한 이해관계, 관심사, 취향, 골칫거리, 그리고 심지어 그들만의 통용어(vernacular) 등이 존재함을 지칭한다.

두 번째 사회 세계의 함의는 *working view of reality*를 뜻한다. 곧 구성원들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부이다. 이 경우는 경험보다 관점이 강조된다. 결국 경험에 부과된 의미의 총합이라 할 수 있는 사회 세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맥락에서 유형이 형성되고 내용이 갖추어진다.

학교를 하나의 사회 세계로 본다면,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사회 세계를 구성함을 가정할 때, 학교란 어떤 곳인가, 교사란 누구인가, 학교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사회화의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과 의미에 주목하는 본 연구에서는 교사 경험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포착하기 위해 다음 3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사의 경험 영역(realms of experience)의 다차원성

-
- 2) 연구 설계 초기에는 교사들이 담임하고 있는 학년을 고려할 계획이었으나, pre-test 결과 교사들의 경우 근무연한에 따라 다양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기에 담임 학년은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교사자신이 참여자의 관점에서 부여하는 다양한 의미(diverse meanings) 셋째, 제3자(관찰자)의 시선에서 보는 교사의 위상

먼저 경험의 다차원성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공간에서 상호작용에 들어가는 행위자들은 서로 다른 사회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란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예로 든다면 의사의 사회 세계는 전문적 지식을 실행하는 공간이자 치밀한 검사가 진행되고 정밀한 치료를 행하는 것이 될 것ियो, 반면 환자의 사회 세계는 고통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학교란 사회 세계는 교사의 입장과 학생의 시각에서 달리 구성된다고 할 때 각각의 사회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포착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학교 안에서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 하에서 설정되는바 교사의 독특한 자리는 어디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때 구성원들과 사회 세계의 관계에 있어 성(gender) 및 계급³⁾ 같은 고전적 사회학 변수는 사회적 자리에 더욱 복잡한 관점을 덧붙여줄 것이다.

다음으로 행위자 혹은 내부자의 시각에서 사회 세계를 알아간다는 것은 독특한 방법론상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의미의 차이는 사회적 지위 및 사회 세계에 따라 달리 나타남은 물론이다. 학생의 가출로 인한 징계처분이 갖는 의미는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에 따라 달라지고, 부모의 입장이나 학생 자신의 입장이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학생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의미의 다양성을 포착하는 데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사회 세계를 서술해야함은 물론 학교라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및 생활들이 “그들을 위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곧 학교의 일상 속에서 교사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달해야만 한다.

심층 면접의 장점을 살린다면, 사회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관점 및 다양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은 사회 세계를 “이해”

3) 일례로 남학생과 여학생은 설혹 같은 반 학생이라 해도 각기 달리 젠더화된 사회 세계 속에 자신이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전반적으로는 남학생이 보다 자유롭고 여학생 보다 구속을 받고 있다.

하고자 함이지 이를 “선 진단”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때 방법은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질문하는 것보다 중요한 기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리 준비된 질문이 적을수록 좋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순발력 있게 대처하고 예상치 않았던 질문과 관심의 흐름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해 간다. 심층 면접과정에서 고려한 질문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화 자체의 고전적 범주:

- 사회적 역할 및 기술 습득, 자아 개념 및 정체성 형성, 성 역할 사회화, 가치관과 태도 형성을 위해 교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 교사의 가치관 및 행위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 교사가 평가하는 교사의 영향력은?
- 교사의 학업지도 및 진로지도

(2)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유형 및 내용

- 교사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3) 교사의 인성 교육 내용과 효과

(4) 사회화의 주체로서 경험하는 문제점

(5)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

(6) 공교육 위기 혹은 교실 붕괴론과 관련된 문제

- 공교육 위기 및 교실 붕괴에 대한 교사들의 해석 및 비판
- 한국사회 학벌주의에 대한 교사들의 해석 및 비판
- 교실 내 “왕따 현상”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 사회화 과정에서 교사와 가족(학부모)의 역할 분담은? 등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한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 정신분석학자이자 문화인류학자로서의 배경을 가진 Rapaille(2006)은 피면접자들이 말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내용 자체보다 그들이 말하는 구조에 주목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피면접자들은 흔히 면접 상

황에 들어가 질문을 받게 되면 질문자가 원하는 내용을 응답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자신을 잘못 표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면접자들은 감정이나 본능에 입각하여 응답하기보다 이성의 힘을 발휘하여 응답내용을 구성한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스스로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Rapaille, 2006:14).

4. 사회화의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과 의미 해석

사회화의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과 의미를 탐색해보는 본 연구의 심층면접 및 포커스 그룹 면접 대상자는 <표 IV-4> <표 IV-5>와 같다.

심층 면접 대상자 선정은 눈덩이 표집(snow ball) 방법을 택하여 면접을 끝낸 선생님들로부터 신뢰할만한 선생님을 추천받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때 가능한 범위에서 교사의 성별, 연령 및 근속년수, 학교의 지역적 특성, 담당 교과목 등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표 IV-4>에 나타난바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여성 교사 5명 남성 교사 3명, 결혼 여부는 기혼 6명 미혼 2명, 연령별로는 40대 4명 30대 3명 20대 1명, 학교 위치별로는 서울 강북 지역 2명, 강남 지역 2명, 경기도 지역 4명, 공립고 6명, 사립고 2명(특목고 1명 포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면접은 비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교사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였으며, 면접은 교동이 편리한 곳을 정하여 조용한 커피 집에서 2시간부터 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면접 시 미처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점은 다시 이메일을 통해 보충하기도 했다.

<표 IV-4> 심층면접 대상자 개인적 배경(한국: 교사)

심층면접 대상자	개인적 배경
사례 1.	1989년 교사에 입문. 19년 경력, 43세, 기혼여성. Y 고등학교, S 고등학교, S 중학교, P 고등학교를 거쳐 현재 분당 P 고등학교 교사. 사회과 담당. 국립대학 졸업.
사례 2.	2001년 교사에 입문. 7년 경력, 32세, 기혼여성. 기간제 교사를 거쳐 현재 서울 강북 공립여고 교사. 영어 담당. 사립대학 졸업.
사례 3.	1988년 1차 입문 후 2007년 재입문, 40세, 기혼여성. 대학 졸업 후 1993년까지 6년 간 사립 중학교 근무, 현재 외국어 고등학교 교사, 수학 담당. 사립대학 졸업.
사례 4.	2002년 첫 발령. 6년 경력, 34세, 미혼남성. 첫 발령을 공립고인 B 고등학교에서 받았고, 현재는 수원지역 고등학교에서 근무. 3학년 경제과목, 1학년 사회 담당. 사립대학 졸업 후 사범대 편입.
사례 5.	2003년 3월 초임 발령, 5년차, 29세, 미혼여성. 첫 발령지는 경기도 이천 M 고등학교, 2006년 분당 S 고등학교로 전근. 계속 고1담임. 음악 교과 담당. 사립대학 졸업.
사례 6.	1988년 첫 발령, 20년 경력, 44세, 기혼여성. 이천 Y 고등학교, 안양 K 중학교, P 중학교를 거쳐 현재는 안양 Y 고등학교 근무. 영어 교과 담당, 사범대학 졸업.
사례 7.	1995년 첫 부임, 13년 경력, 40세, 기혼남성. 첫 발령부터 현재까지 강북 남녀공학 사립고등학교 교사. 국립 사범대학 졸업.
사례 8.	1998년 첫 부임, 10년 경력, 36세, 기혼남성. 현재 강남 공립 여자 고등학교 교사. 과학 담당. 국립 사범대학 졸업.

<표 IV-5>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의 특성이다. 포커스 그룹 선정은 1그룹의 경우는 접근 가능성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동일 학교에 소속된 교사 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2그룹의 경우는 교사 3명과 학생 3명을 혼합하여 구성하였다. 여기서 학생을 일부 포함한 이유는 면접 과정에서 교사 자신의 사회화 역할을 평가함에는 필히 학생들의 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교사 집단의 특성 상 개별적으로 접촉한 심층면접에서는

익명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토로하였으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오히려 상대 교사를 의식한 탓인지 속내를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해당 학교 주변에 위치한 커피 집에서 이루어졌고, 시간은 그룹 당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표 IV-5>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 개인적 배경(한국: 교사)

면접 대상	개인적 배경
FG 1.	1996년 교사에 입문. 12년 경력, 35세. 강남지역 사립고 교사 사회과 담당. 기혼 여성, 사립 사범대 졸업.
FG 2.	1998년 교사에 입문, 10년 경력, 35세. 강북지역 외국어고 교사 국사 담당, 기혼 남성, 사립 인문대 졸업.
FG 3.	1988년 교사에 입문, 20년 경력, 48세. 현재 강북지역 공립고 교사. 7개 공립 중학교 및 고등학교 거침.
FG 4.	1997년 첫 발령, 11년 경력, 강북 공립고등학교 교사, 36세, 기혼여성 현재 사회과목 담당
FG 5.	1981년 첫 발령, 26년 경력, 강북 공립고등학교 교사, 50세, 기혼여성 현재 수학 담당
FG 6.	1988년 첫 부임, 20년 경력, 강북 공립고등학교 교사, 44세, 기혼남성 현재 영어 담당
FG 7.	2006년 고등학교 졸업생, 20세, 여성
FG 8.	2006년 고등학교 졸업생, 20세, 여성
FG 9.	2007년 고등학교 졸업생, 19세, 여성

1) 교사의 정체성

교사의 정체성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소명의식의 약화이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관해 질문한 결과 기존 통념이라 할 수 있는 ‘가르치는 일을 천직(天職)으로 생각하는 소명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찾아보긴 어려웠다. 그보다는 소박하게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피력하긴 하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적 상황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났다.

먼저 교사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해본 결과, 대부분의 교사가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과 더불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건대 현재 교사의 역할이 도구화되고 있다는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당위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 다음의 면접내용을 보도록 하자.

“교사는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과 인생철학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선배가 되고 친구가 되어주는 상담자 역할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역할은 사라지고, 중심이 교사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 가버려 존재의 미미함에 대해 고민스러워요. 존재감이 없다고나 할까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진짜 소외된 학생들에게 상담자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봐요. 겉으로는 상담의 역할이 사회의 다른 부분으로 흡수되어 들어갔지만, 학생을 위한 전문 상담은 꼭 있어야 할 것 같고, 그것을 제가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들하고의 세대차도 있고, 교사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좀 맥 빠져요.” (사례 6)

또한 교사의 이상형 변화도 눈에 띄었다.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여전히 강력하게 느끼는 경우도 발견되어, <사례 5>의 경우는 “친구 같은 교사”를 이상형으로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상이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향한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다음의 면접내용을 보도록 하자.

“저는 교사라고 하면 조력자라기보다는 길을 이끌어주고, 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아직 능력이 안 되어 그렇게는 못하고요. 실제로는 친구 같은 교사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다고 할까요. 아이들이 다가가고 싶은 언니나 누나 같은 교사가 되고 싶고 어느 정도 학생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교사가 그 학생에 대해 나쁘게 말하더라도 제가 꺾어보기 전까지는 그대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입견 없이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사례 5)

직업으로서의 교직에 대한 만족감도 관찰되었다. 교사의 소명감이나 사명 의식과는 별도로 교사 임용과정의 어려움을 뚫고 교사가 되었다는데 대한 자긍심(pride)을 표현하거나, “안정된 직장(decent job)”으로서 최근의 교사직 인기를 반영하여 직업으로서의 교사에 비교적 만족스러움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대 고대 등 명문대학의 사범대 커트라인이 인문대보다 높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이화여대의 경우는 오래 전부터 그랬구요. 교사라는 직업의 인기를 반영하는 것 아닐까요? 일단 출퇴근이 정확하고 하는 일 자체가 험하지 않은 괜찮은 직업이란 생각이 들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일은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나쁘지 않고, 마음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란 생각도 들고, 기업에 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없는 직업... 이런 것들이 교사의 매력 아닐까요?” (사례 3)

“교사들 직업관도 세월 따라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용고시” 세대의 경우 교사라는 직업이 정년이 보장되고 방향이 있고 출퇴근이 정확해서 자기 시간을 갖기 좋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좋은 직업’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대신 임용고사 이전 세대인 선배 교사들을 보면 교사가 적성에 맞는다, 보수는 열악하지만 아이들 철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있다고 자위하는 경우를 중

중 보게 됩니다.” (사례 1)

위의 사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바 교사의 정체성 안에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에 대한 회의와 교직으로서 안정성에 대한 만족감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교사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현저히 높아지면서 직업으로서의 교사는 타인으로부터 선망의 직업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젊은 여성교사들의 경우, ‘결혼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자 후보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레 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분위기를 전하는 교사도 있었다. 다만 타인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진 교사를 보면서 학생들이 교사를 자신의 “역할모델”로 설정하는지 자체는 불분명하다.

반면, 교사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회의를 보이는 교사들도 많았다. 교사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교사는 전문직인가에 대해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을 들어 회의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났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실제로는 각종 회의, 성적관리 등을 위시하여 다양한 잡무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할당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비판이 자주 등장하였다.

저는 교사는 무엇보다 ‘많이 알아야 쉽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우스개 소리가 ‘젊어서는 아는 것 모르는 것 가리지 않고 가르치다 나이 들면서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치고 더 나이 들면 아이들이 알아들을 것만 가르치고 늙어선 자기도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고 하지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성실함을 유지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아직은 많이 미흡하고, 때때로 능력이 떨어져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교사인가 사무직 종사자인가 회의가 들 때도 많구요.” (사례 8)

2) 사회화의 주체자로서 교사의 의미

교사는 사회화의 주체인가에 대한 회의: 교사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함에 있어 사회화의 주체자(agency) 기능에 대해서는 일단 회의적이거나 유

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화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거니와,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교사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교사로서 교실에서 학생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은 스스로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훌륭한 교사인지에 대한 평가는 상대 학생들로부터 가능한 것인데,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훌륭한 교사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자기비판과 더불어, 동일한 수업을 서너 차례 반복하다 보면 타성에 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대한 반성, 선행학습으로 인해 이제는 교사가 교실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자조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음의 면접내용을 보도록 하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교사인가를 평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평가를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100% 주는 교사인지 80% 정도 주는 교사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접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나 생각해보면, 중학교 교사 시절엔 수업 부담이 과중하여 앵무새처럼 똑같은 것을 반복했던 기억이 많고, 고등학교 교사 시절엔 ‘뽀대는 아이들과 진을 빼느라’ 고생한 기억이 많네요. 담임을 맡는다 해도 조회 시간, 종래 시간에 얼굴 한 번 보고, 야간 자율학습 때 조금 챙겨주고, 교사로서 학생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긴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사례 1)

“예전 중학교 교사 시절에는 1주일에 수업 24시간을 했습니다. 정말 ‘개미처럼 일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절감했지요. 같은 수업을 4 학급에 들어가서 반복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수업은 ‘버벅대느라’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두 번째 시간이 되면 그런대로 수업이 제대로 굴러가는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할 때는 솔직히 지겹습니다. 농담까지 똑같이 하는 자신을

볼 때면 저 스스로가 싫어집니다.” (사례 3)

“학생들이 선행 학습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갓 부임한 경륜이 짧은 교사의 경우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당일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교사는 당일치기를 했으니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실에 들어가면 학생들로부터 ‘실력 없다’는 평가를 받기 일쑤이지요.” (사례 2)

교사의 무력감도 자주 관찰되는 내용이다.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하에서,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우는 현실 앞에서, 교사들은 자신들이 허위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자괴감과 현실의 부정적 요소를 교정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일상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선생님 말씀이 학생들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와 같은 추상적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교사 중엔 매우 솔직하게 ‘나는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교사의 위상이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토로하였다. 다음의 면접내용을 보도록 하자.

“솔직히 학생들 앞에 서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너희들 착하게 살고 성실한 사회인이 되거라.’ 교과서 같은 말을 해주면서 동시에 학생들에게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해라. 너희도 노력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허위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고의 경우는 한 반에 약 10% 정도만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합니다. 저희 학교에선 고3 400명 중 40명 정도만이 플래카드에 이름을 올렸어요. 특목고의 경우는 사정이 나아서 진학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아마 그 비율도 재수생을 포함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너희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일류대 못 나와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

렇게 가르쳐주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면 뒷감당을 못할 겁니다.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제가 담임한 반에 있었어요. 그 학생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용기 있으면 학교를 그만 두어라. 나중에 검정고시를 봐도 좋으니.’ 그랬더니 그 녀석이 이렇게 답하더라구요. ‘학교를 그만 둘 용기는 없으니, 성적 나오는 것 보고 되는대로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요행을 바라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 최소한 대학은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있는 것 같고, 엄마가 ‘너만 믿는다. 너는 성공해야만 한다’ 부추기는 바람에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때 그 학생을 어찌 판단해야 좋을지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사례 1)

교사에 무관심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요즘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나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관심한 경향을 드러내고 있음이 교사의 진술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교사에 대한 무관심은 반항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적 상황으로서, 교사로 대변되는 성인 세대 전체를 향한 불신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왔다.

“요즘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선생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지요. 지난번엔 학교 근처에 학생들이 자주 가는 패스트푸드점을 갔는데 한 녀석이 저를 보고 일어나려고 하자 다른 녀석이 ‘야 신경 쓰지 말고 먹기나 해’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평소엔 선생에게 무관심하다가도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면 무섭게 돌변합니다. 주로 시험범위나 시험문제를 둘러싸고 트집을 잡지요. 시험범위가 많다는 둥, 진도를 다 나가지 않았다는 둥, 시험문제가 틀렸다는 둥. 성인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한테 정작 이해하기 어려운 건 대다수 어른들은 전혀 존경하지 않으면서 일부 소수 어른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신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이지요.” (사례 2)

교사의 영향력 한계에 대한 회의도 보였다. 교사가 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는 초등학교 정도일 것이라는 폭탄선언도 나왔다. 물론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1차 사회화가 끝나면 2차 사회가 이어지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탈사회화와 재사회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교사들이 판단하기에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사회화의 중심적 기능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도 않거니와, 교사의 존재가 자신들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교직은 전망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교실에서 만나는 교사는 학생들의 미래 역할모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준거모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건 초등학교 때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크고 나면 생각도 복잡해지고 인생에 영향을 받는 상황도 많아지고... 요즘 학생들에게 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적어도 교사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그냥 거쳐 가야하는 과정, 졸업장을 주는 곳,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듯 합니다.

또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교사의 지위는 계속 하락 추세라 생각합니다. 젊은 교사들은 학생들 통제도 못하고 학생들 눈엔 어설픈 세상물정 잘 모르는 존재로 비추어지고, 늙은 교사들은 자기도 못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면서 잔소리나 일삼는 존재로 비추어지고, 그러다보니 교사 경력이 늘어갈수록 학생들에게 올인 하겠다는 비현실적 생각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례 3)

교사의 좌절도 관찰되는 대목이다. 사회화의 주체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더하여 현실에서 교사들을 압박하는 요인 가운데는 교사 내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곧 능력을 인정받은 교사는 거액의 연봉에다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학원가로

흡수되는 현실 앞에서 여전히 현장에 남아있는 교사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매우 치명적인 듯 하다. 이 현실에 대한 분노를 정당하게 분출할 기회조차 차단되어 있기에 교사들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더욱 초라해짐을 경험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다음의 인터뷰를 보도록 하자.

“교수에게 전문성이 생명이라면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기술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내가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는 전적으로 아이들로부터 검증받아야만 하는 문제겠지요. 훌륭한 교사가 되려면 아이들 통솔 능력도 필요합니다. 잘 가르친다고 평판이 좋은 선생님, 교과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난 선생님들이 속속 학원가로 흡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아 있는 우리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례 1)

“교사로서 심각하게 회의를 해본 적은 아직 없지만, 매 순간 좌절은 많이 합니다. 요즘 담임하면서 아이들 생활지도 할 때 요것들이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껍떡거리고 돌아서고 할 때는 저렇게 안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도무지 방법은 안 떠오르고.... 제 능력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사례 4)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교사가 선의의 피해자로 부상하는 가운데 심한 좌절을 경험했던 아래 교사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다음의 면접내용을 보도록 하자.

“아주 기막힌 일이 E 지역에서 근무할 때 있었어요. 학교홈페이지에 교직원 이메일이나 연락처가 공개 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해킹을 당해 어느 날 제가 어느 사이트에 제 야동을 올렸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 야동에 제 얼굴을 합성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신체 사이즈 뭐 그런 것까지 다 써서... 제 이름으로 올린 거라 연락해서 일단 지우게 하고, 누가 올렸는지 추적해 보았지만,

찾지 못했고... 그 후로 한 달 이상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
요. 아이들 중에 누군가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그 땐 참 괴로웠고
괜히 교사가 되어서 이런 봉변을 당하나 싶기도 했어요. 그 후로 잊
어버리긴 했지만 상처는 남아 있어요.” (사례 5)

<사례 5>의 교사가 경험한 사례는 향후 정보통신환경이 확대되면서 각 학
교 현장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하겠다. 이 사례에서 드러나는 바,
이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off-line을 넘어 on-line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on-line에서의 교사 학생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익명성 보장으
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은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특히 여
초 현상이 심각한 교사 조직에서 여교사-남학생 관계의 바람직한 구도 정립
또한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보람을 느끼
는 경험도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다만 이 경험이 교사로서의 긍지나 자부
심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제 다시는 그런 보람을 느끼기 어
려울 것이라는 자괴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공존하고 있는 듯 하다. 다음의
면접내용을 보도록 하자.

“아직 교사경험이 그리 많지 않아 무어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교사 부임한 첫 해에 졸업시킨 아이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또 같은
동네에 사는 제자도 있고요. 그 애들이 졸업하고 찾아와서 선생님
때문에 사회대를 지망했고, 제가 가르친 것이 대학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정말 뿌듯합니다. 뭔가 제 스스로 큰 일을 한 것 같다
는 느낌이 들지요.” (사례 4)

“교사로서의 보람은 아이들이 변해갈 때입니다. 경기도 E 지역에 있
을 때인데요. 그 곳은 지역적 특성이 강해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어요. 한 반에 대략 그런 아이들이 2/3는 되었고
데, 말과 행동이 거칠고 상스러운 말도 많이 썼어요. 저도 처음 그 곳

에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엄하게 다루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애들이 튀었어요. 그래서 거친 애들을 이를 악물고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저도 거기에 익숙해졌고, 그 아이도 처음엔 좀 어색해 하더니 곧 조금씩 순해지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해 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의 작은 힘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례 5)

“제가 교직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들을 보았는데 E 지역 Y고는 지역적으로 어려운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부모가 방치하고 사회가 외면해 버린 학생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학교를 수시로 빠지고, 가출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과 상담하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환경이 그러니 그 애들만 나무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과 수없이 이야기하면서 관계맺음을 했죠. 차츰차츰 결석이 줄고,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고... 제가 그때는 늦게까지 남아서 그들에게 무료 개인지도도 했어요. 단어도 외우게 하고 영문법도 가르치고... 소위 트레이닝을 시켰지요. 결국 그 아이들이 공군사관학교, 성균관대를 갔어요. 또 한 아이는 제가 지역사회에 부탁을 드려 치의대를 가기도 했구요. 지금은 졸업해서 어엿한 회계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그런답니다. 지금도 가끔 만나요. 그때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 때 일을 생각하면 뿌듯한데...” (사례 6)

“처음엔 보람을 자주 느꼈던 것 같은데 좌절은 요즈음 느껴요. 교사 일이 그날이 그날 이에요. 무언가 하려고 해도 되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럭저럭 넘어가고... 나를 걸고 무엇을 해서 성취감을 느끼기 보다는 항상 학생들 뒤에서 대리만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쬼지도 늪지도 않은 제게는 좀 그래요.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걸 느끼면서, 나의 교육관이 현장에서 잘 먹히지 않는 걸 느끼면서... 우리는 70-80년대의 마인드가 남아 있는데, 사회는 엄청난 변동을 하여 따라가기가 버겁네요. 아니

겉으로는 따라가는 것 같아 보여도 속은 따로 놓고 있죠.” (사례 7)

이상의 사례로부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인 즉, 가르친 학생들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겪었거나 역시 작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발전을 도모한 경우이다. 특히 교사 본연의 자리에서 학습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학생을 지도했던 열정이 보답을 받았을 때, 부모로부터도 소외된 학생들이나 학업 부진 학생들에게 정성을 기울임으로써 정서적 치유와 더불어 학업성취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을 때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학생들을 향한 열정이 교직 이수 기간이 늘어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쳐 계속 감소 내지 완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사회화의 주체로서 교사의 진정한 역할이 학생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면, 교사의 자아 보람을 넘어 사회화 기능이 입시 교육 기능에서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3) 교사 역할의 한계: 학(부)모 관계로 인한 긴장과 갈등

학부모 관계로 인한 긴장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다. 사회화의 주체자로서 교사 역할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학부모 특히 엄마의 통제력 강화가 자리하고 있다. 교사들은 과거 교권에 해당되는 영역에 적극 개입하는 ‘극성 엄마’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학부모로 인한 긴장과 갈등이 커지면서 교사들은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가을 TV에서 [강남 엄마 따라잡기]란 드라마가 주목을 끌고 있던 당시였기에, 드라마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교사로서 학부형과의 관계를 질문해본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공통적으로 교사-학생 관계보다 교사-학부모 관계가 더욱 어렵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의 면접내용을 보도록 하자.

“교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학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건 시험문제 출제 때입니다. 시험지에 오타가 한두 개만 있어도 출제 교사를 무능하다고 질타하는 분위기 인데다, 시험문제가 좋았네 나빴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행여라도 문제를 잘못 내면 즉각 학부모의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시험기간만 다가오면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면 기존 참고서에 있는 문제는 당연히 안 되고, 교과서 내에서 출제를 하게 되면 쉬운 문제 냈다고 이리저리 눈총 받고... 결국 요령을 피울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 한번 출제했던 시험문제를 참고로 그걸 응용하든가 비틀어내든가 할 수밖에 없지요. 한데 요즘은 시험을 보고 나면 정답 시비가 끊이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특히 학부형 중에 관련 주제를 전공한 교수나 전문가가 있는 경우엔 정답시비를 가리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기 자녀가 시험을 못 봤다 싶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무효화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문제 있다”면서 교장실에 항의를 하는 것이지요. 특목고 교사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은 내신 경쟁이 치열하기에 학부형들 항의도 치열하답니다.” (사례 2)

“학부형 반발을 무마하려면 미리 미리 손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 평가라는 것이 있어 평소 성적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네 점수가 이 정도니 앞으로 알아서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중에 학부형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부형들 앞에서 교사의 권위는 말이 아니죠. 시험점수 고쳐달라는 항의, 우리 아이를 왜 때렸느냐는 체벌 항의 등에서 나타나듯 선생의 권위는 절대로 높다고 할 순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학부형 입장에서 교사가 마음에 안 들 때는 당당히 바꾸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교사 배치 및 할당은 ‘교과 협의회’에서 하는데요,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 선생님이 고3 담임을 맡고 젊은 남자 선생님이 고1 담임을 맡게 되었던지, 고3 학부형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요구해서 두 분 선생님을 맞바꾸었습니

다. 정말 좋은 선택은 아니었지요. 마침 1학년 학부형들 반말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 선생님은 이 상황에서 이중의 차별을 받았던 셈이지요. 나이 많은 선생님은 무조건 기피하는 연령차별도 있고 웬지 남자가 더 실력이 있다고 믿어 남선생을 선호하는 성차별도 있는 것이지요.” (사례 1)

최근 학부모의 교육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학부모의 교육 현장 개입이 보다 노골화되고 있음이 눈에 띈다. 학부모의 개입이 적극화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학부모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점, 더불어 학부모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가 증가하면서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점, 학부모들이 자녀 성적을 막강한 파워로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이 지목되고 있다.

‘열성 엄마’와 ‘방임 엄마’의 역설: 학부모 유형을 이분화하자면 자녀교육에 매우 열성적인 경우와 지나치게 방임적인 경우로 나누어진다. 한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열성 엄마’나 ‘방임 엄마’ 모두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음은 역설이다. 교사들 입장에서도 교사-학부모 관계에서 교사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파워를 행사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엄마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현실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교사들은 ‘열성 엄마’든 ‘방임 엄마’든 불편한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교사는 자녀를 볼모로 잡고 있는 왕이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학부형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도 있고 사회적으로 유명인사도 있고 교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연봉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자식 앞에 장사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은 분이 학부형이라 해도 ‘내가 당신 자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데야 어찌겠습니까? 일단 자식 앞에서는 교사가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는 왕이지요.” (사례 3)

“예전엔 부모보다 선생님 영향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최근 들어 부모의 SES가 높아지면서 부모의 입김이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남 엄마들은 ‘내가 (선생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여전히 교사의 통제력이 강한 듯합니다. 수원 지역만 해도 학교에 아이를 전적으로 맡기는 부모가 대다수라고 들었습니다.” (사례 2)

“명문대 진학은 아이 능력 50%, 엄마 능력 50%라는 것이 공식이에요. 엄마들 이야기도 ‘하루 스케줄 짜고 각종 정보 및 입시 강좌에 참석하다 보면 일할 때보다 더 바쁘지만, 아이 장래를 생각하면 후회하지 않는다’고 해요. 엄마들이 입시 매니저예요.” (사례3)

한편,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의 삼각관계 속엔 다양한 갈등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학생이 성적이 좋은 경우 성격도 무난하여 별다른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학교 성적을 통해 무소불위의 파워를 행사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가장 갈등이 적은 경우는 학생이 공부를 잘 할 때이다.

학업 성적이 부진한 경우는 엄마가 지나치게 아이를 방임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학생 스스로가 문제아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이 는 어른의 거울’이란 속담은 특별히 교사의 입장에선 금과옥조로 삼아도 좋을 만큼 많은 진실을 담고 있다. 다음의 면접내용을 보도록 하자.

“요즘 교사들은 스스로 ‘보모 같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학부모 들은 자신이 다루기 어렵고 솔직히는 부딪치기 싫은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저희 선생들에게 맡겨 놓고,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런 아이들 데려다 ‘야자’(야간자율학습)도 시켜 주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셈이죠.” (사례 1)

“아이가 성적이 좋은 경우는 대체로 아이 성격도 온순하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격이 무난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통제도 되구요. 부모와 아이 관계도 좋습니다. 문제는 아이 통제가 안 되는 경우예요. 가장 나쁜 사례는 성적 나쁘고 가부장적 아버지를 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아이는 엄마를 우습게 알고 아버지를 무서워하게 되죠. 엄마는 아이 성적이 나쁘다고 하면 남편이 아이를 사정없이 때릴테니 집안의 분란을 막기 위해 쉬쉬 하게 되고 결국은 공범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사례 3)

“저는 매스컴에서 비난하는 극성 엄마는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매스컴에서 과장한 측면도 크지만요. 잘 나가는 엄마를 공격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강남엄마들이 그것도 많이 배우고 남부러울 것 없는 엄마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정신 나간 짓, 비난 받을 짓을 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아이들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례 2)

“촌지”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한 교사들이 많았다. 교사에게 “촌지”는 여전히 미묘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다. 교사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 문제를 다루는 묘안을 마련해가고 있는 듯 하다. 다만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열의 내용과 정도가 달리 나타나고 있음에 대해서는 교사 입장에서 분명한 비판의식을 견지하고 있었다. 다음의 면접내용을 보도록 하자.

“학기 초에 담임을 맡으면 학부모들이 선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담임이 어떤 타입인지 알아보려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물은 안 받겠다고 돌려보내고, 제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리면서 그쪽으로만 연락하고 가능한 한 학교에는 오시지 말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제 나름의 캐릭터가 되었어요. 그런데 불편한 건 학교 옮길 때마다 똑같은 일

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원칙을 강조하니까 학부모에게도 먹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상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교사 마음을 이해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의 이해관계만 안 걸리면... 이 곳 학부모들은 쿨합니다. 학부모와는 너무 멀어도, 너무 가까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례 4)

“E 지역과 부유한 신도시 지역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거기 는 결손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이 반에서 2/3는 되고, 부모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자녀교육에도 무관심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 학부모를 부를라치면 부모가 서로 미루어요.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기도 하지요. 학교에 모든 걸 미루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분당에 오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학부모가 학교를 좀 믿어주었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믿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많고요. 여기 오니까 선물, 심지어 현금까지 가지고 오시는 데, 민망하지 않게 돌려드리는 것도 좀 스트레스예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는 믿지 못하면서... 그렇지만 자녀 교육에 적극적인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이전 지역과는 너무나 달라 저는 처음에 좀 혼란스러웠어요. 한 쪽은 너무 무관심, 한 쪽은 지나친 관심.” (사례 5)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교사 입장에서 는 학교에서의 사회화 못지않게 가정교육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사회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교사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가르치기엔 너무 늦은 “기본적 사항”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과업이 정당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교사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다음의 면접내용을 보도록 하자.

“학부모들이 좀 일관성 있게 아이들을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는 자신들도 비교육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면서, 학교에 와서 교사가

조금이라도 야단치면 자기 아이만 그러는 줄 알고 지나치게 예민하게 굴어요. 그리고 교사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하구요. 지나치게 아이들을 감싼다고 할까요? 기죽을까봐 그러는지... 아이들이 중학생이면 중학생에 맞게,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에 맞게 발달단계에 맞게 사회성, 책임감, 물건 간수하고 치우기, 학습하는 법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서 학교에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그 부모들도 부메랑처럼 당할 텐데...” (사례 6)

4) 폐쇄적 조직문화와 교사 간 관계

폐쇄적 교사조직 내 교사의 위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교사는 학생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의 주체이기도 하나 스스로 사회화 과업을 수행해가는 행위자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사실인 즉, 교사들은 자신의 주요 활동 공간인 학교 조직 및 환경의 폐쇄성 및 비합리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학교의 조직적 특성에 대해 질문해본 결과 교사의 직업세계를 대학시절과 비교해서 사범대학의 연장선상이라 보는 경우도 있었고, 기업과 같은 조직과 비교해서 폐쇄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의 면접내용을 보도록 하자.

“저는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사범대에 편입하여 교사 자격증을 따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세가 기울어 경제적으로 저를 계속 뒷바라지 해 줄 사람이 없어서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사범대에 편입하여 취직한 것입니다. 그 전에 저는 군대 갔다 와서 한 1년 간 중국에 여행 겸 어학연수 겸 다녀오기도 하여, 중국어를 물건 살 만큼은 합니다. 그런데 사범대는 사회학과와는 많은 부분 차이가 났습니다. 분위기가. 권위를 중시하고, 윗사람에게는 깎듯하고... 실력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형식을 더 중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교원시험에 합격하여 학교현장에 와보니 그 분위기 그대로

였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분위기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사례 4)

“교사들은 늘 생활하는 세계가 좁기 때문인지, 대체로 단순한 성격을 보이고 있지요. 교사들 가운데는 일반기업에 입사하면 적응하지 못한 채 쫓겨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교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후배 교사가 선배 교사에게 겹으로 얹어지긴 하지만 ‘속으로 꺾이지는 않습니다.’(강조) 자존심도 강하고, 교사들 사이에서는 기업과 같은 식의 위계서열은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례 2)

교직의 여초(女超) 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초(女超) 현상이 두드러지는 교사 조직 안에서 남성 교사들이 느끼는 위축감이 아래 사례에 생생히 표현되고 있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사회에서 여전히 ‘남자 교사’에 대해 큰 호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사 하면 남자가 선택하는 직업으로선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대가 없고, 정년이 보장되니 구조조정이나 퇴출의 위험성은 없지만 보수가 만족스러운 건 아니고, 훌륭한 교육자로서 대접받던 시대는 다 지나갔으니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론 승진해서 부하 직원 생기는 쟈도 있다는데 교사야 그런 것도 없고, 늘 사춘기 아이들과 부딪치다 보면 선생 스스로도 그 단계에 머무는 것 같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남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다지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는 교사, 교수 출신들이 여기저기 계셔서 다른 직업보다 남자인 제가 교사를 선택한 것에 대한 집안의 거부감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육체적인 일을 하는 공대 출신 기술직보다는 인정을 받는 편이지요. 아직도 양반 운운 하시는 할아버님이 집안 어른으로 계십니다.” (사례 4)

“교사들도 외부 사회와 교류가 빈번했으면 합니다. 바깥 사회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지 냉정히 인식해야 하고, 아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례 3)

“제가 교직에 오기 전에 공연 기획사에서 잠깐 일한 경험이 있어요. 그 때는 경제적으로 열악했지만 살아있는 느낌이었는데, 학교에 오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한 욕구가 없고, 심지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듯해요. 과거의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더 편하니까. 그러니까 발전을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천 있을 때는 학교일을 어린 사람에게만 시키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는 일의 4-5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교재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집에 싸들고 가는데, 집도 멀고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교재 연구하려고 책을 좀 보고 있으면 쉬고 있다고 생각하시어 또 일거리를 주셨어요. 그런 점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꼈어요. 처음 발령 받은 주제에 감히 말은 못하고...” (사례 5)

“제가 경력이 얼마 안 되는 데도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사회소식에도 둔감하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더욱 슬픈 것은 제가 때때로 그것조차 잊어버리고 정신적으로 편한 생활에 안주한다는 거지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범대를 안 나오고 일반대학을 나오기도 하여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고 있어요. 벅차고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공부하니까 좋아요. 좀 더 교육적으로 많이 알아서 좋은 교사가 되고 싶거든요.” (사례 5)

교사의 여성화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여고남제” 곧 여성의 성적이 남성보다 우수하기에 각종 고시에 여성 합격률이 증가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교직의 사회적 지위 내지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표에 다름 아니다. 교직=여성직종이란 등식이 암암리에 전제되고 있는 상황에

서 남성 교사들이 느끼는 이중의 소외감은 지금까지는 불가시적 현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남성 교사의 입장에서는 업무 과다로 인한 현실적 부담과 부정적 시선에 대한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학생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만족감의 근원이 희박해지면서 더 더욱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학교 조직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교장의 리더십과 관련된 평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 문제는 교사 자신의 “직업 사회화”와 관련해서 향후에도 연구를 진행해가야 할 과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다음의 면접내용을 보도록 하자.

“교사 경험을 통해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은 교장과 교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반골이라 해도 순응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한계가 뚜렷한 것이지요. 예전에 근무하던 학교 교장 선생님은 정말 멋진 리더십 스타일을 보여주셨어요. 재학생들이 대회에 나가 받은 상금을 모아 졸업생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언젠가는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 말씀 순서가 되자 ‘우리 잘 해 보자!’ 간단히 끝을 내셨어요. 학생들의 우뢰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지요.” (사례 3)

“여성 교장의 경우 남자 교장에 비해 power의 열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자 교장이 리더십이 약할 경우, 도와줄 인맥도 변변치 못한 경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말아 먹은 교장’이란 비난을 받기도 하지요.

여자 교장 자신들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남자 선생보다는 여자 선생들이 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남자 선생을 선호하고 나중에는 이용당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참 이상도 하지요? 여자 교장들은 여자 교사들이 신중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대개 남자 선생들은 ‘교장의 비위를 맞추어 주고, 그 앞에서만 ‘알았

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자신 있게 말하곤 합니다. 반면에 여자 교사들은 권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남자 선생들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장 앞에서 끝이끝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교장 눈 밖에 나는 거지요.” (사례 2)

“학생 마음을 잘 알아주는 교장 선생님도 훌륭하시지만 교사의 편을 들어 주고 책임지는 교장 선생님도 훌륭합니다. 교장이 교사와 관련된 일에 적극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시면 학교는 당연히 잘 돌아갑니다.” (사례 2)

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교사 조직의 폐쇄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교장 리더십의 권위주의, 교사 평가 시 교장의 강한 영향력, 교장 및 교사 간 세대 갈등의 첨예화 등이 지목되었다. 교직의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행할 수는 없는 만큼 조직 개혁 또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사회화에 직접적 영향을 행사하는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바람직한 사회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것이다.

한편 교장의 리더십에 대한 관심은 교원 평가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 과정에서 교장의 성차별적 태도가 문제시되기도 하고, 교직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남자 교사의 피해의식이 고조되기도 한다. 그런데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가운데 역으로 여성 교사들이 느끼는 “역차별”에 대한 호소도 자주 제기되었다. 곧 여성 교사들이 남성 교사들보다 능력이나 기여도 면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장의 비율은 남성이 월등히 높은 현상이라든가, 주요 보직이 남성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문제, 학부모들의 경우도 여성 교장보다 남성 교장을 더욱 신뢰하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논의되었다.

“학교에서 교사들을 평가합니다. 승진요건을 채워야 하고, 오지 근무

를 하면 점수를 더 얻는 제도도 있고... 교사 평가도 치열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교장의 ‘근무평정’ 점수의 비중이 상향 조정됩니다. 교장의 파워가 증가하면서 교사들 간의 경쟁도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사례 1)

“일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잘 합니다. 시간 관리도 잘하고 수업도 내실 있게 하구요. 물론 개인차가 크리라 생각되지만... 그런데 남자 선생들은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남자 선생들이 보다 더 학교에 헌신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지요. 여자 선생에 대해서는 일찍 집에 갔다는 사실만 기억합니다. 본인이 여자일 때는 같은 처지에 있는 일하는 엄마를 몰라주는 것만 같아 2배 이상 서운합니다.” (사례 1)

“교직에 여교사가 많다 보니, 젊은 남자교사는 꼭 학생과에 배치합니다. 담임도 빠짐없이 주고요. 일하는 사람에게만 일을 몰아주는 것 같아요. 월급은 같거나 오히려 많이 받으면서 일은 하는 사람만 더 많이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의 편중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저것 학교 업무를 하다보면 정작 교재연구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 대충 가르치는 것 저는 정말 싫은데 정말 잡일에 시달리느라 교안개발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선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점차 소신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례 4)

최근 교직 내 세대 격차로 인하여 조직문화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반성과 우려의 의견이 동시에 개진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 교사들을 중심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이는 점, 석사학위 취득 등 자기보신에 열중한 점, 보다 노골적으로 교직을 즐기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점, 공립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 대해 근무년수가 오래된 교사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교사는 어느 정도의 희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젊은 교사들일수록 권리, 단 것만 원해요. 학교가 아니라, 회사 정도로 아는 것 같아요.”(사례 6)

“임용고시라고 불릴 만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교사들이 깊이 있는 지식이나 세상을 보는 깊이가 오히려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달달 외워서 시험 점수만 높게 받은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치루고 나오는 순간 머리 속에 암기했던 것이 한꺼번에 빠져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교사들 스스로도 과외나 학원에 의지해서 그만큼 왔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해서도 별 거부감이 없습니다. 아주 익숙한 거죠.” (사례 4)

“(저도 젊기는 하지만) 요즘 교직에 들어오는 젊은 선생들은 아주 약게 사는 것 같습니다. 교사가 되자마자 교직에 어떻게 적응할지,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생각하기보다는 일찍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학위 따서 그것으로 승진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자... 뭐 그런 것부터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교직은 천직이라는 말, 그래도 자주 들었던 말인데, 실제로 사명감이 없으면 좀 어려운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기업체에 다니는 마인드로 학교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아이들 지도나 뭐 이런 일들을 노골적으로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안 합니다.” (사례 4)

“젊은 교사들은 어느 나이가 되었는데 그 나이에 걸 맞는 직함이 없으면 좀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 분야의 특출한 뭐가 없으면... 그런데 교사가 그런 걸 내세울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 너도나도 승진 줄에 가서 있지요. 그러니 교육현장에는 학습 전문가가 자꾸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학원가지 말고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라는 것이 씨알이나 먹히는 얘기에요? 그러니 공교육은 점점 어려워지고...”(사례 8)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내 학교가 아니라’는 나그네 의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겠지, 아이들에게 정 붙이면 정 떼기 어렵다는 데... 그래서 몸을 사리게 되네요.”(사례 1)

“저는 승진 욕심 같은 건 없구요, 제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직 미혼이라 자유로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직도 제도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승진기준으로 열심히 아부하고 거기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정말 바뀔텐데 말예요.”(사례 8)

“요즈음 교사 인기가 좋잖아요. 특히 여교사들. 그런데 벼버가 말한 사회적 위세가 높아져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에 붙기 위하여 시험공부만 한 교사는 교직에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이니,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재미도 없고, 걱정되기도 해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사례 4)

교사 조직문화의 혁신도 제시되고 있다. 교사 조직문화의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교사의 전문화, 교사의 재교육 내지 재충전에 대한 요구, 비전 제시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음의 면접내용을 보도록 하자.

“이곳의 지역적 특성으로 예체능을 전공하려는 애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기 전담 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해 처음 이 학교에 와서 그 땐 담임이 없고 하여 시간이 좀 있어서 음악대학을 가겠다고 제게 말한 친구가 3명 있었는데, 플룻, 피아노, 성악이었어요. 저는 제 전공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 앞에서 그 아이들이 실기시험 때처럼 시험을 보게 하여 악보 틀리는 정도만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만 실제로 아이들은 엄청 긴장을 하여 준비해 오더라고

요. 그렇게 연습한 것이 대학 실기 시험 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전공이 다른 데도 그렇게 된 걸 보면 전공자가 순회라도 하여 도움을 준다면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소수라도 도움을 주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이 어려우면 예체능 교과는 담임 배정에서도 배려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례 5)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교육제도가 필요해요. 교과지도 전문가와 학생인성지도 전문가를 분리하여 양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행 승진제도, 교원평가제도는 오히려 교사의 독립성을 떨어뜨리고, 교사가 조직과 교장, 교감에게 종속되고 복종하는 분위기를 가져올 것 같아요. 교사도 점수를 가지고 일렬로 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기나 전문성은 더 떨어지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젊은 교사들은 실력은 있는데 교사라는 소명의식은 없잖아요. 거기다 그들은 교사조직에 재빨리 흡수되고 수용돼요. 그러니 비판의식은 사라지고, 벌써 승진, 출세 뭐 이런 마인드로 덤비는 것이죠.” (사례 6)

“교육에 있어서도 비전 같은 큰 그림이 없어요. 교육제도에도 이념에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이 없다니까요.”(사례 7)

“저도 승진을 해야 할 까 아니면 이대로 있어야 하나 생각이 많아요. 우리 나이가 뭔가 결정해야 하는 나이잖아요. 안하고 늙어가자니 전문성이 떨어져 자꾸 뒤로 밀릴 것 같고, 하자고 덤비자니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사례 8)

5) 공교육 위기론에 대한 교사의 생각

공교육 위기 및 교실 붕괴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대체로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를 표하고 있었다. 다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둘러싸고는 다양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듯하다.

‘공교육 위기론’ ‘교실 붕괴론’에 대해 교사 자신의 생각을 질문해본 결과,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세대를 “망치고(spoil)” 있는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의 권위가 높게 인정받고 있는 현실의 책임으로는 교사 자신들보다는 학부모들의 왜곡된 교육관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다.

실제로 학년이 하나씩 올라가면서 학급이 한 반씩 줄어드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는 교사들로서는 개개인의 성실함이나 책임감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거대한 현실의 벽과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으로는 “수준별 이동 학습”이 제기되었으나, 이 또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다음의 면접내용을 보도록 하자.

“교실 붕괴론의 책임은 기성세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엔 학교에서 잠자고 밤엔 학원가서 공부하고... 그런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 구미에 맞추어 주는 거죠. 눈 감아 주는 거죠. 사탕 주면서 아이들 달래는 거죠. 엄마 말도 안 듣는 아이들이 선생 말은 듣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 2)

“공교육 위기는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분당 지역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급 1개씩 줄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의 경우 작년에 1학년이 14학급이었는데 올해는 13학급으로 줄었습니다. 신도시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아 있는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사례 1)

“우수 학생들은 특목고로 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개성이 없는 평범한 학생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순응적인 아이들, 자기 족대가 약한 아이들, 그저 얌전한 아이들이 피해자이지요.” (사례 3)

“수준별 이동 학습, 필히 해야 합니다. 우열반이 오히려 우리 학생들 지도에는 필요합니다. 한데 누가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학부형들이 두 손 들고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가 열등한 아이들 반에 들어가 상처받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일전에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로 시작했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된 곳이 있습니다. 그 때에도 학부모들의 반발인즉, ”우리 아이가 교복을 입는 순간 왜 불평등을 받아야 하나요?“ 였답니다.” (사례 1)

입시 위주 교육제도 비판: 공교육 위기의 주범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한 원론적 비판이 빈번히 제기되었다. 다음의 면접내용을 보도록 하자.

“우리 교육이 대학입시를 지상목표로 한다는 사실은 공식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순위가 하나라도 더 높은 대학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을 보내야 하는 것이 교사들의 지상과제입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다 옳은 말씀이지만 솔직히 교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높은 점수를 따느냐입니다. 학생의 인격이나 개성, 사고력이나 창조력 모두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중요성을 가집니다.” (사례 8)

“시험 보고 나면 전교생을 1등부터 꼴등까지 일사분란하게 나열하는 상황에서 1등짜리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꼴등짜리는 눈에 가시가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단편적 지식을 달달 외우거나 주어진 상황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를 보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낙오되는 아이들은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요즘은 아이들 사이에서도 따돌림 대상이 됩니다.” (사례 4)

“학생들 이야기가 시험문제를 받아든 순간부터 아무 생각 없이 외운 내용을 답안지에 쏟아낸다고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른 데로 흐르면 그 시험은 망치게 마련이에요. 주관적 사유나 창의적 생각은 시험에 방해만 되는 것이 현실이지요. 학생들은 시험보는 기계지요. 그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는가,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던 것이 순식간에 삭제되는 기분이라든가, 스폰지에 스며든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간다는가...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사례 3)

교사의 체벌권 약화도 지적된 사항이다. 교육 붕괴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체벌권 약화를 연계시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나 체벌의 의미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 또한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아래 <사례 6>은 대중매체를 통해 접했던 뉴스를 현장에서 경험했던 교사의 이야기로 대중매체를 통해 접했을 때는 거리감을 두고 받아들였으나 실제 교사의 체험담을 듣고 보니, 교사 학생간 관계에서부터 교사 자신의 자존심 및 인격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묘한 문제들이 다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집단기합이었어요. 중간 고사나 기말고사 때 반평균이 떨어졌다거나, 반에서 도난사건이 일어났다거나, 청소를 깨끗이 안 했다거나, 지각생이 너무 많다거나, 선생님들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 가며 학생들을 때렸지요. 대개의 경우는 학생들을 모두 일으켜 세운 다음 한 줄로 나와서 때리거나, 의자 위에 올라가서 손 들고 서 있게 하거나... 체육 선생님이나 교련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발길질도 하고 무릎으로 차고 따귀도 때리고... 지금 생각하면 교실이 참으로 폭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교사가 되면서 체벌은 절대 안 하리라 다짐했는데, 막상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니 예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주세요’ 하던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체벌을 하게 될 때라도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고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특히 젊은 동료 교사들한테 이야길 들어보면 체벌 당하는 학생들 반응이 아주 많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아이들이 진짜 존재하고

있구요, 아이들 때리고 나면 엄마가 찾아와서 ‘나도 안 때리는 우리 자식 네가 뭐라고 때리느냐’고 행패에 가까운 항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 입장에서 정말 씁쓸한 건요, 엄마들이 학원 선생님한테는 자기 자식 때려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엄마들에겐 ‘차라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엄마가 그런데 아이가 선생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례 6)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의 아마추어인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를 더 신뢰하는 현상으로 인해 그들에게 학교에서의 체벌은 폭행으로 비추어지고 학원에서의 체벌은 교육으로 비추어지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경기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 학생들의 폭력 욕설 항의 등으로 인한 교사의 피해가 2005년 16건으로부터 2006년에는 31건으로 2배가량 늘었고, 인터넷을 이용한 학부모 학생의 교사 명예훼손이 2건에서 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07년 4월 2일자 기사).

“교사의 체벌에 아이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학교와 교사를 그만큼 불신하기 때문이지요. 저도 화풀이성 체벌이나 감정적 체벌에는 반대입니다. 교사도 사람인지라 충동적 행동을 할 때가 있지요. 그래도 요즘 상황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공부 잘하는 녀석들 경우는 집에서 왕처럼 대접을 받고 있기에 선생도 무시하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무시하고...” (사례 8)

5. 결론

이상에서 사회화의 주체자로서 교사 역할의 의미와 위상에 질적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사명감 및 소명의식의 쇠퇴를 경험하면서 교사로서의 정

체성과 관련해서는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별도로 직업으로서의 교사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었다. 직업 만족의 배경으로는 교사 입문 과정의 치열한 경쟁, 교사 직업의 안정성, 교사란 직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등이 지목되었다.

셋째, 교사조직 자체가 주는 폐쇄성 및 경직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교장의 리더십이 향후 교직의 사회적 위상 및 조직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비판도 강도 높게 제기되었다.

넷째, 한국사회 특유의 교육열 및 사교육 시장의 팽창으로 인한 교사-학부모 관계의 갈등이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진행되며 갈등 정도 또한 심화되고 있음이 생생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다섯째, 교실 붕괴로 인한 교사의 고유 기능에 대한 자괴감이 증가하고 있고, 교사 집단 내 세대 간 갈등 및 충돌의 일단이 나타나고 있다.

교사 개개인의 배경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차이를 도출해본다면, 세대별로 교사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상당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음이 밝혀졌다. 기성세대 교사의 경우는 여전히 교사의 사명감 약화를 아쉬워하고 있었으나 신세대 교사의 경우는 직업으로서의 교사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교사의 경우 자신이 “여성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자괴감, 여성이 부족함으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등을 불만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반면, 여성교사의 경우는 “여성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교장은 여전히 남성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고 있는 미묘한 성차별, 그리고 여성이 보다 유능함에도 남성에 비해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특목고 교사의 숫자가 제한되어 아쉽긴 하지만, 교사로서 학생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별 무리가 없으며,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교직의 폐쇄성이나 경직성을 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교사들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면

서 의미를 부여하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곳일수록 학부모의 교육열 또한 낮아져 자녀들을 방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교사의 헌신적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에게 미치는 사회화 주체로서의 영향력을 더 커질 수 있다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반면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은 곳일수록 교사와 학부모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고, 학부모가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의 권위를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하여, 사회화의 주체로서 교사의 위상 정립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교사의 생애주기와 일정 연령층 학생들의 생애주기 간의 차이로 인하여 상호작용 시 파생되는 문제는 없는지?
- 2) 왕따, 가출, 등 청소년 일탈에 대해 교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 3) 교사들은 학생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4) 한국사회 학벌주의나 고교 평준화 제도 등에 대한 교사들의 해석 및 비판으로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등이 그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준만, 1996 [서울대의 나라] 개마고원.
- 김경근, 1999 [대학 서열 깨기] 개마고원.
- 김덕영, 2004 [위장된 학교] 인물과 사상사.
- _____, 2007 [입시 공화국의 종말] 인물과 사상사.
- 김동훈, 2001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책세상.
- 김상봉, 2004 [학벌사회: 사회적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 한길사.
- 김성국 외 3인 편집, 2003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한국의 집단주의와 네트워크] 전통과 현대.
- 김용학, 2003 “한국의 학연: 사회적 자본의 창출에서 인적 자본의 역할” pp.99-127
김성국 외,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전통과 현대.
- 김은실, 2005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엄마들의 사교육 전략] 이지북.
- 김은희, 1993 “일, 가족 그리고 성역할의 의미: 한국의 산업화와 신중산층의 가족이
념” 한국사회사연구회(편) 「한국 근현대가족의 재조명」 pp.81-120. 서울: 문학과 지성사.
- _____, 1995 “문화적 관념체로서의 가족: 한국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27:183-214.
- 김혜련, 2003 [학교종이 땡땡땡] 미래 M&B.
- 박영신, 1987 “한국사회의 변동과 가족주의” 박영신 외, 「역사와 사회변동」 사회학 연구소.
- 방하남 외, 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한국사회학] 37(4): 31-66.
- 신동원 외, 1989 [고교 평준화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제 11집.
- 오욱환, 2000 [한국사회의 교육열: 기원과 심화] 교육과학사.
- _____, 2005 [교사 전문성: 교육 전문가로서 교사에 대한 논의] 교육과학사.
- 유경준, 2004 [차별의 사회적 비용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유석춘 편저, 2002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 이정규, 2003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근원과 발달] 집문당.
- 전상인, 2001 “사회갈등의 근원, 서울대” [사회비평] 봄호, 나남.
- 전인권, 2003 [남자의 탄생] 푸른 숲.
- 조혜정, 198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17:79-96.
- 최재석, 1965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민조사.
- 한국여성개발원, 2004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 Anderson, G. and F. Evans.(1976). “Socialization and achievement in two cultures”, *Sociometry*, 39:209-22.
- Bernstein, Basil(1975). *Class, Codes and Control*, 3 vols. London: Routledge.
- Bowles, Samuel and Herbert Gintis(1976). *Schooling in Capitalist in America*, London: Routledge.
- Cancian, Francesca 외 eds.(2002). *Child Care and Inequality: Re-thinking Carework for Children and Youth*, New York: Routledge.
- Carling, Arlan 외 편(2002). *Analysing Families: Morality and rationality in policy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 Cerulo, Karen(1997). “Identity construction: New Issues , New Direc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385-409.
- Cohen, Gaynor. ed.(1987). *Social Change and the Life Course*, London: Tavistoc.
- Coleman, James(1987). “Families and schools” *Educational Research*, 16(6).
- _____(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94-s121.
- _____(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lins, Patricia Hii.(1994). “Shifting the center: Race, class, and feminist theorizing about motherhood”, pp.56-74. in D. Bassin 외 eds. *Representaion of Motherhoo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iRenzo, Gordon(1977).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system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261-95.
- Furstenberg Jr. 외 eds(1999). *Managing to Make It: Urban Families and Adolescence Succes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Glassner, Barry(1999). *The Culture of Fear*, New York: Basic Books.
- Goslin, D. A.(1969).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 Gubrium, Jaber F. and James A. Holstein eds.(2006). *Couples, Kids, and Family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chschild, Arlie(1994). “The commercial spirit of intimate life and the abduction of feminism: Signs from women’s advice books”, *Theory, Culture, and Society*, 11:1-24.
- Inkeles, Alex(1968). “Society, social structure and socialization” in J. Clausen ed. *Socialization and Society*, Boston: Little & Brown.

- Kurz, Demie(2006). “Keeping tabs on teenagers” pp.84-103 in J. Gubrium & J. Holstein eds. *Couples, Kids, and Family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reau, Annette(2003). *Unequal Childhood: Class, Race, and Family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son, Mary. 외 편(2003). *All Our Families: New Policies For A New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ortimer, Jeylan and M. Shanahan eds(2003), *Handbook of the Life Course*, New York: Plenum Publishers.
- Pallas, Aaron(2003). “Educational Transitions, Trajectories, and Pathways”, pp.165-184, in J. Mortimer and M. Shanahan eds. *Handbook of the Life Course*, New York: Plenum Publishers.
- Rapaille, Clotaire(2006). *The Culture Code*, New York: Broadway Books.
- Rosenberg, M.(1963). “Parental interaction and children’s self conceptions”, *Sociometry*, 26:135-49.
- _____, (1973). “Which significant others?”, *American Behavioral Science*, 6:829-860.
- Turner, R.(1975). “The real self: from institution to impuls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989-1016.
- Warner, Rebecca L.(2006). “Being a good parent” pp.65-83 in J. Gubrium & J. Holstein eds. *Couples, Kids, and Family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Zigler, E. and I. L. Child.(1969). “Socialization” in G. Lidsey 외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Reading Mass.: Addison-Wesley.

V.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학교별 격차·부적응· 집단따돌림

1.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자립형 사립고 학생과 문화자본의 풍요
4. 지방학교 학생들 : 문화자본의 빈곤
5.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들 : 닫힌 경로
6. 학교부적응, 따돌림 : 수도권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과 한 중학생의 사례
7. 결론

V.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학교별 격차·부적응·집단 따돌림*

1. 연구의 목적

Ⅱ장, Ⅲ장, Ⅳ장에서는 주로 수도권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접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지적해 오고 있으며, 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격차의 문제가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 전반에도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 번 국가별 면접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국가 간 차이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별 또는 학교별 차이를 상호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에서의 조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금년도 조사에서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이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들의 지역별·학교별 차이의 문제는 국가 간 차이만큼이나 중요하다. 국가 간 차이와 더불어 이 연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사회화과정의 문제점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한국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화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간의 교육격차를 포함한 격차의 문제는 주로 양적인 접근을 통해서 다루어졌지만, 질적인 방법을 통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질적인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학교별 격차의 문제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교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계층별로 확연히 다른 사회화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물론 충분히 예상할

* 집필자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책임자)

수 있는 사실이며,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면접조사의 결과는 설문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보다 구체적인 격차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본 장에서는 격차의 문제를 학교간 차이로 한정짓고 있으나, 학교별 격차 안에는 지역과 계층 문제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고교 단계에서는 최고의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방의 전문계 고등학교, 지방의 소인수 학교, 그리고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 학생까지 폭 넓게 면접하였는데, 대체적으로 학교별 차이 안에는 계층별 차이와 지역별 차이가 중첩되어 드러났다.

이번 면접조사결과를 통해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할 더 많은 층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추가면접조사결과는 시론에 불과하다. 더 많은 대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더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8년에는 보다 다양한 지역, 계층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장은 II장, III장, IV장의 분석자료가 된 면접조사 이외의 추가조사에 의해 수집된 면접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추가 조사는 총 20명의 학생과 4명의 교사 그리고 1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교사들은 면접조사대상자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이고, 1명의 학부모는 학급내에서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1명의 남자 중학생의 부모이다. 그 외에는 학교별로 대상자를 선택하였으며, 2개의 일반계 고등학생, 경기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2명, 경북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2명(남녀 각 1명, 교사 2명), 경북지역의 소인수 중학교(여학생 2명, 교사1명), 자립형 사립고 학생 5명과 대안학교 학생(중학생) 2명(교사 1명)을 면접하였다. 이 면접 내용 중 본 장에서는 2명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과 2명의 경기지역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제외한 총

16명의 학생면접조사와 부모 및 교사와의 면접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학생면접은 II장에서 사용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친구관계,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교사면접은 경북지역 특성화고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면접시 학생면접을 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학생들과 면접을 하기 전에 학교전반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부모면접은 자녀의 집단따돌림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자녀교육관과 다른 학부모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녀교육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와 그 안에서 드러나는 부모들의 자녀교육관을 조사하였다.

면접은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하였으며, 경상도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과 대안학교 학생의 경우는 학교사정에 맞추기 위하여 2명을 동시에 면접하였으며, 면접시간은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였다.

학교별로 먼저 자립형사립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지방의 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후, 대안학교 학생과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중학생 및 부모 면접내용을 분석하였다.

3.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 : 문화자본의 풍요

이번 면접조사의 대상이 된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은 1학년 1명(남학생), 2학년 4명(남학생 1명, 여학생 3명), 3학년 1명(여학생) 등 총 6명이었다. 각자가정배경은 다르지만, 대체로 중상층 이상의 가정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면접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해가 갈 수록 잘 사는 집 아이들이 더 많이 진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배경 중의 하나는 모두 어려서 외국에서의 생활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유학 또는 사업차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의 경험이다. 이 중 한 학생은 영어권이 아닌 아프리카 거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면접대상자 모두 공통적으로 풍부한 영어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많은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지만, 이들이 영어에 강한 것은 학교에서의 학습

효과 이외에 어려서부터의 외국생활경험과 부모의 영어자본이라는 배경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이들은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도 영어를 섞어 쓰는 등 영어가 매우 유창하다. 이들은 모두 외국의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서로 간의 경쟁은 단순히 학업성취 만을 위한 경쟁은 아니다. 지금 당장의 학교성적이 이들에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자존심의 경쟁이 더 중요한 듯했다. 이들은 이미 엘리트의식이 강하며, 그것을 애써 드러내려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지적인 성숙정도가 높고 성취동기가 강하여 얼핏 대학생과도 같은 인상을 주며, 실제로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지적 발달에 맞춰져 있기도 하다.

이들의 경험세계, 다양한 경험들, 외국 경험 프로그램, 이들에게 외국의 경험은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 이들은 재학 중에 여러 차례 외국을 경험할 프로젝트에 참가하며, 이들에게 그러한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적어도 이들에게는 해외체험의 기회가 거의 열려있는 셈이다. 몇몇 정부부처에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해외체험 프로그램들은 이들에게는 좋은 자산이 된다. 그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공모에 매우 유리하다. 이러한 공모에 도움을 줄 인적 자산이 많기도 하지만, 이들 자신이 공모에 당선되기 쉬운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이들에게는 해외경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은 해외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한 해외 체험이 아닌 다양한 지적 성취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고의 경우, 해외 수학여행과 같은 단순한 여행 프로그램보다 더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또 해외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한다. 이른바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십 계발은 이들이 경험하는 류의 것을 의미하는 것일테지만, 이들은 이러한 공적인 기회를 통하지 않고도 글로벌 리더십 계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 다만, 공적인 해외체험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들은 더욱 더 많은 문화자본 또는 사회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이 학교는 기숙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의 친구관계는 대체로 유사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집단내에서 강한 결속력을 갖는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 중 하나이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가 강하며, 또래집단 간에는 경쟁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여학생들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친구관계는 학교내 친구와 학교밖 친구로 구분되며, 대부분 현재의 친구들은 학교내에서 형성된다. 학교밖 친구들은 중학교 때 친구들이나 또는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이다. 중학교 친구나 학원친구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만나거나 또는 평상시에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서 소통하지만, 이런 친구들과의 소통은 모든 대상자들이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주로 학교 중심으로 친구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 학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였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로 충원되어 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전공분야의 전문성은 높게 평가하지만, 교수학습상의 전문성은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것은 학생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서일 가능성도 있지만, 특정분야의 지식의 정도와 교수학습의 전문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높은 기대수준이 원인인지, 교사들의 교수학습 전문성이 원인인지 아니면 양자가 원인인지,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명하는 것은 향후 교사의 자질 또는 역할론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부모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당연히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빈도나 질도 더 높다. 그러나 일상 전체가 통제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통제의 정도는 높으며, 이런 것이 불만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관계에서 부모와의 갈등은 그다지 없는 듯하다. 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스러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들은 대체로 이들을 존중하며, 부모처럼 되고 싶거나 부모를 존경한다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체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역할모델인 경우도 있다. 이 결과로부터 부모

의 학력이 높을수록 또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자녀관계가 좋다는 점을 입증할 수는 없으나, 아버지의 직업적 계층이 상위정신노동에 해당하는 경우,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가 더 민주적이라는 2006년 5개국 설문조사결과와 일치한다(김현철·김은정 외, 2006).

기숙형 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당연히 평소에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 물론 사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며, 또 그럴 필요도 크지 않다. 다만, 방학 중에는 주로 강남권에 있는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는다. 이들이 받는 사교육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일반고 학생들과는 다르다. 면접 대상자들은 영어학원에 다니거나 또는 이들의 관심사에 따라 학원수업을 편성하여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들 중 몇몇은 유럽사 수업을 같이 편성해서 수강하고 있었다. 몇 명은 지방출신이지만, 방학 중에는 집에 가기보다는 서울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이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유사한 경험을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대개 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 중학교 시절에 강남이나 목동 지역의 유명 학원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다. 이곳에서 만나게 된 친구들도 있다. 이들은 강남이나 목동의 학원들이 더 좋다고보다는 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그 점에 있어서 이른바 유명 학원가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리고 고교 입학 후에도 방학 중에는 대체로 이들 지역에서 사교육을 받는다. 적게나마 이들 유명 학원가는 이들의 친구형성의 고리가 되기도 하며, 또한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이들 유명 학원가는 공통의 문화이자 코드가 된다.

한 마디로 이들은 풍부한 문화자본 또는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가정은 최소한 중상층이상이며, 고학력이거나 전문직, 아니면 고소득 자영업을 하는 부모의 학력 및 직업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린 시절의 외국생활을 통해 영어에 능통하며, 강남 등의 유명 학원가를 거쳐 자립형 사립고에 입학하는 엘리트 교육 과정을 밟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강한 자기 신뢰와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학업성취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하는 등 긍정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특성

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들은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들의 심리적 자본은 강화된다.

4. 지방학교 학생들 : 문화자본의 빈곤

1) 특성화 고등학교 사례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환경적 열악함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전문계 고등학교가 강한 직업적 동기를 가졌거나 직업교육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교육공간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면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지방의 한 곳을 정하여 면접하기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는 형편이 다를 수 있지만, 첫째, 지방의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섭외가 용이했던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교는 경북지역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이다.

면접 대상자는 요리가 전공인 3학년 남학생 한 명과 미용이 전공인 3학년 여학생 한 명이다. 이들은 면접하는 시점에서 이미 수시 입학으로 대학 진학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 학교 교사 2명을 면접하였다. 동시에 두 명의 학생을 면접하였으며, 학생 면접 전에 2명의 교사를 동시에 면접하였다. 학생모집은 전국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지역적 출신들이 다양하지만, 면접대상자는 둘 다 경북지역 거주 학생들이다.

먼저 이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학교에 진학하였는지 물었다. 왜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공의 특이성 때문에 단순히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지못해 진학하는 경우가 적으며, 또한 뚜렷한 직업의식을 가진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학생의 경우에는 그

렇지 않았다. 둘 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했으나, 요리를 전공하는 남학생은 성적 때문에 진학했다고 말했으며, 여학생은 아버지의 권유로 진학했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대체로 적극적으로 이 학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교사들에 따르면 특성화 고교 개교 초에는 직업적인 동기가 강한 아이들이 적지 않았으나, 해가 갈수록 그런 동기를 가진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진로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늘어나면서 이 학교 진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유를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학교 학생들의 직업적 동기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돌아오는 대답들은 지극히 짧고 간단한 것들이었다. 마치 현재 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 지금까지 다녔던 것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식의 태도가 엿보였다. 이들은 어둡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듯 했다. 절망적이거나 회의적 어투는 찾아 볼 수 없으나 진취적이거나 희망적인 어투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은 진로선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듯하지만, 아직 학생들에게 충분한 희망과 동기를 갖게 해주지 주지 못하는 것 같다.

2) 읍면지역 소인수 중학교 사례

또 다른 한 학교는 같은 경북지역의 읍면지역 소재지 중학교이다. 이 학교는 총 3학급 정원 57명의 읍면지역 소인수 학교이며 위의 특성화 고등학교와 같은 경북지역에 있는 학교이다. 졸업생 일부가 위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도 하였다. 이 학교를 선택한 것은 읍면지역의 소인수 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전형적인 읍면지역의 소인수 학교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또래관계 뿐 아니라 같은 지역내 인적 네트워크가 조밀하다. 대부분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들의 친구간 네트워크 밀도

는 높다. 이것은 2007년도 설문조사 중 친구간 밀도(친한 친구들 끼리 친한 정도)가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총괄보고서를 참조할 것!). 이러한 친구간의 높은 밀도는 사회적 지지자원으로 중요할 수 있으나, 네트워크 이론이 말해 주듯 이러한 높은 밀도는 오히려 다양한 정보를 차단하는 막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긴밀한 관계를 사회적 지지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정보의 제약상황으로 봐야 할지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긴밀한 관계가 사회적 지지자원으로서 활용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친구관계의 폭을 좁히는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 달리 말해 이들은 매우 친하게 지내므로 모두 한 가족 같기도 하지만, 이들은 그 대신 다양한 정보원 또는 다양한 친구관계를 맺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것은 이들의 높은 밀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긴밀한 관계가 향후 사회적 자본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학교 교사에 따르면, 친구들로부터 배제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그런 생활이 굳어져 배제시키는 아이나 배제되는 아이나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는 한 번 배제된 아이들은 낙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이들의 생활패턴은 단조로워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논밭으로 둘러싸인 학교 주변에 문화공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이 방과후에 친구들과 보낼 수 있는 장소는 기껏해야 노래방 정도이다. 물론 도시의 학생들보다 더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성장하지만, 이것이 이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으며, 또한 문화적으로 뒤처지게 하는 배경이 되고 만다.

면접대상자들은 이 학교에서는 비교적 부유한 가정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중 한 학생은 인근 도시에서 학원수업을 받고 있었지만, 이 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은 사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적 포부도 낮다. 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도 낮다. 물론 많은 학생들의 경우, 부모들이 학교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5.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들 : 단힌 경로

여러 가지 유형의 대안학교가 있으나 이번 조사의 대상인 대안학교는 서울시 소재 위탁형 대안학교로서 이 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여학생과 3학년 여학생 그리고 교사 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하였다. 이 대안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학교로 학생들은 실제로는 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만, 졸업은 출신학교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 이 학교에는 학교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문화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부모에 의해 입학하게 된 학생들도 있다.

이번 면접조사 대상은 후자에 해당하는 학생들로서 각자 적을 둔 본교가 있으며, 실제로는 이 대안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는다. 본교에 적을 두면서 이곳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추천이 필요한데, 이들은 학교로부터 적극적으로 추천되었다기보다는 거의 쫓겨난 경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다. 물론 본교에서 친구관계도 좋지 못했으며, 성적도 좋지 못했고, 이른바 문제아도 낙인찍힌 아이들이다. 이들은 본교 교사들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한 마디로 학교 부적응아들인데, 면접조사한 두 명의 학생은 본교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없다고 하였다. 이들은 이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물론 본교 졸업생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누구나 이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곳의 출석은 엄격해서 일정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본교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 두 여학생과 면접하는 날은 본교로 돌아가는 몇 명의 명단이 공개된 날로 학생들의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날이었다. 이 두 학생은 본교 퇴출 명단에는 빠져 있었다. 이곳에서 퇴출된다는 것은 퇴출된 본교로 다시 퇴출되어 나가는 셈이다. 이곳은 이들과 이곳 재학생들에게는 분명한 안식처가 된다. 그러나 이곳이 이들에게 언제까지나 안식처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 무사히 교육과정을 마치더라도 이들의 미래는 늘 불투명하다. 이곳을 거쳐 간 선배들의 미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는 더욱 불안하다. 당장 이곳은 이들에게는 안식처이지만, 이곳이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들도 잘 알고 있다. 이곳을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의 또 다른 대안학교를 갈 수 있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대안학교의 다양성은 이들에게는 심리적 불안감을 주며, 또한 현실적으로도 선택할 만한 고등학교과정 대안학교는 매우 드물다. 이들이 주로 선택하는 것은 전문계 고등학교다. 그런데 전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선배들이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다. 이것이 이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들은 학교생활 적응에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선배들이 학교를 마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든 이들은 일반 학교에 가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미 본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유급의 경험이 있어 본교에서는 다른 학생들보다 한 두 살이 많았는데, 이것이 이들을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한국 학교가 연령적으로 동질화되어 있고, 또 연령 규범이 강한 문화 속에서 이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더구나 ‘노는 아이’라는 낙인은 이들을 더욱 적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교사들은 이들에게 무관심하며, 상처가 되는 언행도 서슴치 않았다고 이들은 토로한다.

이들을 위한 정책은 없다. 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생겨난 것은 정책의 산물이지만, 그 이후를 위한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 한 마디로 이들의 안식처인 이 학교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미완의 성공이거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보다 진지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한 그렇다. 일단 안식처는 만들어 뒀으나, 궁극적인 안식처는 되지 못한다. 이들을 위한 계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없다. 이곳 졸업생들의 실패는 결국 이 학교의 실패가 아니다. 불안정한 지원 시스템에 있다. 이들이 미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로서는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길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기간은 완전히 이들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간들이다. 이들은 매우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된다. 한 학생은 부모가 이혼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한 학생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별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이란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들은 사교육을 받아 본 일도 없고, 어떤 성취동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미래에 대한 불안만이 그나마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이들의 친구관계는 물론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의 친구관계는 주로 이 학교에서 형성되지만, 이곳 학생들은 서로 매우 이질적이어서 모두가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이 학교 밖을 벗어나면, 과거에 사귀던 이른바 ‘나쁜 친구와 선배’들이 이들 주변에 늘 있다. 그나마 이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 다행인 셈이다.

한 마디로 이들은 완전히 닫힌 세계에서 살고 있다. 아니 궁지에 몰려 있다. 이들은 어른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산이란 한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이 학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6. 학교부적응, 따돌림 : 수도권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과 한 중학생의 사례

앞에서 다룬 대안학교의 두 학생도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사례이다. 물론 학교부적응을 동반한다. 그러나 이 두 학생은 학교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경우이고, 이 절에서는 학교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나려고 하는 학생과 집단따돌림을 경험하였지만 학교에 머물고 있는 경우이다.

이 절에서는 경기도 지역의 공업고등학교 여학생 1명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 명의 중학생의 사례를 통해서 학교부적응 및 집단따돌림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소재 한 공업고등학교 여학생 1명의 사례이다. 이 학생은 상담교사를 통하여 면접을 하였으며, 이 학교를 자퇴하기 전에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청해 온 경우이다. 대상자는 친구관계 문제로 학교를 떠나려고 한다. 친구들과의 마찰로 외톨이가 되어버리고, 친구들과 선배들로부터 일종의 위협을 받곤 한다. 친구는 물론이고 마음놓고 이야기할 교사도 없는

상황에서 대상자는 학교를 떠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담임교사와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고, 상담을 통해서 자퇴하지 않고 학교에 다닐 계기를 찾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는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중학생의 사례이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한 것은 어떤 한 사건 때문이다. 대상자가 어느 날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반 애들은 너무 형편없어”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지면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일단 따돌림의 대상이 된 다음에는 이 학생에게 접근하는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반 아이들은 아무도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진 것은 무단결석을 하게 된 다음이다. 어떤 반 친구의 생일날이 되자, 이 생일파티에 자기만 초대되지 않을 것을 알고는 아예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부모는 담임교사에게 말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했다.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주위의 다른 학부모의 조언이 크게 작용하였다.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교사의 개입으로 친구들은 서로 화해하게 되었다. 이후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무단결석은 없어지게 되었다. 이 사례는 집단따돌림 등 학교친구들간의 문제에 교사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해당 학생 부모의 주위로부터의 조언이나 사건 초기의 부모의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들은 교사를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 내에 조직적인 문제해결의 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교사의 개입은 지극히 개인적인 개입으로 학교 자체는 학생들이 봉착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관련 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얼마나 학생들의 문제에 관심이 있느냐가 관건이 될 뿐이다. 이 학생의 경우 만일 교사의 개입이 없었다면, 더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었을 것이고, 결국은 학교생활

에 적응을 못할 수도 있었다. 결국 이 사례는 두 가지 점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나는 학교는 체계적인 문제해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며,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거나 교사의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략은 이러한 개입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한번 선택되면 바꾸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공업고 여학생은 처음부터 원해서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친구관계 등 전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며, 학교에서 친구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매우 불편한 공간이 되어버린다. 결석하거나 결석 때문에 부모와 갈등을 빚게 되면, 결국 가출로 이어지게 된다. 한 번 친구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문제가 틀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을 수 있다. 특히 집단따돌림의 경험을 하게 되면, 심한 심리적 상처를 입게 되고, 이런 상황에 부모와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없는 경우이면, 가장 치명적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이러한 문제에 체계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운 좋게 교사들이 도와주면, 어떤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교사의 개입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교사의 개입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다만, 사례들은 교사의 개인적인 노력을 보여줄 뿐 학교 자체의 노력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다룬 사례들은 결국 학교 안에서의 문제해결의 창구가 없다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교사의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7. 결론

우리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환경에 따른 분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차이와 드러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 따라서 학생들간의 사회자본의 차이는 매우 극명한 것이었다.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은 풍요로운 가정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는 이들의 심리적 자산, 즉 자신감, 동기부여, 엘리트 의식을 강화시켜 준다. 반대로 이번 조사에서 다룬 전문계 고등학교와 지방의 학교는 완전히 반대의 경우에 해당한다. 가정배경은 풍요롭지 못하며, 학교를 통해서 얻는 것은 자신감 보다는 자기부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부적응의 사례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위탁형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들을 둘러싼 문제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정책은 애매한 경계선에 놓여 있다. 없어서도 안되지만,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정책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궁지에 몰려 있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길을 열어줄 체계적 장치가 학교 안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 가정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학교마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가족 내에 어떤 지지자원을 갖지 못한 학생들은 대체로 학교 안에서도 지지자원을 갖지 못하는 이중의 결핍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 분명한 격차를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지자원 또는 사회자본의 격차는 불가피한 것이라 할지라도 체계적으로 그 차이를 줄이려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은 분명 한국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이다. 학교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더 좁아질지도 모르나, 가정에서 지지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받아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은 현재로서는 학교밖에는 없다. 학교에서도 못받아주는 학생들에게는 대안학교가 있다지만, 아직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스템도 불완전하다. 학교를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배회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을 것이지만, 이들을 위한 창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IV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사들은 스스로 사회화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친구나 교사들과의 관계를 원

만하게 갖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학교 내에서 학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며, 학부모들과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하다. 결국 교사-학부모-학생의 관계는 매우 조화롭지 못한 상황이며, 보통의 학생들의 그저 그런 관계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 가지 관계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이중 삼중으로 관계자본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VI. 미국 청소년의 가족, 또래 관계, 및 통신기술에 대한 인식

1. 서론
2. 연구문제와 이론적 지향
3. 연구 방법론
4. 선행연구
5. 연구 결과

VI. 미국 청소년의 가족, 또래 관계, 및 통신기술에 대한 인식*

1. 서론

청소년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생활의 범위와 복잡성이 확대된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단계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변화하며, 청소년의 사회 세계에서 또래가 좀 더 핵심적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교제의 영역이 탐색되고,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는 종종 가족 구성원과 상호작용에 쓰이는 시간이 줄어든다. 대신, 친구들과의 시간 또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낭만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사춘기 청소년에 대한 전통적 연구에서 묘사되는 세계는 가정과 부모의 감독에 대한 강조가 줄어드는 반면 또래와의 교제나 좀 더 광범위하고 대체로 덜 교육적인 학교 환경에의 참여, 좀 더 넓은 지리적 사회적 환경 내에서의 움직임이 더 많아지는 세계이다(Jackson & Rodriguez-Tome, 1993). 연구는 또한 청소년기를 통해서 이런 각기 다른 사회 세계에 부여되는 가치가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은 한편으로는 자기 부모를 이상화하는 것을 그만두지만 다른 한편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며 조언을 구한다(Steinberg & Silverberg, 1986). 같은 성의 또래와 연애 파트너가 동시에 그들의 사회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다(Fend, 1990).

이러한 삶의 단계와 관련해 전혀 연구되지 않은 분야는 청소년들과 그들의 또래들이 새로운 통신기술을 통해서 형성하는 여러 관계들이 어떻게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한 인식, 교우관계에 대한 인식, 막 피어나기 시작한 낭만적 관계에 대한 인식 등에 영향을 주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하려는 것이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자신의 삶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환경에서 자라난다. 그들은 인터넷 상에

* 집필자 : 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le, Bethany Willis Hepp(텔라웨어 대학교)

서 또래와 함께 때로는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며 인맥 구축 사이트인 마이스페이스닷컴(myspace.com)이나 페이스북닷컴(facebook.com)같은 곳에서 개인적 정보를 공유하며 어떤 종류의 환경을 막론하고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새 친구를 사귀기 위해 인터넷 대화방을 사용한다. 관계형성과 의사소통에서의 이러한 유동성은 사춘기 발달에 대한 전통적 견해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 및 가족관계에서 전개되는 이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본 연구는 11세부터 15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컴퓨터와 휴대전화와 함께 어떻게 자라왔으며 현재 가족 구성원, 또래,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연애 파트너와의 관계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 밖의 초점은 청소년 사이의 성적 차이와 현재 통신 기술이 그들의 관계에 끼치는 영향이다. 우리는 연구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주로 생태학적이고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채용했다.

2. 연구문제와 이론적 지향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추진에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 청소년들은 또래나 이제 막 시작된 연애 파트너,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체성 형성은 이런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인터넷과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기술이 이러한 관계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관계 형성과 통신기술사용에서 성적인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지향

본 연구는 주로 유리 브론펜브레너(Uri Bronfenbrenner, 1979)가 발전시킨 생태학적 관점을 지침으로 삼았다. 브론펜브레너는 인간이 자신의 가족(자신의 직접적인 생태체계)과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다른, 좀 더 멀리 있는(그러나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한다고 가정했다. 브론펜브레너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미시체계 *microsystem* (역할과 관계), 중간체계 *mesosystem*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배경 간의 상호관계), 외부체계 *exosystem* (본인이 포함되지 않는 외부 배경), 거시체계 *macrosystem* (문화) 속에 박혀있다(Klein & White, 1996 p. 228).

브론펜브레너는 개인을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복합체계로 바라보았다. 그의 생태학적 모형은 개인의 발전에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가족 관계의 중요성뿐 아니라 또래 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이 체계는 그 과정이 일어나는 문화적 맥락에만 있는 유일한 것이다. 브론펜브레너의 인간-과정-맥락 모델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가족 및 또래 관계 형성이 일어나는 환경을 고려하도록 자극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한 초점은 청소년들이 발달하는 현대 환경에 주어져 있다. 오늘날의 사춘기 청소년들은 급격하게 진보하는 기술과 세계화라는 복잡한 세계 속에서 사회화되고 있다. 현대 미국 사회의 역동적 성격으로 인해 요즘 사춘기 청소년들은 예전 세대 청소년들에 비해 유례없이 유동적인 사회 환경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됐다. 가족 관계와 또래 관계 또한 과거보다 정보의 흐름이 훨씬 더 큰 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 연구는 이런 역동성을 포착하지 못하고 지체되어 있다. 이런 마당에 생태학적 관점 덕분에 가족 영역, 또래 영역, 통신기술 영역 사이의 상호작용을 풀어내는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본 연구는 또한 여성주의적 관점을 고수하며 청소년 사이의 사회 세계에서 성(性)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장하려 한다. 성은 가족 내의 관계뿐 아니라 또래 관계를 지배한다(Thompson & Walker, 1995). 나아가 질적인 접근을 채용하고 청소년들을 직접 면담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의 삶과 관

계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 주었다. 이것은 여성주의적 관점이 옹호해 온 사회정의적 접근에 매우 일치하는 것이다(Thompson, 1992).

3.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델라웨어 대학교의 개인 및 가족 연구 학과의 연구원들이 한 팀이 되어 수행됐다. 팀은 바히라 셰리프 트래스크 박사와 그녀의 연구 조교인 박사과정 학생 멜리나 맥카너서 로슬과 베서니 윌리스 헵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설계를 사용해 수행됐고 수집된 데이터에서 나타난 주제 및 범주를 귀납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근거 이론에 의지했다(Patton, 2002). 데이터는 11세에서 15세에 이르는 스물 여섯 명의 청소년으로부터 수집됐다. 이 청소년들은 미국 대서양 중부 연안 지역의 중학교와 같은 지역의 여름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발됐다. 같은 수의 소년과 소녀가 이 연구에 참여하게끔 주의를 기울였으나 결국 성 분포는 9명의 소년 대 17명의 소녀가 됐다. 학생 면담은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면담에 적합한 자연스러운 배경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학생의 학교나 여름 캠프 시설 등). 얼굴을 마주 대하는 반(半) 조직화된 면담은 30분에서 4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이 작업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미국내의 한 특정한 지역 및 사회경제적 집단에 대한 사례 연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연구는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전후 맥락을 가진 영역 내에서 일어나는 경험 및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교외에 거주하는 아동으로서 주로 백인이며 중산층 출신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배경과 계급, 지역적 위치에 토대를 둔 일정한 태도(orientation)를 반영한다. 미국의 다른 지역 출신의 사춘기 청소년들, 예를 들어 고도로 도시적인 다양한 지역사회나 시골 지역의 청소년들은 우리가 선택한 샘플과는 아주 다른 가치를 반영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획에서 사용한 사례 연구 방법은 이 특정 집단의 개인

들에 대한 결론과 그들에게 어울리는 권장사항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한 결론을 다른 집단의 젊은이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우리가 사용한 사례 연구 방법은 또래와 가족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과정 및 관점들에 대한 좀 더 포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나아가, 또래 사이의 관계, 기술, 가족관계에 관련된 정성적(定性的) 연구는 아무래도 그 숫자가 제한적이므로 우리의 연구는 이 주제에 관한 지식 체계 전반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이 연구가 몇몇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주로 백인 중산층 학생들, 그 중 많은 숫자가 같은 사립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작은 샘플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 이것은 우리의 연구가 잘해야 미국 청소년 인구 중에 특정한 일부만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과 연구비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는 학생들의 부모들을 면담해 그들이 자녀들과의 관계나 자녀들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또 다른 한계는 청소년들의 자술서 데이터에 의존한 점이다. 그러나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에 관한 청소년 자술서의 유효성은 다른 연구에서 옹호된 바 있다(Sharabany, 2000, p. 244). 우리 연구결과의 많은 부분이 가족 및 또래 관계에 관한 기존 문헌과 겹친다는 사실은 통신기술에 관해 우리가 얻은 다른 결과 또한 좀 더 많은 미국 사춘기 청소년 인구의 행동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뒷받침해 준다.

4. 선행연구

20세기까지도 사춘기는 사람의 일생 중에 변별적인 시기로 인식되지 않았다. 과거에 예상 수명이 지금에 비해 현저히 짧았던 점을 감안할 때 십대 청소년은 성인의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기대됐다. 6세나 8세 정도의 어린 소년들도 도제로 들어가 십대에 진입할 무렵에는 자신의 직업에서 이미 훈련을 마치고 어엿한 성인으로 일할 것으로 기대됐다. 이와 비슷하게

어린 소녀들도 16세에서 17세 무렵이면 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소한 서구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사춘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춘기는 인생 시기 중 상당히 많이 연구되는 대상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어린 나이에 있어서의 부모의 중요성, 그리고 좀 더 넓은 가족 관계의 중요성이 더 나중 시기에서의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가설이 세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새로운 통신 기술이 이런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1) 부모 · 자녀 관계

사춘기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는 많은 변화를 거친다. 사실상 이 사춘기 시기는 변화라는 말로 특징지어지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이 이행의 시기를 거치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적응과 부정적인 적응 양쪽이 다 나타난다는 점이 발견됐으며, 그런 적응의 대부분은 양 집단의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관련이 있었다. 부모-자녀 관계의 질(quality)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인간 발달 및 가족학 연구의 초점이었다. 그런 연구에서 ‘질(quality)’이란 부모와 사춘기 자녀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토양 또는 분위기를 지칭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 자체로서 부모와 사춘기 자녀 사이의 관계의 질은 그 관계의 기본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맥락 안에서 부모와 사춘기 청소년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며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유지된다(Dekovic, Wissink, & Meijer, 2004; Darling and Steinberg, 1993).

가장 중요한 가족 관계가 이 중요한 인간 발달의 시기에,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변화, 아울러 관계 상의 변화에 의해 특징지어지면서 형성되고 다듬어진다. 좀 더 자율적인 존재로 이행해 가며 부모에 대한 기대 못지 않게 자아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는 점이 사춘기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가지는 인식에서 핵심적이다(Collins, Laursen, Mortensen, Luebeker, & Ferreira, 1997). 콜린즈(1997; Collins, Laursen, Mortensen, Luebeker, & Ferreira, 1997)는

이 주제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 이행시기에 부모와 사춘기 자녀는 몇몇 기대를 공유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녀들은 좀 더 자율적으로 변모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좀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시기 조절과 관련해, 예를 들어 그런 이행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과 관련해 양 집단이 유지해 온 기대가 어긋날 경우에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Collins et al, 1997; Laursen, 1995).

2) 사춘기의 자녀 양육 방법

학교, 또래, 지역사회 등을 포함해 어린 청소년에게 소용이 되는 발달 상의 다양한 맥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1세에서 15세에 이르는 청소년 대부분에게 가족은 제 1의 가장 인접한 발달 맥락이다(Muuss, 1996). 그 자체로서, 바움린드(1971)가 말한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인 양육 방법과 매킨비와 마틴(1983)이 세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소홀한 양육 방법을 포함해 각기 다른 양육 방법의 사용은 모두 사춘기 청소년의 내적 외적 행동의 차이와 연관돼 있으며 또한 단기 • 장기적인 발달 상의 결과와 연관돼 있다.

4천명 이상의 사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램본, 마운츠, 스타인버그, 돈부쉬(1991)의 대규모 연구에서 권위적 부모를 가진 청소년들은 권위주의적인 부모나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 또는 소홀한 부모를 가진 청소년들보다 사회심리적 능력이 더 뛰어났고 심리적 행동적 기능장애가 적었다. 한편 권위주의적 부모를 둔 청소년들은 권위에 대해 좀 더 복종적이고 잘 순응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동시에 자기존중이 다른 그룹에 비해 박약했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부모를 둔 청소년들은 다른 그룹보다 자신감의 수준이 더 높았지만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은 떨어졌으며 학습적 배경에서 외향화한 행동(externalizing behaviors, 주의력 부족, 공격적 행동, 규율을 깨는 행위 등을 가리킴-역주)을 좀 더 많이 보이며 화학물질 사용(마약 사용을 의미 - 역주)에 연루된 경우가 많았다. 소홀한 범주에 들어가는 부모를 둔 청소년은 연구에 참여한 어떤 그룹의 청소년보다도 많은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노정했다. 흥미롭게도 동일한 청소년 그룹을 대상으로 수행된 후속

연구에서 위에서 언급된 네 개의 각기 다른 양육 방법과 연관된 적응 상의 차이들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유지되거나 증가됐는데, 특히 소홀한 양육 방법이 적응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그러했다(Steinberg, Lamborn, Darling, Mounts, Dornbusch, 1994).

3)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또한 사춘기 연구에 있어서 많이 연구되는 주제였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헌은 대부분 의사소통의 질이 발달에서 갖는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실제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는 주의의 거의 기울이지 않는 편이다. 대화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일부 연구는 성적(性的) 활동이나 화학물질 사용과 같은 보건 관련 문제와 연관된 의사소통에 대하여 통찰을 제공하긴 하지만,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또는 있을 수 없는 일반적 대화 주제에 대한 이해에는 그다지 도움을 주는 바가 없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춘기 청소년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학업, 장래 계획,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반면 데이트 같은 문제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은 얘기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낸다(Youniss & Smollar, 1985). 놀러와 켈런(1990)은 사춘기 청소년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들의 관계, 개인적인 성적 태도, 계획 등에 대해 소녀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년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동일하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론다 리처드슨(2004)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인생 계획에 대해 부모와 얘기를 나누며(Tucker, Barber, & Eccles, 2001), 대학생들은 문제, 계획, 관심분야 등에 대해 부모와 얘기를 나눈다(Noller, 1994). 그러나 중학생들이 비슷한 주제에 대해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가에 관해서는 아직 이해된 바가 없다.

리처드슨(2004)이 10세에서 15세에 이르는 1,124명의 청소년에게 부모와 대화를 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질문했을 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응답(44%)은 자율성과 특권, 사랑, 지원, 갈등, 신뢰 등을 포함하는 가족 문제였

다. 이런 쟁점들은 부모와의 인격적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에 연관돼 있다. 참여자들에게서 수집한 구체적 질문들은 일부 어린 청소년들이 갈등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자율성이라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4) 은폐와 공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관한 문헌 내에서 주요 테마는 여전히 은폐와 공개라는 쟁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계에서의 은폐 또는 정보 전달의 보류는 가족관계를 포함해 인간 관계 전반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이 밝혀졌다(Vangelisti, 1994; Finkenauer & Hazam, 2000). 많은 연구자들은 은폐가 사춘기 시기 동안에 추구되게 마련인(Blos, 1967; Steinberg, 1990) 자율성과 독립성의 발달 및 유지에 핵심적 특징이라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Margolis, 1966; van Manen & Levering, 1996).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욕구는 부모-자녀 간의 갈등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사춘기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주제들은 집안일과 가족의 규칙을 따르는 문제들이며, 사춘기의 자율성과 대인관계와 관련된 쟁점은 주로 친구들과 의논했다(Adams & Laursen, 2001). 프라이버시나 사회적 자유와 같은,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 사춘기적 관심은 사춘기 청소년과 부모 사이의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은 쟁점 가운데 하나로써(Laursen, 1995), 은폐는 아마도 사춘기 청소년들이 프라이버시와 사회적 자유 둘 다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것이다(Finkenauer, Engels, & Meeus, 2002). 게레로와 아피피(1995)에 따르면 사춘기 청소년들은 부모들과의 관계에서 처벌과 비판적 평가, 당황 등을 피하기 위해 은폐와 주제 회피라는 방법을 채용할 수도 있다.

네덜란드에서 핀케나우어, 프린스, 엥겔스, 케르크호프(2005) 등이 수행한 두 개의 대규모 연구의 결과는 사춘기 청소년의 부모 가운데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이 다 자녀들에게서 일부 은폐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자녀와 관계 맺음의 수준이 매우 높은 부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좀 더 많은 은폐와 거짓말을 인지하고 있었으

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딸보다는 아들이 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10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사춘기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정보를 숨긴다고 대답했으며 이 점에서는 소년 소녀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었다. 더욱이 이 연구의 저자들은 자녀들의 은폐와 거짓말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가 사춘기 청소년에 대한 불충분한 양육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고했다. 이러한 불충분한 양육에는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의 부족, 자녀에 대한 수용의 부족, 자녀의 활동과 행동반경에 대한 지식의 부족 등이 포함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모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사춘기 자녀가 정말로 정보를 은폐하고 거짓말을 하는가 아닌가와와는 상관없이, 부정적인 양육 습관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공개에 대한 기대와 관련해 스메타나, 메츠거, 게트만 캠페언-바(2006)는 인종적으로 다양한 중하층(中下層) 사춘기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들을 샘플로 상당히 계몽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부모와 사춘기 청소년 모두 (편안함, 안전, 건강등과 관련된) 신중을 기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말해야 할 의무가 좀 더 크지만, 개인적 문제들은 다른 타입의 문제들보다 밝힐 의무가 적다고 생각했다. 양쪽 그룹 다 정의 및 권리에 관련된 도덕적 쟁점들과 에티켓 같은 임의적 규범과 관련된 관습적 쟁점이 다면적 쟁점(영역의 중복)이나 개인의 몸, 프라이버시, 여가 활동 등에 관계된 개인적 쟁점들보다 더 부모의 권위에 종속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나타냈다. 사춘기 청소년들은 개인적 문제를 부모에게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지만 부모들은 평균적으로 개인적 문제에 대해 최소한 가끔은 얘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부모들은 청소년 자신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좀 더 행동과 쟁점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간주했다. 여기에 더해서, 부모-자녀 간의 신뢰가 크고, 공개의 의무가 더 많이 인지되어 있는 경우, 개인적 쟁점에 대한 부모가 좀 더 수용적인 경우, 사춘기 청소년은 자신을 더 많이 공개하며 비밀을 덜 만든다.

퍼킨스와 튜리엘(2007)은 12세에서 17세에 이르는 사춘기 청소년 128명을

샘플로 사춘기의 정직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쟁점들이 분명치 않다는 것을 밝혀냈다. 퍼킨스와 튜리엘(2007)의 연구에 참여한 거의 모든 사춘기 청소년은 잘못된 행위를 감추기 위해 부모와 또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른 일이라고 생각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도덕적 • 개인적 문제와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는 부모를 속이는 것이 용인될 수 있다고 본 반면 신중을 기해야 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거짓말이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도덕적 개인적 문제와 관련된 쟁점과 행위에 대해 부모를 속이는 것은 같은 문제에 대해 친구들을 속이는 것보다 좀 더 용인될 수 있는 일로 평가됐다.

5) 관찰 (Monitoring)

관찰과 관찰을 통해 획득된 사춘기 활동에 대한 지식이 좀 더 긍정적인 발달 상의 결과를 가져오며 사춘기의 내적 • 외적 행동 문제를 줄인다는 점이 인간 발달 및 가족학 연구자들 사이에 널리 인지돼 있다. 그러나 스탠타인과 커(2000)는 관찰 그 자체가 아닌 관찰이 일어나는 방식이 긍정적인 사춘기 발달 결과의 지표가 된다고 주장한다. 14세의 스웨덴 청소년 1,000명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시 한번 부모의 지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사춘기 적응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밝혀졌다. 하지만 부모의 추적 노력보다는 자발적인 정보의 공개가 긍정적인 적응에 더욱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더욱이 연구자들이 사춘기 청소년이 부모의 통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통계적 분석에서 배제한 다음에만 부모의 통제 노력이 긍정적 적응에 연관될 수 있었다.

6) 사춘기의 형제자매간 관계

거의 모든 개인에게 형제자매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는 가족 생활과 기능의 핵심적 부분이다. 출생 순서와 성 배열을 포함하는 몇몇 요인이 동기간 관계의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춘기에는 동기간으로부터의 분리가 어느 정도 일어난다는 점이 연구에서 나타나지만 동기간 관계는 많은 개인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남아 있으며 계속해서 가까운 관계로 묘

사될 수 있다는 점을 단언할 수 있다(Cicerelli, 1995). 미국 및 서양 세계의 믿을 수 없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은 문화적 다수를 점하는 집단의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제자매의 출생 순서는 형제자매간 관계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Hoffman, 1991). 연구는 순위 형제자매들이 일반적으로 손아래 형제자매보다 형제자매간 관계에서 좀 더 지배적인 역할을 유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순위 형제자매는 손아래 형제자매에게 역할 모델 노릇을 하며 지도와 돌봄의 원천이기도 하다(Burhmester, 1992; Hoffman, 1991). 던(1994)이 묘사한 대로 손아래 형제자매에게 제공되는 지도는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상호작용과 유사하다. 동기간 의사소통은 좀 더 동등한 정보의 교환으로 특징지어지는데(Dunn, 1983), 이 패턴은 사춘기 내내 유지된다(Burhmester, 1992).

성 배열 또한 형제자매간 관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동성 형제자매간은 이성(異性)의 형제자매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따뜻함과 친밀함을 보여준다. 이 점은 특히 소녀들에게서 두드러진다(Burhmester, 1992; McHale, Updegraff, Tucker, & Crouter, 2000; Minnett, Vandell, & Santrock, 1983). 사춘기 소녀들에게 긍정적인 형제자매간 관계는 부모 및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에 연결된다. 그런 긍정적 형제자매간 관계는 또한 좀 더 많은 자기 존중 및 더 큰 삶의 만족과 연결돼 있는데 소년들에게서는 그런 연관이 나타나지 않는다(Oliva & Arranz, 2005).

몇몇 연구는 형제자매간 관계의 체계와 또래 관계의 체계를 연결시켜왔다. 크래머와 코월(2005)이 수행한, 어린이들을 출생에서부터 사춘기까지 관찰한 장기적 연구는 어린이 때 친구들과 맺는 긍정적 관계가 사춘기로 이어지는 깊은 형제자매간 관계를 예고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부 연구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빈약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춘기 청소년들은 형제자매간에도 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며 친밀감이 부족하다는 점을 나타내 준다(Kramer & Gottman, 1992; McCoy, Brody, & Stoneman, 1994). 하지만 다른 연구는 좀 더 보상적인 과정이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암시한다.

즉 형제자매간 체계에서의 결손은 또래에게서, 아니면 또래 체계에서의 결손은 형제자매간에서 좀 더 적응성 있는 행동과 경험에 의해 보상된다는 것이다(East & Rock, 1992; Stocker, 1994).

사춘기 청소년들이 형제자매간과 상호작용이 점점 줄고 있으며, 전보다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애정이 줄었다고 말하지만(Burhmester, 1992; Burhmester & Furman, 1990), 이런 점들이 형제자매간 관계의 중요성이나 이 발달 시기 동안 유지되는 친밀함에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렘퍼스와 클라크-렘퍼스(1992)는 사춘기 청소년이 부모, 형제자매, 가장 가까운 동성 친구, 주요 교사들과 맺는 관계의 중요성을 비교했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함께 있는 시간, 친밀도, 돌봄과 배려라는 항목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가 부모보다는 높은 순위를, 가장 가까운 동성친구보다는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형제자매는 가장 가까운 동성 친구보다 더 중요한, 신뢰할 만한 동맹의 원천으로 평가되며(Lempers & Clark-Lempers, 1992)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친구보다 더 곁에 있어주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로서 서로 가족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된다(Cicirelli, 1995). 우드워드와 프랭크(1998)는 압도적 다수의 사춘기 청소년이 외로움을 느낄 때 대화와 위안을 얻기 위해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형제자매를 꼽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춘기 청소년들은 형제자매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하며 더 많이 존중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기에 부모의 지원과 또래의 수용 이상으로 동기간 관계는 독특한 정서적 지원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다(Seginer, 1998).

7) 또래 관계

사춘기는 끊임없는 육체적, 감정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의해 정의되는 세계 속에서 어린 성인들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개념화해 나가는 이행적인 인생 단계이다. 몇몇 연구자에 따르면 사춘기는 우정과 또래 관계가 가장 큰 중요성을 지니는 인생 시기라고 한다(Gilligan, 1982). 이들 관계의 질은 나중의 인생 경험을 위한 초석을 이룬다. 실로 여러 연구는 현대 사춘기 청

소년의 삶이 친구들 및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Stanton-Salazar & Spina, 2005). 이런 흐름은, 다소간, 사춘기의 독특성을 찬양하는 광범위한 청년 문화의 발달로부터 진화한 것으로서 낭만적 관계에 몰두할 것을 조장한다. 사실상 또래 관계는 사춘기 청소년의 자아 개념과 변별적 정체성 추구가 논의되는 매우 중요한 공개토론장이 됐다(Brown, Clasen, & Eicher, 1986; Berndt & Savin-Williams, 1993).

자아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킬 때 사춘기 청소년은 성적(gender) 정체성과 인종적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자아를 구성하는 이런 기본적 요소에 부모와 교육자들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일부 연구는 또래 관계가 이런 자아 구성에서 똑같이 중요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Loy & Norland, 1981; Stanton-Salazar & Spina, 2005; Crockett & Randall, 2006).

8) 사춘기 연구의 역사적 발전

에릭슨(1959)은 정체성의 발달을 사춘기의 한 이정표로 서술한 최초의 사회과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사춘기에서 성인기로 이르는 도정의 심리적 측면을 면밀하게 묘사하면서 사춘기의 정체성 발달이 성인기를 통해 맺게 되는 관계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주장했다. 마르시아(1966)는 에릭슨의 작업을 확대하여 정체성 발달의 시기로서 사춘기의 중요성을 더욱 정교하게 설명했다. 마르시아(1966)는 삶의 경험에 바탕을 두어 정체성의 네 가지 가능한 유형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는 정체성 혼란(identity diffusion), 정체성 유실(identity foreclosure), 정체성 유예(identity moratorium), 정체성 성취(identity achievement)뿐 아니라 친구 및 또래와의 관계의 중요성이 포함돼 있다. 각각의 가능한 과정은 구체적 과제를 요구하는 독특한 구성요소와 연관돼 있는데 그 구체적 과제들은 이제 막 성인이 되어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것들이다. 연구자들은 또래의 영향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Adams & Flich, 1982; Adams & Marshall, 1996; Goossens & Phinney, 1996; Grotevant, 1987;

Markstrom-Adams, 1992).

연구는 또한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아상이 역동적이며 변화하는 사회적 문화적 요구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뼈아제의 인식 발달 이론(1952)은 자아상 및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삶의 경험을 지배하려 하는 사춘기 청소년의 경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동화 및 수용의 과정을 인생 상황에서의 적응과 연결시켰다. 즉 동화와 수용 과정들은 삶의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적응을 도와주는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같은 맥락에서 헛번(1987)은 하나의 주관적 모델을 제시하여 성인 정체성을 삶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심리적 과정과 연결시킨다. 이 모델은 “연령에 적합한” 예상 가능한 사건과 기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춘기 동안, 서서히 어른이 되어가는 어린 성인은 유동적인 문화적 사회적 세계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이런 사건과 기대를 해석한다.

어린 소년 소녀가 학교에 들어간 시기부터 우정과 또래 관계는 사춘기의 문화적 사회적 체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또한 정체성 발달을 형성한다. 사춘기 시기에 일어나는 육체적 인지적 변화를 감안할 때, 친구와 또래는 성적·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좀 더 선명하게 정의된 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좀 더 분명하게 정의된 성적 인식(sense of gender)은 부분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규범, 활동, 행동을 형성한다(Gilligan, 1982). 또래의 영향과 정체성 발달 사이에 전개되는 역동적 관계로 인해 연구자들은 어떻게 사회적 관계가 상이한 문화적 맥락에서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가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여기에 더해 우정은 자발적인 사회적 관계이다. 우정은 인생 전체에 걸쳐 행복(wellbeing)을 생성해 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물리적 사회적 영역에서 물리적 자기존중을 형성한다. 사춘기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통해서 성인기로의 진입에 필요한 다양한 성인 생활의 기술을 익힌다. 이런 관계는 사춘기 청소년들로 하여금 신뢰를 발전시키고, 지원을 구하거나 제공하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중에 가치있는 경험을 획득할 수 있게 해 준다(Sieving, Eisenberg, Petting,

& Skay, 2006).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원과 친구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춘기 청소년들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율이 낮고 학교생활에서 좀 더 긍정적인 적응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Berndt & Savin-Williams, 1993). 물론 반대로 관계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파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수많은 연구가 또래 압력이 마약과 알코올 남용 및 다른 위험한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Brown, Clasen, & Eicher, 1986; Rienzi, 1996).

실로 사춘기는 젊은 남녀가 부정적·긍정적 또래 영향 모두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중요한 발달 시기이다. 사춘기가 매우 결정적인 시기인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자기 확인을 구하고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피해야 할 필요에서 도출된다(Jackson & Rodriguez-Tome, 1993).

많은 젊은이에게 어떤 집단에 귀속되어야 할 필요는 긍정적 정체성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Tajfel & Turner, 1986). 사회적 정체성 이론가들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다. 사춘기는 특히 어떤 집단에 속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중요한 시기이다(집단 내 in group라고 지칭되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는 그 정의 자체로서 “집단 외(out group)”라는 레테르가 붙여질 다른 이의 배제를 필요로 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사회적 비교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속한 그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 하거나, 다른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한다. 연구자들은 내집단(內集團)을 좀 더 유리하게 평가하거나, 어쨌든 외집단(外集團)보다 더 낫다고 평가함으로써 개인들은 긍정적 사회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Tajfel & Turner, 1986).

사춘기 또래 집단 바깥에 있는 요인들 또한 긍정적 정체성과 자존감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키워줄 수 있다. 연구자들은 부모와 교육기관이 적극적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왔다. 부모와 교육기관은 이제 막 성인이 되어가는 청소년들에게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 관계를 복돋우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s, 1992; Eccles, Early, Fraser,

Belansky, & McCarthy, 1997; Harter & Whitesell, 1996; Hughes & Demo, 1989; Luster & McAdoo, 1995; McFarlane, Bellissimo, & Norman, 1995). 그러나 사춘기 발달에 또래가 끼치는 막대한 영향이 부정적 또래 영향에 대해 염려하는 부모와 교육자들의 기를 꺾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Rienzi, 1996).

인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개인들이 인생 전체를 통틀어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과 관련해 자신이 가진 자기 인식을 보완해 줄 친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매력, 지성 등과 같은 외적으로 인지된 유사성을 토대로 친구를 선택하는 경향은 마약 사용, 성적, 인종, 신앙심, 섹슈얼리티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Urberg, Degrimencioglu, & Tolson, 1998).

9) 사춘기의 여가 시간

사춘기에는 자녀들, 형제자매, 부모, 또래와 보내는 시간의 양과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변화한다. 연구자들은 사춘기에 이른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과 보내는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을 발견했다(Berndt, 1982; Csikszentmihalyi and Larson, 1984; Hartup, 1993). 시간을 조직하고 청소년들을 활동에 참여시키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여전히 상당량의 시간이 남아돌고 있기에, 어떤 친구를 선택하는가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청소년의 여가 시간 대부분은 사회적 활동에 쓰이므로,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또래 집단에게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유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Kleiber, Caldwell, & Shaw, 1993).

이러한 형성적 시기 동안에는 청소년들이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현저하게 줄어들며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의미심장하게 늘어난다. 이는 특히 사춘기 소녀들에게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특징이다(Larson & Richards, 1991). 1991년에 라슨과 리차즈가 수행한 주요한 연구는 9세에서 15세에 이르는 아동들에게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 있음을 발견했다. 소녀들은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늘어났고 소년들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늘어났다. 그들은 또한 아동이었을 때 비해서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50% 줄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5학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 라슨, 리차즈, 모네타, 홈백, 더켓(1996)은 깨어 있는 시간 중 사춘기 청소년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양이 35%에서 14%로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집에서 나가 있는 시간이 집 바깥에서의 활동에 참여가 늘어나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사춘기 기간 동안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은 가족 그 자체와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다(Larson et al, 1996).

10) 사춘기와 성의 문제

연구는 사춘기 청소년의 행동에는 중요한 성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 사춘기 소년들이 또래 집단과 어울려 활발하게 여가를 추구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Johnson, Brady, McNair, Congdon, Niznik, & Anderson, 2007). 자유 시간의 성적 성격(gendered nature)에 초점을 맞춘 연구 대부분은 정서적 친밀성과 공유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왔다(Johnson et al, 2007).

이와 대조적으로 소녀들은 우정의 중요한 요소로서 친밀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년들은 교우관계의 유대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공유된 활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사춘기 기간에 교우관계가 유지되는 이런 흐름은 사춘기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에서 나타난다. 사춘기 소년들은 자유 시간의 상당 부분을 또래들과 신체적 활동을 하면서 보낸다. 사춘기 소녀들도 또래들과 신체적 활동에 참여하긴 하지만, 연구자들은 소녀들이 동성 친구들과 정서적 친밀감을 획득하기 위해 대화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서적 친밀성이 전형적으로 여성들의 관계와 결부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Clark & Ayers, 1993; Shulman, Laursen, Kaiman, & Karpovsky 1997), 연구자들은 최근 사춘기 소녀들뿐 아니라 소년들도 교우관계에서의 정서적 친밀성을 얻기 위해 애쓴다는 점을 시사했다(Johnson, 2004; Lempers & Clark-Lempers, 1993; Tesch & Whitbourne, 1982; Johnson, et al, 2007). 물론 정서적 친밀성을 개념화하는 부분이나 어떤 현장에서 사춘기 청

소년들이 일정한 수준의 정서적 친밀성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는가에서는 성적 차이가 작용할 수 있다.

11) 이성(異性)끼리의 우정

최근에 서양 문화에서는 이성 간 교우관계의 발달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성끼리의 우정은 남성과 여성에게 공히 자존감과 자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Josselson, 1987; Wright & Keple, 1981). 연구자들은 사춘기 청소년들이 이성과의 관계에 의미심장한 양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Csikszentmihalyi & Larson, 1984; Hendry, Shucksmith, Love, & Glendinning, 1993; Laursen & Williams, 1997). 사춘기에는 성적인 차이가 종종 놀라운 정도로 두드러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동성 간 교우관계와 이성 간 교우관계는 다른 목적에 봉사한다. 동성 간 우정은 정서적 지원의 목적과 여가 시간 활동을 위해 기능한다 (Johnson, 2004; Lempers & Clark-Lempers, 1993). 이와 대조적으로 이성 관계는 사춘기 청소년이 이성간의 유사성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와중에서 건강한 남녀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유용한 도구이다(Josselson, 1987; Laursen & Williams, 1997).

12) 내적 가치와 역동적 사회환경의 균형

사춘기 청소년은 일련의 신념과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에 전념하려 애쓴다. 사춘기 청소년은 자아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이해를 획득하게 되면 그 다음 차례로 자신의 사회 세계에 대한 일관된 해석에 몰두하게 된다(Erikson, 1959). 이러한 이해와 연속성은 사춘기 청소년에게 또래와의 정서적 친밀성을 얻게 해 주는 또 다른 요인인데(Mashek & Sherman, 2004), 이 과정에서는 또래 관계 안팎에 존재하는 사회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의해 형성되지는 않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Jessor, 1993). 개인적 경험과 문화적 영향이 서로 얽혀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린 사춘기 소년 소녀들은 변화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을 것이

다(Halbwachs, 1992; Connerton, 1989).

13) 사춘기 청소년, 기술, 관계

이미 언급한 대로 청소년들은 사춘기 기간에 나중의 인생 관계와 인생 경험의 초석을 구축한다. 서적, 잡지, 텔레비전 등이 꽤 오랫동안 소년 소녀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와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통신 기술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는 청소년들과 그 또래들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형성한 관계가 그들 자신에 대한 인식과 교우관계에 대한 인식, 이제 막 시작되는 낭만적 관계에 대한 인식, 또한 가족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알지 못한다. 현 세대의 청소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통신기술에 노출될 기회를 가져왔기에 이것은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정체성 형성과 통신 매체에 관한 연구에서의 초점은 대부분 미국 매체가 보여온 성적 편향성과 신체적 • 사회적 완벽함에 대한 강조가 가지는 부정적 효과에 집중돼 있었다. 예를 들어 여러 연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남성들이 훨씬 자주 등장하며 더욱 긍정적으로 표현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성들은 등장 횟수가 떨어질 뿐 더러 제한된 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 구체적으로, 소녀들의 마른 몸매에 대한 계속된 강조는 식사 장애 및 정체성 쟁점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Steiner-Adair, 1986).

지난 20년간 인터넷이 자아상과 관계에 영향을 주며 이들을 형성하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원천으로 떠올랐다. 미국인구통계국(the United States Census Bureau)의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현재 7천만 미국 가구(62%)가 최소한 한 대의 컴퓨터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는 2001년의 51%에서 증가한 숫자다. 여기에 더해 2003년 최소한 한 대의 컴퓨터를 갖춘 가구 중 대략 55%가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었다. 2003년, 유치원에서 12학년에 이르는 학생들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고 10명 중 9명은 학교에서 인터넷을 사용했다. 어린이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더 많이 접하게 되면서 기술의 사용과 가족이 연구자들의 늘어나는 관심을 받

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그런 관심과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문헌 숫자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크다.

사춘기의 인터넷 사용이나 그에 관련된 주제, 예를 들어 감시(*monitoring*)와 같은 주제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야 비로소 시작됐다. 왕, 비앙키, 레일리(2005)는 10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61%가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에 대한 제약을 포함하는 가족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같은 비율의 부모가 자녀들이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점검해본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38%의 청소년만이 인터넷을 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규칙이 있다고 말했다. 흥미롭게도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감시에 대해 청소년들의 응답이 부모의 응답보다 더 낮은 비율로 나왔는데, 이는 적어도 부모들의 감시활동의 일부는 청소년들 모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왕과 그 외 저자들(2005)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부모 중 61%는 규칙이 없다고 대답한 자녀들의 부모였다는 것을 보고했다. 여기에 더해 오직 8%의 가족에서만 부모 아닌 자녀가 인터넷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

왕과 그 외 저자들(2005)이 수행한 연구는 부모의 나이와 성은 둘 다 인터넷에 대한 감시와 연결되어 있지만 인터넷에 관한 규칙을 정하거나 컴퓨터에 감시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과는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좀 더 나이가 많은 부모는 좀 더 젊은 부모보다 10대 자녀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점검하는 경향이 약간 적었으며,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이와 같은 방식의 감시를 하는 경향이 좀 더 높았다. 또한 좀 더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가 고교 교육 또는 그 이하의 교육을 받은 부모보다 가정에서 감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훨씬 적었다. 가족의 수입은 연관성이 없었다.

온라인 상에서 전개되는 사춘기 청소년 관계의 복잡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사춘기 청소년-가족 관계의 성격 및 온라인 상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이 관계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월락, 미첼, 핀켈로(2003)에 따르면 친밀한 온라인 상의 관계가 부모로 인해 고통을 받았거나 부모와 빈약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지지와 위안의 원

천이 될 수 있었다. 10세에서 17세에 이르는 소년 소녀에게 우울증 증상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peer victimization)이 친밀한 온라인 상 관계의 실재와 연결되어 있다. 부모-자녀 관계 또한 연관되어 있다. 부모와의 갈등 수치가 높은 소녀들과 부모와의 대화 수치가 낮은 소년들이 친밀한 온라인 상 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대화는 기존의 사춘기 교우관계를 발전시키고 지지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사춘기 청소년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Valkenburg & Peter, 2007). 또래와 접촉할 기회가 늘어났다는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접촉, 의사소통, 그리고 이미 광범한 또래 문화의 더욱 심화된 정의를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Corsaro, 1997; Erwin, 1998; Frones, 1995; Hengst, 2007). 교우관계와 다른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광범하게 사용하는 것의 효과는 사회과학의 상대적으로 새로운 탐구 영역이며 여전히 좀 더 심화된 연구의 여지가 크다.

사춘기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포함하는 매우 중요한 삶의 단계이다. 여러 연구는 사람들이 사춘기에 대한 기억을 불균형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Rybash & Managhan, 1999). 이 발달 시기 동안의 가족 및 또래 관계는 성인기를 위한 중요한 초석을 제공한다. 이런 관계들은 매우 복잡적이며 본질적으로 결코 한 가지 형태일 수 없다. 그들 관계는 변화하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뿐 아니라 개인적 경험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부모와 교육 체계가 청소년들이 자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만 또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계의 성격을 좀 더 잘 이해함으로써 연구자들은 21세기의 벽두에 사춘기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14) 미국의 교육제도

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은 법에 의해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다녀야 한다. 학교 제도는 1년에서 2년 간의 유치원, 12년 간의 정규 교육, 그리고 선택에 의한

고등 교육 학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비학위 직업훈련 기관과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성인교육 서비스와 초등교육 혹은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지 못한 개인을 위한 평생교육 등도 있다. 대체로 한 단계를 마쳐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학습 발달 및 다음 단계로 진입이 가능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도구들이 사용된다 (미국 교육부).

현재 30개 주에서 학생들은 16세까지 학교에 다녀야 하고, 9개 주는 17세까지의 학교 교육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11개 주와 워싱턴 디 씨는 18세까지의 학교 교육을 의무로 정해놓고 있다. 학생들은 주법에서 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를 그만둘 수 있지만 그런 경우 의무교육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어떤 종류의 인증도 받지 못한다. 현재 미국의 학교 탈락율은 대략 11%에 달한다.

미국 어린이들은 공립학교 내지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홈스쿨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공립 및 사립학교는 학생들을 초등, 중등, 고등학교 세 단계로 나누어 놓고 있다. 학생들은 각 단계에서 나이에 따라 유치원 및 1학년부터 12학년으로 나뉘게 된다. 12학년은 상급학년이라 지칭되며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을 들어가기 직전의 마지막 학년이다.

공립학교는 자기 구역에 할당된 학령에 있는 모든 이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대체로 이것은 거주에 의해 정해진다. 공립학교들은 어느 지방에 있는가와 지역사회의 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 대도시 지역의 학교 체계는 이러한 학교의 질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마그넷 스쿨”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이들 학교는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재능있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입학은 추첨에 의해 정해지며 남녀 학생 동수(同數)가 선발된다. 이런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학생들은 매우 넓은 범위의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는 종파(宗派)와 연결된 교구부속학교, 비영리 독립학교, 영리를 추구하는 사립학교 등이 있다. 일부 사립학교는 학생들에게 기숙시설을 제공한다. 사립학교의 등록금은 지역, 학교의 지출, 다른 재원(財源)에서의 자금조달가능성(예를 들어 일부 학교는 동창생들로부터 상당량의 기부금을 받는다), 학교

의 명성 등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미국 학부모 대부분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다. 현재 초등학생은 379만 명, 중고등학생은 164만 명이다. 국가 교육 예산은 1조 4천억 달러로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한다. 현재 미국 인구의 85%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 대략 10%의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다니며 85%는 공립학교를 다닌다. 평균적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루 6시간을 보내고 1년에 185일을 출석한다. 여름방학은 2달 반 가량이다.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방학기간이다. 이런 긴 방학은 과거에 자녀들이 추수를 도왔던 농업사회와 연관된 것인데, 이제까지 미국인들 사이에서 여름 방학 길이를 변경하자는 의욕이 표출된 적은 거의 없었다.

대략 1.7%의 부모가 집에서 자녀를 교육한다. 홈스쿨링은 부모가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을 거라고 느끼는 종교적 도덕적 가치에 충실하기 위해 행하는 경우가 많다. 홈스쿨링은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지난 수년에 걸쳐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추세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종교에 귀의하는 비율의 상승과 일부 학구(學區)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은 규정된 커리큘럼을 따른다.

미국은 연방, 주, 지역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3단계로 구성된 교육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학교 커리큘럼과 재정조달은 지역에서 선발되어 학구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장학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주 정부는 교육 기준과 표준화된 시험 관련 결정사항을 정한다. 학구들은 주의 학습기준이 반영된 커리큘럼과 교과서를 채택한다. 학습기준은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의 규정에 따라 주와 학구가 연간 학습 진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목표를 가리킨다. 각 학교는 실행하는 커리큘럼의 유형과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가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일부 학구와 주는 엄격한 상명하달 식 접근법을 적용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커리큘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에서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립학교는 커리큘럼 결정과 교육학적 접근법과 관련해 좀 더 많은 재량을 가진다 (미국 교육부).

15) 취학 전 학교 (Pre School)

3세에서 5세까지의 대다수 미국 어린이들은 취학 전 학교(또는 유치원 전 학교-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을 Kindergarten이라고 부름 역주)에 다닌다. 어린이가 언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4세나 5세가 되면 취학 전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다. 취학 여부에 기준이 되는 생일 날짜는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그 해에 유치원(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 역수) 다니려면 어린이가 9월 30일 이전에 5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강제적인 취학 전 학교 프로그램은 없다. 부모들 자신이 취학 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돈을 지불한다. 하지만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헤드 스타트(Head Start)’라고 알려진 취학 전 학교에는 재정을 지원한다. 도시 지역의 상류층 가정은 자녀를 아이비 리그 대학 입학 준비를 겨냥한다고 선전하는 특화된 취학 전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16)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의 학년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6학년 내지 8학년까지 초등학교를 다닌 후 중등학교에 진학한다. 미국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읽기, 쓰기,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기초적인 것을 배운다.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엄격하게 조직된 일과를 따른다. 선택과목은 없으며 학생들은 체육, 음악, 미술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같은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초등학교의 한 반은 20명에서 30명 사이의 인원으로 이들은 능력의 구별 없이 섞여 있다. 여기에 점점 더, 특별히 돌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된 어린이들이 포함되는 추세이다. 교사들과 행정가들은 자주 모여 이들 특별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돕기 위해 커리큘럼을 보강한다.

학교는 매 학년도마다 학생들에게 책을 빌려준다. 나아가, 많은 학구들이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커리큘럼과 보충 자료에 관한 정보를 올려놓는다.

수년간 학습기준의 개념이 있었지만, 법으로 제정된 ‘낙제학생방지법’은 주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강제해 왔다. ‘낙제학생방지법’은 읽기와 수학의 능력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낙제학생방지법’은 교사와 학부 모들이 느끼기에 기초적인 읽기와 수학의 이해만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중요한 과목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많은 학교가 시험 성적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기 위해 모든 비기초 과목을 없애는 식으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17) 중학교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5학년이나 6학년, 또는 7학년에 중학교에 진학하면 학생들에게는 좀 더 독립성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선택과목이라고 알려진 자신이 택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대체로 여러 교실로 이동하면서 수업을 듣는다. 9학년에 진입한 후부터 받는 성적은 나중에 대학 입학 사정에 쓰이는 공식적인 성적표의 일부가 된다. 미국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며 학습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장려된다. 대부분의 학교 일정은 하루에 한 시간을 ‘학습실’로 정해 학생들이 숙제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8)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유를 갖게 된다. 다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전형적인 최소과목의 배열이다. 이 배열은 미국 대학에 다니는 데에 필요한 최소 필수 과목이나 과목의 질을 나타내지 않는다.

과학(대체로 최소 3년, 생물, 화학, 물리 포함)

수학(대체로 최소 3년, 대수, 기하 대수II, 그리고/또는 미적분학 준비코스/삼각법 포함)

영어 (4년)

사회(여러 종류의 역사, 정부, 경제, 미국 역사 필수)

체육(최소 1년)

여기에 더해 많은 주가 학생들이 어떤 형태이든 보건 과목 하나를 반드시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과목의 전형적인 커리큘럼은 영양, 섹슈얼리티, 출산조절, 해부와 같은 문제를 다룬다. 이들 과목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교육학적 내용으로 인해 학교 장학위원회 사이에서 널리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최소한 2년 간 외국어와 선택 예술 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돼 있다.

많은 고등학교가 시각 미술, 연극, 밴드, 합창, 목세공(木細工) 자동차 수리, 컴퓨터, 운동경기를 포함하는 매우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들 과목의 개설 여부는 학교의 재원과 커리큘럼에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가에 많이 의존한다. 예를 들어 전체 학생 중 많은 비율을 대학에 보내는 고등학교는 금속가공이나 로봇공학 같은 과목의 비율이 낮다.

많은 경우, 고등학교는 다양한 능력별 편성 코스를 갖고 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코스와 직업훈련을 받거나 대학 진학을 할 계획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코스가 있다. 대학진학을 계획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매우 엄격하게 구성된 과목들을 수강한다. 또한 일부 학교들은 11학년과 12학년생을 위해 대학과목 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 수업을 제공한다. 대학과목 선이수제 수업은 전국적으로 미리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되는 그 과목 영역에 특정한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 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얻은 학생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거나(예를 들어 생물학 같은 특정 과목), 좀 더 고급반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기초 문법 수업 대신 외국 문학 수업을 수강하는 식). 대학과목 선이수제는 좀 더 능력을 시험하는 커리큘럼과 빠른 페이스로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각 대학교는 이 시험에서 얻은 점수를 다양하게 해석한다. 일부 학교는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고, 다른 학교들은 학생들을 고급반에 넣는 기준으로 점수를 사용한다.

19) 평가

평가는 미국 교육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어린이들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계속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들의 성적은 각 학년도의 일정한 시기에 부모들에게 고지된다. 일부 학교는 일년에 4회, 다른 학교들은 1년에 3회 성적을 매긴다. 교사들은 대체로 백분율에 근거한 성적을 낸 다음 그것을 문자로 표시되는 등급으로 바꾼다(A, B, C와 같은 문자 등급-역주). 대체로 채점 기간이 끝나면 문자로 표시된 등급이 성적표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학교가 1년 동안 얻은 등급의 평균을 내서 학년이 끝날 때 한 개의 최종 등급을 낸다.

20) 과외활동

미국 교육 제도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스포츠와 활동이 미국 학생들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부모, 교사, 지역사회, 그리고 학생들 자신이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많은 경우, 정상적인 학교 일과 바깥에서 전개되는 이런 과외 활동이 차지하는 시간은 엄청나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교내에서 일어난다. 학생들은 미식축구, 축구, 야구, 수영뿐 아니라 밴드, 훈련, 응원 같은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런 활동은 대부분의 지지자에게 청소년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과외 활동에 부여된 중요성은, 특히 학교가 후원하는 스포츠 팀은 다른 나라의 교육 체계와 비교해 미국 학교 체계의 독특한 점이다.

5. 연구 결과

이 연구의 주 초점은 어린 사춘기 청소년의 가족 및 친구 관계의 성격이다. 다른 초점들은 어린 청소년 사이의 성 차이, 현대 통신기술이 그들의 관계에 대해 갖는 효과 등이다. 연구 목적의 일부는 인생 시기의 이 발달 단계에 있

어서의 정체성 형성에 대해 좀 더 나은 이해를 하자는 것이다. 이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는 생태학적·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여준 복합적인 정체성에 대해 조사했다. 우리는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의 패턴 및 다른 사회적 관행의 패턴이 이들 청소년들이 자기 것으로 택하는 선택, 기회, 정체성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심이 있었다 (DeReus, Few. & Blume, 2005). 우리가 선정한 표본은 미국 사회의 특정 사춘기 청소년 집단을 대변한다. 그들은 백인 중산층과 중상위층의 청소년들로 미국의 대서양 중부 연안 지역에 살고 있다. 26명 중 20명은 이 지역의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연구 결과는 이들 개인에 대한 사례연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택한 표본을 가지고 미국의 다른 청소년이나 세계의 다른 청소년에 대해 일반화를 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우리의 분석이 현재의 사회 역사적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관계 및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역동적 과정의 일부에 대해 일정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은 틀림없다.

면담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주제를 드러내 주었다.

1) 가족 관계의 중요성

부모-자녀 관계의 친밀성

부모와의 친밀성을 낮추는 요인들: 시간과 거리

부모-자녀간의 소통, 성(gender, 性), 친밀성

행동에 있어서 또래들의 가치관보다 개별 가족의 가치관이 갖는 지속적인 중요성

동기(同氣)의 양면적 역할

청소년의 생활에서 확대가족의 역할

2) 또래 관계의 진행

우정의 원천

정체성과 집단 활동

사회적 위계 및 조직의 형성
 공통의 관심사와 사회적 지위
 사회적 기회 및 사회적 행동
 예비적인 낭만적 관계
 관계 형성에서의 열린 의사소통
 관계에 있어서 경계 넓히기
 분리된 영역: 가족과 친구

3) 청소년 사이에서 기술의 사용

기술사용에서의 성적 차이: 일과 놀이 대 사회적 연계 형성
 통신기술을 통한 관계의 촉진
 인맥의 확장: 끊임없이 확장되는 친구 명단
 얼굴을 마주 대하는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의 촉진: 통신기술에 대한 불신
 통신기술 사용에 관한 교육의 중요한 역할

4) 면접대상자들의 인구학적 구성

<표 VI-1>이 보여주는 대로 26명의 어린 사춘기 청소년이 우리 연구에 참여했다. 나이는 11세에서 15세까지 고루 퍼져있다. 11세 참가자들은 7학년 진입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학년은 미국에서 중학교 또는 어린 사춘기로 간주되는 나이이다. 26명 가운데 9명은 남학생이었으며 17명은 여학생이었다. 압도적으로 백인/코카서스 인종이며, 결혼한 양 부모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학생 중 20명은 대서양 중부 연안 지역의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 사용과 휴대 전화와 같은 기술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었다.

<표 VI-1> 면접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미국)

이름	나이	성별	학년	인종/종족적 신원	부모의 결혼상황	형제자매 수
조슈아	13	남	7	백인종	결혼	0
제니퍼	14	여	7	백인종	결혼하지 않음, 어머니와 살고 있음	0

〈표 VI-1〉 계속

이름	나이	성별	학년	인종/종족적 신원	부모의 결혼상황	형제자매 수
씨에나	13	여	7	자마이카	별거, 부모 양쪽과 같은 시간을 보냄	오빠 1
제레미	12	남	7	백인종	결혼	남동생 1
엘	13	여	7	확인하지 않음	결혼	여동생 1
매기	13	여	8	확인하지 않음	결혼	언니 1
개빈	13	남	7	백인종	결혼	남동생 1
손	13	남	7	백인종	결혼	0
클로	13	여	8	1/2 중국, 1/4 포르투갈, 1/4 이태리게	결혼	0
루카스	13	남	7	확인하지 않음	결혼	남동생 2, 여동생 1
프란체스카	13	여	7	확인하지 않음	아버지 상처(喪妻), 아버지와 살고있음	여동생 1
리사	13	여	7	중국계	독신 어머니 (해외 입양)	0
멜리사	13	여	7	백인종	이혼, 연중 대부분 어머니와 살고있음	오빠 1
에린	13	여	7	백인종	결혼	오빠 1, 언니 1
지미	13	남	7	일본, 아일랜드, 이탈리아계	결혼	형 1, 누나 1
베스	13	여	8	이디오피아계	결혼	오빠 1
카일	14	남	8	유대계	결혼	누나1, 배다른 누나1
토니	14	남	8	백인종	결혼	누나 1

분석에 있어서 우리는 조사 결과는 가족 영역, 또래 영역, 어린 청소년 생활에서 기술의 역할, 이러한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흥미롭게도 이 영역 사이에 상당한 양의 중복이 예상되었으나 우리의 분석은 사춘기 청소년 자신들이 가족 영역과 또래 영역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술은 또래 영역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가정에서 컴퓨터 사용

을 제외하면) 가족 영역으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은 여전히 부모, 동기, 확대가족 성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시간을 보내는 쪽을 더 좋아한다. 그들은 또래 관계, 즉 교우관계와 낭만적 관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주제에 대한 대중적 오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춘기 청소년들은, 특히 어린 사춘기 남학생들은, 심지어 또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실제로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하는 관계를 선호하고 있다.

5) 가족 영역

우리 분석에서 나타난 지배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는 어버이로서의 관계의 지속적 중요성이다. 어버이로서의 관계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격려에 대한 논의는 동기부여의 사용과 지도, 학업 및 과외 활동의 지원, 사춘기 청소년의 생활이 어떠한가를 부모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생각, 또래 관계에 대한 지식과 지원 등에 반영됐다. 이 연구에 참여한 26명의 참가자들 가운데 모든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든 부모의 격려와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부모의 격려는 학업 및 과외 활동 지원뿐 아니라 동기부여의 사용과 지도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드러난다. 지미는 부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네 — 부모님들은 정말 격려를 많이 해 주세요. . . 엄마는 저를 자극하려고 정말 애쓰세요. 엄마는 제가 이것저것 벌이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거의 다 받아들여 주세요. 제가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죠. . . [아빠는] 작은 충고를 많이 해 주세요. 아빠 생각에 제가 하는 일이 맞는지 아닌지 알게 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그냥 그 일을 하게 두세요. 다만 제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미)

리사는 자신을 해외에서 입양한 독신 어머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할 말이 있었다.

“엄마는 제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격려해 주세요. . . 엄마는 항상 꿈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모든 방법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많은 활동을 했어요. 스케이팅도 하고 체조, 무용, 축구 등등이요. 엄마는 모든 일에서 늘 제 뒤에 있어 주세요. 진짜 근사한 일이에요. . .” (리사)

케이티도 과외 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원에 대해 설명할 때 비슷한 감정을 피력했다. 케이티는 합창반 선발에 나가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저희 집이 학교에서 45분이나 떨어져 있고, 부모님께서 제를 데리러 오시려고 직장에서 일찍 퇴근하시는 걸 생각하면, 정말 저한테 모든 일에 대해 너무 잘 해주세요.”라고 했다. 베스는 배구를 하고 싶어하는 자신을 어머니가 어떻게 도와주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엄마는 제가 배구 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결심이 확고한지, 제가 얼마나 배구를 하고 싶어하는지 아신 다음에는 ‘좋아, 그럼 해 보자’ 라고 하셨어요. 연습과 토너먼트, 저를 차로 데려다 주시는 거 등등. . .돈도 정말 많이 드니까. . . 하지만 엄마는 항상 ‘좋아 베스 — 정말로 하고 싶으면 100% 뒤를 밀어 주마.’라고 하세요. (베스)

사춘기 생활이 어떠한가에 대한 공감과 마찬가지로 사춘기 청소년이 느끼는 압력과 요구를 어버이로서 잘 이해하는 것은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씨에나는 아버지가 그녀의 생활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아버지의 교사로서의 경력과 관계가 많다고 생각했다. 씨에나는 “... 아버지는 39년 간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주 잘 아세요. 아버지는 제게 자신감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세요. . .” 여기에 더해 자녀의 경험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부모의 시도 또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케이티는 부모가 자신의 사춘기 경험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묘사했다. 케이티는 어머니가 자신이 보낸 사춘기와

케이티의 사춘기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부모들 자신은 사춘기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고 말했다. 집 바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멜리사에게 부모들이 사춘기 청소년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 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성장 경험이 자신의 경험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집 바깥에서의 사회적 기회를 주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이다. 프란체스카는 가족들이 자신의 요구에 기꺼이 귀를 기울여 주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프란체스카는 “식구들은 저를 잘 이해해요. 하지만 제 말은, 가끔은 식구들에게 제가 어떤 일들을 하는 목적에 대해 알려야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컴퓨터에 그렇게 오래 붙어있는지. . . 그런 거요. 대체로 제가 말을 해 주면 가족들이 이해해요.”

부모들이 하는 격려의 최종 메커니즘은 또래 관계에 대한 지식과 격려이다. 이것은 몇몇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또래 활동에의 참여, 소풍에 보호자로서 동반하기, 또래 역학관계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가정 안팎에서와 학교 환경 양쪽에서 또래와 사귄 기회를 허락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조슈아는 또래 관계에 대한 부모의 격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부모님은] 애들을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제 말은 우리는 많은 일을 함께 하니까요. . . 제 친구들이 저희 집으로 와서 어디 다른 데로 가거나 — 여자애들도 있어요 —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그래요. 부모님은 저희가 뭐 하는지 거의 다 알고 계세요. . . [우리가 더 어렸을 때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우리가 가는 데 같이 가주곤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일을 잘 해 주셨어요. 같이 가 주시는 거 말이에요. 다른 일도 다 잘 해 주시지만요. . . (조슈아)

자녀들이 가는 곳에 동반하는 것 이상으로 사춘기-또래 활동에 참여하는

부모의 사례가 씨에나를 통해서 예증된다. 씨에나의 아버지는 딸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되는 한 명의 또래 친구와의 관계를 특히 격려해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씨에나의 아버지는 이 친구가 자신의 딸과 만나서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좋아하며 딸한테와 마찬가지로 딸의 친구한테도 농구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

(1) 부모-자녀 관계의 친밀성

이 연구를 위해 면담을 한 모든 학생들의 대답은 그들과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부모 양쪽이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이 친밀한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중 일부 청소년에게는 그런 관계의 친밀성이 최근에 변화를 거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가자에게 관계의 친밀성은 좀 더 항구적이었다. 많은 참가자들이 부모 양쪽에 대해 똑같이 친밀감을 느낀다고 했으나 일부는 한 쪽 부모를 다른 한 쪽보다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보고했다. 친밀성을 낮추는 요소에는 시간과 거리가 포함됐다.

이 연구를 위해 수행된 26개의 면담 모두에서 어버이 관계의 친밀성이 입증됐다. 면담을 한 일부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 그런 친밀성은 실제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더 강해졌다. 예를 들어 로렌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부모와 더욱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한 학생의 경우에서만 부모와의 관계가 자신이 바라는 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꼈다 (카일). 흥미롭게도 압도적 다수의 학생들이 부모와 자녀가 예를 들어 스포츠와 같은 더 많은 관심거리와 활동을 공유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져가는 따뜻하고 격려하는 가족 관계를 묘사했다. 많은 사춘기 청소년이 부모를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인식했다. 개빈은 이런 감정을 다음과 같은 말 속에 잘 나타내 준다.

“실제로 부모님이 가장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 제게 집과 먹을 것, 정말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만이 아니고, 부모님과 얘기도 많이 나누고 진짜 좋은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음, 제 친구들은... 그 애들은... 제 친구들은 매일 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매일 보고... 저는 정말 부모님과 가장 좋은 우정을 키웠다고 생각해요.” (개빈)

일부 학생들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장 친밀한 영역을 공유했다. 이 연구에서 7명의 참가자는 부모와 친구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똑같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친밀함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예를 들어 조슈아는 “... 누구한테 얘기가 하고 싶으면 아마 친구들한테 얘기할 확률이 커요, 하지만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중요한 질문이 있으면 부모님과 얘기하죠.” 라고 말했다. 제레미는 “부모님에게 더 가까워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친구들에게 더 가깝죠. ... 부모님과과는 더 진지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친구들하고는 농담도 하고 재미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그들과 더 가까운 건 아니에요.”라고 묘사했다. 엘 역시 제레미의 감정과 유사하게 부모와 친구들이 똑같이 가깝다고 말한다. “... 부모님과 하는 얘기 중에는 친구들과 하는 얘기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부모님과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또래보다 부모가 더 가깝다고 느끼는 것 이외에 많은 참가자들이 부모 양쪽을 똑같이 가깝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지미는 “두 분과 정말 똑같이 친해요.”라고 했고 질리안은 “부모님과 진짜 친한데 두 분과 거의 똑같이 친해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많은 학생들은 한 쪽 부모가 다른 한 쪽보다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씨에나는 부모 양쪽과 다 친밀하지만 아버지가 더 가깝다고 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빠와 더 친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담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가끔은, 아빠는 60대이시지만, 제가 어떻게 아빠를 스무 살 때로 되돌려놓는지, 얼마나 실없는 사람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곤 별별 것에 대해서 다 깔깔대고 웃어요. 아빠는 농구를 가르쳐 주시고, 기술 등등이요, 숙제도 도와주시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아빠는 저하고 많이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저도 아빠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해요.” (씨에나)

(2) 부모와의 친밀성을 낮추는 요인들: 시간과 거리

많은 학생들이 한 쪽 부모가 다른 쪽 부모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얘기했다. 대부분이 친밀성은 한 쪽 부모보다 다른 한 쪽과 보내는 시간의 양에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클로는 어머니에게 좀 더 가까웠는데 그것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제레미는 어머니와 더 가까운 이유가 아버지는 밖에서 일을 하는 데 비해 어머니는 주부로서 집에 주로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니키는 직업이 2개인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가깝다고 느꼈다. 매기는 부모 양쪽을 다 가깝게 느끼긴 하지만 어머니가 더 가까운데 아버지는 늦게까지 일하며 저녁 집에 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토니 또한 부모가 둘 다 일을 하지만 아버지의 일과가 훨씬 빡빡해서 집에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했다.

시간 이외에 거리 또한 사춘기 청소년이 부모에게 느끼는 친밀성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멜리사의 아버지는 다른 주에 살고 있다. 그런 이유로 멜리사는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보다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적을 수 밖에 없고, 어머니를 더 가깝게 느끼게 됐다. 베스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 베스의 아버지는 몇 년 동안 다른 친구들과 떨어져 다른 주에서 살면서 일을 했다. “아빠를 전혀 만날 수 없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보다는 엄마와 더 가까워요.”

(3) 부모-자녀간의 소통, 성(gender, 性), 친밀성

멜멜리사와 베스에 의해 강조됐듯이 많은 사춘기 청소년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다른 종류의 소통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부모 양쪽과 똑같이 얘기를 나눈다고 대답했지만 각각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얘기되는 주제는 달랐다. 어머니와의 소통과 아버지와의 소통을 구별하게 해 주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어머니와는 일상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버지와는 좀 더 주제가 있거나 여가활동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레미는 아버지 어머니와 똑같이 대화한다고 대답했다. 하지

만 대화의 주제는 달랐다. 제레미는 또래 관계와 일상 활동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스포츠나 여가 활동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좀 더 얘기를 나눴다. 이 패턴은 이 연구에서 수행된 다른 많은 면담에서도 계속 유지됐다. 손은 좀 더 “. . . 교육적인 대화”는 어머니와, 스포츠에 관한 대화는 아버지와 했다. 클로는 자신도 학교와 관련된 화제는 어머니와 얘기하는데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어머니가 학교 체계 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클로는 여가와 관련된 화제는 아버지와 얘기를 한다고 대답했다. 루카스는 성적, 학교, 또래 관계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공부, 취미, 세상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얘기를 나눈다. 일상 생활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여가 활동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의논하는 이런 패턴은 대부분의 면담에서 발견됐다.

이 연구에서 면담을 한 여학생 중 몇몇은 특정 쟁점은 어머니와 더 잘 의논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것은 대체로 어머니가 여성으로서 여성의 체험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씨에나는 좀 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는 경향이 있었다. 씨에나는 부모 중에서 어머니가 “. . . 확실히 여자애들이 경험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해 주시고, 그게 좋아요. 아빠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자인 엄마가 아닌 남자인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해요.”라고 말한다. 질리안도 비슷한 감정을 말했다. “제 생각에 엄마 딸이니까 엄마한테 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빠하고는 그렇게 깊이 얘기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 . 그렇게까지 많이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 .” 하지만 어머니와 딸 사이의 대화의 양이 아버지와의 관계의 친밀성에 대한 사춘기 청소년에 인식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및 아버지 어머니에 따라 다른 대화 주제가 부모와의 친밀한 감정에 영향을 준다고 대답한 참가자는 몇 명 밖에 없었다. 엘, 질리안, 케이티, 니키는 대화를 부모와의 친밀감에 대한 인식에 결부시켰다. 예를 들어 엘은 부모 양쪽에 다 가깝긴 하지만 어머니하고는 대화하지 않는, 아버지하고 대화할 것들이 좀 있다고 했다. 엘의 아버지는 좀 더

운동선수다운 데가 있어서, 성장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스포츠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의논할 것이라고 했다. 위의 네 여학생의 경우, 각각 다른 대화 주제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느끼는 서로 다른 친밀감으로 이어졌다.

질리안, 케이티, 니키에게 대화를 통한 친밀함의 표현은 부모의 성에 따라 달랐다. 질리안은 부모와 자신이 어떻게 친밀한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친밀함은 다른 방식이지만 또한 같은 방식이라고 했다. “엄마한테는 뭐든지 얘기해요. 저는 아빠를 놀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심심해지면 아빠한테 ‘아빠 공 던지러 갈까요?’ 라든가 등등을 얘기해요. 아빠는 재미있으신 분이예요 — 우리는 농담하는 걸 좋아해요.” 질리안은 “제 생각에, 엄마 딸이니까 엄마한테 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빠하고는 그렇게 깊이 얘기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 . 그렇게까지 많이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아빠하고도 많이 친해요.” 케이티는 부모님과 친한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엄마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않고 아빠한테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 . 물론 그 반대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친한 거예요.”

(4) 행동에 있어서 또래들의 가치관보다 개별 가족의 가치관이 갖는 지속적인 중요성

사춘기 청소년,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친밀한, 격려하는 관계의 유지는 행동에 있어서 가족의 가치관이 갖는 지속적인 중요성으로 귀결된다. 이 주제는 이 연구를 위해 수행된 면담의 많은 경우에서 되풀이 해 나타났다. 일부 청소년들이 그들의 가치체계가 가족 내에서 부모에 의해 유지되는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한 반면, 다른 청소년들은 좀 더 일반적이 이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클로는 자신의 가치체계가 부모가 유지하는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한 좋은 사례이다. 그녀는 자신이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친구들이 하는 여러 종류의 활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친구들이 인터넷에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 등

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올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활동이 특히 어머니가 찬성하지 않을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런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녀는 부모와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또래 관계가 그 가치관과 타협하는 일은 없다. 매기도 같은 사례이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그녀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다. 그녀는 “... 엄마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라고 설명했다. 에린은 자신과 부모의 관계가 다른 사춘기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관계와는 아주 다르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절대로 부모에게 욕설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그녀는 여러 방식으로 부모와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녀 생각에 다른 사춘기 청소년은 그런 식으로 부모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카스는 부모에게 모든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편하다고 했다. 부모와 대화하는 데에 불편한 주제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사실 루카스는 어머니 아버지와 뭐든지 터놓고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또래 관계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그가 부모에게 한 얘기가 그가 속한 또래 집단의 다른 부모 귀에 들어갔을 때 “...학교 아이들은...어떤 애들은 화를 내요...”라고 했다. 친구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열린 대화를 중단하는 대신에, 이제 그는 부모에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다른 참가자들은 또래의 압력이나 또래와의 관계가 개인으로서의 그들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 씨에나는 자신과 인종적 배경이 같지 않은 또래가 그녀의 음악적 취향에 대해 비판할 때 동조하지 않았다. 그녀의 대응은 “... 음악은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걸 들을 수 있어요 — [인종적 배경은] 별로 문제가 안 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라는 것이다. 멜리사 또한 친구들이 하는 활동에 끼

어야 한다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친구들이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그 애들이 저를 바꾸게 내버려 두는 건 싫어요.” 리사도 멜리사와 비슷한 감정을 피력했다. 그녀는 친구들을 알게 된 다음에도 자신의 성격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고 있으며 친구들의 압력이나 어떤 다른 압력의 결과로서 자신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태도는 인터넷에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친구들의 성격이 바뀌는 것을 보고 그녀가 느낀 좌절감에서 잘 입증된다.

(5) 형제자매의 양면적 역할

사춘기 청소년과 형제자매 간 관계의 양면적 성격은 이 연구에 참가한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 연구에 참가한 26명 중에 19명에게 최소한 한 명의 형제자매가 있었다. 이들 형제자매의 나이는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다양했으며 몇몇은 형제자매가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형제자매와 강력하고 심지어 친밀하기까지 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다른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성격적 특성 때문에 형제자매를 불신하거나 유대를 가질 수 없다고 대답했다. 다른 참가자들은 형제자매 간 관계를 가리켜 단지 가족 제도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유지되는 관계일 뿐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런 관계는 같은 가정 내부에서의 공존이라고 묘사됐으며 좀 더 긍정적인 경험과 좀 더 부정적인 경험 사이를 부유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씨에나는 똑같이 사춘기에 있는 오빠와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어린 사춘기 청소년을 대변한다. 그녀는 오빠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 주책바가지 한 쌍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오빠와 여동생은 친하게 지낼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든 함께 다녀요. 우리는 그냥

애기하고 웃고, 가끔은 주중인데도 새벽 2시까지 꼬박 잠도 안 자고 웃고 떠들어서 엄마가 잠 잘 시간이라고 말씀하셔야 할 정도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지 않고 앉아서 낮에 어땠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얘기해요. 우리의 바보 같은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하지만 정말 재미있어요.” (씨에나)

엘은 여동생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묘사했다. 같은 학교의 6학년인 여동생과 친할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 그들의 같은 스포츠 팀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방학동안 각자의 친구들과 함께 경기를 치른다. 그들은 개인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함께 얘기를 하긴 하지만, 엘은 동생이 아직 어려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동생과 얘기를 나누지는 않는다고 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형제자매와의 일관된 긍정적 관계에 대해 얘기했지만 다른 참가자들은 훨씬 더 부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매기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언니와의 관계는 부정적인 쪽이었다. 언니에 대해 매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언니는 가끔 심술을 부려요. 컴퓨터를 독차지하는데 저보다 더 자주 말썽이 나요. 가끔 [개인적 문제에 대해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해요. 서로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결국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요. 심지어 개 산책시키는 것도 그래요. 언니가 저보다 그 일을 덜 하면, 실제로 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싸우게 되고 어렸을 때 일까지 다 끄집어내기 시작해서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려요. 그러면 엄마가 언짢아 하세요. 맨날 이렇게 싸우니까요.” (매기)

루카스는 6살 먹은 여동생과의 관계는 좋지만 한 살 어린 남동생과의 관계는 “... 정말 나빠요.”라고 대답했다. 남동생은 루카스의 옷을 훔치고 몸싸움을 하는가 하면 형인 자신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루카스가 “. . .미성숙하고 유치하”다고 묘사한 행동 때문에 남동생과는 개인적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참가자들은 정기적으로 긍정적인 상태와 부정적인 상태를 오가는 동안 간 관계를 묘사했다. 이런 감정은 개빈에게서 잘 나타난다. 개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정말 많이 싸워요. 하지만 왔다 갔다 해요. 한 달 동안은 정말 친한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 다음 달에는 모든 것에 대해 싸우고 그리고 나서 또 조용해 지고. . . 그래서 부모님은 언짢아 하세요..” (개빈)

멜리사는 오빠에 대해서 ”오빠는 좋거나 밉거나예요!”라고 말했다. 멜리사는 나중에 “. . .어떤 때는 정말 잘 해줘요. 그런 때는 사이 좋게 지내죠. 웃고 그렇게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너무 약을 올려서 정말 죽어버리고 싶단니까요!”라고 덧붙였다.

다른 참가자들은 그들의 관계를 양면적인 공존이라고 묘사했다. 이 연구의 참가자 가운데 두 청소년은 자매였다. 케이티는 15세로 9학년이며 뎁은 11세의 동생이다. 뎁은 언니를 부모보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부정적이었다. 케이티도 뎁의 의견에 거의 대부분 찬성했다. 뎁에 대해 케이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애는 지금 저한테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어렸을 때 동생이 부모님의 관심을 빼앗아갔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사실 동생에게 그렇게 좋은 언니는 아니었거든요. 제 말은 제가 특별히 못되게 굴었던 것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로 동생한테 정말 번덕스럽게 굴었어요. 동생이 저를 보는 표정이 바로 그거예요. . . 제가 보기에 너무 뻔한 답이 있는 문제를 동생이 물어봤을 때 제가 동생에게 보내는 표정, 아시겠죠, ‘아, 그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가 아니고 ‘왜 그런 것도 모르니? 넌 뭐가 잘못된 거니?’하는 표정이요. 동생이 그런 거에

대해 쌓인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 .
그 애는 저를 아주 무관심하게 대해요. . .” (케이티)

프란체스카도 여동생에 대해 체념한 어조로 공존하는 상태라고 묘사한 참가자이다. 프란체스카는 최근 어머니의 사망과 아버지와 장차 새 어머니가 될 여성 사이의 관계 해체라는 큰 문제와 싸우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그녀는 동생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 애가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건 알아요. .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항상 저와 축구를 하자고 해요. 제 말은, 축구는 좋은 운동이니까 잠깐 동안은 그 애하고 축구를 하죠. 하지만 가끔 이기지 못한다거나 하면 동생은 어린애처럼 행동하는데 그게 정말 저를 짜증나게 해요. 그래서. . . 모르겠어요 — 예, 동생이 필요로 하니까 그 애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요.” (프란체스카)

(6) 청소년의 생활과 확대가족의 역할

가족 영역에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주제는 사춘기 청소년의 생활에 대한 확대가족의 친밀한 참여이다. 이 연구에서 확대 가족은 사촌, 이모/고모나 외숙부/숙모, 조부모, 가짜 친척 등을 포함한다. 참가자 대다수는 이런 가족이 격려와 우정, 지도의 영역에서 가지는 역할에 대해 얘기했다. 몇몇 참가자들에게 통신기술의 사용은 미국의 다른 주나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중요한 확대 가족 성원과 소통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비결이다.

일부 참가자들은 함께 살고 있거나 가까이 살고 있는 확대 가족 성원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예를 들어 제니퍼는 어머니 외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제니퍼는 조부모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 . .진짜 진짜 친하다”고 묘사했다. 그녀는 특히 할머니와 친하다고 했다. 할머니와 자주 얘기를 나누는데, 할머니는 십대 청소년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려고 애쓰시는 것 같다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때로, 특히 기술 사용과 관련해 제니퍼를 지도해 준다. 심리치료사인 할아버지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인맥 구축 사이트 등에 관련된 많은 사회적 이슈를 접하고 있다. 그는 이런 부정적인 인터넷 경험에 관한 얘기를 제니퍼에게 들려주어서 제니퍼가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해 준다. 매기 또한 가끔 그녀의 집에 머무는 확대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그녀는 “이모와 진짜 친해요. . . 이모의 생활과 제 생활에 대해 정말 많이 얘기를 나눕니다. . .”라고 묘사했다. 이 참가자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어떤 주제에 대해 의논할 시간이 없다면 대신 이모와 의논할 것이라고 했다.

많은 참가자들이 확대 가족과의 관계의 친밀성에 대해 묘사했다. 그런 친밀성은 그들 가족 성원과의 거리나 집에 방문하는 빈도와는 상관없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조슈아는 삼촌 중 한 사람과 아주 친한데 1년에 열 두 번 정도 밖에 보지 못하지만 여가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손은 다른 주에 살고 있는 할머니와 친하다. 할머니와는 가족 휴가를 함께 보낸다. 클로는 사촌 중 몇몇과는 “. . . 꽤 친하고” “이모와는 정말 친”하다고 했다. 클로는 이 사람들과 개인적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했다. 나이가 비슷한 사촌들과는 특히 그러했다. 베스 역시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촌들과 개인적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그녀는 특히 오빠나 부모에게 얘기하기에 불편한 신체적 변화나 성(gender)과 관련된 문제를 정보를 사촌들과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씨에나의 생각은 연구 참가자의 많은 수가 묘사한 확대 가족에게 느끼는 친밀성을 예증한다.

“... 저는 할머니와 친하고 사촌하고도 친해요. . . 저는 아마 올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야만 한다면은 상상하기 힘들어요. . . 아마 그런 일이 생기면 제 삶 전체가 갑자기 바뀌어 버릴 거예요 — 제 태도 전부가요 — 제가 살아가는 방식, 제가 일하는 방식, 이런 게 전부 바뀔 거예요. . .” (씨에나)

씨에나는 할머니와 그 사촌을 매일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손 아래의 다른 남자 사촌과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했다. 씨에나가 면담

후반부에 묘사한 바에 따르면 그 사춘은 가장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애는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 애와 함께 가게에 가고 그 애 친구 집에 함께 가서 그 애와 함께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축구를 해요. 그 애하고 뭐든지 같이 하죠. 이제까지 제 삶에서 저는 그 애와 늘 함께 있었어요. 오늘도 그 애를 만나러 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그 애하고 저녁 시간을 보낼 거예요. 여름에는 그 애하고 심해 낚시를 하러 갈 거구요. 그 애하고 뭐든지 함께 할 거예요.” (씨에나)

여기에 더해 이 사춘기 참가자는 정기적으로 만날 수 없는 가족 성원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그녀는 즉석 메시지 작성 사이트와 인맥구축 사이트를 사용해서 미국의 다른 주나 해외에 살고 있는 사춘들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에 참가한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가족 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그들의 삶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했다. 부모가 자녀를 지원해 주는 신뢰할 만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때 어린 사춘기 청소년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속 얘기가 가족 영역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는다고 느끼는 한 그런 얘기를 부모들에게 계속 털어놓고 있다. 그런 친밀한 관계가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로 하여금 또래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가정에서 배운 가치를 보유하겠다는 결심을 확고하게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또래 관계의 진행

(1) 우정의 원천

청소년들은 많은 다른 출구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면담에 참가한 학생의 대략 3분의 1이 우정을 형성하는 현장으로서 다양한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몇몇 참가자들은 교우관계의 원천으로서 자신들

이 살고 있는 동네를 특히 언급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춘기 청소년들은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비슷한 경제적 배경을 공유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를 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제니퍼는 자신의 광범한 친구 인맥을 묘사하면서 전에 다니던 학교 친구와 동네 친구, 새 학교 친구가 모두 포함된다고 했다. 면담에 참여한 사춘기 청소년들은 어떤 관계를 친밀하다고 묘사할 때 우정의 지속 기간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친밀한 우정 관계란 최소한 5년 이상 알고 지낸 또래와의 관계라고 묘사했다. 에린은 관계의 지속 기간을 확인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친밀한 우정 관계를 설명했다. “저는 그 애들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유치원에서부터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제 형제 자매와 같아요.” 이와 비슷하게 조슈아도 가장 친한 친구들은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만난 아이들이라고 했다.

(2) 정체성과 집단 활동

특정한 집단에 속하는 것의 중요성은 이 연구에서 수행된 면담에서 공통된 주제였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는 가운데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집단을 구별 짓기 위해 다른 집단에 대한 묘사를 사용했다. 좀 더 ‘공통적인’ 사회 집단에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일부 면담 참가 사춘기 청소년에게는 자신을 독특한 개인이라고 여길 수 있게 해 주었다. 베스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다 항상 똑같아요, 아시잖아요,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요. 저는 그런 거에 좀 질렸어요. 저는 그런 애들하고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개인들과, ‘독특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요.” (베스)

독특성을 향한 이런 노력은 개인성 중요성을 인식하게끔 했다. 그녀는 좀 더 배타적이고 독특하기 위해 한 집단을 떠나서 다른 집단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많은 면담에서 참가자들은 자기 자신이 속한 파(派)를 가족 이외에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준거 집단으로 언급했다. 이들 집단 가운데 몇몇은 학교 과외 활동을 통해서 발전되었거나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었다. 예를 들어 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함께 다니는 애들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로 만나게 된 독특한 애들 때문이에요. 전에는 저도 그런 애들 중의 하나였어요. 다른 애들하고 똑같았죠.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다니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 개성을 끌어내도록 도와 주었죠.” (베스)

베스의 말은 사회 관계의 균형을 맞추면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려 노력하는 중에 많은 젊은이가 느끼게 되는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3) 공통의 관심사와 사회적 지위

사춘기 청소년이 속한 집단은 그들의 활동이나 관심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대부분의 교우관계 서클은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고 동일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한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을 과외 활동과/또는 학업 활동에의 참여를 북돋우는 지원 체계라고 간주했다. 학생들은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자신과 사회적 인맥의 관계를 묘사했다. 예를 들어 엘은 “우리는 같은 관심사가 많아요—우리는 같은 스포츠 활동을 하고요, 같은 것을 보는 걸 좋아해요. . .”라고 설명했다.

활동은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것이나 함께 앉아서 점심을 먹는 것에서부터 교내 환경 밖에서 모여 외박을 하는 것까지 다양했다. 같은 관심사와 여가 활동을 공유하는 것은 집단 형성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굳게 해 주는 관계(connection)를 의미했다. 학생들 대다수가 몸을 부딪치는 경쟁 스포츠에의 참여를 남성적 인기를 식별케 해 주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것은 공격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카일은 공격성이 남성적 인기의 공통된 특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경쟁 스포츠가 아닌 다른 활동에 대한 관심에 의해 정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란체스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자애들은 대체로 두 집단이 있어요. 남자애들은 상대 집단에 속하는 애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실제로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언제나 올 에이만 받는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은 역할 모델이 되려고 해요, 아시잖아요, 그냥 스포츠 같은 것 말고요. 심지어 어떤 남자애들은 스포츠를 하지도 않아요. . .” (프란체스카)

면담을 통해서 자신의 집단에 귀속되는 것이 사회적 지위에 공헌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분명해 졌다. 면접 대상자의 많은 수가 특정 파(派)에 속하는 것이 귀속감과 사회적 지위를 의미한다고 했다.

“저는 ‘일곱 자매’라고 하는 그룹에 속해 있어요. 학교에서 저하고 제일 친한 애들 7명이에요. ‘일곱 자매’들은 점심도 같이 먹고 쉬는 시간에 같이 어울리고 합창단 활동도 함께 하고 버스도 같이 타고 그래요. 댄스파티가 끝나면 한 아이 집에서 함께 자기도 하고요. . .” (질리안)

젊은이들이 점점 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회 세계를 탐구하는 인생 시기에는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와 인맥을 구축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 진다.

(4) 사회적 위계 및 조직의 형성

어린 사춘기의 많은 청소년은 이 특정한 삶의 단계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어느 사회 집단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약 특정한 파(派)에 속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소외감이나 실망감을 느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젊은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집단에 꼭 들어맞게 도와주는 변수들을 확인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며 쉽게 성취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 그런 일이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일이라면 대부분의 청소년이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회적 위계는 훨씬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니퍼는 자신의 사회 생활이 몹시 바쁘며 자신이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派)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니퍼는 자기처럼 친구가 많지 않은 다른 소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제니퍼는 누군가를 ‘인기 있게’ 만들어주는 정확한 변수를 집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할 수만 있으면 외로워 보이거나 어떤 정의된 사회 집단에도 별로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소녀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위계의 중요성이라는 이 주제가 면담 중에 반복적으로 출현했으므로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이 사회적 계층화와 사회적 지위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요소들을 조사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다. 집단에 귀속하려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춘기 청소년들은 “잘 들어맞기 위해서”는 외향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용모가 매력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은 어린 미국 사춘기 청소년에게 경쟁 스포츠에의 참여가 사회적 지위에 기여하는 지배적인 요소라는 것을 밝혀냈다. 스포츠에서의 탁월성은 성적 매력을 높여주고 좀 더 많은 이성 관계로 이어진다. 젊은이들이 평가하는 다른 인간적 매력에는 말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과 “인기 있는” 개인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 포함됐다. 사교성은 이런 자기 표현의 일부이지만 분명히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

(5) 예비적 낭만적 관계

젊은이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는 것은 이른 사춘기 시기에서이다. 이 연구의 발견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사춘기 청소년 간의 초기적 낭만적 관계 속에 몇몇 공통된 주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의 참가자 중 많은 수가 그들이 이성에 속하는 사람과 맺고 있는 초기적 관계는 낭만적 관심이 아닌 우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들 사춘기 청소년들은 낭만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소문”에서 출발한다. 소문은 대체로 자신들이 속한 사회 체계 내의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졌다. 연구 참가자 중

몇몇은 낭만적 친화력을 형성하는 초기적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른 사람들이 이 특정한 관계의 지위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주제에 관해 많은 대화가 오갔다. 그리하여 한 소녀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자기 친구들에게 말할 것이고, 그 친구들은 문제의 소년에게 그 사실을 말해 줄 것이었다. 만약 그 소년도 관심이 있다면 그는 여러 소녀들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보낼 것이었다.

이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낭만적 관계가 사회적 위계선을 따라 발전하는 것 같았다. 만약 한 젊은 성인이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된다면 그들은 또래가 갈망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한 사람이 자기 또래 여러 사람에게 갈구의 대상이 된다면 그들은 인기 있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이런 이원적으로 구성된 체계는 이른 사춘기에 성적 매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을 보여준다. 한 참가자인 오웬은 이 관계를 가장 잘 묘사했다.

“그러니까 바로 저처럼요. . . 여자애들이 남자애를 인기 있게 만들어주고 남자애들이 여자애를 인기 있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남자애들이 어떤 여자애를 좋아하면 그런 여자애들은 인기가 있는 거고요, 또 여자애들이 어떤 남자애를 좋아하면, 그런 남자애들은 인기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런 거예요.” (오웬)

낭만적 관심은 또한 운동 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놀랍게도 운동 능력은 성적 매력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확실히, 부분적으로, 일정한 경쟁 스포츠에의 참여가 스포츠맨다운 용맹과 성공을 대변하는 미국 주류 문화에서 뿜어 나온 것이다. 많은 참가자가 운동능력을 신체적 강건함과 스타미나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으며 그것은 곧 사회적 성적 매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점점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그들은 성적 매력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낭만적인 친밀한 육체 관계를 실험할 수도 있다. 우리 연구 참가자 중 서너 명은 매력, 인기, 그리고 운동 능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말했다. 프란체스카는 인기 있는 남자애들의 대화에서 가장 흔한

주제에 대해 “그 애들은 온통 스포츠 얘기 아니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애들 얘기뿐 이에요.”라고 묘사함으로써 이런 관계를 잘 드러내 주었다.

(6) 사회적 기회와 사회적 행동

“공격적” 경쟁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낭만적 감정을 생기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집단의 인기로 이어진다. 스포츠를 잘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것은 소년들의 사회적 서클을 확대하는 데에 특히 도움이 됐다. 예를 들어 카일은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이 애들은 전부 진짜로 운동을 잘 해요—그 애들은 진짜 경쟁적이죠. 저는 그 애들의 그런 점을 좋아해요. 일을 훨씬 더 재미있게 만드니까요. . . 그 애들은 늘 정말로 공격적이에요. 아, 기본적으로 그게 인기 있는 그룹이에요. 티프한 애들이요.” (카일)

따라서 스포츠에서의 탁월성은 증가하는 사회적 기회와 더욱 확장하는 사회적 서클로 귀결된다.

일반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또한 “잘 들어맞는” 과정에 기여한다. 한 사춘기 청소년이 어떻게 그녀의 친구들 자신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성찰한 것처럼, 사회적 기회의 중요성은 아주 분명해 진다.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 .작년에 저는 다른 애들하고 별로 만나지 않았어요. . . 배제된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올해는 날개를 펴고 거의 나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애들과 얘기를 하고 그 애들과 만나면서 그 애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혼자 방에 앉아 있는 외로운 오리처럼 되는 것에 싫증이 났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애들하고 만나고 친구도 더 사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앉아서 외롭게 지내는 것은 싫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고 제가 어떤 경험을 거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씨에나)

많은 참가자들이 어린 사춘기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가 가 그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기회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나타내 주었다. 자신을 수용하는 타인을 만날 수 있을 때, 그리고 자신과 잘 맞는다고 느껴지는 타인을 만날 때 청소년들은 자신이 (씨에나의 경우처럼) 피어난다고 묘사했다. 우리는 소년 소녀 모두가 자신들을 좋아해주고 자신이 속하고 싶은 사회적 집단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사회 환경 속에서 훨씬 더 행복해 졌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7) 관계 형성에서의 열린 의사소통

한 집단에 속하거나 또래를 자신의 친구로 간주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 다룬 몇몇 요인, 즉 공통된 관심사, 관계의 지속 기간, 거주의 근접성과 같은 요인을 조건으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교우관계에서 열린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사소통에 대한 강조와 가까운 친구와 공통된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느낌이 면담에 참여한 어린 청소년 다수에게서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다. 오웬은 “. . . [친밀한 우정은] 제가 늘 그 애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에게 문제가 있거나 할 때 그 애들한테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는 걸 그 애들한테는 다 얘기해요.”라고 설명했다.

이 감정적 친밀감의 중요성은 면담에서 공통된 주제였다. 많은 청소년들은 가령 낭만적 관계와 같은 개인적 문제를 거리낌없이 의논할 수 있으면 친구와 가깝다고 느꼈다.

“[좋은 친구란] 그 애들한테 실제로 얘기를 했을 때 오랜 시간 그 애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도 불안하거나 그런 감정이 들지 않고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많은 공통점이 있고 잘 지내고 그런 거예요.” (멜리사)

가족 성원과는 공유해서는 안 되는 주제에 대해 친구와 의논하는 것은 면담에 참가한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때로 친구들과 더 친하다는 느낌을 갖게 해 주었다. 면담을 한 청소년 중 많은 수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는 또래와 얘기하는 것이 가족 성원과 얘기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설명했다.

“저는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가끔은 부모님에게는 얘기하지 않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시고 아빠는 지엽적인 것까지 미주알고주알 다 알고 싶어하시니까, 늘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나 상세하게나 되거나 그렇거든요.” (매기)

이 연구에서 면담한 사춘기 청소년들은 친밀함의 정도가 대화의 열린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했다. 한 참가자는 다른 친구들 사이에는 다른 대화 스타일이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는 그 친구가 특별히 친한 주된 이유는 그의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애는 다른 친구들과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그 애는 훨씬 정직해요. 항상 터프하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애가 다른 남자 애들보다 더 진실된 애라고 느껴요. 제가 그 애한테 얘기할 때는 정말로 그 애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저런 얘기를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카일)

(8) 관계에 있어서 경계 넓히기

친밀함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터놓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서 반격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적은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참가자 중 많은 수가 가장 좋은 경청자는 친구들이라고 느꼈으며, 그들과 개인적 문제를 의논하는 것을 편하다고 느꼈다. 에린은 “친한 친구들은 더 많이 이해하고 수용해 줘요. 다른 사람에게는 두려워서 못할 얘기를 친구들한테는 두려워하지 않

고 얘기할 수 있어요.”라고 했다.

친밀함의 정도와 관련된 경계에 대해 한 남학생은 가장 친한 친구라도 여자애들에 대해서는 터놓고 의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친구들과 그가 양육된 방식의 차이라고 그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것에서 주로 기인했다. 그는 “[친한 친구에게 여자애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애들은]. . . 여자애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 . 저는 집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받지 않았어요.” (카일)

우리의 분석은 이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경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의식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을 가정하게 만들었다. 한편에서 그들은 관계에서의 친밀성을 회구했다. 다른 한편에서 그들은 개인적 사회적 경계를 확인하느라 애쓰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성 간 우정의 관점에 선을 넘는 것은 그 나이에 매우 두려운 일인 것 같았다.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은 자신만의 성적 성향을 탐험하기 시작함에 따라, 가족과 친구에 관한 경계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있었다. 낭만적 관계라는 민감한 주제는 이성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를 배제하는 경계 형성으로 귀결되거나, 이 주제에 관해 부모와 나누는 대화가 축소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사적 영역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투입 없이도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9) 분리된 영역: 가족과 친구

대부분의 연구 참가자들은 가족과 또래 사이에 일정량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가족과 친구들은 분리된 실체라고 주장했고 두 그룹을 그 자체로서 대하고 싶어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주제는 부모와 의논하고 다른 주제는 또래와 의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느꼈다. 부모에게 수용될 수 있는 소통 영역과 친구에게 수용될 수 있는 소통 영역 사이에 경계를 정하는 불문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예를 들어 심각한 가족 문제가 있다면 그들은 가장 친한 친구와도 그 문제에 대해 의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주제는 사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말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 .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 .친구 중에 우리한테 뭐든지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부모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그런 것까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일종의 가족간 신뢰니까요.” (에린)

따라서 에린은 가정 생활과 친구들 사이에 분명하게 정의된 경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흥미롭게도 몇몇 참가자들은 너무나 “민감”하거나 개인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부모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부모에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으며 특히 이성 관계와 같은 주제에 대해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것을 즐긴다고 했다. 다시 한번 우리 분석에서 놀라웠던 점은 이와 같은 작은 규모의 사례연구에서조차 모든 청소년에게 들어맞는 묘사란 없다는 것이다. 대신, 부모가 곁에 있는가에서부터 개인적 성향에 이르는 다양한 매개적 영향에 따라 사춘기 청소년들은 가족과 또래 사이에서 변별적인 영역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의사소통과 또래 의사소통 사이에 놓인 모종의 경계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많은 사춘기 관계에서 뚜렷하게 감지됐다. 이 면담에서는 의사소통에 관한 주제에 있어서 일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가족간의 의사소통은 도덕적 발전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또래간의 의사소통은 또래집단에 특유한 관계와 상황에 좀 더 초점이 주어지는 것으로 특징지어졌다. 케이티는 관계의 탐사와 인생 체험에서 친구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관계에 대해서는 친구들한테 말해요. 부모님보다는 친구들하고 훨씬 더 많이 얘기를 나누죠. 말할 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얘기를 나누고 있는 바로 그 때의 우리 감정이나 그 날 어떻게 지냈는지 등에 대해 철학적으로 토론하고 그런 것들을 과거에 상처가 됐던 경험이나 아주 행복했던 경험,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죠. 아주 재미있었어요.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과 그런 얘기를 나

누지는 않을 거예요.” (케이티)

이 인생단계에서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은 사회 세계를 확장하고 있다. 이런 탐사의 일부를 통해서 내면적 경계뿐 아니라 바깥 세계와의 경계가 지어진다. 우리는 이 연구가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무슨 말이나 하면 우리가 면담한 주로 백인 중산층인 미국학생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개인적 공간의 윤곽을 잡는 것이 중요한 탐색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친밀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한 것 또한 매우 중요한 탐색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연구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부모에게서 빠져 나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신 대부분이 부모와 또래는 별개의 영역이나 또한 동등한 영역이라고 느꼈다. 이것은 비교문화적으로 탐구할 만한 흥미로운 주제일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회 제도가(부모와 친구의 분리를) 고무하고 지지하는 정도에 비해 좀 더 집단적인 문화에 속한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까지 부모와 친구들을 분리해서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유익한 일일 것이다.

7) 청소년 사이에서 기술의 사용

어린 사춘기 청소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우리는 생태학적 관점을 취했다. 생태학적 관점의 주요 취지는 각 참가자가 체계 속에서 주고 받는 영향의 양방향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부모는 또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래는 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매개적 영향은 정보통신 기술의 역할이다. 발달적 관점에서 보면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은 “좀 더 넓은 세상”과 새로운 관계에 대해 협상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해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현재 및 미래의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에 의해 과도하게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다(Hellenga, 2002). 이런 기술은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정보의 유형과 접촉의 양을 확장시키고 있다. 사춘기 청소년의 심리적 발전과 행동을 과거에 매우 인기 있던 전통적인 가족 / 학교 / 지역 사회의 틀에 집어넣는 것은 예전처럼 간단하지도 않을 뿐더러 유용하지도 않다.

기술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은 예전에 가능하다고 생각됐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한 맥락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맥락들은 분명한 경계에 의해 구분지어져 있지 않다. 지금은 인터넷 및 메신저/휴대전화에서의 문자메시지 주고받기를 사용해 친구, 또래 가족과 항구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청소년들은 즉각적으로 정보, 인상,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은 좀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던 사회적 인맥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정한 자유와 기회를 허용한다.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은 또한 공적인 모욕과 노출의 가능성도 동반한다. 나아가 부모들은 이런 잠재적으로 광대한 관계망에 대해 통제력을 훨씬 덜 가지고 있다. 이런 모든 요인이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또래 및 낭만적 관계, 그리고 부모의 역할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고 있다.

(1) 기술사용에서의 성적 차이

흥미롭게도 우리 연구에 참가한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은 기술 사용과 관련해 다양한 행동을 보여주었다. ‘하나의’ 패턴은 찾아볼 수 없는 대신, 끊임 없는 메신저 사용과 사회적 인맥 구축 사이트 방문에서부터 휴대전화에서의 최소한의 문자메시지 보내기까지, 이들의 행동은 매우 다양했다. 26명의 참가자 가운데 전원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성에 따라 흥미로운 사용의 차이가 나타났다. 소년들은 컴퓨터를 게임과 문서작성을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페이스북닷컴이나 마이스페이스닷컴과 같은 사회적 인맥구축 인터넷 사이트는 인기가 없었으며 심지어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제레미는 학교 숙제를 하는 것 이외에 즉각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데에 컴퓨터를 가장 많이 쓴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메일을 좀 하는데요 — 별로 많이 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온라인 게임을 해요, 뭐든지요. . . 뉴스도 보고요.”

많은 소녀들은 기술과 관련해 상당히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다. 일부 소녀들은 이 연구에 참가한 다른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수가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온라인 상호작용에 상당히 깊이 참여하고 있는 소녀들 가운데 그들이 놀라우리만치 거대한 사회집단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니퍼는 500명쯤 이라고 대답했다. 어떻게 그런 체계가 가능한가를 물었을 때 제니퍼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 예, 그 애들은 제가 한번 만났던 애들이에요. 그 애들은 “좋아, 이게 내 인터넷 메신저 주소야”라고 말하고 그걸 제 휴대폰에 입력해 줘요. 하지만, 마이스페이스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도 “좋아, 이게 내 인터넷 메신저 주소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메신저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정말 많은 경우에 그렇게 만나요. 하지만 최소한 저는. . . 저는 실제로는 인터넷 메신저를 별로 달고 살지는 않아요. 다들 인터넷 메신저를 하는 건 좀 짜증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마이스페이스를 더 많이 하죠.” (제니퍼)

소녀들이 말한 숫자 이외에, 그들이 유지하는 온라인 상호작용의 성격도 흥미로웠다. 많은 소녀들은 자기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는 편이지만, 일단 온라인 상으로 대화하기 시작하면 개인적인 문제를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했다. 예를 들어 제니퍼는 마이스페이스와 인터넷 메신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했다.

“마이스페이스, 인터넷 메신저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하기에는 겁나는 것들에 대해 말하게 돼요. 왜냐하면, 대체로 저는 말할 때 보다는 쓸 때 더 감정을 훨씬 잘 표현할 수 있거든요. 좀 이상하긴 한데. . . 하지만 엄마는 컴퓨터를 쓰지 못하게 하세요. 매일 컴퓨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지만 늘 살금살금 기어들어가서 쓰죠. 주말에는 엄마가 제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 때는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컴퓨터에 붙어 있어요!” (제니퍼)

흥미롭게도 가장 “사교적인” 소녀들이 또한 정보통신 기술을 가장 열성적으로 사용하는 같았다. 전반적으로 이 소녀들은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사귀긴 하지만 통신기술의 사용을 통해서 더 친해진다고 생각했다.

(2) 통신기술을 통한 관계의 촉진

사교적인 학생들은 관계의 진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어서 통신기술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매우 자세히 얘기했다. 특히 많은 소녀들이 자신들의 관계가 얼굴을 대면하며 시작된 것이지만 그 관계가 만개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은 인터넷이라고 대답했다. 제니퍼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음, 제 생각에, 누구한테 꽃히면, 직접 만나기보다는 “애, 인터넷 메신저에서 얘기할래?”라고 하게 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더 쉽게 서먹함을 깰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체로, 인터넷 메시저는 “애”하고 얘기를 거는 것과 같죠. 인터넷 메신저에서는 친한 친구하고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평소에 별로 얘기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요. 제일 친한 애들하고는 전화로 말하고요.” (제니퍼)

씨에나 또한 왜 직접 만나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대화하기를 택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저만의 공간을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말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에 친구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컴퓨터로 가서 마이스페이스나 인터넷 메시저에 들어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뉘요. 컴퓨터에 접속할 수 없으면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죠. 하지만 제가 컴퓨터에 접속하는 건 컴퓨터가 저만의 세계 같기 때문이요. 이 작은 모니터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게 재미있어요.” (씨에나)

매기의 얘기에서도 비슷한 감정이 공명된다.

“애기가 . . . 거기서 하는 애기가 더 사적인 건 아니에요. 다만 좀 더 사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무슨 애기를 하는가와 온라인 상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그러니까 짝짓기 게임이나 그런 걸 하고 있다면, 그냥 알고 있는 애도 가장 친한 친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매기)

(3) 인맥의 확장: 끊임없이 확장되는 친구 명단

놀랍게도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은 예전에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청소년들과 접촉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의 경우 그들의 사회세계에는 엄청난 숫자의 다른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제니퍼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마이스페이스를 할 때는 친구가 39명이었어요. 여름 지나고 1년쯤 지나자 100명이 됐고요. . .”

질문자: “100명이요?”

“인터넷 메신저에 23명, 마이스페이스에 139명이요.”

다른 사교적인 학생들도 이와 유사하게 큰 사회적 인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경우(제니퍼의 경우)는 친한 친구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500명에 이른다고 했다. 많은 경우, 이들은 엄청나게 많은 친구 숫자를 자랑스럽게 묘사했다. 이런 경우, 관계의 질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 집단에 가까이에서 언제라도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하면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4) 얼굴을 마주 대하는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의 촉진: 통신기술에 대한 불신

모든 학생이 그들의 가장 내밀한 생각을 인터넷이나 메시지 주고 받기를 통해 드러내는 것을 즐기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상당수의 소년과 소녀들이

문자로 쓰여진 공적인 정보가 어떻게 자신들의 의도와 반대되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예를 들어 제레미는 “음. . .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인터넷 메신저에서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걸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한 말을 복사해서 붙여 넣고,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라고 말했다. 펠리사는 인터넷을 좀 더 피상적이고 사교적인 관계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대답했다.

“음, 온라인은 좀 더 임의적인 얘기를 하게 돼요. 정말로 진지한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를 위해 아껴놓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을 진짜로 보고 함께 앉아서 말할 때를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온라인은 좀 더 빈둥거리거나 그러는 거죠.” (펠리사)

다른 학생도 진실을 보이기보다 어떤 포즈를 취할 가능성, 심지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을 불신한다고 말했다. 개빈은 “인터넷이 대화를 하기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남동생도 자기가 87세라고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인터넷 상에서는 자기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섯 살짜리 남자애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와 대조적으로 에린은 통신기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유일한 상황은 두 명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뿐 이라고 설명했다.

“음, 그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놀랍고 재미있는 얘기면, 그러니까 그 애들이 다른 사람들도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얘기면, 복사해서, 붙여 넣으니까요.”

질문자: “그래서 사적인 얘기는 얼굴 보고 만날 때만 하나요?”

“네. 아니면, 사적인 얘기라면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는 온라인 상에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둘은 그런 일을 할 애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연구 팀은, 이들의 어린 나이를 감안할 때,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이 가진 잠재적으로 연루적이고 공적인 성격 때문에 사적인 문제를 논의하기에 인터넷이 적절치 않은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는 사적 노출을 위해 인터넷을 좀 더 활발하게 사용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좀 더 공적인 방법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 덜 우려한다고 가정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좀 더 과묵한 학생들은 통신기술의 공적 영역을 통해서만 자신에 대해 덜 노출하거나, 혹은 전혀 노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좀 더 작은 친구 집단을 원했으며 제한된 서클 안에서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과묵함에 대조되는 이런 사교성, 외향성, 그리고 공적 노출 간의 관계는 또래 인맥 형성, 정체성, 통신기술에 관한 연구에서 좀 더 깊이 탐사할 가치가 있다.

8) 연구결과의 함의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 제안들을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이 성인기로 성장함에 따라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발달을 잠재적으로 심화시키기 위해 부모, 교육자, 학교 행정가가 할 수 있는 일로 나누어 구성해 보았다.

(1) 부모

① 부모와 자녀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

우리는 연구에서 자녀들이 부모가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중 매체는 우리에게 그와 반대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나,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가 또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등과 같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에 이르면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그에 대해 심사 숙고한다.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고 부모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부모가 자신을 지원한다고 느낀다.

② 좀 더 친밀한 동기 관계를 장려할 것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형제자매에 대해 대단히 양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형제자매간을 삶의 방해꾼으로 여겼다. 부모들은 이러한 사실을 두고 ‘아이들이란 으레 그렇다’고 폄하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형제자매간 관계를 격려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앞을 내다보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삶의 과정 전반에 걸쳐 형제자매간은 어떤 다른 가족 성원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 함께 하는 가족 활동, 식사, 스포츠 등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격려하는 것은 가족간 유대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그에 대응하기 위해 애쓰는 일부 외적인 영향을 약화시킬 것이다.

③ 확대 가족 문제

우리는 다수 참가자가 조부모나 이모/고모, 숙부/외숙부, 사촌들과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 때로 이들 가족 성원들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으나 그들의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화 통화나, 방문, 인터넷 메신저 또는 휴대전화 문자 같은 통신기술을 통해서 이들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로서 유지되고 있었으며 종종 심화되기도 했다. 자녀들에게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왜냐하면 이들 관계는 가족 가치를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발전시키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 교육자 / 학교 행정가

① 관계 형성 및 발달에 관한 강좌가 필수적이다.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이 처한 삶의 단계는 친밀한 관계가 점점 넓어지며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들을 자기 삶에 포함시키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그들은 공유하는 관심사와 상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와 파트너를 고르는 법을 배우고 있다. 개인적 관계의 성격과 궤도를 이해하는 것은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 과정에 대해 좀 더 분석적이고 목적의식인

태도를 갖게끔 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그들 연령집단이 보기에 “드라마”로 꽉 채워져 있는, 이제 막 싹터오는 낭만적 관계의 영역을 향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왜 사람들은 함께 지내며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좀 더 지도를 받아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이해는 청소년들의 가족, 또래, 낭만적 영역으로도 넘쳐 들어가게 될 것이다.

② 가족 쟁점과 가족 및 소비 과학을 학교 커리큘럼에 통합할 것

우리 연구 결과는 학생들이 현대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가족 형태에 대해 별로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 참가한 대부분의 학생이 가족과 관련해 미국 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 지구에 걸쳐 존재하는 이질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부모-자녀 관계, 경제와 가족, 민족성, 문화와 가족 등과 같은 가족 쟁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강좌를 개설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과 친구들의 생활에 대해 일정한 관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쟁점은 사회 과목, 가정 과목, 심지어 과학이나 어학 과목에 쉽게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은 가치가 탐제된 개념이지만, 가족 관계에 관한 통계와 연구를 제시한다면 커리큘럼을 강화할 수 있으면서도 각 가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관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③ 통신기술과 연관된 위험을 교육하는 수업을 제공할 것

우리의 면담은 상당히 중요한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우리가 면담한 학생 대부분이 낯선 사람과의 온라인 상에서의 상호작용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초점을 맞춘 교내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놀랍게도 각 학생은 이 메시지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우리 면담에 따르면 26명 가운데 오직 한 학생 만이 자신이 모르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중요한 점은 그 여학생이 면담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로 미루어보건대 적어도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인터

넷 사용에 대한 의식적인 훈련과 수업이 공식 학교 교육과 부모의 지도 양쪽에서 유용한 부분을 이룬다는 점을 가정할 수 있다. 우리 연구 팀은 모든 참가자들이 인터넷이 한편으로는 관계를 용이하게 하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측면에서는 위험한 매개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메시지를 상당히 깊이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은 온라인 상의 관계를 둘러싼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 오직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26명 참가자 중에 21명이 학교가 후원하는 인터넷 사용에 관한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한 것은 중요하다. 그들은 모두 이 수업이 유용했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배운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었다.

④ 긍정적/부정적 행동의 확인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면담에서 우리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걸모양으로 가장한 괴롭힘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다는 사실에 놀랐다. 우리 참가자 중 다수가 인터넷 상의 괴롭힘과 또래 압력에 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경험이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등등의 매체를 사용한 괴롭힘이 상당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 괴롭힘에는 피부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라든가 개인 이메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압력을 받는 것이 포함됐다. 많은 학생들은 이런 행동을 “귀찮거나” “정상적인” 것으로서 “바보 같은 애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의 식별을 피하는 학교 커리큘럼은 또래 압력이 매우 파괴적인 사회적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데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또래 압력에 대한 이런 식별은 많은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이 파당 형성 과정의 부분으로 느끼고 있는 강렬한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사춘기 청소년은 또한 긍정적 행동의 레퍼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뿐 아니라 그런 개인들을 자신의 사회 집단에 포함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⑤ 학교 간 인맥구축을 확대할 것

우리가 면담한 학생들은 대부분 사립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다른 사립 학교와의 스포츠 경기나 댄스 등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면서 그들의 인맥을 많이 확장했다. 우리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사교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자신과 같은” 친구들을 좀 더 많이 찾아내며 그렇게 하여 좀 더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교 기회와 부족은 성인기에까지 잠재적으로 해로운 효과를 발휘하는 불행감을 자아낼 수 있다. 학교 간 인맥구축을 확대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같은 문제에 직면한 다른 개인들에게 접근할 기회를 늘려준다. 미국 사립학교끼리는 학교 간 인맥구축이 일반화돼 있지만 공립학교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한데 모으는 기제를 확대하는 것은(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에 유익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⑥ 자녀-부모 대화에 관해 부모들에게 워크숍을 제공할 것

우리 연구는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자신을 지지하며 신뢰하고 자신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공감한다고 느끼는 경우에 부모와 매우 강력한 유대감을 느낀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모들에게 훈련/워크숍을 제공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대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부모들은 직장생활의 문제를 처리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언제나 청소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최근 흐름에 자신을 맞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자녀들의 얘기를 듣는 기술과 갈등 해결과 같은 전략을 배우는 것은 부모와 자녀간의 좀 더 강력한 관계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⑦ 새로운 통신기술과 통신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관해 부모에게 워크숍을 제공할 것

많은 부모들은 사회적 인맥구축 사이트나 휴대폰 문자 보내기 같은 새로운 통신기술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새로운 매체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함으로써 부모들은 이런 형태의 의사소통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는 법을 배울 것이다. 또한 부모들은 어린 사춘기 청소년 자녀들에게 이런 새로운 통신기술을 긍정적 방식으로 사용하게끔 지도하는 법에 관한 전략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⑧ 자녀 및 인간 발달에 관해 부모에게 워크샵을 제공할 것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심대한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겪는다. 많은 부모들은 과거 자신의 10대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에 의존해 규칙을 세우고 활동을 할 따름이다. 이 인생 단계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좀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은 부모들에게 매우 계몽적인 일이 될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자녀들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⑨ 교실 내에서 교사들이 성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할 것

우리가 수행한 면담은 어린 사춘기 청소년과 상호작용 시에 성(gender)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에 참여한 소녀들이 소년들에 비해 사교활동, 사회적 인맥 구축, 과당 형성 등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소년들은 스포츠와/또는 컴퓨터(일차적으로 게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씀)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그 연령에도 그들은 문자메시지 보내기와 같은 개인감정을 섞지 않는(impersonal)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상당 부분을 드러내는 일을 여전히 주저하는 것으로 보였다. 물론 소년 • 소녀들의 행동과 관련하여 예외도 있었다. 그러나 흐름은 분명해 보였다. 소녀들은 사회적 지평을 확장하는 데에 매우 관심이 있었고 소년들은 대부분 몇몇 친한 친구와 관계를 맺는 데에 제한을 두는 것에 만족했다. 교사는 커리큘럼을 짜고 교실 내의 수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유형의 성 차이에 대한 인식을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

⑩ 통신 기술이 어린 사춘기 청소년의 사회적 인맥구축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교사들을 훈련할 것

우리의 연구는 일부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이 사회적 인맥 구축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교 서클을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은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밤낮으로 엄청난 거리를 뛰어넘어 다른 이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사회적 기회의 이런 확장은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교사들은 이런 변화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런 새로운 관계의 통로를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기 위해 과제를 준비해야 한다.

9) 결론

부모와 교육자들은 또래 관계의 발달에서 적극적 참가자가 되는 길을 찾는 과정에서 건강한 사춘기 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연구자들은 부모와 교육자들이 청소년 문화에 끼치는 매스 미디어의 영향을 견제하기 위해 고안된 좀 더 앞을 내다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Buijzen & Valkenburg, 2005). 교육자들은 이러한 노선을 따라서 기술사용에 관한 과목,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 건강한 관계에 관한 커리큘럼 등을 제공해 왔다. 부모들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또래간의 의사소통을 감독하도록 권유 받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부모와 교육자가 어린 사춘기 청소년의 사회 세계에 적극적 참가자가 되기 위한 몇몇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연구는 어른들의 인식과는 정반대로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이 친구들과만큼이나 부모들에게 친밀함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보여주었다. 기질이나 사회적 기회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이런 관계에서 작용하고 있다.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은 그들의 삶에서 비어있는 관계를 메우려고 한다. 더욱이,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은 관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통신기술을 사용할 때 동원되는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들을 매우 의식하고 있다. 우리 연구에 참가한 26명의 청소년은 전원 교우관계와 이제 막 시작되기 시작한 낭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쪽을 택했

거나 사용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일부는 온라인 상의 담화가 좀 더 쉽다고 생각했으며 다른 청소년들은 얼굴을 마주보는 관계를 더 선호했다. 중요하게 지적할 점은 이들 사춘기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조직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의사소통 과정이 부모, 교육자, 연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연구 집단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청소년들의 관계는 학교에서만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신,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의 관계 대부분은, 많은 경우 교내 환경 바깥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는 소개에서 시작해 의식적으로 형성되어 나간다. 나아가 부모들과 연구자들은 오늘날 의사소통 과정에는 많은 변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어른들은 이런 통신기술에 덜 익숙하기 때문에 이를 그다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거나 통신기술은 단지 얼굴을 마주 대하는 대화나 전화 통화를 대체했을 뿐이라는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우리 연구는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이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기제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맺고 있는 친밀함의 정도를 매우 잘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의 지표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자신의 정체성을 탐사하면서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은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를 찾는 동시에 가족의 토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통신기술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해 주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연구자로서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예상하는 획일적 행동에 의해 특징지어질 수 없는 이질적 집단이라는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상호작용과 프로그램 또한 이런 경험과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찬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그에 의해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성공적 과정을 고무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적 기회를 찾고 학구적, 예술적, 신체적 추구에 참여하며 가족 맥락과 인종, 사회 경제적 지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또래와의 건강한 관계를 발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그러한 고무와 촉진이 이런 활동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Mullis, Brailsford & Mullis, 2003). 커리큘럼 개발과 연구 참여에 청소년들을 포함시키는 공동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우리는 이 연령 집단이 처한 또래 및 가족 관계 형성 과정의 복잡한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좀 더 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족의 의사 결정 과정, 학교 쟁점들, 연구 설계 등에서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공식적인 역할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어린 사춘기 청소년들도 우리가 경청하여 우리의 사회 세계 및 학문 세계의 모든 측면에 통합시킬 필요가 있는 최종적 발언권을 지니고 있다.

VII. 일본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와 사회화

- 수도권 면접조사 결과 -

1. 문제의 설정
2. 조사 방법과 대상
3. 청소년 「인터뷰 내용」
4. 부모 「인터뷰 내용」
5. 교사 「인터뷰 내용」
6. 정리

VII. 일본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사회화 - 수도권 면 접조사 결과 -*

1. 문제의 설정

최근 들어 청소년이 과거와 같은 「깊고 좁은」 친구관계로부터 「얕고 넓은」 친구관계를 지향한다는 「희박화론」과 희박화라기보다는 상황지향적인 친구관계를 지향한다는 「선택화론」 등 친구관계를 둘러싼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淺野, 2006). 「자기찾기」이나 「개성」에 대한 과잉의 요청, 가치관의 다양화, 휴대전화 등의 개인 미디어의 발달 등 청소년들을 둘러싼 사회환경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용 또는 복잡화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상황은 청소년의 친구관계나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위약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부족이 미디어 등을 통해 자주 지적되고 있는 지금, 그들이 어떠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그것은 과거와 어떻게 다를까(또는 다르지 않을까)? 본론에서는 이러한 관심으로부터 2007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한 수도권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대일본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조사 방법과 대상

본 조사에서는 수도권(도쿄, 가나가와, 치바, 사이타마)에 재학중인 중학생 고등학생 12명(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중학생 · 고등학생의 어머니 5명,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립중학교 학생 4명(남자2명, 여자2명), 사립중학교 학생 2명(남자1명,

* 집필자 : 아오타 야스아키(게이오대학교 대학원)

여자1명), 공립고등교 학생 3명(남자2명, 여자2명), 사립고등학교 학생 3명(남자 1명, 여자2명), 공립 중학교 학생의 어머니 1명, 사립중학교 학생의 어머니 1명, 사립고등학교 학생의 어머니1명, 공립고등학교 학생의 어머니 2명, 공립중학교 교사 1명, 도립고등학교 교사1명 사립중학교 교사 1명 등 총 20명이다.

〈표 VII-1〉 조사대상자 인적사항(일본)

A 군	남성 · 고교1년 (공립 · 공학)	K 선생	여성 · 50세 · 공립중학교 교사
B 양	여성 · 중학3년 (사립 · 여중)	L 씨	M군의 어머니
C 씨	B 양의 어머니	M 군	남성 · 중학3년 (공립 · 공학)
D 군	남성 · 고교2년 (사립 · 남고)	N 양	여성 · 중학3년 (공립 · 공학)
E 씨	D 군의 어머니	O 군	남성 · 고교2년 (공립 · 공학)
F 양	여성 · 고교1년 (사립 · 공학)	P 씨	O 군의 어머니
G 군	남성 · 중학3년 (공립 · 공학)	Q 양	여성 · 고교2년 (사립 · 여고)
H 양	여성 · 중학2년 (공립 · 공학)	R 군	남성 · 중학2년 (사립 · 남고)
I 양	여성 · 고교1년 (공립 · 공학)	S 선생	남성 · 38세 · 사립중고교사
J 씨	I 양의 어머니	T 선생	남성 · 41세 · 도립고교교사

면접조사는 8월에서 10월에 걸쳐 실시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현재의 친구(친한 친구 포함) 관계도를 그리게 한 후, 「친구 · 친한 친구의 정의」 「친구와 알게 된 경위」 「친구와 지내는 방법」 「그룹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 「친구로부터 받는 영향」 「부모나 교사에 의한 친구관계에 대한 간섭」 「휴대전화나 메일 같은 미디어의 의미」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다. 또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녀의 친구(친한 친구 포함) 관계도를 그리게 한 후에 「자녀의 친구 · 친한 친구의 정의」 「친구관계에 대한 간섭 유무」 「그룹 내에서의 자녀의 역할」 「자녀의 학교 · 교사」, 「어머니 자신의 친한 친

구·친구의 정의」 등을 면접조사 했다. 같은 방식으로 교사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친구·친한 친구의 정의」 「학생들의 친구관계의 특징(학급내, CA활동)」, 「교사 자신의 친구·친한 친구의 정의」 등을 면접조사 했다.

조사는 청취한 「내용」의 비교 검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면접 가이드를 채용한 반구조화된 면접 방법을 채택했다. 또 조사 장소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의향을 최대한 존중했다. 조사시간은 대략 90분 정도였다.

3. 청소년 「인터뷰 내용」

1) 친구·친한 친구의 정의

친구·친한 친구에 관한 「인터뷰 내용」 으로부터 아이들이 친구와 친한 친구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한 친구에게 요구 되어지는 요소 중 하나는 「가치관의 공유」였다. 「말이 통하고,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이 맞아서」(F양), 「여러가지 공통점이 있어서」(N양), 「생각하는 것이나 자신에 맞지 않으면」(O군)라고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일이나 취미에 관한 지향성이나 가치관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 낼 수 있을 지 없을지의 여부가 친한 친구의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또, 제2의 요소로는 「시간의 공유」를 들었다. 「친구와 친한 친구가 다른 것은, 함께 있는 시간」(O군), 「친한 친구는 항상 가까이 있다고 느끼며, 항상 야단법석을 떨면서 함께 신나는 그런 느낌」(M군), 「(친한 친구)는 늘 함께한다는 느낌이 있으며, 보통 친구와는 적당히 수다를 떨기도 하고 놀기도 한다」(Q양)라고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함께 지내는 시간의 양은 친구와 친한 친구를 구별하는 지표로서 자리 잡혀 있었다. 친한 친구가 된 계기는 같은 반이거나 CA활동 또는 집 방향이 같은 것 등을 들 수가 있다. 또, 친한 친구로서 필요한 「시간의 공유」는 현재시점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가 나뉘어, 전처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상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릴적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A군의 이야기처럼 「함께 시간을 지낸 경험」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다.

「같은 지역 이어서 일까. 어릴적 친구라 그런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다.」(A군)

「밝고, 말이 통하고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이 맞아서, 처음엔 옆 좌석이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점점 사이가 좋아져 항상 둘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F양)

「친한 친구는 항상 가까이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항상 야단법석 같은 걸 떨면서 함께 혼나는 그런 느낌이지만, 친한 친구가 아니면 가끔씩 함께 행동하던가 하는 그런 느낌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M군)

「뭐라고 할까, 여러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N양)

「친구와 친한 친구가 다른 점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나 자신에 맞지 않으면」(O군)

그러나 이러한 「시간의 공유」와 「가치관의 공유」는 반드시 「친한 친구」와 「친구」의 결정적 경계선은 아닐 것이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가치관을 같이 하는 「친구」도 존재한다. 그러면 「친한 친구」에게 더욱더 요구되어지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의 「면접 내용」에 나타난다.

「어떤 아이일까... 솔직히 말하면 즐거운 것도 좋지만, 귀찮으면 확실하게 귀찮다고 말하기도 하는 솔직한 아이일까요.」(A군)

「친구는 그냥 얘기하는 사이이지만, 친한 친구는 친구에게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고, 고민 같은 것도 상담 할 수 있고 상담해 줘요. 잘 이해해 주는 것도 친한 친구 쪽이 더.」(H양)

「표면적인 것 만은 아닌 것 같아요...같은 공통점 같은 것이 무척 많고, 친구라는 것이 분명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지만, (친한 친구는) 한사람 한사람 (관계의) 깊이가 중요하지 않을까요.」(I양)

「보통 친구는 함께 놀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친한 친구는 고민을 말할 수 있다던가 고민을 들어준다던가 하는 것이 가능하다.」

(R 군)

「스스럼 없이 뭐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깊이」는 친한 친구의 조건으로서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자리 잡혀 있으며, 또 거기에서는 「상담할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다」(H 양), 「고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던가, 고민을 들어 줄 수 있다던가 하는 것이 가능하다」(R 군)라는 것처럼, 「서로가 고민을 들어준다」라는 「쌍방향성」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등장했다.

2) 친구와 학력

「인터뷰 내용」으로부터 많은 아이들이 시험성적을 친구 그룹 내에서 서로 보여주고, 비교 대상으로서 의식해 서로 경쟁하고 있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친한 친구나 친구의 학력을 「신경 쓰인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어느 쪽이 이기고 있는지를 겨룹니다.」(D 군), 「항상 함께 하는 멤버로 지고 싶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I 양)라는 것처럼, 친한 친구·친구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역시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해야 할까. 대체로 매회 그 정도 점수여서 좀 더 분발하자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B 양은 말하고 있으며, 「레벨이 비슷해서 절대로 지고 싶지 않다」라고 I 양이 말하는 것처럼, 「신경 쓰인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비슷한 정도의 학력 레벨에 있는 친구와 성적을 서로경쟁 하는 것, 「라이벌의식을 높여서」(I 양) 서로 절차탁마 하는 것은,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로써 성립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대체로 4명이 서로 경쟁한다라는 느낌에 있다. … 역시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해야 할까. 대체로 매회 그 정도 점수여서 좀 더 분발하자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B 양)

「언제나 일단 성적을 서로 말하고, 어느쪽이 이기고 있는 가를 거릅니다. 항상 비슷한 정도 이지만요…: 지게 되면 한 톱 낸다던가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싸우지 않고 졌어도 시험이 끝났다라는 기쁨에서 꽤 기분 좋게 한 톱 내곤 합니다.」(D군)

「나도 국어는 자신이 있어서 질 수 없기 때문에 분발하고 있습니다.」(F양)

「항상 함께 하는 멤버로 지고 싶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 레벨이 비슷해서 절대 지고 싶지 않아요. … 같은 반 친구 5명 중 가장 꼴찌 한 아이가 모두에게 푸딩을 사주자라던가 해서 라이벌 의식을 높여서 공부에 분발한다던가 합니다.」(I양)

한편,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과(학과)도 다르기 때문에 관계없다」(O군), 「(대학수험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교내에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Q양), 「극단적으로 나쁜 친구와 극단적으로 좋은 친구들은 보여주지 않으니 알려질 일도 없지요」(R군)라는 것처럼, 경쟁의 무의미함이나(학과가 다르다, 수험경쟁보다도 가치가 낮다) 친한 친구·친구간의 학력 격차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거부함을 배경으로 각자의 시험성적에 굳이 눈을 돌리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여기에는 시험성적으로 서로 경쟁하여 친구관계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의식이 엿보인다.

「친구의 학력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과도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O군)

「그다지 모두의 성적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로 석차(순위) 정도는 알고 있지만 별로 상관없어 라고, 수험은 학교 내에서는 아니라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교내에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Q양)

「성적은 모두가 그다지 이야기 하지 않는다. 친한 친구들은 대체로 비슷하니까) 「나는, 이랬다.」 「난 안돼!」 라든가. 극단적으로 나쁜

친구와 극단적으로 좋은 친구는 보여주지 않으니 알려질 일도 없지요.」(R군)

3) 친구 관계에 대해서

친구 그룹 내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나 캐릭터는 「리더」 「행동대장」 「우스개역」 「분위기맨」 등 다중다양하지만 아이들은(A양과 I 양 이외는) 각각의 친구 관계에서 요구 되어지는 역할이나 캐릭터를 자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성격과의 사이에서 저어는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또 그러한 역할이나 캐릭터는 친구 그룹(학급내, 학원, CA활동, 아르바이트 등)마다 변모되는 것은 아니 었다.

「벌써 뭔가 자신의 성격은 바뀌어왔기 때문에 싫지는 않습니다.」

(D군)

「뭐랄까 나도 모르게 듣는 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 납득하고 있습니다.」(F양)

「중학교에서는 행동대장…. 편하긴 해요.」(G군)

「아마도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 만족하고 있어요.」(O군)

유일하게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고 있는 「분위기맨」의 A군은 「튀고 싶지 않았다」(A군)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리더역이나 중재자역에 대한 기피감정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보여지는 경향이기도 하다. 「모두들 앞에 통솔하는 무척 어려워서 나 같은 것은 통솔할 수가 없어요.」라고 M군이 말하는 것처럼 그룹의 선두에 서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또 Q양은 「(리더는) 꽤찮지만, 선생님이 귀찮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것은 싫습니다」라고 리더역의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지만, 주위가 시끄럽게 떠들어서 눈에 띄어 버리는 것 같다. … 이번 고등학교에서도 조금 눈에 띄어 왔기 때문에 더

더욱 ... 싫었다. 분위기맨보다도 뭐라고 해야 좋을까 역시 조용히 듣고 있는 듯한... 그쪽이 좋다.」(A 군)

「그다지 자신의 성격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는게 좋겠다.」(D 군)

「중학교 CA활동 때 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리더같이 되어 버리는 면이 있습니다. ... 정말 그만 두고 싶었어요.」(I 군)

「모두들 앞에 서서 통솔하는 것은 무척 어려워서, 나 같은 것은 통솔할 수가 없어요.」(M 군)

「우리는 뭔가 몰라도 학교에서 눈에 띄는 모양 이에요. ... 별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이 귀찮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것은 싫습니다.」(Q 양)

아이들은 소속된 그룹에 의해 이야기 내용을 조금 바꾸고 있다. 「그 장소, 그 사람 그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D 군), 「여기(전학 한 학교)에서는 말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전학 전 학교)에서는 상담하는 그런 느낌」(N 양)라고 말한 「이야기」에서는 아이들이 소속하는 그룹마다 대화 내용이나 테마를 조정하고 바꾸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중에는 Q 양처럼 그룹의 차이에 관계없이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케이스도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와 진로 이야기는)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내용은) 다소 다릅니다. 」(A 군)

「장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중학교시절의 친구에게는) 고민을 털어놓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고민 얘기하면서 노는 분위기가 아니지요. 이 친구하고는」(D 군)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반 친구와 말하면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듣고 있는 것으로 재미있으니까」(F 양)

「여기(전학 한 학교)에서는 그다지 말할 수 없는 것을 여기(전학 전 학교)에서는 상담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N 양)

「대체로 어딜 가도 메인으로 가장 최초로 나오는 말은 연애이야기,
역시 지금은 (어딜 가도) 대체로 그런 것 같아… (그룹마다 대화 내
용은) 그다지 바뀌지 않아요. 어딜가도 그 이야기(연애 이야기)」 (Q
양)

「학력에 관해서는 전원 비슷하게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같은
반 아이가 가장 말하기 쉬워요…. 말하는 것은 학교이야기뿐 이고요.
동네 친구라면 「동네 중학교에서 누가 그런 일을 했데.」 라든가」
(R 군)

4) 집단따돌림의 경험

집단따돌림의 경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아이들이
집단따돌림의 피해 경험이 있었다 (방관 경험을 포함 거의 모든 아이들이
경험자였다). 아이들의 피해경험은 「친구로부터 따돌림 받는 것이 유행이
었다」 라고 O 군이 말하는 것 처럼, 타겟이 단기간으로 바뀌는 일시적 경우
도 있는가 하면, A양처럼 장기간(2년)에 걸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사이 좋은 친구이기에 (욕을)한 것 이라 생각한다」 라고 B양이 당
시를 뒤돌아 보는 것처럼, 또 「장난으로 한 왕따는 있어도 본심으로 하는
왕따는 없어요」 라는 H양의 말처럼 왕따에 관해서는 「장난」 과 「본심」 의
차이가 극히 불명료해서, 그 정의는 주관적인 부분이 큰 것 같다.

「초등학교 5, 6학년 입니다. 2년간. … 그다지 기억이 없어요. 왕따
당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지요. … 왕따를 당하면 학교에 가고 싶
지 않아 부등교가 될 것 같았지만, 어머니가 선생과 상담해 줘서 해
결 했습니다.」 (A 양)

「그때는 내향적 기질이었기 때문에 내가 왕따 당한 것일까 라고 생
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사이 좋은 친구이기에 (욕을)한 것이라 생
각합니다.」 (B 양)

「장난으로 한 왕따는 있어도 본심으로 하는 왕따는 없어요.」 (H
양)

「일주일 정도 지만 CA활동에서 싫은 아이에 타겟이 된 적이 있는

데 여러 가지로 말을 해 오기도 했지만 흘려 버렸더니, 다음에는 에리카가 되어버렸어요. … 메일 같은 것도 집요했어요.」(N양)

「친구로부터 따돌림 받는 것이 유행이었던 것 같고 … 그러자 어느 순간 내 차례가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돌림을 받게 되었고 … 말도 안하고 계속 무시해서, 거의 다른 반에 있었습니다.」(O군)

「그런 것은 있었던 것 같지만, 2주 정도로 자연히 끝나서」(R군)

5) 부모의 존재

아이들의 반수가 자신의 친구관계에 대해서 부모에 의한 간섭을 경험하고 있다. 또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B양), 「무슨 상관 이예요.」(M군), 「조용히 지켜봐 주었으면 좋겠다」(R군)라는 「이야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간섭 받은 경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들은 부모에 의한 친구관계에 대한 간섭에 강한 거부감을 품고 있었다.

「가끔씩 이 친구들과 놀다 오라던가」(A군)

「어머니가 동아리 간담회에도 가시는데, 어머니가 맞지 않은 사람이면 좀 그만 사귀는 편이 좋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B양)

「(아버지는) 「머리가 좋은 아이와 사귀면 그것만으로도 꽤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단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친구는 친구지 무슨 상관 이예요.」라고 말했습니다.」(M군)

「(어머니는) 「친구 그만 두지」라던가 꽤 극단적인 말을 해서, 「그것은 너무 심하지 않아요」라고」(N양)

「부모에게는 내가 먼저 싸움 같은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모르는 채. 거기까지 걱정을 해 주면 도리어 불편하다고 해야 할까. 내가 해결 할 테니까 조용히 지켜봐 주었으면 좋겠어요.」(R군)

또, 가정 내에서 아이들이 친구관계를 상담하는 상대는 어머니에게 거의 한정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는 그다지 만날 수 없다.」(I 양), 「스스로가 말하지 않는다.」(D 군), 「이야기 할 때가 그다지 없다.」(F 양) 라고 말해, 아버지는 자신들의 친구관계에 대해서 어머니 정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부모와 사이가 좋은 친구는 묻습니다. 아버지는 그다지 묻지 않지 만… 어머니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그다지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A 군)

「어쩌면 어머니에게 알려 준 것은 묻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스스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D 군)

「(아버지와 의 대화는)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말할 시간도 그치지 않기 때문에」(F 양)

「아버지와는 그다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 쪽이 말하기 쉽다. 토요일 일요일 이나 저녁 정도여서 그다지 말할 수 없습니다. 」(I 양)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친구관계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말을 꺼내지 않아요. … (친구에 관한 상담은) 어머니와는 합니다.」(N 양)

6) 교사의 존재

바람직한 교사상으로서 아이들로부터 여러 번 지적되는 요소로는 「재미있는 것」 「상냥함」 「대하기 쉬움」 등이 있으며, 거기에는 교사에 대해서 「친구 감각」(F 양) 을 요구하는 아이들의 의식이 느껴졌다. 대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교사상으로는 「엄함」 「눈에 띄는 편애」 라고 하는 요소가 공통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좋아했던 교사는) 상당히 상냥하고 농담을 말해 재미있으며 …

(싫었던 교사는) 무척 무섭고 무척 스파르타식이어서」 (B 양)

「무척 자신의 일을 여러 가지로 말해 주기 때문에 친해지기 쉬운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 (싫었던 교사는) 잘하는 아이를 귀여워하는 선생으로 잘 못하는 아이는 상대해 주지 않는....」 (D 군)

「재미는 있지만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차가운 것이 싫습니다.. 」 (F 양)

「재미있는 잡담이라던가 여담을 말해 준다 던가. 상냥한 선생이라 하고 할까. 말투도 온화하고 대하기 쉬었습니다.」 (G 군)

「(좋아했던 교사는) 무척 재미있고 상냥했습니다. … (싫어했던 교사는) 좀 또 뭔가 반항적이면 바로 불러내곤 합니다.」 (H 양)

또 교사가 아이들의 친구관계에 개입해 오는 케이스는 거의 드물었다. CA 활동내의 사소한 다툼이나 학급내의 왕따 등 아이들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문제가 생기 경우에만 교사가 친구관계에 간섭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개입이 반드시 원활한 친구관계를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아이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N 양)으로 어른들이 개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단 듣기는 하지만, ,좀 그렇다 … 라고 생각하면 듣고 흘려버릴 니다. … 선생님도 알고 있어서, 한번 의논도 했습니다만, 역시 모두가 사이 좋게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N 양)

7) 인터넷 · 휴대전화

아이에게 휴대전화가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것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실, 본 조사에서 대상이 된 아이들도 N양과 G군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으며(N양과 G군은 이메일을 활용하고 있다.), 초등학교시절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아이도 적지 않았다.

메일에 관해서는, 「거의가 타협」 (D 군), 「즐기기 위한 그런 메일은 하

지 않는다.」(O군), 「용건만 전하면 끝」(R양)이라는 것처럼 아이들은 숙제의 확인이나 휴일의 만날 약속 등 타협하거나 연락용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메일은 간편하기는 하지만 「말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라고 N양이 말하는 것처럼 그 내용은 고민 상담 등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는 일은 적은 것 같았다. 또 근래 유행하고 있는 「전략적 프로필」이나 「mix i」 같은 온라인상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무척 귀찮아요. 그거 정말 귀찮아요.」(O군), 「권유 받았지만, 난 역시 성가셔서 거절했습니다.」(F양)라는 것처럼 흥미를 갖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정말 귀찮아요. 난 … 거의 타협용입니다.」(D군)

「메일 자체는 그다지 하지 않지만… 「오늘 숙제 뭐였지?」 같은 것 뿐입니다.… (친구에게mixi를) 권유받았지만, 나는 역시 귀찮아서 거절했습니다.」(F양)

「말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N양)

「메일 내용은 내일 학교가니? 같은 그러한 이야기. (메일은)하지 않아요. 거의 … 즐기기 위한 그런 메일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 (mixi에 대해서는) 무척 귀찮아요. 그거 정말 귀찮습니다.」(O군)

그 중에서 H양, I양, Q양 등 3명은 얼마 안 되는 적극적인 유저였다. Q양은 「최근 줄었어요. 몹시 귀찮아요.」라고 말하면서도, 바로 최근까지 「1행메일을 1분마다 주고 받는 것을 그만 둘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H양은 「밖에서는 직접 말하면 어디서 누군가가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며 휴대전화 메일에 「기밀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했다. 더욱이 I양과 Q양은 「전략적 프로필」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해 학교내의 교우관계를 확대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 같은 데서 고민되어서 직접 말하기 어려운 것도 메일이라면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밖에서 직접 말하면 어디서 누군가가 듣

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메일로 말해 온다.」(H양)

「요즘 모두가 「전략적 프로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봄밤학에 S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모두 조사해 게스트북에 기입하고 있어서 … 그래서 같은 반이 되었을 때 「서로 엮였네?」 같이 말하기도 해요.」(I양)

「「전략적 프로필」이라는 것이 있어서, 같은 학교에서 검색하면 나와서 서로 엮여서 사이 좋게 되기도 하고… 메일은 최근 줄었어요. 정말 귀찮아요. … 1행 메일을 1분씩 주고 받는 것을 그만 둘 수 없어요.」(Q양)

8) 사회적 모델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도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 좋지 않은 일」로 여기고 있었다. 또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친구라면 말 할 수 있습니다」(D군), 「주의를 줄 정도의 용기는 없습니다」(N양)라는 것처럼, 자신의 친구에 대해서는 「주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관계가 깊지 않은 친구(또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의 할 수 없다」 또는 「주의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것까지 참견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D군이 말하는 것처럼, 타인의 행위를 바로잡는다는 행위에는 어느 정도 관계의 깊이가(친구로 여기고 있는가 여부)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불안하지만… 음 친한 친구라면 말 할 수 있을까요. (친구이외에는) 그다지 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A군)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겠지만 친구라면 말할 수 있습니다. … (친구이외에는) 그런 것까지 참견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다.」(D군)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만, 보고서 주의를 줄 정도의 용기는 없습니다.… (친구에게는) 「버리지마」라고 말합니다.」(N양)

「모르는 사람이 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주어서 쓰레기

통에 버리기는 하지만 주의는 할 수 없을거예요.」(R군)

사회적인 도덕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은 높았지만, 친구의 이탈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한다」라고 말하는 한편,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A군), 「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도 있다」(D군), 「나 자신도 가끔은 그러기 때문에」(H양)라는 관용적인 경우도 있었다.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 좀 나쁜 일을 했구나하는 기분은 있습니다.」(A군)

「뭐. 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사람에게 말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뭔가 눈 앞에서 보게 된다면 불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스스로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그만 두자 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D군)

「나 자신도 가끔 그러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겠지 하는 것은 좀 있습니다.」(H양)

4. 부모의 「인터뷰 내용」

1) 친구·친한 친구의 정의

「신용할 수 있다면 친한 친구」(C씨), 「뭐든지 말 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을까요.」(P씨)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친한 친구 상」에 대해서 인격적인 안심이나 신뢰를 꼽았다. 또 한편에서는 현재 아이들은 친구관계 형성의 「과도기」(C씨)에 있으며 「팔방미인」(J씨)처럼 「넓고 얇게 라는 느낌」(P씨)으로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도 느끼고 있었다.

「지금이 바로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겠지라는 안도감 같은…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용할 수 있는 친한 친구」(C씨)

「부모가 보기에 D는 자신의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타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 노지마군이나 오가미군에게는 「이러이러해서 곤란해.」 라던가 「이런 식으로 했고 싶어.」 라는 것을 상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E씨)

「친구관계를 말하자면 알고 넓게가 아닐까요? … 팔방미인 같은 면이 있지 않을까.」(J씨)

「(아이들의 친한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는) 어렵네요… 본인도 그 나름대로 있을테지만…」(L씨)

「본인은 특정하게 사귀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까지 지켜보면 넓고 얇은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뭐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P씨)

그러나 것처럼 아이의 친구관계를 희박하다고 여기고 있으면서도, 어머니들 자신의 친구관계에 대해서 「친구라는 것은 많이 있다고 할까 넓고 얇게」(E씨), 「팔방미인이라서 알고 넓게」(J씨), 「나도 친구는 넓고 얇게 많아서」(P씨)라고 말하고 있으며, 「넓고 얇게」라는 상황은 어머니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보여지는 경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자신의 친한 친구 상에 대해서도 어머니들은 「안심하고 말할 수 있어서」(C씨), 「깊게」(E씨), 「한 술 밥을 먹었다.」(L씨), 「취미가 같다」(P씨)라고 하는 「가치관의 공유」와 「시간의 공유」 그리고 그 「깊이」를 조건으로 들고 있으며, 이 점으로부터 아이들과 같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못 만난 시간을 획 없애버릴 수 있을 듯한… 정말로 안심하고 말할 수 있고, 서로가 상대의 입장이 되어 말 할 수 있으며, 꾸미지 않아도 되는, 이해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나 소독감정이 없다

고나 할까.」(C 씨)

「친구라는 것은 많이 있다고 할까. 넓고 알게. 친한 친구라는 것은 깊게 자신 즉 나를 잘 알아준다. 나를 항상 응원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로가 나도 상대를… 좋아하는 것을 서로 말 할 수 있는 사이였다.」(E 씨)

「팔방미인이라서 알고 넓게… 정말로 마음을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지 않을까요? 거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나는 분명히 말해서 얹매임이 많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싶다는 단계입니다. … (친한 친구는)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일단 말한 사람은 어느 학년에도 있습니다만, 친한친구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J 씨)

「친한 친구라고 하면 학생 때부터 한 술 밥을 먹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집이든 뭐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친구는 까 놓고 이야기 하면, 친구지만, 좀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간 이야기가 가능한 것은 친한 친구밖에 없을 거예요. …(자신의 친한 친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비슷해요.」(L 씨)

「역시 자신을 속속히 드러내는 사람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역시 보통은 이런 것은 말하지 말자라던가, 집 이야기 라던가, 그러한 것 있지요. 아이들의 이야기도 속내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랄까. … 나도 친구는 넓고 알게 많아서. … (친한 친구는) 정말로 웬지 뭐든지 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취미가 같다고 할까.」(P 씨)

2) 아이들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친구 그룹 내에서의 아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머니들은 「모두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계속 이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C 씨), 「스스로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E 씨), 「밀에 있는 사람처럼 다뤄지는 것은 싫다」(L 씨)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이들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것과 동시에 「리더역」을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상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아이는) 일단 리더입니다만 … 결과적으로 리더를 하고 있는 것은 본인에게 앞으로 매우 유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이 모두로부터 의지되는 존재로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C 씨)

「분명 D는, 오카미군과 둘이서, 그룹을 이어가는 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더 사람에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지금 그런 성격일까? 하지요.」(E 씨)

「리더를 할 타입이 아닙니다. … 주변을 지지해 주는 것 같은 것은 있을 지도 모르지만, 위에 서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할 타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지나치게 친구에게 밀려서 밑에 있는 사람처럼 다뤄지는 것은 싫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서.」(L 씨)

「리더격이어서 스스로가 조사해서 솔루션해서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행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다라기 보다는 사람에게 지시 받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P 씨)

어머니들은 「좋은 친구와 사귀기를 바란다.」(E 씨), 「자신에게 플러스가 되어주는 사람이 더욱더 나타나길 바란다.」(J 씨), 「배려있는 아이와 사귀기를 바란다.」(P 씨)라는 것처럼, 아이들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강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친구관계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사귀었으면 하는 친구 타입」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특정 친구와 「사귀지 말아라」(P 씨)라고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일은 없으며, 그것은 친구관계를 간섭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많은 어머니들이 「그 아이와 사귀지 않는 편이 좋지 않겠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내가 무척 반발해서」(P 씨), 「(나 자신이) 그런 말을 잘 들었어요. 「저런 아이와 사귀어서는 안돼. 그런 아이와 사귀어서는 ‘안돼’라고」(J 씨)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 부모에 의한 간섭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이 그녀들에게 「아이들의 친구관계」와의 사이에 취해야 하는 적절한 거리감을 경험적으로 이해시켰던 것처럼도 생각되었다.

「노지마군은 어떤아이? 라고 물었지만, 아들은 내가 그런 식으로 묻는 것을 상당히 싫어해서 … 아들에게 「어떻게 오가미군과 친구가 됐니?」라고 여러 번 물었던 적이 있지만,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한 것을 싫어하는 듯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 친구관계에 대한 것은 내가 집요하게 묻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는 다던가 숨긴 다던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역시 아이들이란 상당히 친구에게 영향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친구와 사귀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E 씨)

「마음에 부담이 되는 아이와 사귀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말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 졌으면 하지요. … 저 이런 말 자주 들었어요. 「그런 아이 만나면 안돼. 이런 아이 만나면 안돼」라고」 (J 씨)

「그렇지만 오래도록 사귀는 진정한 친구를 사귀었으면 하죠…. 일생을 통해서 사귄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이해하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때와 달리 뭐랄까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고….

결국 아이가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니까 내가 「이런 아이와 사귀어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L 씨)

「머리가 좋은 싫든 상냥하고 배려가 있는 아이와 사귀었으면 합니다. …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좋은 친구를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서 소중하게 생각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향 받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불량한)아이와 사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 사귀지 말아라 라고 는 말하지 않죠. 머리가 좋은 나쁜 든 사귀어서 보람된 아이와 사귀었으면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이 사귀어서 소중히 해라라고 말합니다. …영향을 받기 쉬우니까 불량한 아이와 사귀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있습니다. …사귀지 말아라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가 하는 말이니까 라고 생각해 버리니까요. …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그런 아이 사귀지 않는 것이 좋지 않니 라고 듣기는 했어도 나는 거기에 크게 반발해서, 그렇지 않다,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P씨)

3) 교사의 존재

「좋게 말하면 70%정도」라고 C씨가 말하는 것처럼 부모들은 교사에 의한 아이의 친구관계 파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또 그녀들은 「자신을 통제 할 수 없는 선생도 있다.」(J씨), 「어찌 되가는 건지, 지금의 교육현장이」(E씨)라는 현재의 학교나 교사에 대해 불신감을 품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P씨가 현대의 선생을 「샐러리맨 선생」으로 평하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자신의 유소년시절)의 학교나 교사에 대한 향수가 느껴졌다. 그렇다고 해서 본 조사의 대상자인 어머니들은 학교나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내가 무척 학교측에 말하는 것을 싫어해서」라는 E씨의 이야기로부터 부모에 의한 학교로의 간섭을 싫어하는 아이들의 의식도 엿보였다.

「너무 분명하게 말하면, 좋고 싫음을 분명히 말하면 안된다는 것 같은게 있지 않을까 라고 …(아이가 친구 관계의 일로 교사와 상담하는 일은)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C씨)

「아들은 내게 말하면 내가 바로 학교측에 말하는 것을 무척 싫어해서, 나는 바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버려요. 어찌 되어가는 것인지 지금의 교육현장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아이인데 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E씨)

「(교사는 아이들의 친구 관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역시. 좋게 말하면 70%정도이지 않을까요? … 선생 자신을 통제 못하는 선생도 있지 않은가? 그 선생 자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 것인가 모르겠다. 무엇을 아이에게 바라고 있는 건지.」(J씨)

「요즘 선생은 옛날 선생 같지가 않고 샐러리맨 선생 같다. 아이들 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자신의 일은 두고 역시 아이들을 생각해 주었다라고 할까, 지금은 그러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 까지는 끼어들지 않는 게 좋겠다는 식의 생각이 많다.」(P 씨)

4) 인터넷 · 휴대전화

「요즘 아이들이란 메일」(J 씨), 「대체로 메일」(C 씨)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휴대전화 메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연결되어 있었으면...」(C 씨), 「울리지 않으면 쓸쓸해요」(J 씨)라는 생각에 차 있다고 생각한다. 「메일이 제일 문제입니다. 일방통행이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J 씨는 메일의 좋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어머니들은 특별히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한 의식의 차이는 휴대전화 등의 미디어에 의해 자신의 딸/아들이 친구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경험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뭔가 꼭 닫아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좀 보려고 하면 비밀번호 때문에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서 ... 쓸쓸하기라도 한 걸까요. 연결되어 있고 싶다, 뭐 그런 거겠죠. 그렇지만 전화는 그다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대체로 메일인 것 같아요」(C 씨)

「(온라인 상의 친구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해도) 이 시간에 친구일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무척 미덥지 못하거나 하면 주의를 줍니다.」

「요즘 아이라면 메일이지요. ... 중학교 때 메일 교환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남자친구는 있어서. 메일 변경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끊어버리지요. ... 메일이 가장 문제입니다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 휴대전화가 친구라고 생각해요. 울리지 않으면 쓸쓸하지요.」(J 씨)

「휴대전화로 서로 주고 받으니까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은... 전화가 걸려와도 전화기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좀처럼」(L 씨)

「(온라인 상의 친구관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휴대전화로 만난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 사귀고 보자! 같은 거 그런 거 인가요?
그런 것은 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만... (메일 교환은) 그다지 좋
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귀찮다네요.」 (P 씨)

5. 교사의 「인터뷰 내용」

1) 친구·친한 친구의 정의

아이들의 친한 친구상에 관한 교사들의 「이야기」는 여러가지였다. K 선생이 「고민을 털어 놓는 아이」를 요즘 아이들의 친한 친구상이라고 하는 한편, S 선생이나 T 선생은 친한 친구와 친구의 경계선 그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S 선생은 「정말로 그들에게 친한 친구의 의식이 있는 건가」라고 말해, 「메일로 연결되어 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들에 비해 사귀기 깊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었다. 또 T 선생은 아이들의 친한 친구상의 조건이 「뭐든지 말 할 수 있는 것」에 있다라고 상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정의는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친구」와 「친한 친구」를 구별지어 행동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거기에 T 선생은 「뭐든지 말할 수 있는 상대라는 것은 예전 아이도 지금 아이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라며 「뭐든지 말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타인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아이가 친한 친구로,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맛있네.」 같이 남을 위함이 없는 말 뿐인 아이라면 그것은 친구. 내가 들은 말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친한 친구의) 수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K 선생)

「정말로 그들은 친한 친구라는 인식이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 우리들에 비해 사귀기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S 선생)

「「친구」와 「친한 친구」를 달리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친한 친구」의 정의가 무척 애매하다고 생각합니

다. 어느 정도가 「친한 친구」인지 개인에 따라 다르리라 생각하지만, 뭐든지 말할 수 있는 상대라는 것은 옛날아이도 요즘 아이도 그렇게 갖고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뭐든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다는 것이 도리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T선생)

그렇다고 해서 「같은 것 같다」(K선생), 「평생 사귄다」(K선생), 「화내거나 하지 않는다」(S선생), 「뭐든지 상담 할 수 있다」(T선생)라고 하는 자신의 친한 친구상에 관한 교사들의 이야기는 교사들이 아이들이나 어머니들과 비슷하게 가치관이나 시간의 공유, 그리고 그 관계의 깊이를 친한 친구의 조건으로서 중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느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친구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식으로 나는 생각한다」(K선생), 「친한 친구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일까? 없는 것 같다.」(S선생)라고 말하는 것처럼 K선생과 S선생은 친한 친구의 존재 그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K선생의 경우는 그녀가 자신의 친한 친구의 조건으로서 들고 있는 「가치관의 공유」 「시간의 공유」의 질에 대해서 극히 엄할 것, 또 S선생의 경우는 친구와 친한 친구를 「나눠서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친한 친구라는 구분이 없는 데서 그러한 의식이 형성된 것 처럼 보인다.

「자신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같이 느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친구라는 것은 없지 않
을까 생각합니다. ... 그 사람과 평생 사귄 리도 없고 그 장소 그 장
소에서 말하는 사람이 바뀌어 왔다 라는 것은 가지각색의 사람도 같
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친한 친구라는 것은 상당히 만들기
힘든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졸업후 사회에 나간 후에 가는 길이나 생활 방식이 다르면 역시 변해 가지요.」(K선생)

「그렇게 말하니 친한 친구라는 것이 정말 있는 건가 하고. 없는 것 같고, 모두가 친구인 것도 같고. 나눠서 생각한 적이 없다. ... 어느

쪽이나고 한다면 요즘 아이들과 닮은 부분이 있는 지도 모르겠다.
 ... 친한 친구라면 뭘 해줘야 친한 친구일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
 다. ... 화내지 않는다는가 그런 단순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말
 을 할 수 있는 게 친한 친구일지도 모르죠」(S선생)
 「뭐든지 상당할 수 있는 게 친한친구. 「친구」는 취미가 맞아서
 상담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닐까요」(T선생)

2) 아이의 친구관계에 대해서

아이의 친구관계에 관해서 교사들은 「이끌고 가려는 아이가 상당히 적
 다.」(K선생)는 것, 즉 「이상하게 눈에 띄는 것을 꺼린다. 돌출하는 것
 을 싫어한다」(S선생), 「주제넘게 나서고 싶어하지 않는다. 눈에 띄고
 싶어하지 않는다」(T선생)경향이 있는 것을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부모가 그렇게 하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S선생),
 「지금까지 생활해 온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닐지요」(T선생)
 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모의 교육이나 가르침에 의한 영향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라고 K선생이 말하고, 또 S선생이 「부모의 세대가
 눈에 띄는 것이 싫은 것은 아닌지요」라며 부모의 문화적 배경에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띄는 것」이나 「리더역」을 경원시하는 것을 현대적 특
 징이라고 하는 교사들의 이야기에는 왜곡이 없지 않아 있다.

「(리더는) 없습니다. 될 수 있는 아이는 있지만 되려고는 하지 않
 아요. 두들겨 맞죠, “모난 정이 두들겨 맞는다”라는 식으로. ...이끌고
 가려는 아이가 상당히 적습니다. ... 표면으로 나오고 싶어하지 않는
 아이가 상당히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K
 선생)

「리더가 있어서 「해보자」라는 것이 없어요.... 이상하게 눈에 띄
 는 것을 싫어해요. 돌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학교가 3번째입니

다만, 어딜 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다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싫은 것은 아닌가 라고. 또 부모세대가 눈에 띄는 것이 싫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다지 눈에 띄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부모가 그렇게 해서 말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네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난 왕따 당할지도 몰라.」라고」(S선생)

「리더는 지금은 없습니다. ... 주제넘게 나서고 싶어하지 않아요. 눈에 띄고 싶어하지 않는다. “모난 정이 두들겨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생활해 온 습관이 그런 것은 아닌지요. ... 전체적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키워져 왔을 테니까요. 부모도 사회도 그런 것을 그다지 좋아 라고 하지 않지요」(T선생)

또, 아이들의 친구 관계의 파악·개입은 극히 곤란하다라고 한다. 「근본적으로는 무리」라고 말하는 C씨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는 정말로 한정되어」 있으며, 「같은 세대의 아이들 당사자만이 해결 가능하다」라고 경험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 S선생도 「선생과 학생 사이가 어지간히 탄탄하지 않으면」 친구관계에 관한 정보는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으며 「부모 자체도 그다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어디까지나 어른들은 수동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친구관계로의 개입은) 근본적으로는 무리입니다. 이쪽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세대의 아이들 당사자끼리 밖에 해결 할 수 없죠... 방과후가 되면 이쪽은 이쪽대로 여러 지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붙어있을 수는 없지만, 회의가 끝나다던가 하면 가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 (친구관계에 대해서는) 부모가 말하고 있는 편이 역시 통하지요.」(K선생)

「친구관계는 어지간한 것이 아닌 한, 어지간히 선생과 학생 사이가 탄탄하지 않으면 (정보)가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 상당하게 되

면 말하지만, 그것까지 말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말을 해 왔을 때는 꽤 중요 것 이라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지만요. … 부모자체도 그다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곤란할 때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말하러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S 선생)

「 (친구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가끔 있지요. 면담 자체는 그다지 하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히 곤란한 일이 아닌 한. … 특별지도가 되거나 하는 일도 있어서」 (T 선생)

3) 인터넷 · 휴대전화

「휴대전화로 부모 모르게 접속하고 있다」 (S 선생) 최근 아이들에게 있어서 친구의 험담을 용이하게 하는 휴대전화 메일은 「문제의 근원」 (S 선생)이며, 그러한 미디어의 존재는 아이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감퇴(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부모님의 태도가 아이들이 휴대전화, 또는 PC든 뭐든 간에 대하는 방법에 상당히 반영된다」 (K 씨) 라고 하는 것처럼, 교사들은 아이들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부모의 교육이나 가르침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뭔가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곧 「누구누구가 뭐라고 말했다」 라는 메일을 날리곤 합니다 … 역시 부모의 태도가 아이들의 휴대전화, 또는 PC든 뭐든 대하는 방법에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아이가 늘고 있는 그 원인의 하나는, 얼굴을 맞대고 말한단가, 동작이라던가 표정을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 … 말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직접 만나면 전달되지만 (휴대전화) 화면상에서는 전달되지 않지요. 」 (K 선생)

「지금은 휴대전화로 부모도 모르게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 여자아이라도 문제는 싸움인데 네트를 이용한 메일중에 욕이 많습니다. … 파악할 수 없어요. 보여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무엇을 위

해 보여 달라고 하나고 하면 할 말이 없지요. 문제의 근원이 되어 있습니다. … 위험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만남 사이트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다만 표면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S 선생)

「(온라인상 친구를 가진 아이들은) 교우관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에서 해소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T 선생)

6. 정리

아이들이 바라는 친한 친구의 조건은 「가치관의 공유」, 「시간의 공유」 그리고 거기로부터 생기는 「깊은 관계」였다. 유사한 취미나 지향을 가진 친구와 학급이나 CA활동 등에서 긴 시간을 함께 지내는 것으로 아이들은 거기에서 「서로 뭐든지 말 할 수 있다」라는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갖는 「얕고 좁은 친구」와 「깊고 좁은 친한 친구」라는 구도는 부모나 교사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내용과 조금도 다른 것이 아니어서, 최근 여러 번 지적된 「최근 아이들의 친구관계가 희박화하고 있다」라는 담론에 대해 약간 의문을 갖게 하는 듯한 결과가 나왔다.

아이들은 복수의 친구 그룹(학급내, CA활동, 과거 재적학교, 학원, 아르바이트등)에 소속되어 있으며, 대화 내용이 그룹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들 자신의 역할이나 캐릭터는 그룹마다 변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사노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아이들의 자아는 「관계 의존적·문맥 의존적·상황 의존적」이 되어, 「자아의 다원화」(淺野, 2006: 250)라고도 불리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본 조사에서 아이들의 「면접 내용」으로부터는 그러한 경향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친구와의 대화 내용은 그룹마다 달랐지만, 「물론 정도 차이는 이전부터 있었다」(淺野 2006: 239)라고 아사노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대화 내용의 선택 자체가 반드시 현대 아이들 특유의 것만은 아닐 것이다. 본 조사는 어디까지나 질적조사이며 일반화를 목적으로 한 것일 수 없으나, 근래의 「선택화론」을 단순하게

추인하는 결과가 될 수 없던 것은, 앞으로의 조사나 분석에서 재삼 몰두해야 할 과제이며, 중요한 문제거리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친구관계에 부모가 간섭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며 또 그러한 의식은 부모들에게도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간섭경험을 가진 아이들도 적지 않았으며, 거기에는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이 지 때 보도가 성행한 사회현상 아래 불안감이 높아져, 「간섭한다 / 하지 않는다」라는 행위선택 사이에서 갈등 겪는 부모의 모습이 추측된다. 사실 왕따에 관해서는 과반수를 넘는 아이들이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에 의한 개입으로 해결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많은 아이들은 교사에 의한 개입(원래부터 교사에 의한 친구관계 파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또 교사들 자신들로부터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또, 친한 친구·친구의 학력에 대해서는 아이들 사이에 「신경 쓰인다. /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의식의 차이를 보인 반면, 그것은 어느 쪽도 「친구관계의 안정화·유지」라는 목적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많은 아이들이 「리더역」이나 「눈에 띄는 것」에 대해 기피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교사로부터도 지적된 것이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그러한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집단주의적인 일본문화라고도 여기고 있으며, 리더역을 경원하는 의식이 현대적 특징인가 아닌 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들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도 약간의 모순이 있었다. 또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리더역」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교사들은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의 의식에는 부모에 의한 유년시절의 교육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미디어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모나 (특히)교사는 휴대전화 메일을 친구관계에 있어서 문제의 근원으로 위험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은 메일을 어디까지나 「연락·타협하는 용도」로 들고 있으며, 빈번하게 송수신을 하고 있는 케이스도 적지 않고, 기능의 편리성은 인정하면서도 특별히 중요시 하지는 않았다. 그렇

다고 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휴대전화 메일의 이용 배경에서 「쓸쓸함」 「연결되고 싶은 욕구」를 발견할 수 있듯이, 「거기에서 바라는 것은 특정의 의미내용을 전달하는 것(또는 그것에 의해 뭔가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농밀하게 하는 것 자체, 연결되어 있다는 느끼는 강도 그 자체이다」(淺野, 2006 : 242)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휴대전화 하드유저인 여자고등학생 2명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향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또 근래에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커뮤니케이션은 여자고등학생 2명으로부터 이용경험이 있으며,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녀들은 친구관계의 저변을 넓히고 있었다. 교사들은 온라인을 매개로 한 친구관계는 어른들이 직접 파악 할 수 없는 만큼, 오프라인상의 친구관계에 비해 위험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참 고 문 헌

淺野智彦(2006), 『검증 · 젊은이의 변모－잃어버린 10년 뒤에』.

VIII. 독일 청소년들의 또래, 교사, 부모와의 관계 : 상호작용의 규칙과 협상의 과정

1. 연구의 목적
2. 방법론 : 근거 이론(Grounded theory)과
네트워크 분석
3. 청소년의 또래, 교사, 부모와의 관계
4.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수단
5. 사회접촉의 의미와 구조 - 네트워크
분석
6. 결론

VIII. 독일 청소년들의 또래, 교사, 부모와의 관계 : 상호작용의 규칙과 협상의 과정*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관계가 깊은 부모, 교사, 또래와 갖는 관계의 특징을 밝히는 데 있다. 먼저 역할의 변화를 알아보고 부모와 또래의 중요성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또래는 여가활동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래는 역할모델로서 기능하며, 감정적 기술을 익힐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서로 동등하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며, 서로 다른 역할 가운데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사회규칙을 배우게 하는 기반을 만들어준다(Hurrelmann 2005). 청소년들은 과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구조에 초점을 맞춰 규칙의 기능과 상호작용, 규칙위반, 규칙으로부터의 자유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또래가 주는 사회화과정의 기회가 가족내 사회화과정과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서로 보충적인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역할모델에 대해 물었으며,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말하는지 물었다.

학교 역시 매우 중요한 환경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교육받고 친구와 사귀고 또 사랑에 빠진다. 이에 우리는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 인격형성에 있어서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사용하여 어떤 우상을 찾고 또래와 함께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청소년기’의 생생한 과정에

* 집필자 : Gudrun Quenzel, Michaela Janotta, Janina Herrmann(뒤스브르크-에센 대학교 사회학연구소)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 학교의 역할에 대한 매우 다양한 연구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요인들을 비교하는 연구는 흔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조사하였다.

첫째, 독일청소년들은 친구, 교사, 부모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있는가? 역할모델로서의 또래, 부모, 교사의 기능은 어떻게 분화되어 가는가?

둘째, 이런 분화와 정체성 확립 과정에서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셋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환경, 관계성,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 방법론 : 근거 이론(Grounded theory)과 네트워크 분석

이 연구는 근거이론과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질적 연구 설계를 사용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비교가능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상황과 관심사 그리고 생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지의 주요내용은, 부모와의 관계, 학교 및 반친구들에 대한 태도, 또래관계, 여가생활, 실제 생활과 미디어 상의 역할모델, 미디어 및 의사소통 도구의 사용, 희망사항과 꿈 등이다. 또한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나이, 성, 형제자매 수를 물었으며, 부모의 이혼여부와 거주지 그리고 부모의 직업과 교육정도에 대해서도 물었다(참고 : 부록 1)

1) 질문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상의 질문들을 던졌다. 자신들의 부모와 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키울 것이지, 또한 집에서의 규칙과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학교, 교사, 반친구와 관련해서는 학교가 자신들의 삶을 준비시켜주는지, 학

교수업의 질과 학교에서의 규칙 및 갈등 등에 대해서도 물었으며, 인기있는 친구와 인기없는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갖는지 그리고 학교가 민주주의와 다른 가치들을 가르치는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또래 및 친구관계에 관해서는 먼저 친구가 있는지 그리고 친구들과 어떤 활동을 하며, 또래집단에서의 의사결정방식과 또래압력 등에 대해서 물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와 비교해서 친구관계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역할모델과 신뢰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대화상대로서 가장 좋은 상대와 가장 꺼려하는 상대는 누구이며 누구에게 상담하는지 그리고 가장 자주 논쟁을 벌이는 상대는 누구인지에 대해 물었다.

미디어 및 의사소통 도구로서 TV, 인터넷, 핸드폰, 게임기, 인터넷게임, 책, 잡지, 영화와 음악 같은 것들의 사용에 대해 혼자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지 물었다.

또한 잠재적인 역할모델 또는 우상으로서 유명인에 대해 물었으며, 또한 지난 60년간 미디어의 변화가 사람들 사이의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장래의 꿈에 대해 묻고 자신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2) 근거이론에 기초한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수집된 자료로부터 귀납적으로 주제와 범주를 탐색하는 방법인 근거이론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다. 자료분석 방법으로서의 근거이론은 스트라우스와 글래서(Anselm Strauss and Barney Glaser, 1967)에 의해서 정교화된 된 상대적으로 오픈된 접근방법이다. 이 방법의 목적은 과학적 지식을 직접 데이터로부터 얻어내어 새로운 이론적 입장을 세우는 데 있다. 즉, 가설을 검증하거나 어느 현상의 정도나 양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가능한 범주를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들을 열어두어 대상자들이 스스로 어떤 주제에 대해 말하고 찾아내도록 한다. 이러한 접근은 연구자가 오로지 예상되는 사실을 얻으려고만 하는 경

향을 배제한다. 그래서 근거이론의 코딩방법은 첫째, 인터뷰로부터 얻은 현상의 성격을 밝히고, 둘째 서로 다른 현상간의 공통점을 찾아내며, 셋째, 중심적인 범주를 만들어 주제의 핵심요인을 찾는다(s. Böhm 2000: 475ff).

먼저 범주들을 만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만들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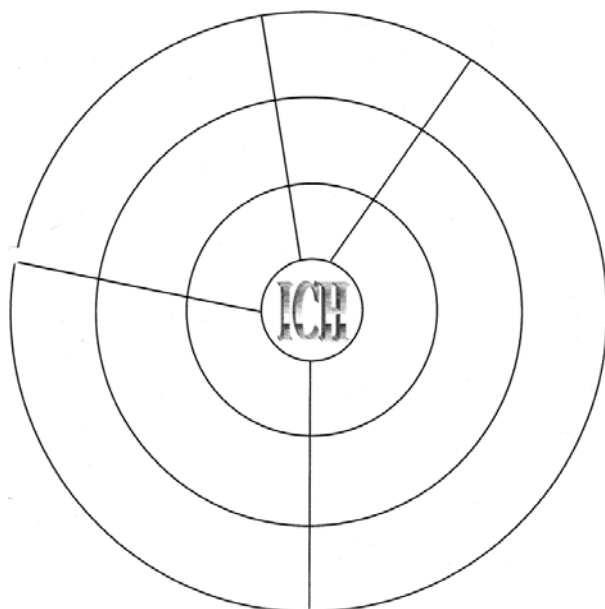
어떤 현상이 언급되는가? 어떤 사람이 관련되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현상의 어떤 측면들이 언급되는가? 또는 언급되지 않는가? 언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얼마나 길게 또는 어디서 또는 얼마나 강하게 경험되는가? 어떤 동기들이 있는가? 또는 발견되는가? 행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등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의 범주 또는 현상을 중심에 놓고 다른 코드나 현상과의 관련성을 탐색한다. 연대기적 또는 공간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관계들의 원인과 결과, 수단과 목적 그리고 논쟁거리와 동기들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중핵적인 범주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냄으로써 발견되며, 이로써 규칙과 패턴을 찾아낸다. 예를 들자면, ‘c-family’ (causes, context, consequences, conditions) 와 같이 가족에 코드를 부여하거나, 또는 ‘interaction-family’ (interaction, reciprocal effects, symmetry, rituals), ‘identity-family’ (identities, concepts of the self, changes of identity), ‘culture-families’ (norms, values, social coherent attitudes) 등과 같은 식이다 (s. Glaser 1978: 74).

3) 질적 네트워크 분석

이 연구는 부모, 교사, 또래가 독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타자의 중요성과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어떤 접촉을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에 편입해 들어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또한 각자가 그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들이 스스로와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밝혀내는 편리한 방법이다.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관심이 사회관계에 대한 구조적인 기술에 있으며, 사람들의 접촉네트워크를 분석하여 구조와 네트워크의 기능이 갖는 특징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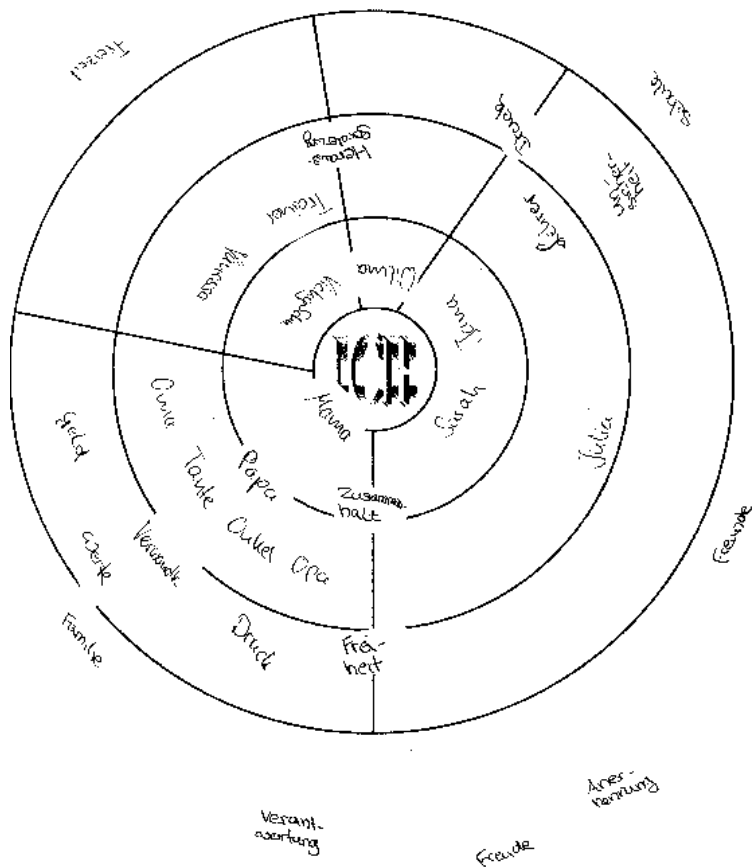
면접조사에서 네트워크 차트를 사용함으로써 사회네트워크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낸다(예: Kahn/ Antonucci 1980). 이런 차트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접촉의 양적인 특징과 함께 그들의 주관적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른 네트워크 그룹에 들어가게 될 때 중요한 태도를 알 수 있다([그림 VIII-1], [그림 VIII-2] 참조).



[그림 VIII-1] 네트워크 차트

이 연구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절차를 밟았다. 대상자들은 네트워크 차트를 받아서 중앙에 “나”를 위치시킨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원을 그린다. 각각의 원은 다시 서로 크기가 다른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그리고 면접자는 대상자들에게 세 가지 단계의 과제를 부여한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내 사람들간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소개 뒤에는 대상자가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카드에 서로 다른 영역을 그린다. 예를 들어,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면, 가족 영역을 가장 크게 그린다.



[그림 VIII-2] Alexandra(16세)의 네트워크 차트

두번째 단계에서는 각각의 영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름을 적게 한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일수록 “나”와 가까운 곳에 위치시킨다. 덜 중요한 사람일수록 바깥 쪽에 위치시킨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10개의 스티커를 준비한다. 10개의 스티커에는 각각 “책임”, “압력”, “즐거움”, “연대”, “돈”, “자유”, “가치”, “불안”, “도전”, “인식”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각각의 스티커를 각각의 영역에 붙이도록 하였다. 그 다음 원하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에도 자료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조화된 세트를 사용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자에게 관심있는 영역에 대해 접촉자를 할당하고 스티커를 붙이도록 한다. 그러나 네 명의 면접 대상자들은 작업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부터 추가적인 네트워크 차트를 만들었다. 결국 우리는 13개의 네트워크 차트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4) 표본

이 연구에서는 김나지움 또는 레알슐레에 다니는 14~17세의 청소년 16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부록 참조). 남녀의 비율을 같게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도시와 농촌, 동서 독일지역에서 추출하였으며 이른바 학교에서 좋은 학생과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포함시켰고,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갖는 청소년과 그렇지 못한 청소년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한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학교에서 인기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그리고 미디어에 폭 빠져 있는 청소년과 적절히 사용하는 청소년들을 포함시켰다. 대상자들로부터 부모의 학력, 사회적 지위, 직업을 물어 가정배경을 파악했다.

면접은 개별적으로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반구조화된 면대면 면접조사로 35분에서 60분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10~20분 정도 조사하였다.

3. 청소년의 또래, 교사, 부모와의 관계

1) 독일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것들

대부분 독일 청소년들은 분명 가족과 친구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한다. 자신들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물으면 대부분 먼저 가족을 들고, 친구를 든다. 가족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지와 협조를 얻는다. 가족과 친구 모두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들에게 더 중요하다. 아직까

지 가족에 관한 한 젠더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이것이 가족이나 친구가 남자아이들에게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이 거의 가족과 친구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과는 달리 더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갖는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가족내에서 부모와 형제자매들 지내려고 하지만, 몇몇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집을 떠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친구들은 대부분 동등하게 중요하지만, 특정 친구들은 더욱 친근하다. 청소년들은 친구들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발견한다. 또한 친구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지지와 협조를 보내며, 부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일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 가족과 친구 이외에 청소년들은 학교, 교육, 장래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떤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교육과 경력을 중요시하며, 또 어떤 청소년들은 스포츠나 여가생활, 자유와 돈, 사랑, 신뢰와 정직, 음악, 사회참여, 장래, 컴퓨터와 TV, 휴일의 일상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어떤 청소년들은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에도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대체로 음식, 안식처, 건강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독일 청소년들이 자아발달이나 사회적 독립, 권력의 쟁취 또는 사회적 영향력, 지위와 부와 같은 것보다는 사회적 접촉을 중요시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행복해 지는 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2) 장래에 대한 꿈과 계획

청소년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장래에 대한 꿈이다. 이 때에도 가족, 친구, 경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교육과 경력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자신들이 꾸밀 장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씩 나오곤 한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 사회의 시대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청소년들은 대개 교육을 마치고 직업을 갖게 된 다음 가정을 꾸미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장래의 꿈에 대해 물으면 전형적인 대답은, 졸업시험을 합격해서 좋은 직업을 찾고 생계비를 번 다음 파트너를 찾아 결혼해서 가장을 꾸미고 싶다는 식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

의 대답은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말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혼하고 싶은 이성친구가 없으며 대부분 아직 청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14·17세의 일부 청소년들만이 이미 청혼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부는 이미 뉴욕에서 오페어(au pair)로 1년쯤 보내겠다, 여배우가 되겠다는 식으로 분명한 미래 계획을 세워놓았다. 누구는 14년간 군복부를 하겠다, 21살, 25살에 아버지가 되어 집을 짓고 가족을 꾸미고 개를 키우겠다는 식으로 계획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미래와 자신들의 꿈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실업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는 듯하다. 배우와 같이 선택한 직업이 매우 불안정한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3) 부모와 가족

(1) 부모에 대한 태도와 가정 교육

설문조사에 기초한 셸 청소년보고서(Shell Youth Report)는 대부분의 독일 청소년들이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Langness/Leven/ Hurrelmann 2006: 57ff). 15%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부모가 키워준 것과 똑 같은 방식으로 자식을 키우겠다고 응답했고, 56%가 부모들이 자신들을 대하는 방식대로 자식들에게 해 주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20% 또는 전체적으로 7%가 다른 방식을 택하겠다고 응답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이 20여년간 자신을 키워준 부모들의 방식에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5년에는 53%만이 부모와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겠다고 한 바 있다. 2006년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교육방식이 권위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가정내에서 신뢰와 설명과 대화에 기초한 민주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부모를 부모로서 좋아하는지, 아이가 있다면 자신의 부모와는 다르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부모가 무엇을 해 주었으며, 자신들을 믿어줬는지 도움을 주었는지 물었다. 청소년들은 자유를 소

중하게 생각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잘 해내기를 바란다. 자신들만의 경험을 쌓기를 원한다. 물론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때때로 얼마나 자유를 줄 것인지 애매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능력, 어떤 가치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 것은 여전히 부모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 청소년들은 현실세계에서 자신들을 검증해 보고 싶어한다. 만일 그들이 실패하거나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얻게 될 때, 또는 나쁜 친구를 사귀거나 취미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될 때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가 개입해 주길 원한다. 또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취미활동을 배우고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운동할 기회를 줄 때 감사해 한다. 부모들이 충분히 자유를 주지 않거나 책임져주지 않을 때 불만을 토로한다. 어떤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며 집에서 보다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갈등은 주로 엄격한 귀가시간, 컴퓨터 사용, 집안일 돕기와 같은 것 때문에 생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육방식이 너무 엄할 때 갈등이 야기된다. 이럴 때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고 느낀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많은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부모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을 가장 큰 불만이라고 말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는 커닝 소리치거나 하는 일들이 불만이지만, 대부분의 심각한 불만은 부모가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주지 않을 때이다. 결국 가장 좋은 부모-자녀관계란 부모가 자녀에게 자유를 주며, 신뢰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이런 느낌을 더 충족시켜주는 것 같다. 청소년들이 자녀에게 더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은 어머니이며, 아버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2) 가정의 규칙과 영향력

청소년기는 부모나 교사들이 정한 규칙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시기라고들 한다. 이 점으로부터 독일 청소년이 집에서 어떤 생활규칙에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어떠한지, 이런 규칙을 변화

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가정내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대부분 생활 규칙에 대한 것이며, 예를 들자면, 설거지나 쓰레기 버리기, 방정리, 청소, 다림질과 같은 것이다. 가정내 규칙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자 청소년과 남자청소년 모두 가정내에서 부모를 도와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집안일이 주어지는 등의 제재를 당한다. 그렇지만, 대체로 청소년들은 그러한 규칙에 동의하며,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려고 한다. 어떤 대상자도 이러한 규칙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다.

부모들이 엄격하게 하는 규칙은 청소년들이 집에 있을 때의 것들이다. 이런 규칙들이 대체로 받아들여지기는 하지만, 정해진 귀가시간이 종종 갈등의 소지가 되기는 한다. 일반적으로 규칙을 받아들이지만, 청소년들은 더 많은 자유를 원한다. 예를 들어, 낮 12시 또는 오후 1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한 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리고 컴퓨터 게임시간, 숙제시간, 잠자는 시간 등이 있다. 몇몇 가정에서는 저녁시간이 중요하다. 모든 식구가 저녁을 같이 먹어야 한 다든가 하루에 적어도 한끼 두끼는 같이 해야 한 다든가 하는 규칙이 그것이다. 다른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해야 한다는 규칙없이 개인화되어 있었다. 어쨌든 청소년들은 일상적인 가정내 규칙에 만족해 하는 것 같다.

한 대상자만이 규칙 안에 일종의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모자녀간의 정직, 예의 그리고 도박금지 등과 같은. 이러한 것도 분명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대체로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서 인지되고 있지는 않다.

부모가 만든 이러한 규칙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다양했다. 몇몇 대상자들은 부모들을 설득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반면, 다른 대상자들은 왜 그런 규칙을 바꿔야 하는지 피력하였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규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인내와 기술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합심하거나 좋은 기회를 기다리거나 다른 일을 맡는 식으로 협상하는 방법 등이다.

(3) 부모의 자녀교육 중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청소년들이 부모의 교육방식 중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로부터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물었다. 대답은 다양했다. 관용, 책임감, 대인관계능력, 신뢰감, 인내, 사회규칙 준수, 매너, 노인공경 등과 같은 것들이다. 대체로 청소년들이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기술에 대한 것이다. 몇몇 청소년들은 독립심을 들었다. 부모가 독립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것이다. 일부 대상자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독립의 강조가 스스로 요리를 하거나 생활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감각에 대한 것일 경우도 있다. 어떤 대상자들은 도구를 다루거나 창의성을 발휘하는 등의 실제적인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자전거를 탄다거나 컴퓨터를 다루거나 운전하거나 하는 등 기본적인 능력 이외의 것들을 들기도 하였다.

4) 교사와 학교

(1) 학교다니는 목적

학교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학교에서 공식적인 교육을 받고 친구를 사귀며 이성교제도 한다. 그러므로 독일 청소년들은 학교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으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는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도록 해주는 곳이라고 말한다. 학교에서 하루종일 배우고 또 일한다. 직업의 세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운다. 도제가 되거나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 간단히 말해, 학교는 직업 준비하는 곳으로 이해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듯하다. 그들은 학교가 장래의 직업을 준비시켜주는 곳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매우 다양한 것들이 다뤄져야 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 예를 들어, 수학을 매우 어려워 하면서도

장래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공학이나 수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 배운 모든 공식들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화학이나 물리학, 음악, 예술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교육의 정당성을 받아들이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지루해 하며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문적 교육의 목적은 전문적이거나 일반적인 지식만이 아닌 사회적 기술과 소통의 기술, 민주적 실천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사회적 가치나 민주적 실천, 사회규범과 같은 것들에 대해 의사소통하는지 물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주제들과 학문적인 교육과는 관련이 없다고들 대답하였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나라로부터 온 학생과의 문제, 영어의 중요성, 교사의 불공평한 태도, 학교의 좋은 점, 생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지식, 브레인 스토밍학습, 싸움질 하는 친구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수의 학생들은 정치학에서 배운 민주주의나 뉴스의 이해를 돕는 주제들에 대해 말하기도 하였다. 한 학생은 독일주정부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게 된 것 그리고 그녀가 던진 표가 정치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게 된 것에 감사해 했다. 그녀는 또 세간의 이슈에 지견을 갖게 해 준 종교에 대한 수업에 대해서도 가치를 두었다. 2명의 학생은 갈등을 다루는 방법이나 노인을 공경하는 방법 등에 대한 사회행동을 배울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

학생들의 생각을 통해서 학문적 교육의 주요기능이 일반적이고 특수한 지식에 그치지 않고 사회기술과 가치를 배우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이 분명히 사회적 기술이나 민주적인 기술에 대해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것이 학교교육의 효과라고 생각지 않는 듯하다.

(2) 교수질에 대한 요구

우리는 좋은 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물었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었다. 대답은 주로 교사의 수업의 질에 대한 것에 몰렸다.

요약컨대, 좋은 교사란 정의롭고, 지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주제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명석하고 재미있어야 한다. 권위도 있어야 한다. 가르치는 스타일은 참여적이어야 하고, 교수학습상에 있어서는 그룹작업과 프로젝트 수업이 선호되었다. 사실을 배우는 것은 지루하며, 학급은 주제가 실생활과 밀접할 때 교사의 설명능력이 탁월할 때 더 재미 있어 한다. 성적은 좋은 나쁜 실제의 성취로 이어져야 한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허용적이지 않고 너무 엄하다고 불평하였다. 권위가 없거나 학급을 조용하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낮게 평가된다.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들은 떠드는 친구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교사를 비난한다. 이를 통해서 교사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교사에게 반항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학생의 직업이며 질서를 잡는 일은 교사의 몫이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숙제를 내주고 공부를 종용하는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학습의 책임을 떠맡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3) 인기 있는 친구와 인기 없는 친구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에서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학급친구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태도, 학급에서 포용되고 배제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어떤 친구들이 인기가 있으며, 또 어떤 친구들이 인기가 없는지 물었다.

인기있는 유형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사회성이 있는 친구, 다른 하나는 쿨한 친구이다.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은 학교생활을 잘 하며, 다른 친구들의 숙제를 도와준다든지 자신의 숙제를 복사해 주거나 하는 친구들이다. 이런 친구들은 모든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어떤 성격의 아이들과도 잘 지낸다. 그러나 정말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성적이 좋기 보다는 사회성이 좋아야 한다. 특히 이른바 파티 애니멀과 같은 친구들이 그 예이다. 많은 친구를 갖고, 그들과 갖가지 여가 시간을 보내며, 이런 저런 파티에 초대된다. 그리고 매주말에는 밖으로 나간다. 때때로 그들의 위트는 주목받고 다른 사람을 웃기는 재주를 갖고 있다.

두번째 쿨한 친구들은 옷을 잘 입고, 최신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그들의 인기는 다른 친구들을 현혹시키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오는 듯하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거만하고 자만하며 이기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들의 힘은 다른 친구들을 헐뜯는 데서 온다. 이런 유형들은 매우 인기가 있거나 꺼려진다. 이런 그룹 안에서는 전통적인 젠더의 역할이 강하게 작용한다. 여자 청소년은 예쁘고 옷을 잘 입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남자 청소년 역시 외모 때문에 인기가 있으며, 싸움을 통해서 남성성을 과시한다. 또한 그들의 인기는 교사에 대한 일종의 반감 같은 것에서 오기도 하고, 긍정적인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교사들의 편에 서 있는 듯 하다.

사회적이거나 쿨한 것이 청소년들의 인기의 비결이라면, 어떤 아이들이 배제될까? 조사결과 세 그룹으로 드러났다. 하나는 소심한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어린애 같은 유형이고, 나머지 하나는 공격적인 유형이다.

소심한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과 대화가 적고 혼자 음악듣기를 좋아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듯하다. 그들 중 일부는 같이 어울리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지 못한다. 다른 경우는 아예 다른 친구들에게 관심이 없는 경우이다. 어쨌든 두 가지 유형 모두 거의 혼자서 보낸다.

공격적인 학생들은 늘 밀치고 싸우려들기 때문에 신뢰를 저버린다. 그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터무니없는 말을 많이 한다. 그들은 때때로 다른 아이들을 위협하는 이상한 아이들이다.

세번째 그룹은 너무 어린애 같은 행동 때문에 인기가 없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식의 옷을 입고, 쿨하거나 여자답거나 남자다운 외모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더욱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거나 하는 일에 몰두한다. 그들의 성적이 좋거나 학급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라면, 그러면서도 특히 다른 친구들에게 숙제물을 보여주거나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라면, 일간이 취급을 받는다.

5) 또래와 친구

(1) 친구의 존재이유

또래는 여가활동과 소비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래들은 역할모델이 되고 감정적 기술을 익힐 기회를 준다. 평등하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다양한 역할 안에서 보호되고 또 사회규칙을 가르쳐 준다(Hurrelmann 2005). 그러나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또래는 이러한 모든 사회화과정을 가족과의 경쟁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일까 아니면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친구들은 독일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하다. 독일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친구를 만들며, 또한 스포츠 클럽에서 친구를 많이 만들게 된다. 친구수는 청소년들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오로지 한 친구만을 들기도 하고 2-3명을 들기도 하며, 또 어떤 청소년들은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 친구수에 관계없이 친구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청소년들은 자유로워지고 즐기고 잡담을 나누고, 학교문제를 토론하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말한다. 친구는 한 마디로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도 친구간에 중요한 이슈이다. 부모와의 문제를 말하거나 이성친구 얘기를 한다. 친구관계의 질은 서로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렸다. 다른 친구들의 비밀에 대해 얘기하는 반친구는 친구 그룹에 속해는 있어도 가장 친구 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관계는 매우 가치롭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반친구를 친구라고 말하지만, 더 엄격히 말할 때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몇몇의 좋은 친구만을 말한다.

친구들 사이에서 청소년들은 자기 확신을 갖게 된다. 친구들은 이기적이거나 바보스러운 행동을 할 때 그것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다. 이 점에서 친구들은 부모에 대해서보다 정직한 듯이 보인다. 친구들은 부모들보다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안다. 예를 들어, 방과후 일과에 대해 또래끼리 자주 이야기 한다. 음주경험과 같은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경험들은 부모에게는 말할 수 없다. 친구들은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

(2) 여가활동

우리는 친구들과 만나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물었다. 함께 하는 여가활동은 다양하다. 음악축제에 가는일, 록콘서트, 카니벌, 연극축제, 영화 등. 쇼핑, 수영, 댄스, 아이스 스케이팅 등. 공원을 거닐고, 개와 산보하고, 운동장에서 만나고, DVD를 보고 자전거를 타며, 밖에서 마시고 담배피고, 바베큐파티를 하며, 요리도 하고 음식점에서 식사도 한다. 어울려 다니며 잡담하고 음악듣고 파티에 참석하고 취미를 공유하며, 성가대에서 함께 노래하고, 공차거나 탁구를 즐기며 소방대 활동을 하고 교회의 여름축제일을 돕고, 이성에 대해 말하고 장래에 대해서 말한다. 그들은 논쟁하고 서로 화해하며, 컴퓨터게임을 하고 정원을 거닐거나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컴퓨터 게임과 축구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활동들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공통적이다.

(3) 또래 압력

앞에서 보았듯이 또래에 대한 용인, 허용, 동의는 독일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 동안 청소년들은 자신의 퍼스널리티를 발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정체성 발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또래간의 상호작용이다. 자신들의 또래로부터 동의를 얻고, 친해지는 방법을 배운다. 왜냐하면 각각의 삶과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사이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친구들로부터의 압박은 있는지 물었다. 대답은 일관되게 ‘없다’였다. 또래압박은 전혀 다른 세계의 것이며, 또래집단에서 그런 것은 없었다. 또래압박이나 또래집단 내 리더의 존재를 강하게 부정하는 것은 또래압박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충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제안하면 단순히 따른다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반대하면 다른 뭔가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정은 민주적으로 한다는 것이

다. 모두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다수의 원칙에 따른다고 말한다. 때때로 이번주에는 이것을 하고 다음에는 다른 것을 하는 식으로 타협하기도 한다.

어쩌다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모두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들 한다. 어떤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될 때 토론은 길어지게 된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양보하게 되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통제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것으로 보인다.

두 대상자는 또래 안에서의 갈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둘 다 몇몇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의 동의없이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경우이다. 어떤 이유에선가 이들 새 멤버들은 집단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몇몇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룹에 머물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그들은 친구들과 논쟁할 수 있고, 때론 원하지 않는 결정에 따르기 보다 친구관계를 끊기도 한다. 갈등은 때때로 정치적인 입장차이로부터 생기기도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심각하지는 않은 듯하다.

(4) 부모와 친구에 대한 신뢰

또래가 조언자로서 부모를 대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제가 생길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말하는지 물어보았다. 부모와 친구는 둘 다 가장 중요한 조언자이자 신뢰자이다. 한 대상자만이 학교 내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교사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먼저 부모나 친구에게 문제를 말하거나 양쪽에 다 털어놓는다. 부모를 제외하고 친구에게만 말한다는 그룹은 매우 적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친구들을 신뢰하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달랐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친구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의 패턴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 주제의 선택은 부모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학교에서 문제가 있거나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부모에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친구에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성교제에 대해 어머니에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친구에게만 말하는 아이들도 있다. 어떤 아이들은 가족문제를 친구에게 말하는가 하면, 친구와 싸운 일을 부모에게

말하기도 한다. 또 모든 것을 가장 친한 여자 친구에게만 말하는 아이도 있다.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부모가 더 신뢰를 받는 듯 하다. 이성과의 문제는 또래와 더 이야기 하는 편인 듯 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경향일 뿐이다.

4.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수단

1) 미디어와 여가생활

여가활동은 청소년에게 즐거운 일일 뿐아니라 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독일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여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셸 청소년보고서(Shell Youth Report, 2006: 78)에 따르면 음악을 듣거나(63%), TV 보기(58%), 친구만나기(57%)가 가장 일반적인 여가활동이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38%), 클럽활동과 파티(31%), 독서(28%), 컴퓨터게임(20%), 가족과의 활동(19%) 등이다. 이것을 2002년 Youth Report 와 비교해보면, 최근의 통신기술 발달과 관련된 활동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시간이 증가했다. 2006년에는 청소년들이 평균 일주일에 9.3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7시간이었다. 특히 남자청소년들의 경우가 두드러진다. 컴퓨터게임의 경우에는 젠더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사회화의 강력한 도구이다. 이런 도구들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다. 물론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컴퓨터 게임상의 폭력과 그 영향력은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TV앞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은 과제중이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TV, 인터넷, 핸드폰, 컴퓨터게임, 인터넷게임, 책, 잡지, 영화, 음악의 이용에 대해 물었다. 연구결과는 위에서 말한 조사결과들과 일치하였다. 대부분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하였다. 물론 사용방법은 다양하였다. 전체적으로는 4가지 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번째 그룹은 미디어를 폭넓게 사용하는 그룹이다. 인터넷을 하고 친구

와 채팅을 하며, 음악을 듣고, TV도 보고, 거의 동시에 그리고 모든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일단 라디오나 TV를 켜고 숙제를 하는 동안에도 음악을 듣거나 TV를 본다. 이런 청소년들은 모든 류의 사람들과 채팅을 한다. 오랜 친구, 학교친구, 채팅룸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 새로 알게된 여자친구 등. 그들은 늘 모든 이들과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며, 채팅한다. 어떤 내용을 주고 받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내용보다는 그 자체를 즐기는 듯하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해서 학교과제를 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한다.

두번째 그룹은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그 정도가 덜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런 류의 청소년들은 연속극이나 코미디 같은 것 보기를 좋아하며, 음악을 많이 듣는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채팅을 한다. 그러나 단지 아는 사이하고만 채팅을 한다. 인터넷을 하기는 하지만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게임기를 가지고 놀지만, 놀상 하는 것은 아니다. 핸드폰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이유는 전화수신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선불카드양이 많지 않아서이다. 그들은 쉬고 싶을 때는 TV를 보거나 다른 것들을 한다. 모든 미디어를 다 사용하기는 하지만, 친구 또는 가족들과 보내는 더 재미있는 것들을 더 선호한다.

세번째 그룹은 컴퓨터게임에 빠져 있는 그룹이다. 다른 그룹처럼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채팅과 문자를 사용하지만, 대부분 게임에 시간을 쓴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세계의 상대들과 또는 친구들과 또는 가상의 상대와 상대한다. 그들에게 게임은 도전이요 모험이며, 소통이다. 게임은 친구들과 주로 하는 대화의 재료이기도 하다. 이런 유형은 주로 남자 청소년의 경우이다. 물론 대상자 중에는 여자 청소년이 하나 있기는 했다. 이로부터 여자청소년들이 전혀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러나 매우 드문 것은 사실이다.

네 번째 그룹은 제한적으로 또는 의미있게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장치를 사용한다. 그들도 음악을 듣지만, 제한적이거나 특정한 방식으로만 이용한다. 그들은 핸드폰과 이메일을 약속을 정하거나 뉴스를 교환할 때만 사용한다.

다. 그들은 가끔 TV를 볼 뿐이며, 또 친구들과 함께 DVD를 본다. 관심있는 영화만을 본다. 이런 청소년들은 신문이나 책읽기를 더 선호한다. 미디어 사용방법을 주별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환경의 변화를 주기위해서다. 문학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책은 주로 학교교육을 목적으로 읽는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많이 읽지 않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낯선 사람과 채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흥미롭다. 부모들은 침실에서의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거나 친구이외의 사람과 채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다.

2) 미디어와 사회

미디어 사용과 커뮤니케이션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60년간 미디어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물었다. 미디어 소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꽤 긍정적이었다. 한 남자아이는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가 너무 빠르고 쉬워져서 사람들이 이전 시대에서는 성공적이었는지 판단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다른 아이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늘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채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TV 채널이 많아지면서 서로 다른 것들을 보기 때문에 대화의 소재가 늘었다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다. 친구들과 채팅을 하면서 숙제를 끝낼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아이도 있었다. 외국의 사정이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다고 하는 아이가 있었고, 갈등과 전쟁에 관한 소식을 통해 세상이 점점 평화로워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아이도 있었다.

반면, 사람들이 TV에 빠앗기는 시간이 많아 친구들을 더 적게 만나고 사회활동도 줄어드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만나지 않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사회적인 유대가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항상 약속을 바꾸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컴퓨터 게임이나 TV가 점점 잔인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과 그로부터의 나쁜 영향에 대한 지적도 있

었다. 또한 미디어의 정보가 가끔씩 진실을 오도하거나 아예 해악적인 경우도 있다는 지적과 사회적 통제가 어려워 인터넷 상에서 너무 쉽게 논쟁이 인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람들이 TV시리즈 시간에 맞춰 스케줄을 조정하는 일이 생기고, 싸우는 장면이나 성애장면을 찍어 메일로 유포하는 일조차 생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강조하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미디어와의 밀착은 거의 일상화되어 있어서 미디어 없는 청소년의 삶은 상상하기 힘들다.

3) 잠재적 역할 모델로서의 유명인

유명인들이 역할모델로서 기능하는지 물었다.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실제로 우상을 찾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다. 대답은 일관되게 ‘아니다’였다. 특별히 좋아하는 유명인, 음악가, 배우 등이 있는지 물었다. 대체로 한두 명의 음악가나 뮤직 밴드, 배우, 사회자, 예술인들을 들었다. 이들이 역할모델이 되거나 따라하거나 하는지의 물음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답변이었다.

때때로 그들은 삶의 역할모델을 어머니에서 찾곤 한다. 미디어상의 누군가와 경쟁하고 싶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 또한 그런 유명인들의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그것은 어떤 우상을 만들 때 그것에 대한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아이도 있다.

한 여자아이는 두 명의 배우를 역할모델로 들었다. 배우가 되길 원하고 있었다. 한 남자아이는 배우를 모델로 삼고 있는데 그는 극장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축구스타를 꿈은 다른 남자아이와 옛 테니스 스타를 모델로 삼고 있는 아이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유명인을 받들 만큼 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유명인들을 그저 가볍게 생각하거나 적어도 강렬한 것은 없는 듯이 보이며, 유명인에 대한 갈망은 그저 자기들끼리 오고 가는 가운데 생기는 것으로 보이며,

역할모델은 실생활 속에서 또는 적어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는 것으로 보인다.

5. 사회접촉의 의미와 구조 - 네트워크 분석

1) 접촉의 양과 사회그룹의 중요성

부모와 교사 그리고 또래를 어느 정도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네트워크 차트를 사용해서 사회네트워크 구조를 그렸다. 첫번째 목적은 접촉의 양을 알기 위해서이다. 청소년들이 그린 접촉 수나 종류는 매우 다양했다.

단지 몇 명밖에 그리지 않는 대상자가 있는가 하면, 거의 30개의 접촉을 그린 대상자도 있다. 예를 들자면, 한 대상자는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오래된 친구, 모친, 조모 그리고 기타 다른 친한 사람들, 즉 숙모와 삼촌, 운동친구, 반 친구 등. 이런 그룹들은 청소년들의 중요한 기능을 갖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어떤 특징적인 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반친구의 경우를 보자면, 이 친구를 가장 중요한 관계로 볼 수 있느냐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다른 아이들은 개인적인 관계만을 든다. 개인과의 접촉을 선호할수록 집단이나 그룹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개인 접촉 수는 차트 범위 안에서 4~29사이로 분포한다. 그룹수는 1~8까지 있다. 그룹을 말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룹을 낸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단지 중요한 접촉자를 차트에 적으라고 했을 뿐이다. 아마도 개인은 그들이 말하는 사회네트워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친구나 친척들은 특별히 중요하지만, 스포츠클럽,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교사들, 반친구들이나 예술반 친구들과 같은 더 큰 그룹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룹은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구조 중에서 중요하다.

접촉의 수에 관해서는 젠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 일반적으로 기대되듯이 연령과는 관계가 있어서 연령이 높을수록 접촉수가 많아진다. 가족

구성원들은 더 자주 언급된다. 독일 청소년들은 2~11 가족구성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친척이 중요한 그룹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할아버지, 숙모와 삼촌, 형제자매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발견은 놀랄만한 것이다. 우리는 형제자매가 친척보다 더 친구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충족되지는 않았다. 형제자매가 중요하게는 여겨져도 그것은 특별한 관계기때문이라기보다는 단지 형제자매라서 그런 것이다. 독일은 핵가족이 일반적이라서 가족은 부모와 한 자녀로 구성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차트에 나타나는 친구의 수는 가족보다 많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설 역시 입증되지 못했다. 대부분이 친구보다 더 중요한 접촉자로서 가족을 더 많이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다른 관계가 덜 중요해 지는 핵가족에서 자라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오히려 숙모, 삼촌, 조부모가 중요한 접촉자로 언급된다. 게다가 이혼한 가정에서는 가족수가 줄어들지 않는데, 이혼 후 재혼한 부모로부터 가족구성원이 늘어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가족이 중요한 접촉자로서 가장 많이 선택되었지만, 그렇다고 가족이 가장 중요한 사회네트워크라고 말할 수는 없다. 몇몇 젊은이들에게 가족은 분명 제일 중요하지만, 다른 청소년들에게는 친구가 사회 그룹으로서 가장 중요하다. 가족 아니면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 번째로 중요한 네트워크 접점은 학교다. 단 한 대상자(여)만이 학교를 두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친구를 세 번째 우선순위에 두었다. 대부분은 네 번째 것으로 음악, 연극, 탁구, 헬스클럽, 미디어, 댄스 등과 같은 여가생활을 들었다. 그리고 몇몇 청소년들은 학교를 네 번째로 여가생활을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2) 접촉의 구조

(1) 네트워크 1 : 가족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접촉의 양 뿐 아니라 이들 접

족과 주관적 중요성의 구조이다. 가족 내에서는 대부분은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모든 가족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자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를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는 대상자도 있었다.

대상자들은 두 번째 영역 안에다 먼 친척이나 가족과 먼 관계의 인물을 넣었다. 두 번째 영역에 친척을 넣거나 형제자매를 넣은 대상자도 있고, 많은 대상자가 이 영역에 아무도 넣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를 1영역에 넣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혼 후 아버지와 살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아버지는 어머니의 위치보다 거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두 대상자에게는 아버지가 더 중요했다. 다른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아버지는 좀 멀거나 함께 하지 않는 존재였다.

경우는 매우 다양하나, 한 가지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가족관계에 있어서 혈연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머니가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양육에 있어서 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더 큰 역할을 할 때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가족의 유대는 생물학적 지위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친구를 선택할 뿐아니라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가족을 선택한 것을 설명해 준다.

(2) 네트워크 2 : 친구

친구수는 하나에서 아홉까지 범위가 넓다. 종종 청소년들은 하나 내지 두 개 그룹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그냥 친구와 가장 친한 친구의 그룹을 구별한다. 여자아이들은 자주 한 두 명의 절친한 친구 또는 남자친구 그리고 학교 친구들 그리고 클릭을 가지고 있으며, 오로지 한 명의 절친한 친구만 가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여자아이들은 하나의 절친한 친구가 매우 중요하다. 남자아이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몇몇 남자 청소년들은 같은 친구관계의 패턴을 보였다. 한 명의 가장 친한 친구-가끔씩은 여자친구, 한 명의 여자친구와 학교 또는 클럽 친구들과 같은 패턴이다. 나머지 대상자들은 대체로 동등하게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말했다.

애정어린 친구의 개념은 여자청소년들에게서 더 중요했다. 남자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런 친구를 종종 여자친구들 중에서 골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가족과 비교해서 친구관계는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구관계는 특히 남자청소년에게 더 중요하다(더 넓은 영역에 위치함)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러나 사례수가 적어서 젠더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것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여자청소년들은 여자친구가 많고, 남자청소년들은 남자 친구가 많은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모두들 이성 친구와도 매우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차트 상에서 언급한 친구들이 학교친구였으나 그들을 학교영역에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학교와 친구는 별개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실제로 그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또 실제로 학교친구이지만 말이다.

(3) 네트워크 3 : 학교

학교영역에 위치한 접촉자들은 거의 모두 교사이며, 다음으로 반친구와 클럽친구(음악, 합창단, 연극, 학생잡지 등)였다. 몇 명만이 학교영역에 친구를 위치시켜놓았다. 그렇다면, 교사는 중앙에 더 가깝게 위치 할테지만 단 한 명의 대상자만이 교사를 안쪽 원에 놓았고, 다른 대상자들은 두번째 또는 세번째 영역에 위치시켰다. 이것은 교사와 학생간에 감정적인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대상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이다. 교사는 우상도 아니고 신뢰자도 아니다. 영역 안에 놓인 교사의 수는 1~7이다. 어떤 대상자들은 아예 교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기도 했다. 한편 몇 대상자들은 학교 영역에 어떤 접촉자도 거명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대한 느낌만을 적어 놓기도 했다. 한 대상자는 학교는 배우고 재미를 주는 곳이지만, 불안과 압박이 있는 곳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상자들은 학교는 단지 배우는 곳이라고 썼다.

3) 가족, 친구 그리고 학교에 대한 이미지

사회적 접촉이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상이한 대상, 그룹, 영역에 있어서의 이미지를 물었다. 우리는 “책임”, “압박”, “기쁨”, “결속”, “돈”, “자유”, “가치”, “불안”, “도전” 그리고 “인지”라고 쓰인 말들이 적힌 스티커를 나눠주고, 각각의 네트워크 그룹에 붙이도록 했다. 물론 이 스티커의 사용은 자유롭다(참조 : 부록 3).

가족에 대해서는 주로 “책임”, “자유”, “연대”, “돈”, “가치”, “인식”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었다. 몇 명의 대상자만 가족과 “기쁨”, “압력” 또는 “도전”, “불안”을 관련지었다.

친구에 대해서는 주로 “기쁨”, “연대감”, “자유”, “인식” 그리고 ; “책임”, “가치”, 와 “압력”을 연결시켰다. 누구도 친구와 “돈”, “도전”, 그리고 “불안”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키지 않았다.

반면, 학교에 대해서는 “압력” 그리고 “도전”, “불안”을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인식”과 “책임”을 연결시켰다.

어떤 대상자도 학교와 “가치”, “돈”, “자유”, “연대감”, “기쁨”을 연결시키지 않았다. 학교에 연결된 단어들이 대부분 부정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가족과 친구는 청소년기에 유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듯 하다. 둘 다 강한 연대감을 가져다주며, 특히 친구가 가족보다 더 그렇다. 이런 결과는 반드시 가족내 사회적 결속이 더 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족내에서는 밀접한 관계와 상호적 지지가 다소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친구간의 사회적 결속은 매우 가치있는 것인 동시에 아주 특별한 것으로 경험된다. 그러므로 친구간의 연대감은 당연하게 여겨지며, 그래서 더욱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연대감과 마찬가지로 “인식”도 두 영역에 걸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부모와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사실은 특히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부모에게 강하게 반발하는 시기라고 묘사되던 사춘기에 있어서 조차 부모와 친구 사이의 좋은 관계를 다시금 말해준다.

오늘날은 권위주의로부터 대화중심적인 민주주의 식으로 양육스타일이 변

하면서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를 교육자이자 때로는 친구로까지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자기가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이 되고 싶으며 또 어떻게 그렇게 되고 싶은지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알고자 하며 받아들인다.

부모로부터 인정받은 것뿐 아니라 부모의 친구로서도 이해되길 원한다. 이 두 그룹(부모와 친구)이 만족스런 사회환경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

“자유”는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 모두 경험될 수 있는 것인데 반해, “돈”은 분명히 가족과 관계된다. “돈”은 5명의 대상자가 언급했으며, 모두 가족영역이었다. 이것은 부모들이 돈에 대해 말하거나 용돈쓰기에 대해 관여하고 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돈이 모자란다는 것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리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한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해서 친구들로부터 배제되는 일 같은 것을 면접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었다. 학교가 돈과 관련이 없다는 것도 흥미롭다. 독일에서 학교교육은 무상이지만, 책이나 기타 학습교재들은 여전히 비싸고 중요하며, 학교는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학교가 장래의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돈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는 않는다.

“가치”는 친구나 학교보다는 가족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네 명의 대상자가 가치를 가족의 영역에 두었으며, 한 명은 친구에게 두었다. 그러나 아무도 학교에 두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가치는 친구들 사이에서 생성되기 보다는 가족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으로 보인다.

“불안감”은 가족, 친구 어느 쪽에도 관련되지 않았다. 단지 학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명의 대상자가 “불안감”을 학교 영역에 두었다. 누구도 가족이나 친구에 영역에 두지 않았으며, 이것은 “압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긍정적 단어인 “도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학교는 오히려 도전이나 요구 영역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이며, 가족과 친구는 도전과는 거리가 있었다.

“책임감”은 반대로 가족과 관련이 되며, 이것은 책임감이 청소년들의 가치

체계에 있어서는 도전과 강한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가족은 청소년을 교육을 통해 책임감을 전수하여 장래의 삶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족과 친구는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가치와 관련이 있으며, 반면, 학교는 “압력”이나 “불안감”같은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과 친구가 인지(이해)와 연대감을 제공하는 반면, 학교는 뭔가를 요구하는 곳으로 이해된다. 가족과 친구는 청소년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동시에 책임을 요구한다. 분명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삶과 정체성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학교보다는 부모와 친구의 영향력에 더 가치를 둔다. 학교는 기쁨이나 재미와는 관련이 없는, 그저 교육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 학교 그리고 교사와 반친구에 대한 이러한 극단적인 평가에 대해 뭐라 단언할 수는 없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단지 청소년들의 주관적 관점이지, 청소년들에 대한 객관적인 영향력에 대한 것은 아니다.

6. 결론

독일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친구는 매우 중요하며, 행복을 얻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진실된 친구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자아발달이나 사회적 독립,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부모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성공적인 경력과 사회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친구와 가족이 가장 우선된다. 물론 가까운 장래를 고려할 때 좋고 재미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함께 해주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는 것들에 대해 감사해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부모들의 적절한 균형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래에 대한 기대는 다양하다. 친구수와 관계 없이 친구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친구들 가운데서 더 자유로움을 느끼고 함께 즐기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눈다. 그럼에도 친구관계의 질은 그들 안에서 얼마나 털어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친구들 사이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말할 권리를 갖게 되고 이런 면에서 친구끼리는 부모에 대해서보다는 더 솔직해 진다. 친구들은 부모들이 주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해 주고 평등하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나 친구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모로부터 조언을 구한다.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점에서 부모와 또래는 상호협력적이다. 한쪽에 문제가 생길 때 다른 한쪽에서 도움을 받는다.

교사의 역할은 부모, 또래와는 좀 다르다. 학교는 가족을 대체하는 곳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집처럼 따뜻한 곳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학교는 교육받고 목표달성을 위해 뭔가를 해내야 하는 기능적인 곳으로 이해된다. 인격발달이나 정체성 확립에 결정적인 곳이 아니다. 교사들은 신뢰받지도 못하며, 역할 모델이 되지도 못한다. 그들의 기능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며, 가르치는 일을 분명히 하도록 기대받는다. 교사들이 권위를 잃어버리는 일은 강하게 비난받는다. 교사-학생 간의 관계에서는 역할이 확실히 구분된다.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가급적 책임을 덜 짊어지려고 하는 듯하다. 학업성취는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바이지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결국 그들은 교사들이 그들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기대한다. 가능한 한 다그치지 않으면서...청소년들은 교사가 가르치는 기술이 부족한 것을 비난한다. 확실히 청소년들은 자신들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 부모보다 교사에 대해 더 반감을 갖는다. 부모자녀관계가 신뢰와 설명 그리고 대화에 기초한다면, 갈등을 통한 정체성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사-학생관계는 매우 특징적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사회환경을 매우 적극적으로 구축해 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친구를 선택할 뿐 아니라 부모와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도 만들어간다.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관계를 유지한다. 부모와의관계로부터 얻지 못하는 것을 친구들에게서 찾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또래는 신뢰자, 역할 모델, 정체성 형성의 측면에서 가족의 대체물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Glaser, Barney/ Strauss, Anselm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 Glaser, Barney (1978): Theoretical sensitivity. Mill Valley, CA: The Sociology Press.
- Böhm, Andreas (2000): Theoretisches Codieren: Textanalyse in der Grounded Theory. In: Flick, Uwe/ von Kardorff, Ernst/ Steinke, Ines (eds), Qualitative Sozialforschung. Ein Handbuch. Hamburg: Rowohlt, p. 475-484.
- Hurrelmann, Klaus/ Albert, Mathias (2006) (eds): Jugend 2006. 15. Shell Jugendstudie. Frankfurt a. M: Fischer.
- Hurrelmann (2005): Lebensphase Jugend. Eine Einführung in die sozialwissenschaftliche Jugendforschung. 8. Auflage. Weinheim/ München: Juventa.
- Langness, Anja/ Leven, Ingo/ Hurrelmann, Klaus (2006): Jugendliche Lebenswelten: Familie, Schule, Freizeit. In: Hurrelmann, Klaus/ Albert, Mathias (eds): Jugend 2006. 15. Shell Jugendstudie. Frankfurt a. M: Fischer, p. 49-102.
- Bernardi, Laura/ Keim, Sylvia/ von der Lippe, Holger (2006): Freunde, Familie und das eigene Leben. Zum Einfluss sozialer Netzwerke auf die Lebens- und Familienplanung junger Erwachsener in Lübeck und Rostock. In: Hollstein, Bettina/ Straus, Florian (eds): Qualitative Netzwerkanalyse; Konzepte, Methoden, Anwendungen. Wiesbaden: VS, p. 359-390.
- Hollstein, Bettina (2006): Qualitative Methoden und Netzwerkanalyse – ein Widerspruch? In: Hollstein, Bettina/ Straus, Florian (eds): Qualitative Netzwerkanalyse; Konzepte, Methoden, Anwendungen. Wiesbaden: VS., p. 11-36.
- Höfer, Bettina/ Keupp, Heiner/ Strauss, Florian (2006): Prozesse sozialer Verortung in Szenen und Organisationen. Ein netzwerkorientierter Blick auf traditionale und reflexiv moderne Engagementformen. In: Hollstein, Bettina/ Straus, Florian (eds): Qualitative Netzwerkanalyse; Konzepte, Methoden, Anwendungen. Wiesbaden: VS, p. 267-294.
- Straus, Florian (2002): Netzwerkanalysen. Gemeindepsychologische Perspektiven für Forschung und Praxis. Wiesbaden: Dt. Univ.-Verlag.

부록 1: 질문지 가이드라인

- 당신은 어디서 자랐나요? 그곳은 청소년들이 성장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좋은 곳이 있나요?
-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부모

- 미래의 당신의 자녀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했던 것 처럼 자녀를 키우고 싶은가요?
- 어떤 식으로 다르게 키우시겠습니까?
- 현재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는 엄한 규칙 같은 것이 있나요?
- 당신은 그 규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 부모님은 자녀에게 여러 가지 것을 가르칩니다. 당신 생각에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사/학교

- 학교는 당신의 삶을 얼마나 준비해 주나요?
- 당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선생님의 어떤 점이 좋은가요?
- 싫어하는 선생님은 어떤 점이 싫은가요?
- 학교가 지식 이외에 민주적인 실천, 가치나 도덕에 대해 가르치는 곳이라는 데에 동의하시나요?
- 학교 내 규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규칙들에 대해 갈등이 빚어질 때 어떻게 하나요?
- 학급에 친구들 중 인기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나요?
- 인기 없는 친구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또래/친구

- 친구들과 자주 만나나요?
- 친구들에 대해 말해 주시겠습니까?
-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친구들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부모나 교사로부터는 얻을 수 없지만, 친구들로부터는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친구 그룹 안에서 어떤 압력 같은 것이 있나요?
- 당신이나 친구들은 성적을 놓고 경쟁하나요?

역할모델/신뢰자

-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나요?
- 문제가 생겼거나 조언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나요?
- 가장 자주 논쟁을 하고 대화하는 상대는 누구인가요?

미디어

- 다양한 미디어와 의사소통 수단이 있습니다. TV, 인터넷, 핸드폰, 게임기, 인터넷 게임, 책, 잡지, 영화, 음악 등... 이 중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얼마나 자주 사용하나요? 그 미디어들은 따로 따로 사용 하나요 아니면, 동시에 한꺼번에 사용하나요?
- 영화, TV, 광고, 뮤직밴드 중 특별히 좋아하거나 따라하는 사람이 있나요?
- 당신은 역할모델이나 우상을 가지고 있나요?
- 부정적인 역할 모델 같은 게 있나요? 전혀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 오로지 TV밖에 없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할 때 미디어가 사람들의 관계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나요?

미래

- 장래의 꿈은 무엇인가요?
- 부모님은 당신의 잘래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당신에게 가장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나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적인 질문

- 나이는?
- 성은?
- 가족(형제자매, 부모님의 이혼여부, 부모의 직업 유무)
- 거주지(도시규모, 도시여부)
-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

부록 2: 면접대상자 일람

사례	이름	성	나이	도시
사례1	Tim	남	16	Herne
사례2	Erika	여	15	Gelsenkirchen
사례3	Mira	여	15	Gelsenkirchen Horst
사례4	Nadine	여	15	Gelsenkirchen
사례5	Elena	여	17	Bingen
사례6	Bianca	여	15	Wiesbaden
사례7	Erik	남	15	Wiesbaden
사례8	Kali	남	16	Erfurt
사례9	Alexandra	여	16	Bochum
사례10	Anna-Lena	여	17	Gladbeck
사례11	Friederike	여	17	Weimar
사례12	Heiko	남	15	Dortmund
사례13	Jakob	남	14	Marl
사례14	Lars	남	17	Gera
사례15	Marcel	남	14	Dortmund
사례16	Stefanie	여	15	Essen

부록 3: 네트워크 분석(선택된 가치 일람)

속성	Family	Friends	School
인정	4	5	2
가치	4	1	-
책임감	7	3	2
돈	5	-	-
자유	5	6	-
연대감	5	7	-
기쁨	2	8	-
압력	2	1	7
도전	1	-	4
불안	-	-	4
기타			
신뢰	1	1	-
재미	-	-	1
의무	1	-	1
좋은 때나 나쁠 때나	1	-	-
성공	-	-	1

IX. 스웨덴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와 사회화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조사개관
3. 자료의 분석
4. 논의

IX. 스웨덴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사회화*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초등학교부터 12년 동안의 의무교육과정과 100%에 가까운 정도로 높은 고등학교의 진학율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학교라는 공간은 15년동안 가정과 함께 중요한 인성형성의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¹⁾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 맺어지는 또래친구,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는 부모 다음으로 인간관계의 형성과 성격, 그리고 진로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 청소년들은 어떤 학교환경 속에서 성장해 가고, 인성형성과 진로, 이성 및 다양한 청소년기 고민 등이 기간동안 다양하게 경험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스웨덴사회에서 또래친구들과의 다양한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인성을 형성해 가는 데 중요한 학교와 가정이라는 환경이 어떻게 그들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조사개관

1) 조사과정

스웨덴의 청소년 사회화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문제의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는 청소년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정책을 단편적인 청소년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 복지제도와 경제발전의 틀 속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것이다.²⁾ 이와 더불어 스웨덴 청소년의 인성형성과 사회화에 관한 연구를 여가 및 체육활동과 문화생활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려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다.³⁾

* 집필자 : 최연혁(남스톡홀름대학교 교수)

1) 중3학생의 97.5%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최연혁 (2007), 46쪽.

2) Ungdomsstyrelsen (1999), Ungdomsstyrelsen (2001a),

이 연구는 스웨덴 청소년의 사회화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두 달동안에 걸쳐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다양한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 스톡홀름의 지역을 시내 및 북부도심지역(1), 남쪽지역(2), 그리고 동부지역(3), 서북부 외곽지역(4)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다 <그림 IX-1>. 구분된 각 지역에 있는 중, 고등학교에 전화를 걸어 면접대상자 선정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학생들의 수가 지역별로 30명씩 120명에 이르렀다. 면접자료는 즉석에서 면접원이 기록한 후 당일 저녁에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 방식으로 모아졌다.



[그림 IX-1] 스톡홀름의 지역 구분

자료수집은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긴 했지만 매우 저조한 19명의 면접에 그쳐 15.8%의 회수율에 머물렀다. 전체 면접의 50%가 넘는 10건은 시내중심 및 북부도심 지역의 학생 들이 차지하고 있고, 남부, 동부, 북서

3) Ungdomsstyrelsen (2001b), Ungdomsstyrelsen (2005), Ungdomsstyrelsen (2006).

부 등 각각 4명, 3명, 2명에 이른다. 그 중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진 면접이 가장 많아 9건에 이르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여가시설 (7건), 그리고 가정 (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면접조사가 낮은 회수율에 그친 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면접 대상자의 확보가 매우 어려웠다. 학교장의 추천으로 만난 학생들을 직접 학교에서 인터뷰하거나 시간상의 이유로 학교 면접보다는 집에서의 인터뷰를 선호한 학생들은 추후에 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해 나가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생들이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다른 방법으로 면접대상자를 섭외해야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대상자를 섭외하기 위해 스톡홀름 지방자치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여가시설(Ungdomsgård; Youth Center)에서 면접조사를 시도했으나 똑같은 문제점에 봉착했다. 즉 면접자체가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면접 진행도중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처음부터 면접을 거부하는 비율이 높아 진행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하여 수집된 자료는 19개 밖에 되지 않았으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중도에 중단해야했다. 수집된 자료의지역별 분포 및 인터뷰 장소구분은 <표 IX-1>과 같다.

<표 IX-1> 면담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인터뷰 장소구분(스웨덴)

구분	배경변수	사례수	백분율 (유효 백분율임)
인터뷰 기간	2007. 09. 10 - 2007. 11.15		
스톡홀름 지역구분	시내 및 북부도심	10	52.6
	남부	4	21.1
	동부	3	15.8
	북서부 외곽	2	10.5
인터뷰 장소	학교	9	47.4
	가정	3	15.8
	기초단체 청소년 여가시설 (Youth Center)	7	36.8

2) 면접대상자의 특징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자는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 19명이다. 면접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IX-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남, 여의 성구분에 있어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13명 (68.4%)이 여학생이고 남학생은 고작 6명 밖에 이르지 않는다. 이는 면접원이 여성 2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학생들이 더 쉽게 면접에 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면접에 응한 학생들의 어머니 교육수준을 보면, 대졸이상이 10명으로 52.6%를 차지하고 나머지 9명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모두 높은 교육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스웨덴의 교육제도가 대학원까지 무료이고, 교육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교육참여율이 높을 뿐 아니라, 스톡홀름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학생가정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면접대상자 중에서 중학교 학생은 36.8%에 해당하는 7명이었고, 나머지 63.2%인 12명은 고등학생이었다. 학업성취도를 보면 47.4%에 해당하는 9명이 성적상위층에 속했고, 나머지 52.6%인 10명의 학생들도 모두 중위층에 속하는 학생들로 면접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스톡홀름의 상류층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가 및 북부도심지역에 이루어졌고, 스톡홀름 전반적으로 학업성적이 질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표 IX-2> 면담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스웨덴)

구분	배경변수	사례수	백분율 (유효 백분율임)
성별	남	6	31.6
	여	13	68.4
어머니의 교육수준	대졸이상	10	52.6
	고졸	9	47.4
	중졸 이하	0	-
학교급	중학교	7	36.8
	고등학교	12	63.2
학업성취	상	9	47.4
	중	10	52.6
	하	0	-

3. 자료의 분석

1) 친구관계: 일상생활 관련

(1) 친구를 사귀게 되는 장소

스웨덴 학생들의 친구관계 형성 과정을 보면,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같은 학급에 배정되어 만나는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다. 중학교 때 만나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정을 유지하며 만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으며, 이성친구의 경우 관계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져서 5-6년까지 오랫동안 사귀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많지는 않지만 제일 빈번히 만나는 친한 친구의 경우 초등학교 때 만나 고등학교까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는 우정관계도 발견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은 유형으로 음악, 연극 등 공동의 취미와 관심사, 그리고 유사한 가정환경 등의 복합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친구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라는 틀 속에서 만나는 장소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특별활동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친구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연극반, 춤반, 음악반, 등 서로 관심이 비슷한 학생 들끼리 방과 후에도 자연스럽게 공동취미를 가지고 좀더 깊이있는 친구관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된다. 즉 물리적으로 짝이나 혹은 학급에서 수업을 같이하다 가까운 친구관계로 진행되는 경우 보다도,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취미 및 관심사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경우가 오랫동안 친구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 밖에서 만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있는데, 여름캠프, 봉사활동 등 자연스런 만남의 기회를 친구관계로 진행시켜가는 모형이다. 이 경우 함께 잠을 자거나 캠프활동, 혹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거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친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처럼 학교에서 만나는 경우보다 짧은 기간동안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해서 좀

더 깊이있게 친구로 발전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에도 서로에 대한 이해, 가정의 유사성, 가치체계의 유사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깊이 있는 교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학교 밖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유형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파티에 갔다가 만난 사이에서 친구관계로 발전되는 유형이다. 파티라는 분위기 자체가 간단한 음료를 마시면서 함께 춤을 추고 이야기를 하는 서로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만나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히 파티분위기에서 서로 처음 만나 서먹서먹한 관계에서도 가벼운 음료수를 마시거나, 춤을 추는 등의 보다 자연스러운 교감수단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빨리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스웨덴 학생들이 주로 이성친구를 만나 깊이 있는 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주로 파티라는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친구관계의 요건

위에서 지적한 친구가 되는 몇가지 경로를 통해 서로 만나게 될 때 전부가 친구관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중에서도 무엇이 서로를 끌리게 하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일까? 스웨덴 학생들의 친구를 만드는 경로를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바를 분석해 보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친구의 요건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성격, 외모, 신뢰, 개성, 그리고 비슷한 가정환경 등을 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신뢰성,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 그리고 외모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원: 가장 친한 친구 들의 여러가지 요소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례 A: 외모가 중요하지요. 하하. 그것 때문에 친구를 사귀게 되는
걸요.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느냐도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사례 B: 눈에 잘 띄는 애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례 C: 외모, 그리고 학교성적 등 모두 중요. 우연히 누가 인기를 끌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한가지 친구로 발전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신뢰와 믿음을 들고 있다. 신뢰와 믿음은 그럼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까? 아래의 응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사례 D: 믿을만 하고, 변하지 않을 친구가 제일 중요하지요.

사례 E: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사려깊게 남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의 가장 값진 요소이지요.

사례 F: 정직성. 듣고, 생각해서 자신의 견해를 똑바로 밝히는 친구. 서로 믿을 수 있는 친구. 나에게만 이해를 구하고 자기는 아무 것도 안하는 친구는 싫어요.

사례 G: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친구간의 비밀을 지키는 점도 중요하지요.

위에서 지적하는 신뢰와 믿음은 바로 대화에서 찾아지는데, 신중하게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존중과 신뢰로 발전되는 경우라 하겠다. 즉 친구들의 만남에서 자기 말만 주려고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사려깊게 듣고 이해하면서 정직하게 속마음을 이야기 하는 친구가 신실함과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또 한가지 스웨덴 학생들의 중요한 친구의 요소로서 개성과 인격을 많이 들고 있다. 많은 학우 중에서 친구로 발전되는 경우를 보면 나와 환경적인 면에서 유사한 가정에 있는 경우에도 독특한 개성을 가진 친구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각자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친구관계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성격이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개성이 있어서 매력을 소유하고 있는 학생들이 서로에게 끌리는 경우를 발견하곤 한다. 즉 천편일률적인 성격의 소유자보다도 독특한 자기만의 매력이 있는 개성이 있는 친구를 선호

하고 있다는 점도 재미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친구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 처한 가정환경이나 가족관계 등의 유사성을 들 수 있다.

사례 D: 친구와 가족배경이 거의 유사해요. 재혼한 엄마와
의붓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데 친구에게서 친근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날 수
있어 좋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내 친구도 나처럼 집에서
막내거든요.

위의 답변에서 알수 있듯이 친구의 관계에서 서로가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해 주는 또 하나의 통로가 바로 동류성, 혹은 유사성의 확인이다. 친구 엄마도 재혼을 한 경우, 본인이 가정에서 느끼는 외로움, 의붓아버지와 관계 등은 엄마, 아버지가 같은 학우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깊이 있는 이해관계로의 도입에 필요한 것은, 서로 처한 가정환경적인 요소가 비슷함으로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이해시키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치 않을 수 있어서 여러가지 요소가 동시에 제거되는 효과도 있다. 이와 함께 막내라는 가족관계의 특수한 상황에서도 보듯이 동류의식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좋은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친구관계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3) 교우관계를 맺는 시간/장소

스웨덴 학생들은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어디서 만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아래의 대화에서 발견되듯이 스웨덴 학생들의 친구와 만나는 시간은 방과 후, 저녁 시간, 그리고 주말이다. 주말이라고 대답한 학생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상당수 학생의 경우, 방과 후나 저녁식사시간이라고 답함으로써, 스웨덴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학교수업

이외의 과외나, 특별활동 등을 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거나, 친구들과 밖에서 만나 소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과외라는 것은 스웨덴 사회에서 존재하지도 않고, 설사 극소수의 학생들이 과외를 하고 있다고 해도, 취미나 여가의 일환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시간이 소외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두번에 국한된다.

결과적으로 수업이 끝나는 23시경의 평일 오후, 저녁시간에 친구들과 자주 만나 여가 및 취미생활을 함께 영위하고, 친구 집에 함께 가서 음식을 해먹거나, 음료수를 함께 마시기도 하고, 남자 들의 경우 컴퓨터 게임을 함께 집에서 함께 즐기기도 하고, 여자 친구들의 경우 가끔 교회에 가서 함께 활동을 한다거나,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밖에 나가 영화, 연극 등도 관람하는 등 매우 다양하게 시간을 활용한다. 주로 주중에는 집으로 친구를 데려가 놀거나, 연극연습, 합창, 헬스클럽 등 취미활동을 함께 하고, 주말에는 파티, 외식, 영화 및 연극공연관람, 산책 등 다양하게 시간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 들의 중요한 일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면접원: 친구들과 언제 주로 만나게 되요? 그리고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나요?

사례 A: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음악 들으면서 함께 이야기 하고 놀다가 커피마시고, 저녁에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기도 해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영화관에도 가죠.

사례 B: 주로 학교 끝나고 집에가서 아니면 카페에서 함께 커피나 티를 마시는 시간이 많아요. 잡동사니 이야기를 다 하죠. 학교 선생님, 학교 친구들, 고민거리, 그리고 가정문제까지도요. 그냥 친구와 함께 잡동사니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셈이에요.

사례 C: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친구 집에서나 아니면 펍에서 만나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금요일

4) 이와 같은 특징은 2006년에 간행된 스웨덴청소년연구원(Ungdomsstyrelsen; 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의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찾아볼 수 있다. Ungdomsstyrelsen (2005), 130쪽.

저녁에는 밖에 나가서 친구 들과 파티도 하고, 음악감상도 함께 하고 그러죠. 학교 끝나고 헬스 운동을 함께가기도 해요.

사례 D: 주로 학교 끝나고 커피나 티를 마시는 시간이 많아요. 집에가서 같이 연극반에 있기 때문에 연극연습도 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연극공연도 직접 보러 가구요. 함께 교회에도 가서 활동하구요. 주말에는 주로 연극공연, 영화 그런걸 많이 보고, 함께 공원 거닐고, 뭐 그런걸 해요. 집에 부모님이 안계시면 저녁을 함께 해먹기도 하죠.

스웨덴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활용의 특징을 보면 친구를 집에 데려가서 함께 노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집이라는 공간이 둔 안들이고 음악들으면서 잡담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족이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없이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부모가 늦게 퇴근하거나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는 경우, 친구와 함께 저녁요리까지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어 스웨덴 청소년들이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등교에서부터 밤까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주말에도 외식이나 결혼, 장례식 등 특별한 가족행사 등이 없을 경우, 가끔 친구와 만나 함께 여가생활을 하기 때문에 친구의 의미는 남다르다 할 수 있다. 그만큼 친구의 존재는 함께 학교생활을 할 뿐아니라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개인 신상까지 깊숙히 서로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인성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웨덴에서 친구의 역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제도환경적 요인이 있다. 먼저 교육환경적 요인이다. 스웨덴 교육제도는 학교교육위주로 되어 있어 학교수업이 끝나면 더 이상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 학교외 수업 혹은 사교육이라고 하는 과외가 없고,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학교에 묶여 있는 시간보다 오후 2·3시경이면 학교수업이 모두 끝나 그만큼 여가시간이 많아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

게 된다. 숙제라는 개인과제물은 가끔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친구들과 집에 가서 함께 해결한다. 그만큼 학교에 얽매이는 시간이 적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을 수 밖에 없게 되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복지제도적 환경의 요인이다.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부모 모두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는 집에 아무도 없게 된다.⁵⁾ 부모의 퇴근시간까지는 집이라는 공간은 친구들을 데려다가 함께 놀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 되는 셈이다. 부모의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나 외식이 계획되어 있을 때는 그만큼 친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연장되는 셈이다. 게다가 국가에서 모든 학생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외없이 모든 학생이 약간의 용돈이 항상 지갑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함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있게 된다.⁶⁾ 영화, 연극관람, 외식, 펍이나 카페 등의 방문 등의 집 밖에서의 여가시간 활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인 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인구사회적인 요인이다. 스웨덴 가정은 현재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가정의 경우 이혼가정이 늘고 있고, 전통적으로 동거율이 높아 동거자 교체율이 높으며, 이혼 및 동거자와 결별 이후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의 경우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외롭게 지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⁷⁾ 엄마 혹은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새롭게 가정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붓 아버지, 혹은 의붓어머니의, 그리고 의붓형제들과의와의 서먹서먹함 혹은 갈등 등으로 가정내에서 대화상대의 부재로 인한 소외감 혹은 외로움의 강도가 클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친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
- 5) SCB 스웨덴 통계국의 자료를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78%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거의 모든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하교하는 시간에는 집은 아무도 없는 공간이 된다.
 - 6) 국가학업수당은 현재 1050 크루네가 일괄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지급된다. 이것은 가족수당의 일환으로 가난한 부모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든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15세까지는 아동수당, 16세부터 20세까지는 학업수당으로 불리우나 지급하는 금액은 동일하다. 최연혁 (2006), 38쪽.
 - 7) 스웨덴 사회의 이혼율, 동거율, 결손가정을 등은 최 연혁 (2006), 63-69 쪽을 참조.

(4) 핸드폰/인터넷 역할

이렇게 친구와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는 스웨덴 청소년 들은 현대의 발달된 통신수단인 전자우편, 인터넷 채팅, 핸드폰을 이용한 통화 및 문자 등의 사용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아래의 대화 내용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웨덴의 청소년들도 현대적 문명의 이기인 핸드폰과 인터넷이 중요한 통신수단임을 알 수 있다. 컴퓨터 통신수단인 MSN, Facebook, Myspace 등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문자가 가장 중요한 통신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의 모든 학생 들이 문자를 보낸다고 답하고 있으며 소수 학생의 경우 하루에 50여개 이상의 문자를 주고 받는 등 문자가 핸드폰 통화와 함께 매우 인기있는 통신수단이다.

면접원: 친구들과 어떤 통신수단으로 연락을 주로 하나요? 전자메일, MSN, Facebook, Myspace, 핸드폰 문자……?

사례 A: 문자를 20개 정도 날리면 30개 정도 회신을 받아요. 하지만 Offline이 더 중요해요. 인터넷과 같은 On-line 대화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례 B: MSN, 문자 보내기. Facebook 이나 Myspace 등도 가끔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자 보내는 회수보다 더 자주 만나죠.

사례 C: 집전화, 아니면 핸드폰을 사용해요

사례 D: 주로 만나지만, 핸드폰으로 먼저 연락해요

사례 E: 주로 만나고, 가끔 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하곤 해요. 그림일기도 서로 방문해 주는 것도 친구에 대한 예의죠

사례 F: 우리는 이웃으로 가까이 살아서 자주 만나요. 그냥 집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 편이에요

사례 G: 문자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문자보내는 회수보다는 더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사례 H: Offline상의 교제가 더 중요해요. 만날 약속, 파티 계획, 일상의 문제 토론, 그리고 영화나 음악에 대한 조언과 학교

숙제, 시험등 가능한 모든 것을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스웨덴 청소년들의 교감수단은 무엇보다도 현대적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Off-line에서 만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자주 만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서로 문자나, 전자메일 등을 주고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를 통해 채팅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극히 드문 현상이고 많은 학생 등이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예의상 친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의 의례적인 사용은 하나,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문자나 핸드폰 통화 등도 만나기 위한 약속 등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할 뿐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On-line 이든 Off-line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친구 들과 지속적인 만남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두 그룹의 친구관계에는 차이가 없고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이다.

(5) 교우관계에서의 역할

스웨덴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에서 특징적인 면은 각자의 개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각자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한 후 민주적으로 가장 인기있거나 그럴듯 한 의견으로 수렴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대화에서 보여지듯이, 스웨덴 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 토론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난상토론하거나, 가장 많이 나온 의견 중 2개 정도를 결정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함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때는 다투거나 하는 등 가끔 험악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도 있겠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가 나서서 도닥여주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서로 양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해 준다.

면접원: 친구들과 만나면 누가 주로 결정해요? 누가 주도권을 쥐나요, 아니면 각자 의견을 내놓고 이야기를 한 후 결정을 해

요, 그리고 주로 이끄는 편이에요, 아니면 따르는 편이에요?

사례 A: 각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말다툼하고 하면 제가 주로 각자의 주장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고 설득하면서 제가 주도권을 가지죠. 그런 제 자신의 역할에 저는 만족해 해요.

사례 B: 모두가 생각하는 것을 먼저 얘기한 다음,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결정에 주도권을 쥐고 설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례 C: 물론 친구에 따라 다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함께 결정하는 편이에요. 주로 듣고 다른 애들을 도닥여주고,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제가 주로 이끌어요. 우리 친구들은 대개 서로 이끌기를 좋아하지만 서로의 말도 잘 듣고 이해해서 함께 즐겁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D: 무언가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함께 토론을 통해 결정을 유도하죠. 토론은 제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E: 각자의 의견을 내 놓고 그 중 한 두 가지를 선택해서 다수결에 부쳐요. 그리고 내가 의견 결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사례 F: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애들은 하고 싶은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고 하지만, 한번씩 돌아가면서 의견을 내고 하기도 해요. 주로 의견이 충돌할 때는 합의를 하죠. 제가 주로 토론을 이끌어가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도닥여주고 해요.

위의 토론에서 나타나는 또 한가지 특징은 스웨덴 학생들은 민주적으로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지만 각자가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즉 민주적으로 토론을 하되 설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자임한다는 것이다. 다른 학생들이 토라지거나 결정이 힘들 때 주도적으로 이끌고 자기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이 같은 양상은 민주주의 교육에서 지향하는 토론의 문화와 함께

설득의 문화가 얼마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인지 알게 해준다. 즉 토론은 민주적으로 진행해 나가되,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설득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학교내 교육, 언론 및 가정교육 등 사회 전체가 토론문화에 익숙해 있으며, 민주적인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 후에는 갈등이 최소화 하는 합의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6) 이성교제

스웨덴 학생들의 이성관계는 상당히 개방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가깝게 지내는 이성친구가 적어도 한명이상은 있다고 보면 된다. 이성친구와의 교제에 있어서 발견되는 특징은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부모님은 단지 보통 스웨덴 청소년들처럼 이성친구 1-2명은 적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없으면 차라리 인기가 없거나 성격이 이상해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라고 우려하는 편인 셈이다. 즉 이성으로서 친구 없다는 것 자체가 스웨덴에서 왕따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⁸⁾ 또한 16세 이상의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는 이미 이성친구와 함께 깊게 사귀는 것을 사회적 통념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성교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성친구의 교제기간은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만나거나, 중학교 때부터 만나 고등학교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된다. 그러나 많은 학생이 현재 소속하고 있는 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 에서 만나 교제를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어린나이에 이성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보는 통념있어 어떤 제약이 있지 않은 점도 있고, 입시공부 등을 위한 학교수업이나 숙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성친구들과 함께 보내도 학업성적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만남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성친구와의 교제가 전반적으로 학업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적인 경향이기는 하지만 간혹

8) 스웨덴에서 왕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Olweus (1993, 1999, 2007), Jimerson & Furlong (2006), Thors (2007) 등 참조.

이성친구로 인해 학업을 소홀히 하는 학생이 가끔 발견되기도 하고, 반대로 도리어 여자이성친구의 도움으로 학업이 향상되는 학생도 있어 이성관계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면접원: 이성친구가 있어요? 있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사귀친구예요?

만나면 주로 뭘해요? 부모님은 알고 계세요? 그 친구

때문에 성적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사례 A: 여럿 있지만 특별히 서로 알고 지낸지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어요. 중학교부터 사귀 친구니까 5-6년 되었어요. 우리 관계를 부모 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왜 중요해요? 이제 18세가 되었으니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여자친구 만났다고 성적이 좋아지고 안좋아지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없어요.

사례 B: 만나서 무엇을 하는지는 어떤 여자친구이냐에 따라 다르죠. 친한 여자 친구들과는 놀상하는 것 들을 해요.⁹⁾

사례 C: 여자 친구가 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여자친구가 나보다 성적이 훨씬 좋거든요. 여자친구가 나에게 힘내라고 해요.

사례 D: 우리는 1년 동안 알고 지냈어요. 우리는 거의 매일 일상적인 만남을 갖고 우리 부모님은 남자친구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으세요.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성적이 도움도 많이 되고 있구요.

사례 E: 남자친구가 많아요. 사귀지 대략 2년 정도되었구요. 그리고 남자 친구있는거 우리부모님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가끔 부모님들은 제가 만나는 친구가 그냥 친구인지 아니면 이성적인 대상의 친구인지 궁금해 하시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이지 만나지 말라 이런 말을 안하세요. 남자친구들과는 만나 일상적인 것 들을 해요.

9) 이성친구의 경우 데이트, 키스, 성관계 등을 스웨덴 학생들은 일상적 관계로 표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영화도 보고, 공부도 같이하고, 잡동사니도 해요.
저도 친구로 인해, 내 성적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례 F: 1년동안 만난 여자친구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건전한
이성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이성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부모님들도 제가 특별한 아이라서 없는줄
알고 걱정해 하세요. 이성친구와 만나 영화도 보고 음악도
감상하고 커피타임도 갖곤 해요. 하지만 친구 한 명은
이성친구 때문에 학교 생활에 불성실한 경우도 있어요. 그
친구 때문에 가끔 무단 결석도 하거든요.

이성친구들과는 만나서 주로 일상적인 숙제, 잡담, 커피마시기, 연극 및
영화관람 등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집에서 만나는 횟수가 많기 때문
에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육체적으로 교감하는 기회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면접에 참가한 대다수의 학생 들이 이성친구 - 남자친구 혹은 여
자친구 - 가 있다고 답함으로써 스웨덴 청소년의 이성관계가 얼마나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이다. 비록 이 면접조사가 스톡홀름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보일 수 있겠으
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이성친구에 대한 시각이 매우
개방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아도 거의 유사한 유형일 것이라는 짐작
이 가능하게 된다.

(7) 친구로부터 받은 영향

친구의 관계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점은, 서로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장점을 배우고 경쟁관계 등을 통해 학업성적이 향상되는 등의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고, 친구와 사귀면서 성격이 변하거나 집중

10) 스웨덴에서 친구의 명칭에는 두가지가 있다. 흔히 그냥 친구라는 의미로 콤피스
(Kompis)가 있고,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진 이성친구를 의미하는 남자친구(Pojkvän),
여자친구(Flickvän)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콤피스는 동성, 이성 등의 일반적 친
구를 의미하는 반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라고 하면 서로 깊이 사귀는 관계라
고 이해할 수 있다.

력의 상실로 인해 성적이 떨어지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의 상황설정도 가능할 것이다. 취미나 관심 사항 등이 친구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흡연, 무단결석, 혹은 음주 등의 경우 친구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성격이 비슷하거나 재능이 유사한 다른 친구를 통해 인생의 진로결정, 그리고 직업선택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친구의 선택으로 인해 인생의 어두운 면을 경험하거나 부정적인 영향도 생각할 수 있다.

아래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이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성향은, 경쟁보다는 단순히 함께 재미있게 지면서 여가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친구들의 관계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성적에 관한 친구들과의 경쟁을 통해 성적이 향상된다거나 하는 것보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만의 능력과 독특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친구의 성적이나 직업설정 등에 비교적 자유롭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이다.

면접원: 친구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학교성적이나, 경쟁심, 진로결정 등에서? 그리고 친구들의 성적 같은 것에 비교하면서 걱정하고 초조할 때도 있어요?

사례 B: 점수로 우리는 경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 상호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재미있게 함께 즐기고 하는 관계지요. 이따금 친구가 공부를 잘하면 경쟁심이 생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예요.

사례 C: 학업 등에서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친구가 잘하면 자극을 받아 더 하게 되니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사례 D: 친구관계가 꼭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의 인생목표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도 않구요. 나는 내 목표가 따로 있고, 잘 하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친구관계를 긍정적인 경쟁관계로 보고 친구들의 성적 향상을 자신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극제로 활용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이 같은 양상은 주로 여학생들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며 친구간에 혹은 학급에서 가장 공부 잘 하는 학생으로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한 학생일수록 이런 경향이 명확하게 발견된다. 또 한 가지 발견되는 유형은 1등에 대한 욕망보다는 꼴찌가 되기 싫은 이유 때문에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약간의 경쟁심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편적인 경우는 아닐지라도 더 높은 목표 설정을 위해 친구에게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친구와 경쟁을 한다기 보다는 친구가 설정한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한 선의의 경쟁으로 서로 윈윈하는 경우일 것이다.

사례 A: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친구간에 서로 경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고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정한 목표 등이 친구 것 보다 못하든 하면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저 보다 성적이 좋은 친구가 마음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의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저도 성적이 별로 향상된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 좋은 건 아니었어요. 결국 친구와의 경쟁관계가 의미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사례 E: 경쟁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경쟁을 한다면 제가 항상 최고가 되길 원해요. 친구의 성적이 저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가끔 있어요. 제가 더 못하면 더 노력을 하게 되니까 저에게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사례 F: 저는 친구들과 경쟁을 하는 편이에요. 공부에서 뒤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의 성적변화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사례 G: 친구가 저보다 더 높은 목표치를 가지고 있으면 저도 덩달

아 목표를 높이곤 해요.

사례 H: 꼴찌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친구보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죠.

이와 함께 스웨덴 학생들의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으로 친구들의 취미 생활, 여가에 대한 관심, 흡연, 수업을 빼 먹는 것과 같은 무단 결석 등은 친구로부터 간혹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 경우 친구의 테니스운동, 헬스클럽, 댄스클럽, 친구의 흡연습관, 댄스 및 음주파티의 선호 등에 있어서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행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따라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친구들을 사귀느냐에 따라 자녀의 성격이나 생활양식, 관심 등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피면접 학생들의 대부분이 경쟁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엿볼 수 있다. 학업성적에 관심과 경쟁심이 있거나 없거나에 관계없이 낙오되는 친구들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친구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속으로 고소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을 도리어 걱정해주는 경향이 있다. 비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함께 도와주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경향도 있어 스웨덴 학생들이 학업성적에 대해 대체적으로 친구를 경쟁상대로 보는 것보다는, 가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그 이상은 아닌듯 하며, 경쟁심보다는 자기보다 못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는 등 낙오자에 대한 배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사례 B: 가끔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한 친구들이 공부를 잘 못하면 제가 도리어 걱정이 되요.

사례 D: 다른 친구들이 가끔 걱정이 되기는 해요. 어떻게 하라고 직

접 말은 안하지만 친한 친구가 성적이 떨어지면 제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요.

사례 E: 그리고 어떨 때는 제 친구가 반대로 성적이 떨어지거나, 공부를 너무 못하면 그 친구 장래가 걱정이되어 안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례 F: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에서 낙오하는 학생들도 걱정을 많이 하게 되요. 우리 반에 난독증(Dyslexia)이라 책을 잘 읽지 못하는 두 학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고 싶어요.

(8) 친구의 의미

친구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들은 무엇과 연관지어 친구와의 관계에 의미를 부여할까? 공부, 학업, 취미 활동, 가족 관계, 친구관계 등의 선호도를 통해 과연 학생들이 친구와의 관계를 얼마나 비중있게 다루는지, 그 학생시절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다른 가족 구성원은 주로 밤 늦게 잠시 만나거나, 주말에 함께 가족행사가 있을 때만 지내는 관계로 인해, 친구관계나 학교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인지가 의문시 된다. 이 연구의 자료는 적어도 복지국가와 인구사회적인 변화의 틀 속에서 스웨덴 청소년들은 가족보다는 학교성적, 그리고 친구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면접원: 공부, 친구, 가정 등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례 A: 잘 모르겠지만……. 전부 다 중요한것 같아요. 하나를 꼭 결정해야 한다면 가족보다는 공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에 최고 성적을 선사하면 가족에도 좋으니까. 그리고 학교가는 이유는 무엇보다 공부와 성적때문이지요. 9년 의무교육이 친구 때문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사례 C: 성적, 공부, 그리고 친구 순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고,

공부하러 가지만 친구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학교가는 것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몇가지 과목이 재미
있는게 있거든요.

사례 D: 공부가 중요해요. 친구도 물론 중요한 것이기는 해도
말이죠. 학교가는게 재미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
몇개있거든요.

위의 경우 모두 다 중요하지만 굳이 선택하라면 역시 성적을 선택한다.
그리고 성적이 중요한 이유는 가족 특히 부모님이 좋아하시므로 더 중요하
다는 논리이다. 그 다음 순으로 가족을 제치고 친구를 들고 있다. 가족이 가
장 중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존경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동의없이
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가족의 중요성을 선택한 학생은 극히
드물고, 대다수는 친구가 있으므로 학교생활에 큰 의미가 있고 등교할 동기
부여가 이루어진다고 지적하며 친구의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학교는 공부를 하고 지식을 배우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친구가 없다면 학교
에 가지 않고 집에서든 가능하다는 지적은 얼마나 학교생활에 친구가 차지
하는 비중이 높은지 짐작하게 해 준다. 그만큼 존경하는 선생님 때문에 학
교에 간다든가, 공부 자체가 재미있어서 학교에 간다는 것보다는 친구가 학
교에 가는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례 B: 친구가 제일 중요하죠. 친구가 없으면 학교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사례 E: 친구가 제일 중요해요. 학교가는 것 자체가 친구가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학교가 지식만을 위한 장소라면 집에서
공부해도 충분하죠. 그래서 학교가는 것이 재미있게 되요.
하지만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느냐도 중요해요. 학교에서
재미있고, 배울만한 친구가 있으면 학교에 갈 의욕이 더
생기게 되거든요.

사례 F: 물론 친구죠.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그리고 친구가 있어
학교에 나가는 것이 재미는 없을 때가 있지만 가게 되는
가장 큰 동기가 되요.

사례 G: 저에겐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순으로요. 제가 양로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나이드신 분 들 모두 존경스럽더군요. 저는 엄마, 아버지가
승락하시지 않는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친구고 그다음이 학교 성적이지요.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스웨덴에서 가정보다는 성적, 그리고 학교 자체보다는 친구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결국은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됨을 알 수 있다. 학교의 의미가 공부나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로서도 중요하지만 친구를 만나고 함께 공부하는 장소라서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 학생의 학업보조금, 무료교육 등 부모와 가족의 역할을 국가가 일부 대신해서 해주고, 학교가 청소년 생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중요성의 인식에 있어 가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학업과 친구의 비중이 그만큼 높게 나타나게 해주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2) 친구관계: 진로와 관련하여

친구의 관계가 과연 앞으로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고등학교 때의 학업성취도가 대학진학의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고 성공의 필수적 요소가 되는 사회에 있어서는 공부 잘하는 친구와 사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동기나 더 노력하게 되는 자극제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의 종합적인 성적보다도 개성,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제도 하에서는 전반적인 학업성취도보다는 얼마나 개성있고, 얼마만큼 관심있는 분야에 효과적으로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가 한국의 경우라면 후자의 경우가 바로 스웨덴의 경우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의 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식의 의미가 매우 크다. 가정에서는 고등학교 졸업모를 쓰는 날, 졸업하는 자녀를 위해 몇몇 가족단위로 큰 트럭이나 픽업, 지붕이 열린 자동차 등을 준비해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면서 시내를 돌게 해준다. 저녁에는 친구들을 모아 큰 파티도 열어주고, 가족마다 선물을 준비해서 전해주기도 한다. 그만큼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에 진출을 하거나, 대학에 진출을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학업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82%에 이르는 대다수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사회로 바로 진출해서 직장을 찾게 된다.¹¹⁾ 이때 어느 고등학교 졸업, 어느 지역 출신, 전체 몇 등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공과목에서의 성적이다. 전기공, 자동차정비공, 기계공, 사무직 등의 세분화된 직업공고난에 유관분야 직업경력과 전공 학업성적이 중요한 잣대가 된다.

스웨덴 학교교육에서도 중요한 것은 전체 성적보다도 관심분야, 특별재능이 있는 특정분야에 얼마만큼 성적이 좋은가가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된다. 또한 고등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성인교육(Vuxenskola; Adult School)에서 재 수강을 통해 성적을 향상시키거나, 고등학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위해 대학입학고사(Högskolaprov)를 응시할 기회를 줌으로써 고등학교 성적 하나로 사회진출이나, 대학진학의 유일한 척도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이같은 교육제도는 국가가 교육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학생의 경우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으므로 진학을 목표할 하는 학생은 학문에 대한 관심, 혹은 전문성의 확보에 대한 동기부여로 택하는 것이지 성공의 징검다리로 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관, 교수, 의사 등 전문직 지식인을 제외하고, 중앙 및 지방 정치인, 작가, 기자, 예술인 등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사회의 엘리트층에 진입한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굳이 대학교를 진학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이 같은 사회적 환경은 학생들의 친구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친구관계 속에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외국유학, 혹은 성적향상 등을 위해서 친구를 가려

11) 최연혁 (2006), 48쪽.

서 사귀다거나, 공부 못하는 학생을 만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친구 관계는 단지 중고교 학창시절 재미있게 생활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지내면서 오랫동안 우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친구를 경쟁상대로나, 성공의 장애 혹은 매개체로 활용하는 등의 양태는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친구들과 경쟁관계보다는 동반자관계, 상호의존적 관계로 인식해서 자기보다 뛰어난 학생을 부러워하거나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자기보다 못한 친구, 그리고 낙오되는 친구에 대한 걱정 및 우려를 보여주는 행태를 띤다고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1950년대 이후 뿌리 깊게 내리면서 소외된 사람을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가족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낙오자에 대한 구제와 동정심의 단면인 지도 모른다. 따라서 스웨덴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와 연관된 진학이나 진로설정 등이 친구관계에 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다양한 친구관계를 통해 수평적 사회관계가 설정되는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4. 논의

1) 학업 및 진로관련

스웨덴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에서의 특징 중의 하나로 자주 만나서 교제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친구를 사귀게 되는 동기로 성적이나 지식적 우위 등 보다는 지내기 쉽고 성격이 좋으면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친구를 사귀고 그런 친구들과 우정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스웨덴의 면접조사 자료가 보여주고 있듯이 우정이 학업과 진로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오히려 친구관계가 친구들의 학업이나 진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역관계가 존재하다는 점은 특이하다고 하겠다. 스웨덴에서 고등학교가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이고 사회에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친구가 평생친구인 셈이다. 따라서 친구의 의미가 서로 경쟁적 관계보다는 깊이 있는 친

구, 오랫동안 지속할 친구를 사귀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진솔한 인간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설명변수이기도 하다.

2)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류

스웨덴 사회도 정보지식사회로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보화지수와 컴퓨터 사용율, 핸드폰 사용율을 보여준다. 하지만 스웨덴 청소년들이 여기에 비례해서 친구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견교환의 매체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Off-line의 관계에서 보조적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신수단으로 물론 문자나 핸드폰 통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단순히 만남의 약속장소나 시간을 정하는 수단일 뿐이다. MSN 등이나 컴퓨터 채팅 등도 간혹 활용되고 있으나, 컴퓨터를 켜고 있는 시간에 함께 친구 집을 방문해서 인터넷게임이나 컴퓨터게임을 즐기는 등 함께 직접 만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 특징이다. 상대방의 집을 방문하거나 사친첩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유형으로 친구의 배려차원일 경우가 많다.

따라서 Online 상의 만남은 단순히 제한적으로 부차적인 용도로 사용될 뿐이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을 훨씬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상급학교 진학이나 대학진학 등의 스트레스가 거의 없고, 학교수업이나 과제 등의 강도가 세지 않아 하루 일과가 끝나고 하고, 주말 등을 친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친구의 집, 본인의 집 등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사이버 공간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셈이다.

3) 친구로부터의 영향

친구관계로부터 영향 받는 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학업과 취미, 관심사 등의 여러가지 분야를 내포한다.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성이 발전될 가능성도 있는 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친구관계를 통해 성적향상에 대한 동기부여, 취미생활의

변경이나 새로운 시도, 연극, 영화 혹은 특정 음악의 이해 등에 도움을 주거나 관심을 갖게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이다. 이 경우 친구의 관계를 경쟁적이거나 꼭 이겨야하는 상대방보다는 가치의 공유, 재생산 등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교육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러나 때로는 수업시간에 체육복이 없는 친구를 위해 함께 수업을 빼 먹는다거나 흡연, 음주, 파티탐닉 등의 부정적인 가치나 행위의 교사적 역할도 수행하게 되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친구관계는 스웨덴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이자 일부이기 때문에 학교에 자발적으로 재미있게 나가도록 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기도 한다.

4) 이성교제에 있어서의 특징

스웨덴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는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을 위에서 확인했다. 학교수업이 고등학교까지 남아 혼성학급으로 이루어지고 체육, 요리, 바느질 등 양성평등적 교육의 결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학교에서 남녀구분없이 친구를 다양하게 사귄 수 있게 되면서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면접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만나 5년 이상 이성간 친구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도 많다. 학교 수업 이후에도 집에 가서 함께 숙제를 하거나, 음악감상 등을 하거나 저녁, 주말 시간 등을 이용해 파티, 외식, 영화, 연극 등의 다양한 취미 활동을 이성친구들과 함께 한다.

이성친구를 사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모의 입장이나 견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동성친구나 이성친구나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볼 수 있다. 단지 부모의 경우 자녀들에게 에이즈나 예기치 않은 임신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 편이다. 이는 아마도 학업에 큰 지장을 주지않고 남학생의 경우 여자친구에게 공부의 자극을 받으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딸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의 딸이 남자친구 하나 없는 것이 사회성의 결여로 여길만

큼 이성친구 교제에 관대하다. 스웨덴 학생들의 일상은 이렇듯 성의 차이를 줄이는 양성평등교육의 결과로 생활 깊숙히 자리잡은 셈이다.

5) 친구 교제 관계의 형성과 의미

스웨덴에서 또래친구관계의 형성과 역할의 특징을 밝히는 데 세 가지 제도환경적 요인을 지적했다. 우선 교육환경적 요인이다. 스웨덴 학교교육제도가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최소한 하고, 입시위주교육보다는 창의교육, 인성교육에 집중함으로써, 과외가 없고 사교육비가 전혀 들지 않으며, 여가시간이 많아 친구의 존재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두번 째가 복지제도적 환경의 요인이다.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부모 모두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교하에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또한 국가가 대학원까지 무료로 교육을 제공해 주고, 학업수당을 지급해 줌으로써 여가시간에 사용할 최소한의 경제적 비용 모든 학생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간의 빈부격차를 줄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친구들의 관계는 경제, 가정환경, 출신 등보다도 성격, 인성, 사회성 등이 친구를 사귀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게 하는 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스웨덴에서 이혼가정이 늘고 있고, 전통적으로 동거율이 높아 동거자 교체율이 높아 결손 가정이 높다. 그만큼 처지가 비슷한 사이끼리 친구가 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를 이해해 주고, 동류의식을 느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학교생활에 큰 힘이되고 의미가 되는 셈이다.

참 고 문 헌

최 연혁 외 (20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 개발원.

Jimerson, Shane R. & Furlong, Michael J. (2006). *Handbook of School Violence and School Safety. From research to practice* (2006). Mahwah, New Jersey and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Olweus, Dan (1993), *Bullying at School*. London: Blackwell.

Olweus, Dan (1999), *Mobbning bland barn och ungdomar*. (유아와 청소년의 왕따). Stockholm: Rädda Barnen.

Olweus, Dan. 'Mobbning i skolan - fakta och åtgärder'. In Thors, Christina (red). (2007). *Utstött - En bok om mobbning*. (따돌림: 왕따에 대하여). Stockholm: Lärarförbundets förlag.

Ungdomsstyrelsen (2001a), *Ung 2001*. (Youth 2001). Ungdomsstyrelsens utredningar 26. Stockholm.

Ungdomsstyrelsen (2001b), *Bara vara*. (단지 존재한다는 것). Ungdomsstyrelsens rapport 21. Stockholm.

Ungdomsstyrelsen (2005), *Ung och Föreningsidrotten. En studie om föreningsidrottens plats, betydelser och konsekvenser i ungas liv*. (청소년과 체육. 청소년 체육의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위상, 의미 그리고 영향에 관한 연구). Ungdomsstyrelsens rapport 21. Stockholm.

Ungdomsstyrelsen (2006), *Arenor för alla - En studie om ungas kultur- och fritidsvanor*. (모든 사람을 위한 경연장 -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에 관한 연구). Ungdomsstyrelsens skrifter 2005:1. Stockholm.

Thors, Christina (red). (2007). *Utstött - En bok om mobbning*. (따돌림: 왕따에 대하여). Stockholm: Lärarförbundets förlag.

X.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X.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2007년에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등 5개국에 대한 면접 조사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한국과 일본 조사는 부모,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미국, 독일, 스웨덴 조사는 학생을 대상으로만 조사가 이루어졌다. 각국 조사는 공통의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나 각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변형된 질문지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크게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및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청소년들은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성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친구관계 형성에 성적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든 나라에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은 친구관계에서 중요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도구로 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의 관계와 온라인의 관계가 별개의 관계로 형성되기 보다는, 온라인 관계가 오프라인 관계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이들에게 휴대폰과 같은 미디어는 그것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유저가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하여 의미있는 타자와의 관계와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간다는 점도 각국 청소년들의 공통점이다.

셋째,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도 한국의 부모들은 다른 나라의 부모들과 차이가 있다. 한국의

부모들은 그밖에도 자녀의 많은 것에 간섭하고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 자녀의 성적과 관계된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일본과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한국의 부모들은 초등학교에서는 생활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점점 학업성취를 중요시하게 되고, 경쟁논리를 내면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부모들도 있으나, 한국 부모들은 대체로 공부 중심의 경쟁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녀의 성에 따라서는 다른 기대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딸에게는 안정된 직업과 전통적인 여성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아들에게는 안정된 직업보다는 가문의 기대가 반영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이러한 부모들의 기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저항하고, 비밀을 만들어가며, 또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데, 헤어스타일, 명품밝히기, 스타에 대한 관심, 이성문제, 컴퓨터 게임 중독 등의 문제가 주요한 갈등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부모들은 사교육비 지출을 포함해서 헌신적이라만큼 전적으로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만, 부모들은 학원결정문제, 스케줄관리, 친구관계 등에 개입하여 자녀의 의존성을 강화시키고 만다. 자녀의 사교육 및 학업성취 관리는 부모의 의무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나, 부모의 사회적 자본, 연결망에 따라 부모들이 갖는 정보의 질에는 차이가 있다. 반면, 미국, 독일, 스웨덴의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 교사들에게서 약화된 소명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 반면 안정된 직업으로서의 의식이 강했다. 또한 교직에 대한 회의와 직업적 안정성에 대한 만족감이 교차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무력감을 호소하며,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보다는 무관심한 경향을 보인다고 호소한다. 한편 학부모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의 삼각관계 속에는 다양한 갈등 내재되어 있다. 교사들은 또한 학교조직의 폐쇄성, 비합리성, 교사의 체벌권 약화에 대해 불만을 피력한다. 한 마디로 교사는 스스로 사회화 주체로서 주변인의 입장이라

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한국교사들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을 일본 교사들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학부모들로부터의 스트레스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 특이한 점은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 가르치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에 가장 큰 가치를 둔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교사에 대한 친밀감은 약하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친구관계와 대립적인 것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라는 점도 특이한 점 중의 하나이다.

여섯째, 한국의 경우, 학교별로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을 지지하는 사회자본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니는 학교에 따라 사회자본이 더욱 상승하기도 하고 또는 더욱 빈곤해지기도 한다. 조사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과 대안학교 학생들이 경우는 가장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사회자본의 차이 이상의 대조가 눈에 띈다. 학교부적응, 따돌림의 경험자와 아예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경우, 문제로부터 벗어날 창구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개인적인 개입노력이 문제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부터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결론

이상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나라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미디어의 사용과 미디어를 이용한 관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의 사용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은 적극적인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도 모든 나라 청소년들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한국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친구관계 형성에도 학교성적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의존도가 높으면서 갈등의 정도도 높다. 이것은 극심한 학력경쟁과 무관하지 않다. 달리 말해서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적, 학업성취는 매우 중요하게 작

용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사이에서 갈등관계가 깊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독일이나 미국의 사례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청소년들은 오히려 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사례 분석으로부터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미국의 사례에서도 이 점이 확인된다. 물론 나라마다의 사회문화적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좋은 관계 또는 지지적 관계로서의 부모자녀관계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이미 2006년도 5개국 조사결과로부터도 확인된다(본 연구 2007년도 세부과제보고서 제4권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참조).

교사와의 관계는 어느 나라도 부모와의 관계나 친구관계보다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교사들은 청소년들과의 심리적 거리가 특히 먼 것으로 판단된다. 교직에 대한 회의가 교사들의 심리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학부모들로부터의 스트레스가 그러한 심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사-학생간의 관계도 우리들만의 치열한 학력경쟁의 소산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국 만큼이나 수험경쟁이 심한 일본의 경우에도 교사들의 회의 섞인 면접내용을 접할 수 있었으나, 일본 교사들에게선 학부모에 의한 스트레스는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한국 청소년들은 학력경쟁이라는 요소가 친구관계, 부모와의 관계, 교사의 관계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문제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여기에 학교별 격차, 지역별 격차, 계층별 격차까지 고려할 때 한국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더욱 커진다. 그렇다면, 매우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지만, 당장 학교부적응생들이나 쇠외된 청소년들을 최악의 상황에서 구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들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의 재조직화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사 개개인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가 보다 조직적으로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돌보는 시스템은 교육의 큰 틀을 바꾸지 않고도 가능하다. 또한 대안학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책무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XI. 부 록

면접조사를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

조사내용

I. 인적사항 및 가족배경

※ 부모가 아닌 경우, 또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등 구분

(1) 형제자매수 () 명

	관계/성별	나이(연도)	학교/학년	관계/친밀도(대화, 놀이상대...)
본인				
형제자매1				
형제자매2				
형제자매3				

※1 자기 방을 가지고 있나요? 형제들의 방은?

(2) 가족배경

	동거 여부	학력	직업	관계성, 친밀감 (대화, 고민 상담 등)	교육방법/기대, 공부에 대한 주문,관심, 공부와 관련해서 주로 하는 말	가사참여, 교육참여
아버지						
어머니						
기타 동거가족1						
기타 동거가족2						
기타 동거가족3						

※ 1 학교 및 기타 경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면, 질문에서 삭제하고,
질문할 경우, 인터뷰의 중간 또는 후미에 가서 함 /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질문지로 대치

- ① 가정의 소득수준(가정형편) - 집소유여부 등 또는 위 ※1로 간접 판단 또는 인터뷰 후미 직업에 대한 관심사 질문시.
- ② 집에 책이 얼마나 있는지? 또 책을 얼마나 읽는지?
- ③ 부모님과 주말, 휴일, 또는 평일 저녁에 어떻게 함께 보내는지?
- ④ 노인에 대한 인식 :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상(이미지)·인식에 대하여.

II. 친구관계에 대한 질문

	1	2	3	4	5
성별					
친구의 종류(학교친구, 학원 친구, 교회, 기타 동네 친구 등)					
사귀게 된 동기, 친구의 요건(성적, SES, 취미 등)					
사귀기 시작한 시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취미					
친구들의 성적은? 동일 or 이질 집단					
친구의 영향(공부, 취미, 진로, 장래상 등)					
공통으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기타 친구들과의 유사점					
공유하는 미디어(핸드폰, 인터넷, 문자, 채팅, 미니홈피) 예) - 말 대신에 문자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 미니홈페이지(싸이클럽) 활동 등을 통해서 친구들과 연락하는데 이는 학교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과도 교우범위를 넓히는 작용을 하는가?					
- 하루 문자발송, 수신 회수 - off line 친구와 on line 친구가 동일한가? 주고 받는 내용					
주로 만나곳(시기별:주중, 주말, 생일파티,					

여행, 방학 중, 시험후, 평소 등)					
가정배경(가정형편, 부모의 직업·학력)					
친구들 사이의 의사결정관계 : - 돌아가면서 정한다/각자 의견을 내놓고 의견을 나눈다/한두명이 의견을 내놓고 남들은 따라한다. - 또는 친구사이에서의 자신의 위치(역할)에 대하여(예: 리더 역/분위기 메이커 역/추종자 역 등등)					
위의 친구 사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만족 여부(하고 싶은 역할)					
친구들과의 대화 중 가장 많은 내용은 무엇인가? 최근의 화제거리 등					
상급학교 진학(또는 공부)와 친구관계에 대하여 (본인의 공부/진학 의욕, 친구의 공부/진학 의욕) :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친구의 학력(공부수준)에 대하여(마음에 걸리는지, 아닌지, 어떤 친구, 친한 벗의 학력이 마음에 걸리는지) 등.					

- ① 마음에 맞는 친구란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는가? (위의 친구들의 특징을 말해도 좋음)
- ② (위의 친구들을 생각하며) 친구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모, 말솜씨, 성적, 성격 등)
- ③ 위 표에 **이성친구**가 있는지, 없다면, 위 표 이외에 이성친구가 있는가?
 - (③-1) 있다면 어느 정도 사귀었는지, 부모님 등 주변의 반응, 주로 함께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 (③-2) 없다면 앞으로 사귄 생각은 있는지, 또는 그러지 않다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등
- ④ **방과후/휴일/놀토**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및 내용(주로 무엇을 하는가?)
 - ※ 놀토에 주로 하는 것 / 매주 토요일 학교에 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학원을 더간다. / 집에서 공부한다/그냥 논다/부모님들께 함께 시간

을 보낸다.)

- 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
- ⑥ 친구들 사이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떤 성향의 친구들인가?
- ⑦ 친구와 싸운 경험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경우 싸움이 일어나는가?
- ⑧ 생활을 공부, 취미활동, 가족관계, 친구관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어느 영역이 가장 중요한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 중 가장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은?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또는 사람)
- ⑨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의 간섭/관심 (부모에 의한 간섭의 유무 / 간섭하는 경우 / 부모가 원하는 친구 / 부모님들은 친구들과 관계를 잘 알고 계시는지?)

III. 교사 및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

- ①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존경하고 좋아하는가?)
- ②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점이 싫은가?)
- ③ 선생님과 관계에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질문변경
요망
- ④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되는가?(훌륭한 교사의 조건은?)
- ⑤ 담임선생님이 나에게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나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⑤-1)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⑤-2)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에서 나에게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나를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가?)
- ⑥ 기타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지? (교장, 교감 선생

님의 경우는)

- ⑦ 학교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부 및 성적, 친구, 교사와의 관계 및 역할모델 등)
- ⑧ 학교생활이 전반적으로 행복한가, 불행한가?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진술요)
- ⑨ 학교생활이 재미있는지, 재미있다면 무엇 때문에 재미있는지?

IV. 기타 활동 및 사교육

- ① 학교에서의 특기적성 참여여부
- ② 특별활동, 동아리활동여부, 외부동아리 활동 포함
- ③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학원, 과외, 교육방송, 인터넷방송 등)
 - 사교육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 이 때 성적에 대해서 물어봄.
- ④ 학원교사에 대한 생각, 학교 선생님과 학원선생님의 차이
- ⑤ 진학에 대한 관심(고등학생의 경우, 유학 및 대학진학, 중학교의 특목고 진학에 대한 관심, 또는 인문계, 실업계 등)
- ⑥ 직업에 대한 관심 : 하고 싶은 일 (직업모델)
 - 아버지 어머니 직업을 이때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
 - 혹시 그 직업이 부모님 직업과 관계가 있는지 물어보고, 아니라면, “그런데,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지?” 식으로
- ⑦ 아르바이트 경험/용돈의 출처/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사용처/수입액 등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김기현·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김신영·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김영호·이민희
 07-R05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장근영·김형주
 07-R05-1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인권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박창남·이중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김희균·조아미·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권일남·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 실태와 대책 / 성운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최인재·설인자·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혜연·서정아·조홍식·정익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
 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김은정·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
 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배지혜·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le,
 Bethany Willis Hepp·Gudrun Quenzel·Michaela Janotta·Janina Hermann·Hideki Watanabe·
 Shigeki Matsuda·Yasuaki Aota·Masayuki Ozawa·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한민족 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태기 · 임영언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과 생활실태연구 / 임영상 · 황영삼 · 고가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인나 (자체번호 07-R13-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저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수시과제

-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운숙
-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 · 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 07-R22 초등학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용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 · 장근영 · 김남정 · 박정배
-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 · 안전 · 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양계민
-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 · 임희진
-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 · 연구철 · 이교봉
-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강홍렬 · 고원 · 김민 ·
김은경 · 김지선 · 김현주 · 나의순 · 미경희 · 손승영 · 손유미 · 우명숙 · 이승현 · 임천순 · 전상진 ·
주용국 · 진미석 · 채재은 · 최규종 · 최순종 · 최화영
-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고원 · 강홍렬
-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 · 김기현
- 07-R38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사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 조혜영 · 이창호
- 07-R39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인재 · 김경준 ·
백혜정 · 강진구 · 김태희 · 송미경 · 이유미
-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 · 조혜영 · 이춘화 · 김경준 · 김현철 · 김기현 · 임희진 ·
임지연 · 길은배 · 김민 · 유홍식 · 전명기
-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 · 김은정 · 백원근 · 허병두
-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 · 황진구
-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조사 연구 / 김영한 · 송병국 · 오홍석
-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 · 장근영 · 김호순
-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 · 김승규 · 송순재
-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 · 김기현
-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김형주
-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 · 이경상
-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 오해섭 · 이혜연
-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 · 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 (1.23~24)
- 07-S02 「Internation Conference on Changing Fama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 (4.20)
-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 (5.12)
-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 (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 (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 (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 (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 (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9.14)
- 07-S14 「한민족 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 (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 (12.24)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 07-R12-1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경성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 978-89-7816-704-8 (93330)